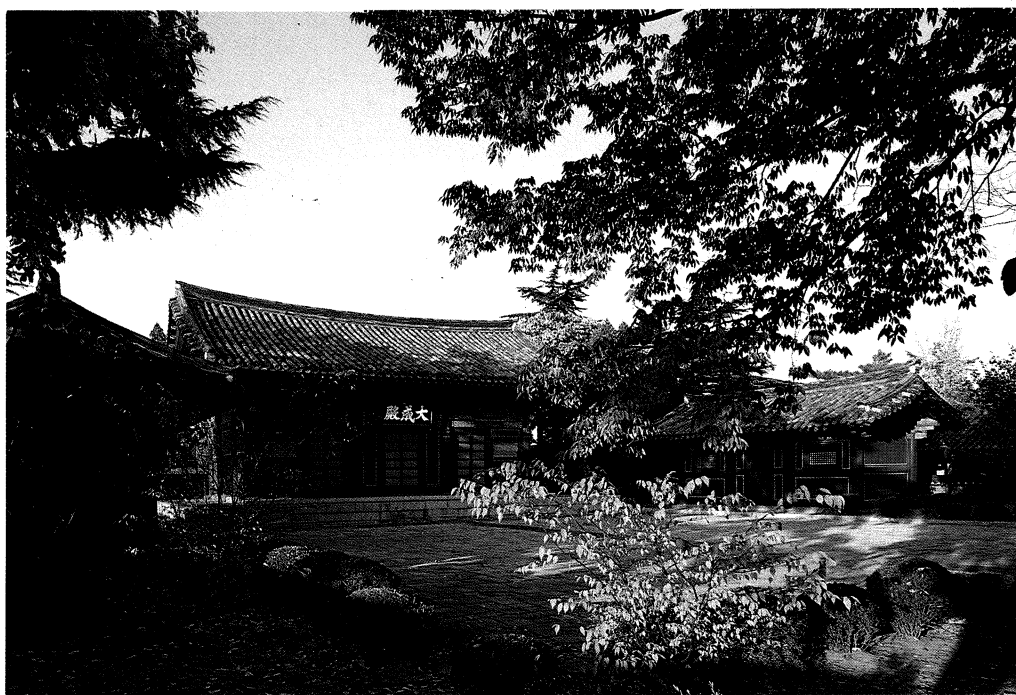


第四篇 朝鮮前期



大邱鄉校 大成殿(文化財資料 第1號)

第1章 地方雄府로서의 大丘都護府의 成長

第2章 大丘府의 社會・經濟的 成長

第3章 朝鮮前期 文教政策과 大邱의 文化

第4章 倭・胡兩亂과 大邱

第四篇 朝鮮前期

第1章 地方雄府로서의 大丘都護府의 成長

第1節 朝鮮初期 地方制度의 整備와 大邱

I. 郡縣制의 整備와 大丘府域의 擴張

大丘는 麗末까지 한개의 조그마한 縣이었으나 世宗元年 郡으로, 세조 12년 다시 都護府로 점차 발전하였다. 이러한 대구의 성장은 인구의 증가 및 거기에 따른 농업의 발전, 조세의 증가 등 당시 대구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지만 이는 결국 鮮初의 군현제 정비에 따른 대구 府域의 확대와 결부된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지방통치에 있어서 秦漢 이래 중국의 郡縣制를 기본방식으로 확정해 놓고 일련의 정비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지방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어 마침내 15세기초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고려조의 다원적인 道制가 일원적인 八道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획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屬縣과 鄉所部曲 등 任內의 정리, 小縣의 併合, 郡縣名號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15세기에 정비된 道制와 郡縣制를 비롯한 지방행정은 중간에 부분적인 개편은 있었으나 이후 큰 변동은 없었다.

高麗이래 中央政府와 병렬해 있는 地方政權의 존재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의 집권층인 양반사대부들은 〈郡縣制〉와 같은 중앙집권제를 발달된, 또 최선의 지방통치방식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堯舜三代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면서도 周代의 〈封建制〉에 대해서는 비판하였고 秦漢이래 中國의 군현제에 맞지 않는 高麗朝의 군현제를 중국적인 것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군현제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의 地方行政은 15세기에 획기적으로 정비되

었다. 그러한 지방제도에 관한 일련의 개혁은 中央官制, 軍制, 田制, 收取體制 등의 정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었고, 그것은 또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어서 국가지배기구의 중요한 개혁이다. 따라서 당시의 地方行政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지방통치체제의 현상을 究明하는 데 그치지 않고 兩王朝의 지방제도와 사회구조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방통치체제는 중앙의 관료체제와 마찬가지로 양반관료의 권익을 일차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으며, 지방행정이란 것도 결국 양반의 지배체제를 부지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통치의 방식은 왕권의 강약과 勳舊·士林派란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15세기는 지방제도의 개혁이란 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즉 고려의 五道·兩界가 八道體制로 확정되고, 신분적이며 다원적이던 郡縣制가 일원적으로 행정구획화되며, 事審官制가 京在所와 留鄉所로 분화 발전해 나가고, 종래의 屬縣과 鄉·所·部曲이 소멸, 直村化하면서 새로운 面里制로 점차 개편해 나갔던 것이다. 경재소와 유향소는 무엇보다도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그들이 소유한 外地의 토지와 奴婢를 효과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이제까지 군현지배권을 갖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그들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경재소는 1읍 1所の 원칙대로 主邑을 단위로 조직된 것 같으며 각 邑의 京邸와 병존하면서 해당 읍의 유향소를 거느리고 있었다. 유향소가 초기에는 군현지배권을 향리로 부터 인수받기 위해서 경재소의 힘을 빌렸던 것이며, 在京官人들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배경으로 각자 緣故地의 지방행정은 물론, 자기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부식해 갔던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영역에는 행정구역, 행정기관, 행정조직 등을 비롯한 官治行政機構는 물론, 面里行政과 유향소 등 鄉村社會의 自治의 분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를 거론할 때는 郡縣制가 가장 핵심을 이루는 문제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파생된 外官制와 面里制 및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 각종 행정체계에 관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는 政治史 내지 制度史 분야에 해당되지만 社會史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郡縣制란 원래 秦·漢 이래 중앙집권적인 地方行政制度로서 전국에 동일한 政令을 가지고 行政區劃을 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선임한 守令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취급하게 하는 제도이며, 郡縣은 君主가 획일적이고 집중적인 권력을 관료기구를 통해 지방주민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현제도가 한국에서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수입되어 형식적인 모방을 해왔으나 그 구체적인 실체는 신라·고려·조선왕조에 따라 각기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九州·五小京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군현제도는 羅末麗初에 와서 해체·개편되었고, 고려는 다시 신라의 군현제를 바탕으로 그 위에 고려 나름의 독특한 군현제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고려의 군현제는 후삼국통일 직후인 太祖 23년(940년)을 전후하여 최초로 전국의 군현편제를 개편한 뒤, 成宗朝를 거쳐 顯宗朝에 가서 전국을 京·牧·都護府로 나누고 그 관할구역내에 知州(郡)事·防禦使·縣令 등의 守令과 任內를 領屬시킴으로써 비로소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고려초기의 군현제는 형식상 唐·宋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그 실체는 후삼국시대 각 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토착세력인 豪族의 계층적 편성이었다. 군현의 沿革과 在地勢力의 동향과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邑格의 陞降과 郡縣名號의 개정, 구역의 개편, 外官의 설치 및 鄉職의 개혁 등은 고려의 집권화와 在地勢力의 군현지배권을 收斂하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다.¹⁾

이러한 고려전기의 군현제는 중기이후 서서히 변모하여 마침내 麗末鮮初가 되면 州·牧 중심의 道制가 확립되고, 그 밑에 州府郡縣을 주축으로 하는 일원적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명실상부한 지방행정구획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군현제의 획기적 발전은 고려중기 이래 屬郡縣에 대한 監務의 계속적인 파견과 속현 및 鄉·所·部曲 등의 개편 내지 정리 작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비작업은 조선 太宗朝(1401~1418)를 전후한 15세기에 실시되었다. 즉 이원적인 고려의 道制를 일원적인 八道體制로 개정하고,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郡縣體制를 명실상부한 행정구획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소·부곡 등 任內의 정리, 小縣의 併合, 군현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의 〈秩卑人微〉한 監務를 士流 출신의 縣監으로 대치하고 守令의 직급을 올리고 ‘久任法’과 ‘部民告訴禁止法’을 실시하는 등 外官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종래 군현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鄉吏를 점차 地方官署의 行政使役人으로 격하시킨 것 등 일련의 중앙집권적 兩班官僚體制의 강화책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초기 太宗朝를 전후하여 획기적으로 개혁된 道制와 郡縣制를 비롯한 지방행정은 15세기에 정비된 뒤 중간에 부분적인 개편은 있었으나 1894년 甲午改革때까지 큰 변동은 없었다. 이에 반해 15세기 이래 鄉村社會의 성장에 따른 面里制와 향촌사회 自治의 行政體系는 특히 17세기부터 장족의 발전을 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倭亂과 胡亂을 겪으면서 首都圈의 방어체제를 재정비 강화하는 데서 4개의 留守府體制가 새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 일련의 군현제 정비책은 위로는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를 개혁하고 아래로는 조선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의 五道兩界制가 八道體制로 고정되고,

1) 李樹健 〈朝鮮初期 郡縣制 整備에 대하여〉, 《嶺南史學》1, 1971.

다분히 신분적이며 다원적이던 郡縣體系가 戶口·田結數에 따라 일원적으로 행정구역화되며, 사심관계가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해 나가고, 종전의 任內(혁파되기 전의 속현과 향·소·부곡 등)가 直村化하여 面里制로 개편되며, 〈土姓吏民〉중심의 鄉邑支配가 土族中心의 鄉村 지배체제로 대체되어 나가는 현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兩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가령 8도체제가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전기에는 監司의 임기가 남부 6도와 북쪽 兩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 양계는 〈率眷兼尹〉한테 비해 6도의 감사는 單身到界하여 1년 임기동안 道內 郡縣을 늘 巡歷했던 것이다. 한편 전기에는 전국적으로 任內가 84개(속현 72, 부곡 11, 향 1)가 존속해 있어서 후기처럼 面里制가 전국에 일제히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지방에 直村과 任內가 병존하고 있었다. 또 향리의 역할도 종전에 비해 현저히 감축되었다고는 하지만, 후기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일부 지방에서는 임내의 지배를 맡고 있었고, 在地土族의 분포도 아직 일부 군현에 偏在되어 있었다. 이런 군현에는 土姓吏族이 지방행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전기에는 고려의 사심관제를 답습한 京在所가 각기 該邑의 유향소를 거느리고 지방행정에 크게 관여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임진왜란을 겪은 뒤 완전히 폐지되었다.

조선초기에 단행한 지방제도 정비책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이지만 한계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즉 道制와 군현구획의 개편, 任內의 直村化, 郡縣併合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시도도 해보았지만 戶口와 田結數를 기준한 합리적 개편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현병합의 한계, 경재소와 유향소의 存置, 임내와 직촌의 並列, 越境地와 犬牙相入地의 광범한 존속 및 강력한 在地勢力의 존재 등의 사실을 가지고 후대적인 관점에서 中央執權化가 제대로 되지 않은 地方分權의인 성격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지방통치의 미숙성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역사가 繼起的으로 발전한다고 볼 때 그러한 체제가 조선초기 지방통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편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체계가 王(中央政府)→監司→守令→面里任으로 이어져 있듯이, 행정구역도 크게 道→州·府·郡·縣→面→里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구획은 縱的인 상하관계로 볼 때는 크게 3층을 형성하여 牧民之官인 守令이 관할하는 군현(邑=고을)을 중심으로 위로는 상급행정구역인 8개의 道域으로 편성되어 있고 아래로는 군현의 관내에 하부행정구역으로 面(坊·社) 또는 그 밑에 里(洞·村)로 편성되어 있다. 《世宗實錄》地理志를 편찬하던 조선초기만 해도 각 지역의 姓氏 本貫이 州·府·郡·縣과 村 또는 鄉·所·部曲·處·莊별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할 때에는 이미 소멸된 군현이나 향소부곡들도 그 구역이 파악되는

것은 모두 〈古跡〉條에 기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地理志 소재 각 읍의 沿革과 각종 任內까지도 그 지역적 유래가 꽤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地志인 《三國史記》地理志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中宗 25년, 1530)까지의 역대 지지에 의거, 군현의 연혁과 그 구역의 변동을 살펴보면, 옛 城邑國家시대의 國·城·村이 삼국 내지 통일신라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군현제를 모방하여 州·郡·縣으로 개편되어 갔다. 그 후 후삼국시대 〈府〉의 설치와 함께 고려의 군현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군현의 名號와 邑格의 陞降, 外官의 置廢 및 領屬관계는 변천을 거듭했지만 각 구획의 原區域 그 자체의 분할이나 분해작용은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신라 내지 고려의 군현제는 형식상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래의 성읍국가체제 위에 군현제라는 의상으로 장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조선 양왕조의 천여년을 경과하였지만 古來의 城邑의 잔해가 최근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구역에는 각기 〈土姓吏民〉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편찬자들은 각읍 성씨조를 정리하면서 그 廢邑이나 향·소·부곡 등은 비록 혁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곳 성씨의 出自地, 즉 본관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이미 혁파되고 소멸된 구역들도 각 읍의 고적조에 기재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소재 주·부·군·현과 향·소·부곡 등은 고려 이래 지방행정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행정구역인 동시에 姓氏의 출자지로 본다면 각기 本貫이 되는 셈이며, 그 규모와 형세에 있어서는 大小強弱의 차이가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거 15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한양과 개성을 제외한 전국의 군현과 폐읍 및 기타 구역을 통계해 보면 다음 〈表 1-1〉과 같다.²⁾

〈表 1-1〉 《新增東國輿地勝覽》所在 郡縣區域의 道別 統計

도별			경 기	충 청	경 상	전 라	강 원	황 해	평 안	함 경	합 계
구분											
主 邑	數		37	54	66	59	26	24	42	22	330
屬 縣	數		5	7	44	2	12	·	·	2	72
廢 縣	數		18	13	19	65	8	5	2	11	141
部 曲	數		18	69	209	78	10	·	3	·	387
鄉	數		11	21	32	50	3	7	6	·	130
所	數		7	61	42	90	33	10	·	·	243
處	數		14	9	2	3	3	4	·	·	243
莊	數		4	2	1	·	1	1	·	·	9
驛	數		54	71	158	60	82	31	39	54	549

2)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p. 113.

위 〈表 1-1〉 소재의 主邑(개성부 포함) 331, 속현 72, 폐현 141의 합계 544읍은 신라의 九州所管郡縣 450에 고려시대 北境開拓에 따라 兩界의 新設州鎮이 가산된 것이며, 또한 前代의 군현 가운데 일부는 麗初의 정비기에 와서 폐읍이 되기도 하고 일부 군현은 종래의 향·소·부곡에서 승격된 것도 있었다. 이러한 군현과 향·소·부곡은 고려 太祖이래 승격과 강등, 併合과 廢合, 領屬의 변동, 任內의 直村化 등 변동은 빈번하였지만 그들의 原區域만은 좀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15세기 地理志편찬 때까지 존속되었던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소재 군현과 폐읍 및 과거의 향·소·부곡 등의 소재지를 현지 답사해 보면 대략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그 구역의 유래가 강인하게 후대까지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곳은 韓末까지 그 邑治의 규모에 따라 監營·界首官·中小郡縣의 邑治 및 〈面〉의 중심지로 존재했으며, 다시 그곳을 시기적으로 소급하면 옛 성읍국가의 중심지로서 그 주위에는 古墳群이 있으며 또 크고 작은 山城이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산성은 군현 뿐만 아니라 향·소·부곡의 遺址 부근에도 간혹 있다. 역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 왔기 때문에 邑治나 村落은 평야지대 보다는 전략적 要塞地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곳은 대체로 背山臨水했기 때문에 방어와 피난, 땀감과 식수 조달 및 관개용수 확보상 유리했던 것이다. 둘째는 행정구역으로서의 邑格과 本貫으로서의 地望 및 外官의 有無에 따른 主邑과 任內의 區分은 대체로 그 위치가 농업생산성의 우열과 비례하고 있었다. 가령 신라시대 9州 5小京이나 고려·조선시대 각도 界首官의 邑治와 中小郡縣·속현 및 향·소·부곡司가 있던 곳을 답사해 보면 그러한 특징을 곧 발견하게 된다. 즉 大邑의 邑治보다 다소 협소한 곳에 중소군현의 邑治가 있고 그보다 더 열악한 곳에 향·소·부곡司가 있었다. 따라서 邑格의 高下는 동시에 그 곳을 본관으로 하는 土姓吏民勢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본관의 우열과 在地勢力的 강약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15세기 전반에 조선왕조의 북쪽 국경선이 鴨綠江과 豆滿江으로 확정되고 전국이 8道체제로 확립되었으나 군현의 구획에는 종래의 兩界地方과 남부 6道(고려시대 5道地域)지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왕조는 8도체제를 확립시키면서 군현의 하부행정체계를 전국적으로 一體化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단시일내에 쉽게 성취되지 않았다. 面里制의 실시에도 道에 따라 面·坊(평안·황해도지역)·社(함경도)가 동시에 운용되었다. 무엇보다 지역간 뚜렷한 차이는 양 계지방과 남부 6도가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은 옛 신라의 영역으로, 이곳에는 신라의 遺制를 계승한데 반하여 그 이북지방은 고려초기 이래 北進정책에 의하여 새로 개척한 영토였다. 그래서 양 지역은 처음부터 주민의 성분과

존재상태, 행정구획 및 지방통치제도가 상이하였다.

兩界地方은 주민의 성분상 土姓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남부지방에서 徙民入居해 온 入鎭姓·來姓·入姓들이었다. 또한 이 지방에는 州와 鎭이 주로 설치되었고 이남 6道지방에 산재한 속현이나 향·소·부곡 등은 없었다. 이곳은 고려이래 북진책에 의하여 새로 개척한 지역으로 처음부터 옛 신라의 영역처럼 복잡한 遺制는 없었다. 단지 原住族인 女眞을 만주쪽으로 몰아내고 확보한 지역에 남부지방의 주민을 徙民시키고 設州置鎭했던 것이다. 그 州鎭의 하부구획에 村·戍·城·堡 등이 있고 또 元의 영향과 여진의 遺制에 의하여 종전의 村 또는 鎭이 〈社〉로, 〈伊彥〉이 州郡으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남부 6道지방은 군현 및 군현의 하부구획이 매우 복잡하였다. 즉 任內가 移屬해도 분할 이속은 극히 드물었고, 임내가 혁파되어 直村이 되고 직촌이 다시 面里로 개편되어도 그 구역만은 과거의 구획을 지닌 채 내려왔다. 조선시대 군현 구역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邑治(읍내·城內), 直村, 任內 및 越境地로 구분되며, 군현지역의 당초 구성요소도 ①신라시대의 9州·5小京처럼 하나의 邑治를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직촌과 임내로 구성되어 있는 大邑, ②古來의 城 또는 村이 몇개 합쳐 하나의 군현이 된 경우, ③과거의 속현 또는 향·소·부곡 등이 바로 主縣으로 승격되면서 부근의 任內를 移屬시키는 경우, ④수개 이상의 直村이나 任內가 합쳐서 하나의 군현이 된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³⁾

太宗朝에 8도체제가 확립된 뒤 각 도역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각 道界는 신라시대의 9州, 고려시대의 12牧 혹은 8牧 및 10道 등의 구획이 고려된 바탕위에서 점차 ‘五道兩界’체제로 도역이 정해져 갔으며, 특히 5도지역은 楊廣忠清州道·全羅道·慶尙晉安道·交州江陵道하는 식의 각 도내 州牧의 邑名을 組合한 道名이 정착되면서 道域도 각 界首官의 領屬관계에 있는 군현분포를 고려하여 조정되어 갔던 것이다. 여기에는 왕조교체에 따라 수도의 이전, 科田法의 실시에 따른 도역의 재조정 및 山川地勢와 같은 보다 합리적인 기준 등이 고려되었는가 하면 또한 역사적인 전통을 重視한 것 같다. 조선초기 8도의 편성도 고려 이래의 기존 편제를 존중하였고 도역의 개편에는 邑界의 재조정에 따른 土姓吏民간의 분쟁과 같은 문제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태종조 8도체제의 정비에는 郡縣制 정비에 따른 분쟁과 같은 사례는 별로 없었고 당시에 편성된 각 도역이나 道界도 중간에 큰 변동없이 韓末까지 존속되었던 것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거하면 경상도는 太宗 13년 도역이 개편된 이래 韓末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감영은 개국초에 경주에 있다가 世宗初부터 尙州로 옮겨 壬亂때까지 존속되었다.

3) 李樹健, 〈直村考－朝鮮前期 村落構造의 一斷面－〉, 《大丘史學》 15·16합, 1978.

태종 7년 10월 平壤府尹 尹穆이 평안도 감영의 安州移營을 반대하는 上疏에서 경상도의 감영이 慶州에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니, 그때까지는 경상도 감영이 분명히 경주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 7년에 편찬한 《慶尙道地理志》尙州牧條에 “태종 8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尙州牧使를 兼判하였다” 하니 이때부터 상주가 경상도의 감영이 된 것 같다. 경상도는 타도에 비해 ‘地廣人衆’이란 이유로 태종 7년에는 洛東江을 경계로 강의 서쪽을 右道, 동쪽을 左道로 分道하기도 하였고, 中宗 14년(1519)에는 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종전의 구분대로 分道하여 우도감사는 尙州牧使를 겸하고 좌도감사는 慶州府尹을 겸하게 하여 2명의 감사를 둔 적이 있으나 己卯土禍로 인해 동년 12월에 다시 환원되었다. 그 뒤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도로가 불통되자 그해 8월에 다시 左·右道로 나누어 韓孝純을 좌도, 金誠一을 우도감사로 임명하는 등 離合이 반복되다가 동왕 26년 10월에 다시 합치고 동 32년에는 경상도도 양계와 같이 留營을 설치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정착될 때까지는 감영이 여러번 옮겨졌다. 선조 26년 10월 경상左·右道를 합칠때 감영을 星州 속현 八莒縣에 설치하였다가 동왕 28년에 또다시 ‘地廣難治’라 하여 좌·우도로 分道했다가 동 29년에 還合하고 감영을 大丘의 達城에 두었다.

그러나 선조 30년 丁酉再亂으로 달성 감영이 燒盡되자 還罷하고, 이어 동왕 32년 감사 韓浚謙과 體察使 李德馨이 狀啓를 올리기를 “大丘와 星州는 一道의 中央이지만 戰亂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安東에 留營케 해달라”는 奏請으로 안동에 감영이 설치되었으나, 감영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여 선조 34년(1601) 체찰사 이덕형의 제창 狀啓로 一道의 中央인 大丘府에 감영이 정착되어 韓末까지 존속해 왔다. 경상도 감사가 감영의 소재 邑官을 겸임한 시기를 살펴보면 태종 8년, 세종 30년~端宗 2년, 中宗 14년, 선조 32년, 顯宗 10年, 肅宗 10年 등 兼官與否가 누차 반복되다가 英祖 34년(1758)부터 1894년까지 경상도 감사는 大丘府使를 겸하게 되었다.

경상도의 사방경계는 동쪽과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은 智理山 또는 減陰縣의 六十峴에 이르며 북으로는 죽령 및 聞慶縣의 草岾(鳥嶺)에 이르고, 동서의 거리가 376리 남북이 448리가 되며, 소관邑數로는 府尹 1, 大都護府 1, 牧 3, 도호부 6, 군 15, 縣令 6, 縣監 34읍이었다.

大丘는 朝鮮初期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지대로서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었으나 行政의 도시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軍事的·交通의 要地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宣祖 34년에는 감영이 설치되었으며 이로서 大丘는 嶺南을 代表하는 政治的·行政的·軍事的·經濟的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大丘’로 稱號가 정해진 것은 新羅 景德王(742~764)때 부터이며 高麗末期에는 尙州牧에 屬해 있는 京山府(星州)의

屬縣 14개 가운데 하나로 花園縣과 河濱縣을 領屬하고 縣令이 부임해 있었다. 조선 太祖 3年 3月에는 監務가 있었던 壽城縣과 解顔縣을 大丘에 領屬시켰다가 그 이듬해에 慶州에 移屬시켰으나, 太宗 14年(1414)에는 다시 수성현과 해안현을 大丘에 합쳤다. 이때 해안현은 잠시 直村이 되었다가 太宗 17년에는 다시 解顔縣이라 稱해지고 大丘縣의 屬縣이 되었다. 世宗 元年(1419) 5월에는 大丘縣이 郡으로 승격되었고 壽城도 다시 縣이라 칭해져 大丘郡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말기에 이미 대구의 속현이었던 花園縣은 그동안 大丘에서 星州牧에 移屬되어 世宗 7년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에는 대구군의 속현으로 壽城·河濱·解顔의 3縣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麗末以來의 변화는 大丘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종 원년 5월에 대구현이 郡으로 승격한 것은 居民이 1,300戶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당시의 戶口는 戶數 1,249, 口數는 男女 8,629口로 이는 大丘本郡과 壽城·河濱·解顔 3縣을 합한 총수이다. 이와같은 대구인구의 증가는 대구 주변에 있는 평야에서 농업 등 산업의 발전과 잉여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점차 커져 나간 점, 그리고 交通의 편리로 인한 인구집중 등이 그 원인이었다고 보인다.

세조 12年(1466)正月에는 大丘郡이 都護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는 대구가 급격하게 성장되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요인은 ①大丘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구는 사방에 평야를 둔 교통요지였기 때문에 도시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②鎭管制의 확립에 의한 大丘鎭의 성립이다. ③量田에 의한 租稅의 增收이다. 이와같이 大丘는 交通·軍事·經濟의 中心지로 그 중요성이 가중되어 都護府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壬亂이 끝난 宣祖 34年(1601)에는 監營을 安東府에서 大丘府로 옮기게 되면서 大丘府는 慶尙道의 정치·문화·경제적 중심지가 되어 조선조말기까지 계속 발전하여 우리나라 大都市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大丘本郡의 강역은 《慶尙道地理志》에 “東은 任內 壽城縣의 境內 大洞 사이 8里 194步, 西는 河濱縣의 境界 達川, 거리 18里 349步, 南은 壽城縣의 境界 金龍橋, 거리 2里 267步, 北은 星州 任內 八莒縣의 境界 琴湖, 거리 9里 110步”로 기록되어 있다.

大洞은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나 大丘郡治의 東쪽으로 8里 정도가 되는 지점은 대개 지금의 新川洞·泛魚洞 주변이다. 西쪽 境界인 達川은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府 山川條에 “達川津은 河濱縣의 東쪽 16里에 있고 琴湖江 下流이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達城郡 多斯面 達川洞 동쪽 白木浦 渡船場 부근이 된다. 金龍橋는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며 郡治에서 2里 267步 떨어진 곳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면 大鳳洞 陸軍官舍 부근의 교량이었다. 八莒의 縣境 琴湖는

《慶尙道地理志》八莒縣(지금의 漆谷)條에 “東쪽은 大丘郡의 境界 鼎峴에서 5里 100步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南쪽은 大丘郡의 境界 琴湖에서 10里 270步 떨어져 있다”고 하여 지금의 八達橋 부근의 琴湖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상황을 정리해 보면 大丘 本邑의 疆域은 東西로 26里 543步, 南北으로 11里 377步로 東西間의 거리가 남북간의 거리에 2배가 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現在 達城郡 城北面·達西面 전부와 琴湖江 동쪽의 城西面 및 大丘府에 접근된 壽城面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大丘는 本邑의 疆域 이외에 3개의 屬縣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壽城·河濱·解顔이었다. 그러면 《慶尙道地理志》에 의거 이들 속현의 疆域에 대해 일별해 보기로 하자. 먼저 壽城縣은 “동쪽으로 慶山縣의 境界 凡積峴까지 거리 11里 100步, 南쪽은 淸道郡의 境界 八助峴까지 거리 27里 130步, 서쪽은 星州 任內 花園縣의 境界 甘勿川까지 거리 12里 10步, 북쪽은 大丘郡의 境界 金龍橋까지 거리 5里 233步이다”라 하였다. 동쪽 境界인 凡積峴은 慶山·達城의 郡界인 堂峴일 것으로 생각되며, 八助峴은 지금 八助嶺으로 칭해지는 淸道·達城의 郡界이다. 서쪽 境界인 甘勿川은 추측컨대 지금의 聖堂洞일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聖堂池 및 甘三池 부근에 根源을 두고서 여러 小流와 합쳐서 地山洞에 이르러 洛東江에 注入하는 小川을 古名에 甘勿川이라 하고 그 부근 一帶地域을 甘勿川坊이라 지칭하였기 때문이다. 金龍橋는 상술한 바와 같이 陸軍官舍 부근이다.

河濱 屬縣은 “東쪽으로 大丘郡의 境界인 賓樹까지 거리 14里 80步, 西쪽은 星州의 境界 東安津까지 거리 12里, 南쪽은 星州 任內의 花園縣 境界인 今音勿灘까지 거리 15里, 北쪽은 星州 任內인 八莒縣의 境界 狄村까지 거리 8里 3步”이다. 옛날 하빈의 縣治는 지금의 達城郡 河濱面 縣內洞에 있었다. 賓樹는 大丘·하빈의 境界 達川 즉 오늘날의 白木浦 渡船場 부근에 해당된다. 東安津은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府 山川條에 “東安津은 하빈현의 서쪽 16리에 있다”고 하여 지금의 하빈면 霞山洞 渡船場 부근을 말한다(이것은 규장각본 嶺南地圖에 江亭津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今音勿灘은 지금의 達城郡 城西面 巴湖洞 부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하빈면 縣內洞에서 巴湖洞까지는 18里 정도이며 과호동 부근의 舊名은 琴回洞으로 琴回와 今音勿과는 원래의 발음이 근사하기 때문이다. 狄村은 漆谷의 郡界인 內地洞부근에 해당한다.

解顔 屬縣의 疆域에 대해서는 “東쪽으로 慶山縣의 訥古介까지 10里 120步거리, 西쪽은 星州 任內의 八莒縣의 境界 餘乙峴까지 28里, 南쪽은 壽城縣의 境界 苐之까지 6里, 北쪽은 義興 속현

岳溪縣의 경계 大峴까지 30里”로 되어 있었다. 解顔縣治는 지금의 해안면사무소가 있는 立石洞이며 경산현과의 경계인 訥古介는 지금의 達城·慶山의 郡界에 가까운 慶山郡 安心面 栗巖洞 부근으로 추측된다. 서쪽으로 八莒縣과의 경계에 있는 餘乙峴의 위치는 확실치 않다. 남쪽의 茆之는 지금의 峨洋鐵橋부근일 것 같고 北境大峴은 아직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軍威·漆谷·達城 三郡의 경계가 되는 大峴洞이다.⁴⁾

지금까지 살펴 본 大丘의 三屬縣은 縣令을 두지 않은 縣으로 大丘知郡事의 직할지역이며, 이 3현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는 大丘郡과 합쳐 일부는 중앙정부에 上納하고 나머지는 대구군의 經常費로 하였다. 따라서 대구군이라 하면 지금의 大丘府와 達城郡 公山面·解顔面·城北面·河濱面·城西面·壽城區·嘉昌面 및 達西區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大丘府域을 地圖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지도와 같이 조선 건국초까지 일개 縣으로 내려왔던 大丘縣이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에 따라 수성·해안·하빈의 3개 속현을 屬屬시킴으로서 경상도 中央의 雄府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에 大丘는 姓氏 構成에서 土姓 17, 來姓 11, 續姓 7로 되어 있다. 인구증가의 원인은 대구가 達城平野와 壽城平野·解顔平野를 끼고 있어 풍부한 농산물의 산지였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구지역의 관개시설로서 堤堰만 하더라도 22個所나 되어 상당한 정도의 旱田이 水田으로 전환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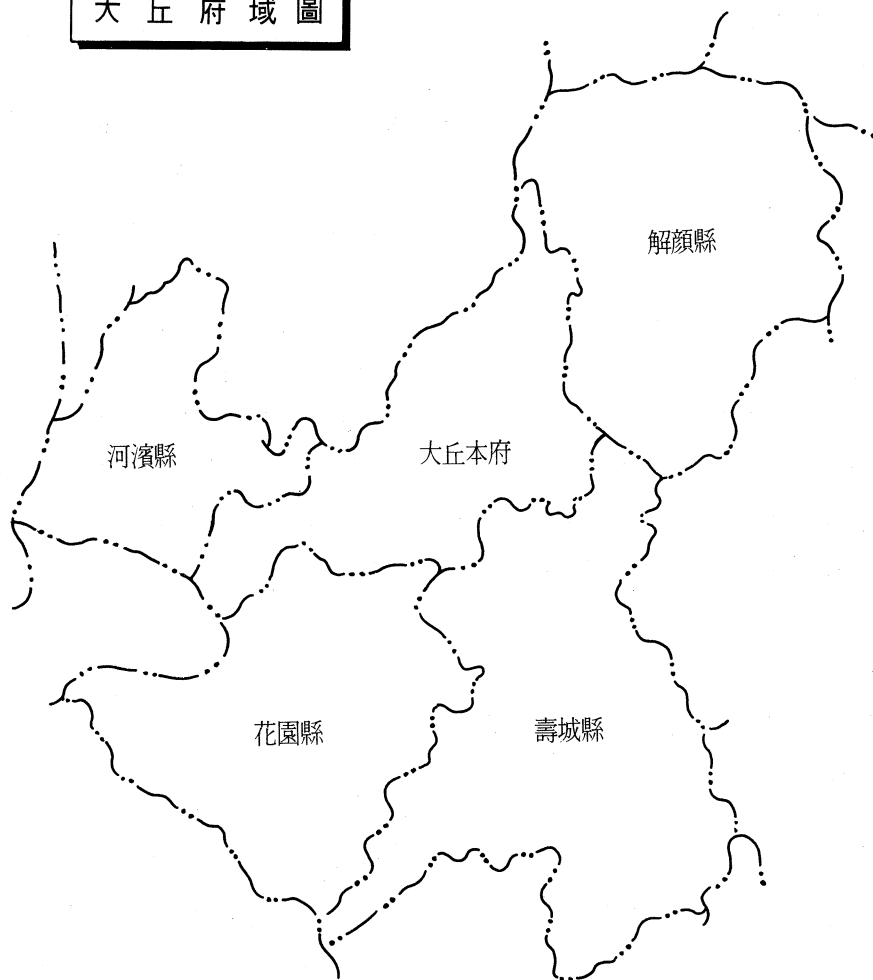
II. 大丘府의 行政體系와 面里編成

大丘가 縣이었을 때에는 縣令(從 5品)이 있었고, 세종 元年 郡으로 승격했을 때에는 郡守(從 4品)가 있었으며, 世祖 12년(1466) 都護府로 승격했을 때에는 都護府使(從 3品)가 있었다. 국가의 공교육 기관인 향교에는 대구가 郡縣이었을 때 訓導(從 9品)를 두었으며 府로 승격했을 때에는 教授(從 9品)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交通行政에 관한 특수직으로는 察訪(從 6品), 驛丞(從 9品), 渡丞(從 9品) 등이 있어 驛과 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인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수령은 그 邑勢의 규모에 따라 관계상 최고 종2품에서 최하 종6품에 걸쳐 있는 府尹·大都護府使·牧使·府使·郡守·縣令·縣監이 파견되었다. 이들 수령은 행정체계상으로는 모두 並列的으로 직속상관인 監司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다만 이들 수령이 겸대하는 군사직으로 말미암아 수령간에 상하의 계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誌》大丘郡條.

大丘府域圖



〈圖 1-1〉 조선전기 大丘府域圖(《嶺南地圖》, 英祖年間, 영남대 박물관 소장)

이러한 군현의 守令行政體系는 국초의 초창기를 거쳐 太宗朝에 정비되고, 世宗朝의 補完期를 거쳐 마침내 《經國大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담기게 되었다. 그러나 군현의 행정조직은 그후 道制와 面里制의 발달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되어 갔던 것이다. 즉 行營에서 留營체제로 발전함에 따라 위로는 감사 또는 監營과의 행정체계에 변화가 수반되었는가 하면, 아래로는 향촌사회의 지배권이 鄉吏에서 在地土族으로 대체됨에 따라 〈邑司〉(州司·府州·郡司·縣司：戶長層의 執務廳)의 지위 저하와 함께 留鄉所의 기능이 강화되어 갔으며, 면리제의 확립은 面·邑任이 수령의 하부행정체계에서 향리와 함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⁵⁾

먼저 《經國大典》과 《輿地》 기타 《邑誌》에 의거, 조선시대 일반 행정구획 단위로서의 군현의 기본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表 1-2〉 조선시대 군현의 기본구조

구분	수량	邑格	州	州	府	郡	縣	縣
			府尹 從二品	大都護府使·牧使 正三品	都護府使 從三品	郡守 從四品	縣令 從五品	縣監 從六品
留鄉所	座首別監		1	1	1	1	1	1
	司官		3	3	3	2	2	2
	教授		州(府)司教授	州(府)司教授	府司教授	郡司訓導	縣司訓導	縣司訓導
	生徒		90	90	70	50	30	30
	結數		20	20	16	16	12	12
廩田	衙祿田		50	50	50	40	40	40
	公須田		15	15	15	15	15	15
外衙前	書員		34	30	26	22	18	18
	日守		44	40	36	32	28	28
官奴婢數			600	450	300	150	100	100
鄉校奴婢			30	25	20	10	10	10

위의 표와 같이 군현은 邑格과 守令의 관등에 따라 인적 구조와 物的 定額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定數는 법제상 정액된 것이며 실제로는 邑勢의 盛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 이하 서술은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pp. 233~311 참조.

우선 수령의 하부 행정체계로서는 邑司를 중심한 鄉吏조직, 留鄉所를 중심한 在地土族 및 면리행정을 담당한 面·里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서울의 京邸와 京在所, 감영·병영 등의 營吏·營邸吏와 계통화되어 있으며 그 밑에 각종 賤役을 담당하는 官奴婢가 있었다. 후기의 《邑誌》官職條에는 각 읍마다 守令 이하의 관원·吏隸가 정액되어 있다. 여기에는 향청의 임원인 座首와 別監, 軍官, 人吏(衙前·鄉吏·假吏), 知印, 使令, 官奴, 官婢, 妓生 등의 정원이 실려 있는데 그 명칭과 정액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기본구획으로서의 군현은 일정한 구역에 일정한 주민, 그것을 통치하는 행정조직과 관아·창고 등의 시설을 가졌다. 당시 지방행정의 궁극적 지향점이란 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집권화와 농민의 효과적인 지배에 있었다. 그것은 군현행정을 책임진 守令의 〈七事〉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인구증가와 농업생산성 향상, 공정한 稅役부과, 주민교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초기 〈祀典〉의 확립과정에서 보면 중앙집권의 지방통치체제가 王權을 정점으로 지방행정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신앙체계까지도 官權주도의 방향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왕조는 祀典을 크게 大·中·小祀로 나누고 大祀는 社稷·宗廟, 中祀는 風·雲·雷·雨와 嶽·海·瀆, 先農·先蠶, 雩祀, 文宣王·朝鮮檀君·後朝鮮始祖箕子·高麗始祖, 小祀는 雲星·名山·大川·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七祀·禋祭 등으로 구분하여 首都를 중심으로 관련 군현별로 정하였다. 그 결과 특정 祀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군현이 통일된 祀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구에는 文廟(향교소재)·社稷壇(在府西)·城隍祠(在府東)·厲壇(在府北)이 있었는데, 당시 고을마다에는 鎮山이 지정되고 이와같이 1묘·1사·2단이 설립되어 종래 잡다한 민간신앙은 이를 비유교적인 〈淫祀〉로 규정하여 금단하였다. 군현단위의 祀典은 군현행정의 수장인 守令이 주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邑主 또는 城主로서 고을을 대표하였다. 또한 고을마다 국왕의 상징인 〈殿牌〉를 客舍에 모시고 지방관민이 여기에서 君臣관계의 儀式을 수행하였다.

郡縣官衙의 소재지 邑治는 군현행정의 중심으로서 대개 주위는 城郭(邑城이 없는 고을도 많음)으로 둘러 있고 그 안에 守令官衙를 비롯하여 각종 관청, 樓亭·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각종 관아시설의 규모는 邑格과 邑勢에 대체로 비례하며,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地方都市의 성장추세에 따라 감영 시설이 확충되어 나갔듯이 邑治의 규모와 관아시설도 확대되어 갔다. 조선후기 군현 邑治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아·창고시설이 있었는데 그 종류는 모든 군현이 거의 같았고 단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客舍(殿牌奉安)·衙舍(東軒, 守令官衙)·鄉校(文廟)·鄉廳(座首·別監執務所)·軍官廳·將官廳(中軍·別將·把總 등)·邑司(州·府·郡·縣司)·作(秩)廳·兵房廳·刑房廳·工房廳·田制廳·官廳·貢廳·小星廳·使令房·通印房·官奴廳·軍牢廳·書廳·養武廳·選武廳·武學堂·贊壽堂·教鍊堂·都訓導房·藥房·教坊(樂府)·刑獄·邑倉·軍器庫·大同庫·補民庫·賑恤庫·社倉 등.

군현제하의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령은 1읍의 군주와 같은 존재로서 王의 分身으로, 지방주민의 苦樂과 休戚은 오로지 이들 外官의 賢否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의 역대군주들은 수령의 선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선임과정도 신중히 하였다. 따라서 君臣들은 국초부터 〈守令久任〉, 〈親見以送〉, 〈京外官 순환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소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경국대전》에 법제화 하였다.

대구에는 邑先生案이 없어 조선초기 수령의 구체적인 명단은 알 수 없으며 다만 실록 등을 통해서 보면 琴柔(세종 7~8년), 玉沾(세종8년경), 鄭還(세종), 李次若(세종), 尹祥(세종), 李甫欽(세종~문종), 朴崇質(성종), 林壽昌(성종), 申儼(중종), 李賢輔(중종), 辛駟(명종) 등은 대구수령으로 재임하면서 치정이 있는 명관으로 알려졌고, 崔灝元(성종), 鄭土龍(중종), 邊永淸(선조) 등은 재임시 탐오매직하여 대구吏民이 다같이 잔폐하였다고 한다. 한편 대구가 도호부로 승격되고난 후의 府使는 從3品の 淸宦으로 侍從之臣이나 문무관 가운데 비교적 精選된 忠貞관료가 파견되었다.

수령의 임기는 태조·태종대에는 30개월, 세종에서 단종대에는 60개월, 세조대에는 다시 30개월로 실시되다가 《경국대전》에서는 1,800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법제화되기까지는 수령의 지위향상과 임기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수령은 직속상관인 감사 외에 중앙의 臺諫, 수시로 파견되는 行臺와 敬差官 및 該邑京在所 등 여러 계통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어서 治邑의 得失을 막론하고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수령은 감사·병사 등 다른 外官들과 마찬가지로 부임에 앞서 의정부·六曹·銓曹·臺諫 및 該道·該邑의 前官宅을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敎示와 조언을 청취하고 하직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이는 본래 국왕이 수령을 引見하는 취지와 같은 것으로 막중한 外任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덕망과 경륜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대신, 風憲之官인 대간 및 該邑과 유관한 在京官僚들을 歷訪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成宗이 의정부·吏曹에 傳旨한 바와 같이 “大典內 新除京外官職者나 出使者로 하여금 政府·銓曹에 參謁케 한 것은 정부·전조를 중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内外庶官을 모두 管攝토록 한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參謁을 통해 新除者의 當否와 人物臧否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간 들리는 소

문으로는 정부·전조의 郎廳들이 外官 參謁 때 禮物이란 명목으로 물자를 요구하니 앞으로는 그런 폐습을 혁파하라”⁶⁾고 지시한 것은, 守令이 부임에 앞서 政府·銓曹 등을 參謁할 때 賄賂와 徵索·청탁이 자행하였고, 부임 후에도 京中各司 또는 在京官僚들로부터 이른바 〈折簡求索〉이 빈번하던 세태를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의 京·外官署는 관리직인 양반출신의 官僚와 행정실무 담당층인 中人系의 吏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자는 본래 토성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15세기 이래 양반사회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土族과 吏族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갔다. 그러니 조선시대에는 王을 정점으로 京中各司마다 土族인 〈官〉과 吏族인 〈吏〉가 중앙정부를 구성했듯이, 地方行政도 전적으로 土族인 外官과 吏族인 鄉吏 및 在地土族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마치 중앙의 집권세력이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고관요직을 놓치지 않고 부지해 나가는 데서 가문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郡縣吏族들은 향리세계의 상층부인 戶長層의 확보 여부가 그들의 세력 消長에 직결되었다. 그래서 양반사회에서는 族勢·家勢에 따라 〈國班〉(일국을 대표한 양반), 〈道班〉(일도를 대표한 양반), 〈鄉班〉(그 고을을 대표한 土班)이란 양반의 등급이 있듯이 鄉吏世界에도 각 읍 吏族을 대표한 名門吏族이 있게 되었다.

고려초기 이래 鄉邑社會를 장악했던 계층은 그 邑司를 구성했던 호장층이었으므로 지방에서 上京從仕하는 계층은 주로 호장층의 자제였고 후대에 대성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특히 지방행정상 중앙의 政令을 향읍사회에 하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징세·조역과 貢賦수납 등의 업무를 세습적으로 담당했던 향리들은 비록 양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한 역사의 표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관청 또는 官衙와 官員사이를 연결하면서 각기 읍사를 장악하여 戶長層은 물론 上詔文·監營吏와 같은 향리의 요직을 독점하여 실제 권력구조와 지방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빈번한 정변과 사회·당쟁, 거기에 수반된 外官의 잦은 교체에도 행정상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지방통치가 유지된 것은 향리들이 관아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鄉吏의 職制는 고려시대의 것을 답습하면서 太宗·世宗朝에 와서 크게 정비되었다. 향리세계는 일찍부터 신분위계상으로는나 직무분장상으로는나 上·中·下의 〈三壇〉과 〈三班〉이란 용어가 慣用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초기에는 향리세계를 거론할 때마다 戶長·記官·將校라는 구분이 있었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三班 또는 三班官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守令職의 강화와 향리지위의 격하라는 시대적 진전추세에서 향리직제도 鄉廳의 조직과 함께 수령의 하부행정체제로 일원

6) 《成宗實錄》 권 186, 成宗 16年 12月 丁未條.

화되어 종전의 戶長·記官의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졌고 그 대신 戶長도 吏房·戶房·刑房 등과 함께 6房체제에 흡수되고 말았다. 향리의 정원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결국 邑勢와 吏族의 형세에 따라 향리 수량에 盛殘의 차가 컸다.

이러한 향리의 직제는 조선후기부터는 다음과 같이 더욱 세분되었다. 19세기에 작성된 各邑事例에 의거 향리직제를 분석해 보면 시기와 군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戶長(邑司)·吏房·戶房·禮房·兵房·刑房·工房·官廳·承發·都書員·醫生(藥色)·大同色·軍器色·戶籍色·각종 倉色·進上色·御營色·禁衛色·束伍色·傳關色·烽燧色·民庫色·紙所色·雇馬色·賑恤色·客舍色·差役色·水軍色·禁松色·營需色 등

향리직임의 세분화는 지방행정 업무의 분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관기문란과 吏額의 과다로 인해 새로운 職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吏任은 鄉任·軍任·面任·里任·倉任·校任 및 각종 賤任과 중첩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향리는 신분적으로 中人에 속해 있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으나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수령과 인민의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수령들이 자신의 부임지역에 대해 소상히 알지 못하였고 행정실무에도 어두운 점을 십분 이용하여 實利를 취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비교적 관의 기강이 엄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었으나, 점차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수령부터 私利에 눈이 어두워졌고 여기에 편승하여 향리계열도 불법을 행하였다. 특히 향리계열은 국가로부터 祿科도 給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不正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모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수령은 상술한 행정권과 함께 군사권도 장악하고 있었는데 군사적 업무에 있어 屬僚로는 軍校가 있었으며 이들은 경찰권도 함께 행사하고 있었다. 軍校(軍官·捕校)의 하급에는 使令이 있었다. 이들 이외에 官의 최하층 구성원으로 官奴·官婢가 있어 수령의 公私生活는 물론 관공서의 對內·對外的 雜役과 使喚을 담당하였다. 官奴에는 及唱·庫直·驅從·房子 등이 있었고, 官婢에는 妓生·水汲 등이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지방행정은 守令과 그 아래에 예속된 吏廳·武廳 등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외는 별도로 지방자치적인 기관인 鄉廳(鄉所廳)이 있어 지방행정을 보좌하였다.

縣의 아래에는 그 하부단위로서 面과 里가 있다. 韓國史上 面里制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

기는 조선초기부터라고 생각된다.⁷⁾ ‘面’과 ‘里’의 용어는 《高麗史》와 鮮初의 《實錄》에 산견되나, 처음으로 法典에 구체화된 것은 《經國大典》부터이다. 그 규정에 京外는 5戶를 1統, 5統을 1里로 하고, 몇 개의 里를 합하여 1面을 만들고 統에는 統主, 里에는 里正, 面에는 勸農官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⁸⁾ 그런데 이러한 법전 규정의 면리제가 실제 전국의 말단행정 구역에 까지 보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것이다. 面里制가 정착되기 전의 麗末鮮初에는 主邑管內에 直村과 任內가 並列해 있었던 것이며, 임내에는 다시 속현과 동일한 취급을 받던 鄉·所·部曲은 많은 里와 村을 보유하고, 그렇지 못한 向·所·부곡은 그 임내 자체가 하나의 里와 村에 불과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直村에는 이른바 自然村과 地域村(聯合村)의 구별이 있고 다시 村과 함께 里와 面이 混用되고 있는 것이 15세기 자료에 많이 나온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村’과 ‘面’이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里·社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또한 《經國大典》 이전의 地志에서 陶磁器所나 陵寢·堤堰·院宇 등의 소재지를 기술하면서 村·里·洞을 쓴 것은 대개 自然村名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자연촌과 지역촌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는데, 東西南北의 方位名을 가진 村은 지역촌의 성격을 띠어 面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固有名을 가진 村은 里와 같이 자연촌도 있고 지역촌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기에는 주·부·군·현이 각기 邑治를 중심으로 東·西·南·北面과 같이 몇개의 방면으로 面을 나누고 이러한 面 밑에 里·村·洞의 자연촌이 부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面·坊·里·社·洞·村의 용례가 실제로는 명확한 구분없이 서로 혼용되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호칭되었던 것이다.⁹⁾

面里制의 정비과정도 일반적인 군현제의 발전추세와 마찬가지로 조선초기에는 向·所·부곡이 里·村으로 개편되었다가 나중에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촌락의 성장으로 里·村이 다시 面으로 승격해 갔음을 우리는 후기의 邑誌 소재 坊面條를 통해 알 수 있다.¹⁰⁾ 즉 조선초기의 向·所·부곡이 里 또는 村으로 기재된 것이 17세기 이후에는 面名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조선전기에서 후기처럼 守令→面→里로 체계화된 面里制를 연상하기 쉬운데, 전기는

7) 李佑成, 〈麗代百姓考〉《歷史學報》14, 1961. pp. 34~43.

武田幸男, 〈高麗·李朝時代の屬縣〉《史學雜誌》72-8, 1963. p.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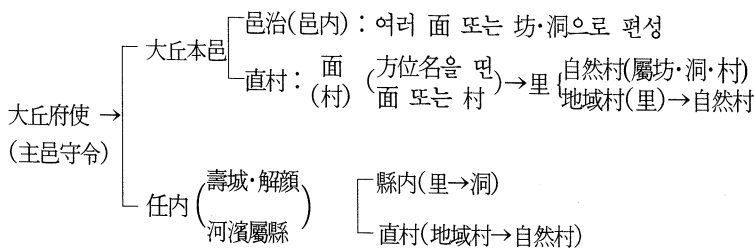
8) 《經國大典》권 2, 戶典 戶籍條, “京外以五戶爲一統有統主 外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 則量加) 京則每一坊有管領”

9) 柳馨遠, 《礪溪遺錄》補遺 권 1, 郡縣制 참조.

10) 《咸州誌》(咸安邑誌, 宣祖 20년 鄭述), 《昇平誌》(光海君 10년 李晔光), 《永嘉誌》(宣祖 41년 權紀), 《晉陽誌》(仁祖 10년 편) 등 참조.

고려시대와 조선후기와의 중간에 개재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어 상술한 바와 같이 面과 村, 또는 里와 社·洞·村이 때로는 상하관계 때로는 竝列的으로 존재하여 그 명칭이 혼용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찌기 自然村의 戶數를 기준으로 하여 行政村으로 편성하였으나, 朝鮮朝에 있어서는 자연촌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명칭은 같은 里·村이라 하더라도 실제 호수나 면적에 있어서는 현저한 差가 있었다. 어떤 里는 10여개의 자연촌을 연합한 후기의 面과 같은 규모를 갖춘 것도 있고 불과 20~30戶에 지나지 않는 자연촌도 많았다. 조선초기 군현의 下部行政 조직체계를 가상하여 대구부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군현의 管内는 크게 邑治·直村 및 任內로 구분되며, 直村에는 다시 방위명을 가진 面(村)이 있고 그 다음에 面·社와 같은 聯合村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연촌이 병렬해 있었던 것이다. 任內的 경우는 속현과 《동국여지승람》 屬縣條 소재 部曲·鄉·所 및 영세한 일반의 향·소·부곡에 따라 面里체계가 상이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面里制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鄉吏 대신에 土族 또는 民庶 출신의 勸農官 내지 監考·里正(長)이 면리 단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조선초기 지방행정 체계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이다. 수령이 面里行政에 있어서 향리를 제치고 吏族이 아닌 勸農官이나 里正에게 업무를 맡김으로서 이제까지 鄉邑을 농단하고 주민을 侵漁하던 폐단을 없애고 守令의 政令이 보다 충실하게 民間에 반영될 수 있었다. 在地土族 중심의 留鄉所가 면리행정과 연결되면서 향리의 직무는 그만큼 축소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초기 任內的 정비에 있어서 종래의 속현이나 향·소·부곡을 정리할 때 모두 直村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 중 상당수가 그냥 임내로 존치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당시 조선왕조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군현개편과 임내의 직촌화라는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힘에 벅찬 일이었다. 물론 종래의 임내 가운데 대부분은 鮮初에 이미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해 가는 과정에 있었으니, 이를 直村으로 개편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直村이

된 임내는 첫째 임내로서의 요건을 갖추 수 없을 정도로 쇠잔해진 것, 둘째 主邑과 근접해 있어 수령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반대로 아직 그때까지 임내로 존속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또 主邑과 원격해 있는 임내는 수령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불편한 반면, 오히려 기존의 主邑과 임내와의 行政體系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기 때문에 직촌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임내의 정리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面里制를 任內轄과와 동시에 실시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임내轄과와 동시에 면리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래의 임내와 주읍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당분간 유지하면서 서서히 面里制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면리제가 확립된 뒤에는 군현의 구역이 크게 邑治·面·里(洞)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郡縣의 하부행정구획으로서의 面里편성과 면리임의 행정체계는 15세기 후반에 반포된 《經國大典》에 비로소 규정되었으나 그것이 실제 향촌사회에까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국초이래 수령의 하부행정체계로 直村과 任內가 並列해 있으면서 그 행정의 실체는 수령→향리→面里任→面里住民, 또는 수령→유향소→면리임→면리주민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면 15세기말 유향소가 復設 재정비되면서 수령→향리의 체계에서 향리를 제치고 수령→유향소→면리임으로 계통화된 군현이 있기도(安東과 같은 군현) 하였으나 대체로 16세기부터는 수령→향리 또는 향청→면리임으로 연결되어 결국 면리임은 수령의 지휘·감독하에서 향리와 향청의 중간단계를 거쳐 면리행정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이러한 향촌의 지배세력 교체도 15·16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선후의 차이가 있었다. 留鄉所와 司馬所 같은 재지사족의 집합체가 일찌기 형성된 大邑·班鄉에서는 그 교체시기가 빨랐으며 그렇지 못한 小縣이나 僻邑은 훨씬 늦었던 것이다.

임내의 직촌화에 따라 종래의 任內吏가 勸農官·監考 등으로 대치되고 村長·村正이 里長·里正으로 교체되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儒佛交替라는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불교적이고 이른바 淫祀·香徒의인 土姓吏族 중심의 향촌질서가 里社와 社倉의 설치, 鄉規·鄉射·鄉飲酒禮·鄉約·洞約 등을 제정 또는 시행하는 사족 중심의 유교사회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성이족이 온존하던 군현에는 조선전기까지도 향리들이 수령의 통제하에 촌락을 지배하고 권농관·里正을 지휘 감독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후반부터 사림세력의 성장과 함께 변모하여 面里의 행정체계는 점차 수령→향리 또는 향청→면리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수령의 하부행정체계 속에 있던 권농·方別監·監考·里正 등은 매월 5일마다(六衙日) 官衙를 출입하면서 향촌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면리임을 가급적 品官이나 有識層에서 선임하려 했지만 사족들은 관직을 선호한 나머지 그러한 鄉任이나 면리임을 기피하였고 그 대신 鄉品·庶類들이 임용되는가 하면, 심지어 私奴들이 한 마을의 勸農·里正·捕盜將을 모두 맡은 예도 있었다.¹¹⁾ 이는 학문과 벼슬을 선호했던 양반층이 행정실무와 鄉任 및 면리임을 천시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¹²⁾

그런데 재지사족이 강성했던 경상도 지방은 각읍마다 그 군현을 대표한 大姓名門들이 좌수·별감과 같은 鄉任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安東과 같은 곳에서는 전직 고관들이 향임을 맡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장이나 묘비문 같은 데에는 향임 관계기록이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향촌사회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향임은 말되 당시 양반 내지 유림사회에서는 그것을 결코 명예롭게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實錄》에는 면리임으로 勸農·里正·里長·方別監·監考·色掌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面에는 勸農官, 里에는 里正, 統에는 統主를 둔다는 법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16세기 말까지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面里任도 향촌사회의 성장과 함께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面里의 새로운 지역적 편제의 진행과 함께 그 호칭이 변하고 직임도 분화·다양해져 가며 面任·里任간의 지휘체계도 잡혀가게 된다. 즉 숙종 원년(1675) 〈五家統事目〉(21개조)과 동왕 37년에 〈良役變通節目〉이 각각 제정 실시되면서부터 面里任의 호칭변화와 직임의 분화 내지 체계화를 가져왔다. 五家作統法은 본래 태종 8년(1408) 成石璘의 건의에서 논의된 隣保正長之法에서 비롯하여 세종때 확립되었으며, 《경국대전》戶籍條에 洞里別로 家坐順에 따라 5家1統으로 作統하도록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숙종원년에 다시 5가작통법이 강화, 시행되기까지는 제대로 遵行되지 못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10家로 작통하거나 전혀 작통하지 않기도 했던 것이다.

지방행정이 조선후기에 와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한 분야는 面里制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대의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향촌사회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인 面里행정의 체계화를 기해 농민지배와 그들로부터 징세·조역을 기할 수 있다는 데서 면·리의 재편성과 면리임의 계통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지방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족·향리·하층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기 지역과 자신들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각 계층의 권익옹호와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갔던 것이다.

11)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p. 598 光海君 14년 醴泉郡 洛谷里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12) 《續百年錄》(不分卷 1册, 필사본), 萬曆 28年(1600)條 참조.

III. 大丘府의 京在所와 留鄉所

조선전기 大丘府는 在地土族의 형세가 대체로 강성하지 못하여 경제소와 유향소의 존재도 安東이나 진주 등 界首官에 비하면 미약하였다. 大丘府의 京在所와 留鄉所를 검토하기에 앞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사적 측면에서 두 기관의 연혁·전변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法制的인 면을 강조한 제도사적 측면과 형식이나 용어에 집착한 나머지 피상적인 관찰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한국사에는 중세봉건제 결여로 지방 분권에 따른 住民自治의 전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지방행정도 王→감사→수령으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적 양반지배체제하에서 이른바 官治行政면 만을 내세우게 되었고, 京在所→留鄉所→面里任으로 이어지는 재경관인과 연결된 재지사족 중심의 자치적인 계통과 京邸吏→營吏→邑吏를 연결한 행정실무적인 향리계열 및 이 양자가 연결된 郡縣 내지 鄉村社會의 자율적·주체적인 통제기능이나 운영면에 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京在所는 留鄉所와 함께 고려의 事審官制에서 분화·발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14세기말 왕조 교체기에 신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鄉吏를 배제하고 재경관인과 연결된 재지사족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사회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양자가 거의 동시에 京·鄉에서 각각 설치·운용되었다. 경제소와 유향소는 그 구성원이나 소재지 및 기능상으로 볼 때 일견 별개의 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어 따로 떼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것이다.

고려의 사심관제는 麗末에 이르러 置廢를 거듭한 끝에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그 후신인 경제소가 州縣別 先後의 간격을 두고 임의 또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忠烈王 9년(1283) 4월에 “임시로 州府郡縣의 사심관을 혁파했다”든지, 忠肅王 5년(1318) 4월에 “州郡의 사심관을 혁파하니 백성들이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權豪들이 다시 스스로 사심관이 되니 그 폐해가 전보다 더 심했다”고 한 사실이나, 공민왕 18년 2월에 辛旽이 스스로 五道都事審官이 되려고 한 것이나, 공양왕 2년(또는 3년)의 이른바 〈國寶戶籍〉所載 李成桂직함에 〈事審〉이 나옴을 보아 사심관제가 충숙왕 5년에 공식적으로 혁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공식 또는 임의 자발적으로 麗末까지 존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京在所라는 용어는 벌써 공양왕 2~3년의 國寶戶籍에 나타남¹³⁾을 보아 고려의 사심관제가

13) 李基白 編著,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pp. 257~278.

麗末에 이르러 土族이 크게 在京官人과 留鄕品官(또는 土姓品官)으로 분화되는 추세가 급진전되자, 각기 재정·재향세력별로 경재소와 유향소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재소에 관한 기사는 《世宗實錄》부터 자주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심관제의 변형으로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재경관인들이 각기 ‘八鄕’을 중심으로 연고지별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成宗朝李克培는 경재소와 유향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陳言하였다.

州·府·郡·縣에는 각기 土姓이 있는데 그들 중 在京 從仕하는 자를 경재소라 하고, 경재소가 다시 居鄕土姓가운데 剛明한 品官을 선정하여 留鄕所 有司를 삼는다. (《成宗實錄》 권 137, 成宗 13년 正月 辛酉條)

이 밖에 경재소의 조직과 임원 및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이 세종 17년(1435)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의 士大夫戶口式 가운데 四祖만을 기재한 것을 四祖戶口라 하고 祖父母·曾祖父母·外祖父母·妻父母의 四祖까지 기재한 것을 八祖戶口라 하였다. 지금 이 八祖戶口에 의거 살펴보면, 父의 內·外鄕, 祖의 外鄕, 曾祖의 外鄕, 母의 內·外鄕, 妻의 內·外鄕 등 8향이 가장 切近하니 하나도 뺄 수 없다. 이 8향호구식에 의거, 2품 이상은 8향, 6품 이상은 처향을 제외한 6향, 參外는 祖·曾祖의 外鄕을 제외한 4향, 無職衣冠子弟는 父·母外鄕을 제외한 2향으로 한정하여 각 읍 경재소마다 座首 1명, 參上別監 2명, 參外別監 2명씩 정원하고 鄕中の 公務를 관장하되 本邑 守畝의 治政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재소는 司憲府의 규찰을 받게 하였다.¹⁴⁾

위에서 보듯이 경재소는 관품에 따라 8개향에서 2개향의 경재소를 맡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고려의 사심관제와 비슷하지만, 5명의 임원을 둔다는 것은 사심관에 비해 재경관인들의 참가 邑數가 확대된 셈이다. 유향소의 임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州·府·郡·縣이라는 邑格에 따라 임원의 정원이 다른데 경재소에 관해서는 관계자료의 결여로 그 상세한 정원을 알 수 없다.

京中各司마다 堂上과 郎廳이 있듯이 경재소의 임원에도 堂上·座首·別監이 있었다.

京在所는 사심관제의 변형으로 忠肅王 5년에 사심관제가 공식적으로 혁파된 후에도 비법제적인 임의 조직체로서 군현에 따라 잔존하다가 신왕조의 개창과 동시에 확대·재조직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郡縣土姓의 上京從仕勢의 盛殘에 따라 조직 시기의 遲速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개국초에 外方居住 品官과 閑良을 上京侍衛케 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14) 《世宗實錄》 권 69, 世宗 17년 9월 己巳條.

본다면 이른바 強根弱枝策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가는 재경관인으로 하여금 제각기 연고지별로 경재소를 조직케 하고 그것을 통해 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재경관인들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발판으로 각기 연고지의 지방행정은 물론, 자기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扶植시켜 갔던 것이다.

세종이 처음에는 讓寧大君과 孝寧大君으로 하여금 각 도 諸邑의 유향소를 分掌시킨 데 이어 동왕 20년에는 新設鎭인 慶源·會寧·慶興·鍾城과 동 29년에는 穩城에 大君·王子들로 하여금 각기 경재소를 관장케 하였다. 함경도는 조선왕조의 ‘興王之地’ 또는 왕실의 친척이 사는 豐沛鄉으로 간주하여 개국초부터 이 지방 경략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특히 兩界지방에 대한 회유책은 以南六道와는 통치방식을 달리하였다. 가령 국초 이래 戶口成籍·軍籍作成·量田사업과 같은 집권책과 수취체제의 정비 문제는 으레 유예되어 왔으며, 현지의 土豪子弟를 서울에 초치하여 居京侍衛하게 한 다음 벼슬을 주고 또 重鎭에는 土官을 설치하여 재지세력을 회유·무마한다든지, 왕자들로 하여금 각 읍 경재소를 분장케하는 일련의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신설 州鎭의 제반 규모를 마땅히 남부 군현과는 달리 해야 한다면서 六鎭子弟 가운데 才幹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上京從仕시키고 왕자들로 하여금 각기 경재소를 관장하게 하면 이곳이 영구히 地方의 藩屏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京在所는 각기 소관 군현의 留鄉所와 긴밀한 縱的 유대를 가지고 유향소 임원의 任免權, 향리규찰, 鄉中人士의 천거와 보증, 鄉風教化, 貢賦와 進上의 독촉, 京邸吏 사역, 貢物防納 및 소관 군현의 요구사항 건의 등 실로 광범한 활동을 하였다. 법제상 守令의 治政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재는 소관군현의 公務에 대하여 수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재소는 15세기초 군현구획의 개편, 任內의 移屬, 邑格의 陞降, 邑治의 이전, 군현의 병합문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경재소는 재경세력 또는 官權 주도의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재지사족 중심으로 조직된 유향소는 15세기에 수차 치폐를 거듭한 데 반하여 경재소는 壬亂전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다. 경재소는 조선전기 재경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지방에서 上京從仕한 뒤에도 그들은 각 지방에 산재한 소유 토지와 노비 또는 출신지 소재 田民(토지와 노비)을 지배해 왔는데 바로 경재소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국초 이래 왕실·외척·공신 등을 비롯한 재경세력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田民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관직과 권력을 떠난 재산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 田民의 유지·관리에는 항상 집권세력과 관권의 협조가 요청되었다. 그런데 가세가 몰

락했거나 失勢 또는 落鄕하게 되면 기존 田民의 소유체제가 붕괴되고 그 노비는 그 틈을 타서 上典을 바꿔 비호를 받거나 도망가서 신분향상을 꾀하기도 했던 것이다. 더구나 16세기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倭亂과 胡亂을 겪은 17세기부터는 士族의 전통적인 田民所有와 그 지배체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이 있었다. 즉 公私를 막론하고 경제적 비중이 노비에서 토지로 옮겨갔고 재지사족의 성장과 확대는 종래의 不在地主에서 재지주로 전환되었던 것이며, 종래의 노비노동에 대신하여 노비의 佃戶·雇工化 내지 良民化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재소는 마침내 壬亂을 계기로 붕괴되어 선조 28년(1595)과 36년에 걸쳐 혁파되었다가 光海君 3년과 4년에 그 復設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동왕 4년 10월에 조정의 논의가 영구히 폐지하기로 확정을 보았다.

조선왕조의 집권체제가 일단락된 뒤인 16세기부터 경재소의 폐단이 많아졌다. 경재소에 의해 임명된 유향소가 군현지배권을 향리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 경재소의 힘을 빌렸던 것이며, 재경관인들은 각기 경재소를 발판으로 하여 該邑守令과 유향소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연고지의 지방행정은 물론, 자기들의 경제적 기반도 부식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경재소가 혁파된 것은 전란으로 인한 京中の 각 읍 경재소가 모두 蕩破된 데다가 국초 이래 추진해 온 士族主導型의 지방통치체제가 확립되어 갔으며 16세기말부터는 재지사족이 각 읍마다 정착되고 元惡鄕吏와 같은 향리들의 횡포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재소는 유향소와 함께 鄕吏糾察과 鄕風矯正에 1차적 목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경재소가 京邸吏와 邑吏를 괴롭히고 田民을 影占하거나 利權을 부식한다든지 貢物을 防納하는 등 민폐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 그 혁파를 건의하는 자가 많았다. 특히 16세기말 倭亂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의 邑이 蕩破되었을 뿐만 아니라 京中の 각 邑 경재소의 인원과 시설이 모두 유산되어 버려서 그 기능이 일시 정지되고 말았다. 倭亂中인 선조 28년에는 ‘乙未年間 纔設而還罷者’라 하였듯이 서울 함락과 국왕의 播遷으로 일시 그 업무가 정지되었다가 3년후에 다시 설치하였으나 선조 36년 備邊司가 경재소의 일체 혁파와 亂中에 폐지된 것의 復設을 반대하는 건의가 있자 선조는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亂後에는 재경관인들이 경재소 부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守令중심의 지방행정과 향규·향약을 통한 향풍교화, 面里制가 정착되면서 경재소의 기능이 그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光海初 復設與否를 문의했을 때에는 재경관인이나 재야세력 할 것 없이 부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였고 당시 史臣은 이를 ‘剩司’라고 표현할 정도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留鄉所는 麗末鮮初 신분제의 재편과정에서 이른바 土姓品官·留鄉品官이 각읍마다 존재하게 되었고 군현 내지 鄉邑 지배세력이 鄉吏에서 在地土族으로 점차 대체되는 과정에서 서울의 경재소와 함께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고려의 사심관계가 麗末에 와서 서울의 경재소와 군현의 유향소로 분화·발전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단 지역과 군현에 따라 설립 시기에 遲速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재지사족의 盛殘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재지사족이 일찍이 형성된 大邑·雄府는 麗末부터 설치된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小縣과 僻邑은 15세기에 들어와서 조직된 것 같다.

그런데 유향소의 설치 연원과 조선초기 그것의 置廢경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鄉憲》소재 관련자료를 잘못 引證한 데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¹⁵⁾ 柳洪烈은 그의 〈朝鮮鄉約의 成立〉¹⁶⁾이란 논고에서 유향소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鄉憲》소재 이른바 〈太祖憲目〉·〈孝寧大君鄉憲〉·〈世宗十年 留鄉所復設磨鍊節目〉을 비판없이 액면 그대로 인용한 데서 과오를 범한 것 같다.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鄉憲》소재 상기 項目이 편집·간행과정에서 전래의 原本이 상당히 개변되었다고 생각되며, 憲目은 太祖御製가 아닌 孝寧大君에 의해 成案된 것이며, 世宗 10年 유향소 復設節目은 世宗朝가 아닌 成宗 19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麗末鮮初에 걸쳐 서울의 경재소와 함께 임의·자발적으로 설치·운영되던 유향소가 점차 王權의 대행자인 守令과 대립하여 중앙집권화에 逆行하는 경향을 띠게 되자 태종 6년(1406) 6월 大司憲 許應 등이 時務疏를 올려 유향소 혁파를 건의하였다.¹⁷⁾ 태종은 이 건의를 정부에 회부하여 결국 혁파를 단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어느 정도까지 혁파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군현마다 완강히 버티고 있는 재지세력(土姓品官·留鄉品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향소의 완전 혁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유향소는 국가의 法定기관이라기 보다는 임의·자발적인 조직체였으므로 《실록》에 그 혁파건의를 왕이 받아들였다 해서 당장 法制的으로 조치를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튼 《鄉憲》소재 유향소 復設節目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세종 10년이 아니고 成宗 19년이어야 한다는 데서 麗末鮮初에 걸쳐 설치·운영되고 있던 각 읍 유향소는 태종 6년 6월 許應 등의 혁파건의에 관계없이 존속해 왔던 것이며 世祖 13년에 와서 일시 혁파되었다가 성종 19년에 가서 復設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향소는 在地土族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는데, 이들은 麗末에 濫發되었던 添設職을 받아 吏

15)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pp. 328~330.

16) 柳洪烈, 〈朝鮮鄉約의 成立〉《震檀學報》9, 1938, pp. 88~107.

17) 《太宗實錄》권 11, 太宗 6년 6월 丁卯條.

族에서 留鄕品官으로 성장한 부류 또는 왕조교체와 世祖찬탈 때 落鄕한 부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진전에 따라 재지사족들은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확립하고 새 농법을 적용, 지역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는 데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세력도 신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유향소를 발판으로 한 재지사족들의 鄕邑 지배에 대한 신장 추세는 결국 世祖의 전제정치와 官權中心의 중앙집권화와 충돌하여 유향소는 세조 13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유향소 혁파에 관한 기사는 《世祖實錄》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成宗 13년부터 유향소 復設운동이 전개되면서 朝臣들의 進言중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세조 13년 유향소 혁파 경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함경도 각관 留鄕品官들이 李施愛의 반란에 가담하여 守令들을 擅殺하였으므로 혁파되었다는 것이며,¹⁸⁾ 다른 하나는 李克培의 말에 근거한 것으로 世祖 말년 忠州民이 守令을 告訴하려 할 때 유향소에서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심히 그 사람을 侵虐하였는데 이 사건이 세조에게 알려져서 혁파되었다는 주장이다.¹⁹⁾ 하여튼 국초 이래 존속해 왔던 유향소는 태종 6년 6월 許應 등의 혁파건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장해 오다가 세조 13년을 전후하여 폐지되었는데, 그 혁파 배경은 일차적으로 세조의 전제왕권과 강력한 집권화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유향소는 경제소와는 다르게 世祖의 전제왕권 및 관권주도의 집권화 정책과 충돌을 일으켜 한때 置廢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러나 향촌에 기반을 둔 士林이 중앙정계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成宗 13년부터 그 復設을 주장하는 논의가 반복되다가 마침내 《鄕憲》 소재 〈유향소부설절목〉대로 동왕 19년(1488)에 다시 설치되었다. 유향소가 태종 6년에 이르러 혁파 논의를 거쳐 세조에 의해 폐지되고 성종에 의해 부설된 것이나 당시 양대 정치세력인 훈구파와 사림파에 의해서 유향소 부설에 대한 찬반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역대 지방통치의 기본 방식은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성장 추세, 왕권의 강약과 집권화의 張弛 및 훈구파와 사림파란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勳戚과 관직에 일차적인 세력기반을 두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재경 훈구세력들은 경제소와 유향소 같은 郡邑 또는 향촌 규제기관을 官權주도형으로 운영하려 한데 반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향촌에 둔 사림은 재지사족 주도형으로 그것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지방통치의 기본 방향을 중앙정부로 집중하려는 求心운동인 데 반하여, 후자는 중앙정부와 관권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향촌사회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려는 遠心운동을 지

18) 《成宗實錄》 권 216, 成宗 19년 5월 乙亥條.

19) 위의 책, 권 137, 成宗 13년 正月 辛卯條.

향했던 것이다.

成宗 19년 이른바 〈유향소 부설절목〉에 의거, 새 모습으로 부설된 유향소는 鄉射堂과 같은 시설의 확충, 조직의 강화, 鄉案의 작성, 鄉規의 제정과 함께 守令治邑의 보조기관인 郡縣의 〈貳衙〉로 정비되어 갔다. 이는 당초 사림파가 의도했던 방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권 주도로 나가게 되었다. 그것은 戊午土禍를 계기로 훈구세력이 明宗朝말까지 계속 집권해 나갔기 때문이다.

유향소 임원에 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후기의 邑誌에 의거하여 조사해보면 座首는 邑格에 관계없이 1邑1人이며 別監은 州·府에 3인, 郡·縣은 2인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유향소는 조선후기에 오게 되면 鄉廳 또는 鄉所라 부르게 되었고, 조직과 권한은 시대 또는 군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6세기 이래 재지사족이 강성한 三南지방의 大邑에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수령과 협조 또는 대립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安東府와 같은 특수한 군현을 제외하고는 수령의 하부행정체계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英祖朝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官撰邑誌에는 鄉所의 임원을 〈官職〉條項에 넣어 수령의 屬官(僚)으로 취급했던 것이다.²⁰⁾

유향소의 성격은 경재소가 폐지되는 시기인 宣祖 36년(1603)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는 판이해졌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재소가 존재했던 조선전기에는 유향소의 임원 임면권과 주요 公務의 결정권이 경재소에 귀속되어 있었고 鄉案이나 鄉規도 경재소의 승인을 받아 확정했으며, 유향소의 기타 권능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경재소의 결재를 요했으니 前期의 유향소는 완전히 경재소의 장악하에 놓여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壬亂이후 경재소가 혁파된 뒤의 유향소는 이제 경재소 대신에 수령의 일방적인 권한하에 들어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壬亂후 군현마다 재지사족의 급속한 성장과 저변확대로 인해 종전의 경재소 못지않은 자체의 세력기반을 鄉校·書院 세력이 대신하게 된 데서 쉽게 수령의 일방적인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향청은 面里制의 발달과 함께 수령의 貳衙로 존재하면서 위로는 수령의 治邑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面里任을 거느리고 향리를 규찰하면서 郡邑行政은 물론, 향교·서원 및 鄉約조직과 횡적 유대를 갖고 실질적인 향촌사회를 영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面里制의 발전에 따른 面里行政의 분화와 체계화로 향청은 이제 군현의 三政(田政, 軍政, 還穀) 전반에

20) 英祖 30년대에 편찬된 《輿地圖書》 및 후기의 官撰邑誌에 의하면 各邑의 官職조항에 守令을 기재한 다음 〈置其屬座首……別監〉, 〈置屬〉, 〈其屬僚……〉라고 쓰고 그 밑에 鄉吏 기타 官屬 등을 기재하였다.

걸쳐 수령의 하부행정을三班官屬과 함께 짊어지는 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향청의 조직과 직무 분장도 향리체계와 별로 다름없이 분화내지 계통화해 갔던 것이다.

第2節 軍制의 整備와 大丘府의 軍事組織

I. 朝鮮前期 兵制와 郡縣軍制

조선전기 군사기구에 있어 그 軍令의 계통은 첫째 中樞院·承樞院·中樞府의 계열, 둘째 義興三軍府·三軍鎮撫所·義興府·五衛鎮撫所·五衛都摠府의 계열, 세째 兵曹의 계열 등이 있었는데, 여러해를 두고 변동하였다. 世祖 10년에 이르러서는 兵曹의 지휘하에 五衛都摠府가 서게 되어 이것이 五衛의 兵力을 지휘하게 되고 중추부는 한낱 閑官의 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중추원과 兵曹는 본래 東班으로서 文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며, 世宗 14년에 중추부가 복설된 뒤로 西班에 속하였다 하나 이것은 오래지 않아 武職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다만 三軍府·鎮撫所·都摠府의 계열은 武官을 중심으로 하여 三軍 혹은 五衛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西班牙職이나 여기에도 점차적으로 文臣이 그 上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軍令下의 兵力 編制는 이른바 <오위>가 그 基幹이 된 것이나 그에 앞서 언급해두어야 할 것으로는 국왕의 친위병으로서의 親兵이 있다. 《經國大典》兵曹京官職에 보이는 西班牙京官職에는 <中樞府>·<五衛都摠府>·<五衛> 이외에 <兼司僕>·<內禁衛>·<世子翊衛司>와 <訓練院>이 있었다. 겸사복과 내금위는 국왕을, 세자익위사는 세자를 각각 陪衛하는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2軍6衛>와 <都府外> 이외에 儀仗府 1領, 堅銳府 1領, 忠勇衛 4衛가 모여 대개 親兵의 구실을 한 것으로 추측되며 忠勇衛 등 成衆愛馬의 여러 部隊는 조선초에도 남아 있어 太宗 7년에 신설되는 內禁衛 등 새로 개편·발족하는 親兵과 점차 교체되었다. 內禁衛는 190의 소수였으나 精兵으로 充差하였으며 처음에는 三軍의 隸下에 들어 있었으나 그 뒤 世祖가 5위를 두면서 여기에서 독립되었다. 兼司僕은 宮中의 輦轂을 맡는 內司僕寺와의 관련하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世祖 10년에 제도화되어 內禁衛와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그 정원은 50이었다. 그 뒤 다시 羽林衛가 增設되어 이를 內三廳이라고 合稱하였고, 兼司僕將 3員, 內禁衛將 2員, 羽林衛將 2員을 內將이라 하여 兵曹判書의 摠領아래 內三廳을 지휘하였으며 여기에는 대개

有蔭子弟가 採用되었다.

이 밖에 宮中에 關係되는 武職으로 初期에는 正式官制 밖에 있었던 宣傳官廳과 守門將廳이 있다. 宣傳官은 고려 忠烈王代부터의 제도로 국초에는 宣傳官 8員을 두어 禁內에 輪直하면서 形名(旗鼓로써 士卒의 進退를 호령하는것)·啓螺(王의 出駕에 吹螺케 하는 것)·侍衛·傳命·符信出納 등을 맡는 것으로, 뒤에 그 廳을 두고 人員도 70餘로 증가되었다. 그 品階도 堂上에서 參下에 걸쳐 그 중 상당수는 ‘文臣兼’·‘武臣兼’이었다. 宣傳官은 王의 측근에 있어 重任을 보기 때문에 본래는 新進武臣으로 실력있는 자를 임용하였던 것이며, 뒤에는 武臣으로서 地閥을 자랑하는 淸宦 자리가 되었다. 守門將은 본래 西班 4品 以下로 하여금 輪番으로 闕門을 守備케 한 것인데, 뒤에 廳을 두고 從6品 23員, 從9品 23員으로 하였으며, 그 중의 5窠는 中·庶도 許通하였다.

5衛의 形成과정을 보면, 國初의 병력은 고려말의 ‘2軍 6衛’와 그 밖에 警察力인 ‘都府外’와 약간의 친위부대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義興親軍左·右衛를 신설하여 ‘10衛’와 ‘都府外’등을 두었으니 10衛는 義興親左衛·義興親右衛·鷹揚衛·金吾衛·左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千牛衛·監門衛이다. 太祖 4년(1395)에는 신왕조의 제도가 일신되었는데, 이에 따라 10衛를 改稱하고 이를 中·左·右 3軍에 分屬케 하였으니, 中軍에 義興·忠佐·雄武·神武의 各侍衛司, 左軍에 龍騎·龍驤·龍武의 各巡衛司와 虎賁·虎翼·虎勇의 各순위사를 두었다. 中軍은 闕內輪番侍衛를 맡고 左右軍은 3대문에 把截更巡을 맡는 것이었다. 이 3軍의 편제는 이미 고려말에 李成桂가 兵權을 잡은 뒤 三軍都摠府를 두고 조선왕조 개창 뒤에도 義興三軍府로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 10司와 3軍의 소속관계를 明示하게 된 것 같다. 10司가 3軍에 分屬한다 하지만 3軍은 3군대로의 직할병력을 가진 것으로서 이 3軍10司가 輪次로 入直 혹은 巡衛한 것이다. 그 뒤에도 10司의 명칭과 기능에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고, 또 두 차례의 王子亂을 겪은 뒤 定宗 2년에는 私兵을 모두 혁파하고 종래 權門이 갖고 있던 家兵을 모두 3軍府에 편입한 것은 特記할 사실이다. 太宗 18년에 세자(世宗)가 양위를 받게 되면서 10司에 2司를 증설기로 결정하고 이것은 뒤에 左軍의 龍虎司·右軍의 虎牙司로 불러 12司가 되었으며 太宗이 昇遐한 뒤 世宗 5년에 新設 2司를 폐지하였으나 세종 27년에 12司로 복구되었다.

文宗은 그 즉위 이전부터 世宗의 承命代理로서 軍事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文宗 元年(1451)에는 이미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던 12司의 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中軍에 義興·忠佐·忠武司, 左軍에 龍騎司, 右軍에 虎賁司만을 남겨 5司로 하고, 비록 부대수는 줄었으나 兵力은 도리어 증대시키고 各兵種을 5司에 配分하여 軍制를 再整備하였다. 그 뒤 世祖 3년

(1457) 3월에는 이 5司를 ‘5衛’로 고치는 한편 兵種別과 地方別로 各衛를 형성하게 되었다.

世宗 3년에 原型이 잡힌 5衛는 그 뒤 약간의 변동을 거치게 되고 또 軍令機關으로서 義興三軍府의 後身이라 할 수 있는 三軍鎮撫所가 5衛形成 直後에 五衛鎮撫所로 또 世祖 12년에는 5衛都摠府로 되면서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三軍’의 제도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5衛는 壬辰倭亂에서 그 無力이 露呈되고, 倭亂中부터 이미 各軍營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각각 독립된 軍團을 이루게 됨으로써 中期이후로는 전혀 별개의 兵制로 들어가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병제의 기본으로 후기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5衛의 편성은 兵種別과 地方別의 二重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兵種別로 보면 이는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勞役に 差가 있고 또 그 처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經國大典》兵曹 番次都目에 나타나는 遞兒 및 去官의 品階 등으로 대체의 서열을 摘記하면 위로부터 宣傳官·兼司僕·內禁衛·親軍衛·別侍衛·族親衛·忠義衛·甲士·忠贊衛·忠順衛(以上이 대체로 양반출신)·正兵·破敵衛·壯勇衛·隊卒·彭排·補充隊의 순위가 된다. 이 가운데 族親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등은 王室의 遠親·大臣子弟·有蔭子孫 등을 모은 것으로서 그 전투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으며, 다만 왕실을 호위한다는 관념과 그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의 전투력은 宣傳官·兼司僕·內禁衛 등의 親兵과 親軍衛·別侍衛·甲士·正兵·破敵衛·壯勇衛·隊卒·彭排·補充隊로서 이들은 대개 무예와 膂力으로 試取하는 것이며(正兵·補充隊는 除外), 良人 出身의 番上兵으로서 兵力의 基幹이 될 正兵도 이때에는 이미 그 番上의 의무가 크게 완화되어 있어서 5衛의 各兵種은 대부분이 有蔭子弟 등 특권층 등과 직업군인으로 충당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世祖 10년에 梁誠之가 열거한 것을 보면 親兵에 內禁衛·兼士僕, 衛兵에 甲士·別侍衛, 勳位에 忠義衛·忠贊衛, 宿衛에 奉忠衛·拱宸衛, 番上に 正兵·平虜衛, 步軍에 破敵衛, 役軍에 防牌, 使令軍에 攝六十, 控鶴軍에 近仗, 奴軍에 壯勇隊, 軍器監에 別軍, 義禁府에 都府外, 鎮守軍에 鎮軍·船軍·守城軍이 있었던 것이다. 地方別로 보면 이것은 番上軍士가 지방별로 所定의 各衛에 소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5위를 병제의 기본으로 삼은 지휘계통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념은 太祖 4년 10司를 3軍에 分屬할 때 京畿左·右道와 東北面은 中軍에, 江陵交州道와 慶尙道·全羅道는 左軍에, 楊廣道·西海道와 西北面은 右軍에 소속케 한다고 하였으니 이 원칙²¹⁾이 5위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軍의 계급은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每衛에 上將軍(正3品), 大將軍(從3品), 都護諸衛將軍(正4品)을 두고, 每領에 將軍(從4品), 中郎將(5品), 郎將(6品), 別將(7品), 散員(8品),

21) 《增補文獻備考》兵考 1, 太祖 4년 鄭道傳疏에 “凡各道州郡之兵 亦命兵馬使以下掌之” 참조.

尉(正9品), 正(從9品)을 두었으나 오래지 않아 上護軍·大護軍·護軍·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隊長·隊副로 되어 司直·副司正은 甲士가 當하고 隊長·隊副는 流外 庶人職으로서 이들은 모두 俸祿이 지급되었고 일반군졸은 이들의 지휘를 받았다. 세종 18년에 隊長·隊副를 고쳐 9품직인 司勇으로 하고, 세조 3년에 5衛·5部가 생기면서 衛將·部將이 생기고, 세조 12년에 이를 다시 세분하여 《經國大典》에는 將 12(중2품)·上護軍 9(정3품)·大護軍 14(중3품)·護軍 12(정4품)·副護軍 54(중4품)·司職 14(정5품)·副司職 123(중5품)·司果 15(정6품)·部將 25(중6품)·副司果 176(중6품)·司正 5(정7품)·副司正 309(중7품)·司猛 16(정8품)·副司猛 483(중8품)·司勇 42(정9품)·副司勇 1939(중9품)로 하였다.

5위의 上下組織을 보면 衛(衛將, 중2품)－部(部將, 중6품)－統(統將)－旅(旅帥)－隊(隊正)－伍(伍長)－卒의 체계로 되어 있었다. 衛는 각각 5部(中·左·右·前·後)로 형성되는 동시에 遊軍 5領을 두어 正軍 7에 대하여 3의 비율로, 部는 4統으로 되어 步·騎兵 각 2統이요, 統은 약간의 旅로 형성되며, 兵員數의 多寡間에 1部4統을 지키기로 되어 있다. 또 旅가 5隊, 隊가 5伍, 伍가 5卒로 되는 것이 陣法의 원칙이었으나 그것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시된다. 《經國大典》에 의거 衛의 병력을 정리해 보면 中衛: 甲士 7,560, 補充隊(無定數), 左衛: 別侍衛 1,500, 隊卒 3,000, 右衛: 族親衛(無定數), 親軍衛 40, 彭排 5,000, 前衛: 忠義衛(無定數), 忠贊衛(無定數), 破敵衛 2,500, 後衛: 忠順衛(無定數), 正兵(無正數), 壯勇衛 600으로 中央에는 내금위 등 親兵을 합해도 실제 전투병력은 약 2만으로 추측되며 그것도 分番入直을 하는 까닭에 2천 내지 3천의 병력만이 평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5衛의 各兵種은 내금위·별시위 같은 특별한 곳은 兩班이, 나머지는 대체로 良人農民이 담당하였으며, 彭排·隊卒과 같은 것은 賤人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宣傳官·內禁衛·兼司僕·族親衛·忠義衛 등은 長番이라 하여 交代없는 근무이지만, 別侍衛는 ‘五番 六年相遞’, 甲士는 ‘五番 六朔相遞’, 正兵은 ‘八番 二朔相遞 諸鎮留防 四番 一朔相遞’, 水軍은 ‘二番 一朔相遞’ 등으로 모두 교대의 규정이 있어서 소정기간의 番上이외에는 고향에 歸農하여 月 1次の 習陣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軍役의 대상자는 16세~60세에 이르는 良人이상의 男丁이 저야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正軍(戶首)과 奉足으로 구분된다. 前者가 현역병으로 복무했다면 후자는 현역병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봉족제도의 시초는 太祖 6년(1398)으로서 品官馬兵에 봉족 4명, 無職馬兵에 3명, 步兵에 2명을 각각 분급하고 選軍의 원칙은 3丁에서 1丁을 낸다는 규정이 설정되었다. 太宗朝 병제와 군역제도의 정비에 따라 國役전반에 걸쳐 身分의 차등, 田結의 多少 등에 따라 봉족 受給의

차등이 정해졌다. 군역의 대상자는 人丁이기 때문에 戶보다는 人丁이 중심이 되었고 이는 대체로 自然戶 및 血緣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니 3丁1戶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 후 세조의 軍額 확장책에 의하여 종전의 봉족제에 대신하여 2丁1保를 단위로 하여 保法이 성립되었다.

地方軍제도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것을 답습하였다. 즉 고려말에는 各道마다 전담 都節制使가 있어 경상도를 위시한 道内の 군사행정 및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구역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도 절제사 혹은 副節制使는 대개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지방의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기간요원들이었다. 즉 兵馬團鍊使·知兵馬團鍊使·兵馬團鍊副使·判官·伴尙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절제사의 전투지휘는 유사시에 그 고장의 병력을 동원하여 싸우는 정도로서, 직접 거느린 군사력은 지극히 소수였다. 그러다가 太祖 6년(1397) 5월에 군사단위로서의 道가 폐지되고 각 道에 2~4개의 鎭을 두어 도절제사 대신 僉節制使를 두고 부근 郡縣의 兵馬를 통할하는 동시에 都觀察使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이듬해 10월에 다시 都節制使가 復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國初에 사실상 내용이 없던 도절제사의 제도가 그 내용을 갖게 되었으며 또 도절제사의 營이 두어져 營軍이 설치되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도절제사 제도는 조선왕조 초기 일반행정구역과 같은 뜻을 가졌으나, 太宗 9년(1409) 10월에 11道로 정비되었으며 이후 지방행정 구획이 크게 8道로 구분되면서 兵馬道도 8道로 정비되어 갔다. 이러한 조직은 世祖초 지방군제가 정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道の 營과 연결되는 鎭의 설치에 太祖 6년 병마도가 일시 폐지됨으로서 그 道에 있어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에 鎭을 설치하고 僉節制使를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이는 특히 南方 지역의 방어기지의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이때 설치된 경상도 지역은 寧海·蔚山·東萊·合浦 등 4鎭이었다. 이와 같은 鎭의 설치에 국방군으로서의 지방군이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어 조선조의 지방군인 鎭軍을 성립시켰다. 그 뒤 道節制使가 復設된 뒤에도 각 道마다 군의 소재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큰 변동은 없었다. 이와같이 해서 도절제사가 파견되는 道(營)와 僉節制使가 파견되는 鎭으로 정비되는 동시에 이를 유지하는 군사력을 ‘營鎭軍’이라 하였다.

영진군은 주로 馬兵으로서 지방 營鎭에 赴防하는 지방의 군대였다. 당시 良民이 지는 의무 병역을 대개 ‘陸守軍’과 ‘騎船軍’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陸守軍의 테두리에 들어 갈 수 있는 군대로는 番上 侍衛하는 ‘侍衛牌’ 營鎭軍 등이 있으나 지방 守護에 중추를 이루는 것은 역시 영진군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營鎭 留防軍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다른 군대와 교대하여 영진에서 당번하며 당번이 아닌 때에는 농민으로 돌아 갔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奉足이 주어지고 또 당번 중에는 雜役免除의 특전을 주었다. 또 영진과 같이 지방 陸守軍을 이루는 것으로 守城軍이

있다. 이들도 역시 太祖 6년의 設鎭과 더불어 성립된 군대로 생각되며, 이들은 또 영진군과는 달리 歩兵으로서 지방방어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陸守軍은 다 같은 良民이지만 侍衛牌와 영진군보다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군사력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영진군이었고 이후 영진군이 정비되어가는 과정에서 영진군도 정비·확장되어 太宗 15년(1415) 경에는 일단락되었다.

이밖에도 지방에는 陸守軍으로 守護軍·雜色軍 등이 있었다. 수호군은 陵을 비롯한 특수지대를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군대지만 때로는 수성군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였다. 잡색군은 해안의 요새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된 영진군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내륙지방을 수호하고 그 外侵에 대비하여 광범위하게 동원해야 할 인원의 충당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군대였다. 잡색군의 조직은 太宗 10년(1410)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개 鄉吏·官奴·無役百姓 및 公私賤口를 망라한 것이다. 즉 평시에는 군역의 의무가 없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조직된 제2선의 예비군대였다. 이리하여 조선초기에는 지방에 사는 16~60세의 男丁은 武科 혹은 試取로서 직업적인 武人이 되는 자와 侍衛軍·騎船軍·營鎭軍·守城軍 등의 正軍(立役者)과 保 그리고 雜色軍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水軍은 처음 騎船軍으로 불려져 고려말 조선초에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국초에는 중요한 항구마다 處置使·節制使 등을 두었고 세종 2년(1420)에는 水軍都節制使를 폐지하여 兵馬都節制使가 겸한 일이 있으나 이듬해에 다시 그 중요성에 따라 慶尙左·右道와 忠清道에는 都安撫處置使를, 全羅道에는 처치사 등을 두기 시작했다. 또 그 밑에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都萬戶·萬戶 등을 배치하여 水軍을 지휘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지휘하는 수군을 처음 騎船軍으로 칭했다. 水軍都節制使 등이 최고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체는 관찰사의 간여범위가 넓어져 초기에는 겸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世宗 12년 水軍節度使로 된 이후에는 관찰사·병마절도사가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선군·船軍 등으로 표현되는 水軍은 太宗의 私兵력과 甲士 등의 復立 등으로 侍衛牌의 上京宿衛가 사실상 중요시되지 않음으로써 시위패의 일부가 여기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그 數가 불어나 《世宗實錄》地理志에는 水軍의 正軍數가 약 5萬이나 되었다. 수군의 증가는 기선군에 신분적 제약이 가해짐으로서 정비되어 갔다. 國初 기선군 재건때는 바다에 익숙한 沿海民으로 충당했는데 이들에게는 고기와 소금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특권이었던 魚鹽의 리는 오히려 소금을 구워 바쳐야 하는 役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기선군 종사를 점차 천시하게 되고 이 役을 피하려는 자가 속출하여 자연 신분적으로 격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기선군에 들어가는 자는 대개 세력이

없고 가난한 沿海民이었다. 이들에게는 奉足이 배정되고, 당번·비번이 있었으나 다른 지방군이 대체로 4번 교대인데 반하여 이들은 兩番교대하는 데서 그 복무조건이 불리하였던 것이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慶尙道内 人丁 191,719명 가운데 別牌가 816명에 奉足이 3,947명이며, 侍衛가 2,210명에 봉족이 7,895명, 營鎮소속이 2,261명에 봉족이 6,107명, 守城軍이 1,223명에 봉족이 2,362명, 騎船軍이 15,941명에 봉족이 36,071명이며 兵船은 275隻이었다. 雜色軍은 16,574명에 봉족이 47,462명이었다.

慶尙道内 左道 内廂과 각 鎮에 소속된 大丘府를 비롯한 경북지방 各邑의 兵種과 軍額은 다음 〈表 1-3〉 〈表 1-4〉와 같다.

〈表 1-3〉 左道内廂(在蔚山)의 軍官·守城軍

地	域	軍	官	守	城	軍	地	域	軍	官	守	城	軍
慶	州	115		64			仁	同				23	
醴	泉			25			玄	風				14	
清	道	45		29			義	興				13	
永	川	2		51			新	寧				19	
大	丘	60		22			龍	宮				14	
義	城			28			軍	威				10	
慶	山	11		18			比	安				19	
河	陽			9			합	계	233			355	

〈表 1-4〉 慶北지방 各鎮의 軍官·守城軍

鎮	別	軍	官	守	城	軍	鎮	別	軍	官	守	城	軍
寧 海 鎮	安東	87		22			義城	義城	30				
	寧海	45		9				義興	13				
	順興	19		4				新寧	10				
	醴泉	19						迎日	7			21	
	榮川	32		16				長鬚	3			1	
	青松	10		3				仁同	50				
	禮安	24		12				軍威	20				
	奉化	18		5				河陽	9				
	豐基	16		5				比安	23				
	龍宮	20						慶州任内省法伊部曲				4	
	眞寶	10		4			東 萊 鎮	大丘	7				
迎 日 鎮	安東	78		40				玄風	29				
	醴泉	29					泗 川 鎮	尙州	11				
	永川	26						星州	38				
	大丘	1						善山	21				
	興海	3		14				金山	13				
								開寧	8				
								知禮	10				

경상도의 水營소속 兵船과 軍數 가운데 경북지방의 것을 정리하면, 寧海府 丑山浦 千戶: 兵船 12隻·軍數 429명, 盈德縣 烏浦 千戶: 兵船 8隻·軍數 353명, 興海郡 通洋浦 千戶: 兵船 8隻·軍數 218명, 長鬐縣 包伊浦 千戶: 兵船 8隻·軍數 589명, 慶州府 甘浦 萬戶: 兵船 6隻·軍數 387명 이었다. 조선전기 경상도를 현재의 경남·경북으로 구분해서 볼 때, 국가는 국방 군사적인 면에서 경남지방을 보다 중시하였다. 행정·재정면에 있어서는 경북지방이 중시되는데 반하여 對倭初面인 蔚山에서 河東에 이르기까지 沿海郡에 左·右道の 兵營·水營이 포진하고 있었다. 世宗 14년에 편찬한 《世宗實錄》地理志 소재 慶尙道 道總軍額에는 侍衛軍이 2,631명, 營鎮軍이 3,876명, 船軍이 15,934명이었다. 거기에 나타난 경북지역 각군의 兵種과 軍額(雜色軍 除外)을 정리하면 다음 <表 1-5>와 같다.

<表 1-5> 《世宗實錄》地理志 所在 慶北地方 軍額

邑 名	侍 衛 郡	營 軍	鎮 軍	守 城 軍	船 軍
慶 州 府	66		209		941
清 道 郡	33		87		255
興 海 郡	10		27		165
大 丘 郡	51		105		454
慶 山 縣	20		34		200
長 鬐 縣	4		1		34
玄 風 縣	35		53		232
迎 日 縣	8		40		130
清 河 縣	2		—		46
安 東 府	113		241		506
寧 海 府	6		62		126
順 興 府	36		30		81
醴 泉 郡	73		95		256
榮 川 郡	45		64		130
永 川 郡	29		90		336
青 松 郡	4		22		49
義 城 縣	45		68		248
盈 德 縣	5		5		83
禮 安 縣	18		39		58
河 陽 縣	6		22		160
豐 基 縣	15		24		71
仁 同 縣	39		85		254
奉 化 縣	18		29		59
義 興 縣	18		31		128

邑名	侍衛郡	營軍	鎮軍	守城軍	船軍
新寧縣	17		33		148
眞寶縣	11		11		25
比安縣	28		49		140
尙州牧	134		37	94	540
星州牧	197	63	128	—	768
善山府	165	—	24	41	285
金山郡	72	15	14	—	179
高靈縣	27	11	—	—	218
開寧縣	65	5	9	—	146
咸昌縣	67	10	16	—	154
龍宮縣	42	—	41	—	116
聞慶縣	50	營鎮軍	25	—	53
軍威縣	19	—	37	—	88
知禮縣	30	—	20	—	80
平海郡	25	—	—	7	71
蔚珍縣	38	—	—	4	70

위 <表 1-5>에 의하면 世宗 14년 당시 大丘郡의 軍額은 侍衛軍 51명, 鎮軍 105명, 船軍 454명으로서 시위군은 10位, 진군·선군도 5位이내로 되어 있어 조선초기 大丘郡의 중요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II. 鎭管制의 실시와 大丘府의 兵役體系

鎭管制 실시의 배경을 보면, 世宗代 이래의 지방방위 조직은 營·鎭을 沿海·국경 등의 요새지에 두었기 때문에 内地郡縣의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상 편제를 재정비하면서 나타났다. 世祖때부터 국경지대인 平安·咸鏡道에 설치되었던 軍翼道의 체제를 전국적으로 체계화하였고, 내륙지방에 巨鎭을 설치하여 주변의 여러 읍을 中·左·右翼의 3翼 체제로 정비하였는데 이것이 鎭管體制의 先驅的 조치가 되었다. 말하자면 전국의 8道體制 아래 各道를 界首官과 같은 수준의 道로 나누고 各道마다 인근의 여러 郡縣을 中·左·右翼으로 分屬시켜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읍의 守令으로 하여금 모두 軍職을 겸하게 하여 中翼守令을 兵馬節制使 혹은 兵馬僉節制使로 부르고 좌·우익 수령을 兵馬團鍊使로 불렀다. 이들은 管内에서 番上한다든가 또는 현지의 여러 營·鎭·浦에 立番하는 군사와 下番한 군사의 習陣에 관한 일들을 관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雜色軍도 모두 各翼에 소속하게 하여 전국의 지방군

조직이 처음으로 확일성을 가지게 되었다.

世祖 元年 9월에는 전국의 軍翼편제를 확정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大丘道와 여타 경북 지방의 조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大丘道는 中翼에 大丘를 위시하여 가장 인접해 있는 河陽·慶山이 있으며, 左翼은 清道·靈山·昌寧·玄風으로 大丘의 남부를 주로한 지역이며, 右翼은 仁同·軍威·新寧으로 대구의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말하자면 대구를 그 중심에 두고 사방에 있는 군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大丘道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군익제도는 세조 3년(1457)에 중요한 지역을 巨鎮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주변지역의 여러 鎮을 여기에 속하도록 하는 鎮管體制로 개편하였다. 진관제는 ①종래 행정구역상의 道와 혼동하기 쉽던 道の 조직을 요새지나 군사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鎮으로 표시한 것과 ②翼의 체제를 지양하고 巨鎮을 중심으로 여러 鎮을 이에 속하도록 하여 지역적 특수성때문에 營·鎮軍체제에서의 水軍專擔의 방위지역에 설치한 獨鎮을 없애고 巨鎮 또는 諸鎮에 편입시켜 각 진의 독자성을 살피는 등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상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巨濟鎮은 金海鎮管의 諸鎮으로, 南海鎮은 晋州鎮管의 諸鎮으로 移屬되었다.

22) 《世祖實錄》 권 2, 世祖 元年 9월 癸未條.

세조 5년(1459)에는 진관의 운영과 기능이 다시 조정되었으며 同王 10년에 正兵과 營·鎭軍을 합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각 진관별로 侍衛軍(正軍)을 뽑아 중앙에 번상하도록 하고 또 영진군을 뽑아 各道 兵營이나 沿海의 여러 진에 赴防하도록 하던 체제와는 달리, 各邑의 정병은 평시 살고 있는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다가 番次에 따라 上京宿衛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진관편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法制化하였다.

世祖 12년(1466)에는 兵馬책임자의 명칭이 바뀌었으나 各邑의 수령이 節制使 이하를 겸하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었다. 즉 都節制使→節度使, 都節制使都鎭撫→虞候, 僉節制使·團鍊使→僉節制使, 同僉節制使·團鍊副使→同僉節制使, 團鍊判官→節制都尉로 개칭하고 지방군의 최고지휘자인 兵馬節度使를 兵使로 약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各道에 兵馬節度使(兵使, 從二品)을 두어 道內 陸軍의 지휘권을 장악하게 했는데 이를 主鎭이라 하였고 그 아래 牧使(從三品)를 例兼하는 僉節制使가 巨鎭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소규모의 鎭은 郡守(四品)이하가 同僉節制使·萬戶·節制都尉 등의 직함을 맡게 하였다.

육군의 진관편성체제에 따라 水軍도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세조 12년에는 水軍의 지방최고사령관을 水軍都安撫處置使라고 했다가 이어 水軍節度使로 개칭했으며 水使라 약칭했다. 水軍은 濟州·喬洞 등을 제외하고는 守令의 겸임이 없고, 水使 밑에는 虞候·僉節制使·萬戶 등의 직함을 주어 수군을 통솔하였다.

경상도는 진관체제가 다른 道보다 방대하였는데, 이는 東南해안을 끼고 있어 對倭방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兵使·水使 각 3人을 두어 左·右道 兵·水使가 別置되고 나머지 1인은 監司가 例兼하였다. 따라서 監司는 一道의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군사책임자로서의 방대한 권한을 장악하였고, 兵·水營 아래에 있는 진관의 각급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守令의 上官이었기 때문에 군사면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세종 30년(1448) 4월까지의 寧海·盈德·清河·興海·迎日·長鬚·慶州 등지에 水直軍이라는 특수 防倭軍이 있었다. 이는 해변에 사는 住民을 차출하여 防戍케 하고 주야로 候望하는 임시 防倭兵으로서 본래 법제상의 군대도 아니며 다른 道에는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세종 30년에 兵曹의 건의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世宗·世祖 兩朝의 경상도방면 방어진을 보면 자연히 大丘의 발전정도를 알 수 있다.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條에 의거 陸軍·水軍의 鎭·浦의 소재지와 軍數·兵船을 정리해 보면〈表 1-6〉와 〈表 1-7〉과 같다.

〈表 1-6〉 陸 軍

軍 帥 名 稱	所 在 地	軍	數
		軍 官	守 城 軍
兵 馬 都 節 制 使	昌 原 鎮	500	438
兵 馬 僉 節 制 使	蔚 山 鎮	399	40
兵 馬 僉 節 制 使	迎 日 鎮	301	80
兵 馬 僉 節 制 使	東 萊 鎮	300	80
兵 馬 僉 節 制 使	寧 海 鎮	300	80
兵 馬 僉 節 制 使	泗 川 鎮	300	49

〈表 1-7〉 水 軍

軍 帥 名 稱	所 在 地	兵 船 數 及 水 軍 數	
		兵 船	水 軍
水 軍 都 安 撫 處 置 使	東 萊 富 山 浦	33	1,779
水 軍 萬 戶	蔚 山 鹽 浦	7	502
水 軍 萬 戶	蔚 山 西 生 浦	20	767
水 軍 萬 戶	寧 海 丑 山 浦	12	429
水 軍 萬 戶	盈 德 烏 浦	8	353
水 軍 萬 戶	興海通洋浦(或은 豆毛赤浦)	8	218
水 軍 萬 戶	長髻包伊浦(或은 加嚴浦)	8	589
水 軍 萬 戶	慶 州 甘 浦	6	387
水 軍 萬 戶	蔚 山 開 雲 浦	12	420
水 軍 萬 戶	機 張 豆 毛 浦	16	843
水 軍 萬 戶	東 萊 海 雲 浦	7	589
水 軍 萬 戶	東 萊 多 大 浦	9	723
水 軍 都 安 撫 處 置 使	巨 濟 吾 兒 浦	28	2,601
水 軍 萬 戶	固城加背梁(或은 巨濟玉浦)	22	1,122
水 軍 萬 戶	金 海 薺 浦	9	882
水 軍 萬 戶	巨 濟 永 登 浦	8	700
水 軍 萬 戶	固城見乃梁(或은 巨濟玉浦)	20	940
水 軍 萬 戶	固城樊溪(或은 唐浦)	15	722
水 軍 萬 戶	晋州仇良梁(或은 固城蛇浦)	16	748
水 軍 萬 戶	晋州赤梁(或은 加乙串)	13	720
水 軍 萬 戶	晋州露梁(或은 平山浦)	8	568

위의 <表 1-6>과 <表 1-7>에서 보듯이 당시에는 육군보다 水軍에 중점이 두어져서 해안의 방비에 주안을 두었으며 육군은 단순히 연안지방의 6진에 2,800여명의 軍士가 배치되는데 불과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조 元年 9월에 전국의 軍翼을 편제하면서 大丘道가 경상북도의 7개 道(군익편제)의 하나로 大丘 이외에 仁同·軍威·新寧·河陽·慶山·淸道·靈山·昌寧·玄風 9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것은 世祖 元년에 이미 大丘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란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조 3년 10월에는 군익편제로서의 道를 鎭으로 改稱하였으며 左·右翼제도 폐지되었다. 이때 정해진 경상도의 各鎭別 所屬官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³⁾

- | | | |
|----|---|--|
| 左道 | [| (1) 大丘鎭－靈山, 昌寧, 玄風, 仁同, 義興, 新寧, 河陽, 慶山, 淸道 |
| | | (2) 安東鎭－豐基, 榮州, 奉化, 義城, 禮安, 眞寶, 青松, 軍威, 比安 |
| | | (3) 慶州鎭－寧海, 盈德, 淸河, 興海, 迎日, 長鬚, 永川, 密陽 |
| | | (4) 蔚山鎭－機張, 東萊, 梁山, 彦陽 |
| 右道 | [| (5) 昌原鎭－金海, 固城, 熊川, 漆原, 咸安, 鎭海, 巨濟 |
| | | (6) 晉州鎭－泗川, 昆陽, 河東, 南海, 丹城, 山陰, 宜寧, 咸陽, 三嘉, 安陰 |
| | | (7) 星州鎭－草溪, 陝川, 居昌, 高靈, 知禮 |
| | | (8) 尙州鎭－善山, 開寧, 金山, 咸昌, 龍宮, 聞慶, 醴泉 |

위에서 보듯이 세조 원년의 군익편제시 大丘道·慶州道·尙州道·星州道·晉州道·安東道·寧海鎭·迎日鎭·東萊鎭·熊川鎭·泗川鎭·巨濟鎭·南海鎭이던 것이, 이때 와서는 安東鎭을 비롯한 8개의 鎭으로 바뀌면서 88개 지역이 67개 지역으로 군 편제가 바뀌었다. 大丘道는 大丘鎭으로 바뀌면서 9개官을 관할하게 되어 숫자상으로는 같으나 내용을 보면 軍威가 安東鎭으로 빠져 나갔으며 그 대신 義興이 새롭게 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구진은 경상도 전체 8개진 가운데서 관할 구역의 면에서도 晉州鎭 다음으로 安東鎭과 同一한 규모였으며 이를 통해 세조 원년 이후의 제도개혁으로 大丘의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세조 12년에는 官制를 크게 개혁하면서 地方軍制도 일단 완비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兵馬節度使는 京畿·江原道の 경우 觀察使가 例兼하였지만, 忠淸·全羅·黃海·平安道는 2員으로 그 中의 하나는 관찰사가 겸하였고 다른 하나는 專任의 병마절도사로 하였다. 그리고 경상·함경도는 국방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例兼하는 兼兵使 이외에 전임의 병마절도사

23) 《世祖實錄》 권 9, 世祖 3년 10월 庚戌條

2員이 있었다. 즉 경상도는 좌·우 兩道로 2分하여 각각 1員씩 두어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군사의 지휘권은 主鎭의 各道 兵使로부터 巨鎭의 僉節制使로 또 諸鎭의 同僉節制使로 연결되는 一元的 계통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관찰사는 행정권과 병마권을 가지는 동시에 鎭의 병마권을 겸하는 수령의 上官이었기 때문에 다른 兵使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졌을 것이라고 본다.

水軍도 육군의 진관편성에 맞추어 그 조직을 개편하였다. 各道의 水軍 최고지휘자는 水軍 節度使(正3품)로 江原·黃海道에는 1員으로 관찰사가 例兼하였고, 平安道는 2員 함경도는 3員이었으나 1員은 觀察使兼이고 1員은 專任의 水使를 두었으며, 慶尙·全羅道는 3員으로 하나는 관찰사겸이고 둘은 道를 兩分하여 각각 전임의 水使를 두었다. 이 밖에 제주에는 세조 11년 兵馬水軍節度使를 두어 牧使로 하여금 兼任케 하였으나 睿宗 元年에 이를 兵馬水軍節制使로 내려 牧使가 겸하였다. 水使밑에는 副使인 虞候가 있었으며 그 아래 僉節制使 또는 都萬戶가 있었고 그 지휘하에 各浦의 萬戶가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거 世祖代의 경상도 陸·水軍의 편성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表 1-8〉과 같다.

〈表 1-8〉

鎭管體制編成表²⁴⁾

慶尙道 { 兵使 3(觀察使, 慶尙左兵使, 慶尙右兵使)
水使 3(觀察使, 慶尙左水使, 慶尙右水使)

觀察使	(兵使, 水使兼)	監營=慶州→尙州→大丘
左兵使·虞候		左兵營=蔚山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節制都尉
(慶州鎭營) 慶州府尹 (兵馬節制使)	蔚山郡守·梁山郡守·永川郡守·興海郡守	慶州判官·清河判官·清河縣監·迎日縣監· 長鬐縣監·機張縣監·東萊縣監·彥陽縣監
(安東鎭管) 安東大都護府使	寧海府使·青松府使·醴泉郡守·榮州郡守 豐基郡守	安東判官·義城縣令·奉化縣監·眞寶縣監 軍威縣監·比安縣監·禮安縣監·盈德縣令 龍宮縣監
(大丘鎭營) ○○○○ 大丘府使	密陽府使·淸道郡守	慶山縣令·河陽縣監·仁同縣監·玄風縣監 義興縣監·新寧縣監·靈山縣監·昌寧縣監
右兵使·虞候		右兵營=昌原

24) 이 表는 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前期篇에서 轉載했다.

(尙州鎭管) 尙州牧使	星州牧使·善山府使·金山郡守	尙州判官·星州判官·開寧縣監·知禮縣監 高靈縣監·聞慶縣監·咸昌縣監
晉州鎭營 晉州牧使	陝川郡守·草溪郡守·咸陽郡守·昆陽郡守	晉州判官·居昌縣監·泗川縣監·南海縣令 三嘉縣監·宜寧縣監·河東縣監·山陰縣監 安陰縣監·丹城縣監
(金海鎭營) 金海府使		巨濟縣令·漆原縣監·鎭海縣監·固城縣令 昌原府使·咸安郡守·熊川縣監
左水使·虞候	水營=東萊	
僉節制使	萬 戶	
(釜山浦鎭管) 釜山浦(東萊)僉使 (京職兼)	豆毛浦(東萊)萬戶·甘浦(慶州)萬戶·海雲浦(東萊)萬戶·漆浦(興海)萬戶·包伊浦(東萊) 萬戶·烏浦(盈德)萬戶·西生浦(蔚山)萬戶·多大浦(東萊)萬戶·鹽浦(蔚山)萬戶·丑山浦 (寧海)萬戶	
右水使·虞候	水營=巨濟加背梁	
(薺浦鎭管) 薺浦(熊川)僉使 (京職兼)	玉浦(巨濟)萬戶·平山浦(南海)萬戶·知世浦(巨濟)萬戶·永登浦(巨濟)萬戶·蛇梁(固城) 萬戶·唐浦(固城)萬戶·助羅浦(巨濟)萬戶·赤梁(晉州)萬戶·安骨浦(熊川)萬戶	

大丘鎭管에는 密陽都護府와 淸道郡이 소속되어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밀양도호부는 세조 원년 慶州道 右翼에, 세조 3년 慶州鎭 소속이었으나 成宗代에 대구진관으로 移屬되었다. 이것은 大丘鎭管의 군사적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며 동시에 대구의 행정구역자체가 격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大丘鎭은 主鎭으로서 ①所屬 各邑의 軍士를 집합시켜 매월 16일을 期하여 敎練을 행하고 1년에 4회 習放이라 하여 大砲 쏘는 법을 가르치며 임시로 군사를 비상소집하여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는 대부분 농민이었으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②主鎭 소속의 군사를 順番에 따라 서울로 보내 首都 및 王宮의 守衛를 담당케 하였다. ③이 밖에도 여러 가지 軍事上 업무를 취급하였다.

大丘鎭은 위로 慶尙左道 都節制使에 소속되었으며 도절제사는 兵曹의 지휘를 받았다. 대구진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11官으로 되어 있었다. 대구진의 지역별 軍士의 數를 정리해 보면 다음 <表 1-9>와 같다.

〈表 1-9〉 大丘鎮의 軍士²⁵⁾

구	분	成宗元年以前	成宗元年以後	成宗3年以後
大	丘	346	316	260
密	陽	(793)	770	700
清	道	446	420	360
慶	山	155	124	80
河	陽	78	40	30
仁	同	396	350	300
玄	風	153	120	100
義	興	152	120	100
靈	山	219	190	150
昌	寧	390	365	310
新	寧	78	(48)	(30)
合	計	2,413	2,815	2,390

위의 〈表 1-9〉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世祖朝에는 이보다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표에서 보이는 成宗年間の 군사는 군비를 축소할 당시의 것이므로 앞시대보다는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군사의 수는 원래 田 5結에 1丁을 내게 하는 義務兵制度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군역부담자를 피폐케 한다고 보고 그 수를 점차 줄여 갔던 것이다.

大丘에서 제조·납입해야 할 무기로는 1년에 角弓 36張·磨箭 18部·筒箭 18部·長槍 15柄·中槍 21柄·環刀 36把·弓弦 72箇·鐵甲 2領·大鎗 1·中鎗 1·小鎗 1·鼓 2·大角 2·小角 2로써 그 일부는 서울에 보내고 일부는 鎮에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세조 12년 7월 制令에 의한 것이었다. 성종 22년 軍士 1만을 뽑아 여진족 尼麻車无狄哈을 정벌하게 되어 大丘의 軍士들도 같은 해 8월 17일에 대구를 출발 9월 21일 吉城에 도착하여 전투에 참여 하기도 했다.

III. 鎮管制의 變化와 制勝方略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壬辰倭亂이전까지 조선의 국방체제는 鎮管制였다. 鎮管制下의 군인은 正兵의 경우 3개월, 水軍은 6개월의 복무를 마치면 본업인 농업에 종사하여 요역의 부담을

25) 《成宗實錄》 권 3, 成宗 元年 2월 己卯條, 《成宗實錄》 권 15, 成宗 3년 2월 戊辰條 참조.

져야 했다. 良人農民의 이와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保人을 두었으나 單位 保의 수가 감소되고 종래까지의 自然戶 단위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내재하여 군사의 부담능력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면서 ‘放軍收布’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保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奉足이 있었는데, 正兵 1명에 餘丁을 주어 그가 財力을 내어 正丁을 돕게 하는 것이었다. 태종 4년에는 토지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甲士·侍衛牌·騎船軍 등에게 각각 일정한 봉족을 주고, 토지가 많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군사외에 향리 기타 諸有役者에게도 봉족을 주었다. 그러다가 세조 10년에는 戶대신 保를 단위로 하여 兵種과 役種에 따라 최고 3保에서 최하 1保로 하는 給保의 규정을 정하였다. 이러한 保인이 立番者에게 供出하는 것은 1인 每月 布1匹이 원칙이었는데 이 保布는 立番하는 군사가 직접 保인에게서 징수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保人의 流亡이 심화되면서 保人의 부담까지도 져야하는 불합리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正兵의 부담은 水軍에 비해 가벼운 것이었다. 水軍은 그 役 자체가 他 兵種에 비해 가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습적인 役으로 인식되면서 천시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리고 水軍의 기지가 있는 各 浦는 人員에 편차가 많았으므로 일정한 軍士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근 내륙지방의 사람을 차출해야 했으므로 그 폐단이 또한 심하였다. 이러한 陸·水兩軍의 운영은 큰 문제점을 가져와 결국은 鎭管體制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制勝方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鎭管體制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社會·經濟的 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事例들이 있었다. 즉 ①丹陽郡守 黃俊良의 陳民弊十條疏(《明宗實錄》卷 22, 明宗 12년 5월 己未條), ②豐德郡守 李民覺의 陳民弊六條疏(《明宗實錄》卷 32, 明宗 21년 4월 戊寅條), ③彥陽縣監 林薰의 彥陽陳弊疏(《葛川文集》卷 2), ④司憲府 持平 韓忠의 鄉里 溫陽郡民弊疏(《中宗實錄》卷 29, 中宗 12년 8월 甲子條) 등이 있다.

世宗·成宗代에 새로운 國防體制로서 鎭管制가 성립되었지만 이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鎭管制의 기능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金時習에 의하면 당시 농민들은 “私債와 租稅의 성화같은 독촉에다 負役은 亂麻와 같이 얽혔고 豪強에 기름진 농토마저 빼앗겼으며 머슴도 作保充軍되어” 經濟力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²⁶⁾ 이러한 상황이 좀더 진전되면 戶首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流亡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軍額의 격감을

26) 《梅月堂集》詩集 권 6, 記農夫語「私債官租日夜督 況我難逃白丁役 一身丁役亂於麻 東侵西擾多煩酷……我有腴田數十畝 去年已爲豪強奪 亦有壯雇服耕耘 昔年作保充軍額」

기록한 例를 보면 中宗 7년에 “慶州府尹 李繼福이 啓하여……경상도 軍士는 10여만이나 실제로 가서 보니 2만여명이다. 방어처는 33곳이니 2만의 병졸로 3番을 나누어 33곳을 방어하면 1곳에 겨우 1백명이다”라고 하여 軍額은 감소하였고 戶口가 광범하게 流亡했음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丹陽縣의 경우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戶 235, 口 724의 實勢를 보이고 있지만 앞의 자료 ①에서 보면 凋弊가 극심하여 남은 백성이 40戶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말하자면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된 때로부터 100여년 지나면서 인구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①의 자료에는 또한 材木의 크기에 따라 丹陽郡이 官司별로 輸納해야 될 材木의 量이 材椽은 4百, 散木은 거의 수만인데, 이것을 40戶가 감당하게 되어 男女가 모두 지쳐 있다는 것이다. 즉 民戶의 감소는 가혹한 貢役의 賦課였음을 알 수 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1家が 100戶의 役을 부담하고 單丁이 100夫의 任을 감당하게 되어 民戶가 流散하며 한 邑이 폐허화하였다”고 했다. 당시 丹陽郡에는 步兵(正兵) 定額은 26명인데 현재는 그 절반인 13명 뿐이며 그나마 이들에게는 保卒 곧 保人이 1人도 없어 교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步兵의 役에는 放軍收布에 따르는 兵價가 부과되었는데 현존하는 13人분은 切隣·一族의 힘이나마 빌릴 수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 사람의 百餘之布는 收納할 방도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散定하여 징수하므로 한 번 兵價를 치르고 나면 집집마다 술 하나 남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保法의 실시로 인한 軍制의 모순은 放軍收布로 귀결되어 농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兵價의 公定을 시도하였으나 이것이 지켜질 수 없었다. 成宗 24년 ~ 中宗 39년까지의 番價(代立價)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 <表 1-10>과 같다.

<表 1-10> 番價의 變化

年 度	一 朔 番 價	典 據
成宗 24년	(五) 8.5~9匹	《成宗實錄》 권 277, 24년 5월 丙戌條「三朔內 或至綿布 十七八匹」
成宗 24년(公定)	(五) 3匹	〃 권 278, 〃 閏5월 辛丑條
燕山 3년	(五) 7.5~8匹	《燕山君日記》 권 28, 3년 11월 己酉條「二朔之價 必准十五六匹」
中宗13년(公定)	(五) 7匹	《中宗實錄》 권 62, 23년 8월 癸丑條「三朔之價 多至二同」
23년	(常) 50匹	〃 권 65, 24년 5월 甲寅條「一朔代立之價 小不下 三十餘匹 多至五十匹」
24년	(常) 30~50匹	〃 권 81, 31년 정월 丁卯條「一番之價 捧之百匹」
31년	(常) 100匹	〃 권 95, 36년 4월 庚申條
36년(公定)	(五) 3·5匹/粗布4匹	〃 권 103, 39년 5월 丙辰條「代立之價 至於六十匹」
39년	(常) 60匹	

丹陽郡의 경우가 正兵의 例라 한다면 자료 ③은 彥陽縣 水軍의 實態를 밝혀주는 例이다.²⁷⁾ 이에 의하면 당초 彥陽縣에 책정된 水軍은 戶 249, 丁 996이었으며 現存 兵額은 500여명(507명)뿐이었다. 이 縣에서는 이처럼 元額의 절반이 死亡(236명, 24%)·逃亡(238명, 24%)·老除(6명, 1%)·疊錄(9명, 1%) 등으로 줄어들었음에도 諸負擔을 종전대로 부과함으로써 流亡이 가속화되고, 또 이들의 布價를 族徵·隣徵한 데서 縣이 殘弊된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水軍戶의 편성실태를 보면, 4丁이 모두 缺員된 경우가 40호로서, 殘存 軍호는 209戶였다. 즉 元額의 16%가 流失된 것이다. 여기에다 3丁 즉 保人이 모두 없어지고 戶首만 남은 경우가 44戶인데(元額의 17%), 保人이 없는 戶首의 軍役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양자를 합하면 軍役 부담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약 33%에 달하여 나머지 軍役 부담을 지게 된 165戶도 戶首와 保人을 합하여 평균 28명으로 구성되는 허약한 軍戶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즉 戶首 1명과 保人 3명이 1軍戶를 이루는 水軍編戶의 원리에 비추어 殘存한 軍戶의 경우 외형상 그 경제력은 약 절반이 되는 셈이다. 이를 보면 水軍編戶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 物故者의 수가 老除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상적으로 軍籍이 작성되었다면 新規軍役負擔者의 수와 老의 나이가 되어 軍籍에서 제외되는 수 사이에는 균형이 잡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物故者 236명과 老除者 6명 사이에 약 40대 1의 비율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에는 軍적의 放棄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된다. 실제로 中宗 18년 軍적이 작성된 뒤에는 壬亂 발발까지 새로운 軍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²⁸⁾

〈表 1-11〉 軍 額 現 황

年 度	正 軍	奉 足	雜 色 軍	備 考
成宗 6	155,219	332,746		《經國大典》兵典, 《成宗實錄》 권 57, 6년 9월 甲寅條
成宗 8	134,973			《成宗實錄》 권 81, 8년 6월 乙卯條
成宗 17	153,303			《成宗實錄》 권 239, 21년 4월 丁亥條 丙午年軍籍(舊額)
成宗 21	158,127			同上條〈今定額〉
中宗 4	177,322	123,958	123,958	《中宗實錄》 권 10, 4년 12월 丁巳條
中宗 18	186,631		125,074	《中宗實錄》 권 49, 18년 12월 乙丑條
宣祖 8	—	—	—	《宣祖修正實錄》 권 9, 8년 3월 新軍籍 頒行

위의 〈表 1-11〉에 의하면 성종 6년 이래 軍額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軍적을 바탕으로

27) 丹陽·彥陽縣의 사례는 金潤坤, 〈壬辰亂勃發直前의 地方郡縣實態〉 《柳洪烈華甲紀念史學論叢》, 1971 참조.

28) 《經國大典》의 軍士定額이 이루어진 成宗 6년부터 宣祖 8년까지의 軍額현황을 정리해 보면 〈表 1-11〉과 같다.

파악된 것이 아니라 前籍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가산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宣祖朝에 들어오면 軍額의 實數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앞의 자료 ②에서 豐德郡守 李民覺은 疏를 통해, 지나치게 軍額을 많이 책정하여 그에 따라 保人의 부담이 과중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流亡하게 되니 그러한 병폐는 更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當郡의 扈隸와 그 保人이 규정대로 俱存하는 경우는 全無하며, 戶가 保人을 겸하거나 또는 戶와 保가 모두 없어진 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扈隸의 경우 1郡에서 70여명이 책정되어 있으나 과중한 부담을 피하여 도망함으로써 그 一族이 代役하는 경우가 元額의 半을 넘으며, 그 나머지도 一族의 役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 이사해 버리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갖가지 폐단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상 兵種의 현존액은 모두 元額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現在兵額도 규정대로 戶首와 保人이 俱存되어 있는 예는 전무하였으며, 대부분의 戶數는 保人을 확보하지 못해 戶首가 그 保人을 겸하는 등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의 이면에는 관료집단이나 행정실무진의 업무능력 한계와 의도적 무사안일·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자 실시된 制勝方略의 分軍法은 각 진관별로 自戰自守하는 진관 체제와는 달리 유사시에 各邑의 守衛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本鎭을 떠나 배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방지역에는 군사가 없어 일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막을 방도가 없는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송방략은 中宗朝 남방의 三浦倭亂(1510), 明宗朝 乙卯倭變(1544) 등을 겪는 동안에 시도되었으며, 진관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지방의 군사를 제도상으로 군사직을 겸하고 있던 所管守令이 인솔하여 미리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대기하되 都元帥·巡邊使·防禦使·助防將 등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京將들과 本道의 兵·水使가 각기 그 지휘관이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三浦倭亂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비전투원까지 동원하기 위한 거국적 군사체제로 만들었으나 임진왜란을 당하여 實戰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壬亂中 柳成龍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의 모색을 주장하였고, 이에 지방에 〈東伍軍〉 등을 설치하게 되었다.²⁹⁾ 즉 진관체제에서는 軍兵이 모두 鎭管에 分屬하며 경상도의 경우 金海·大丘·尙州·安東·晉州 등 6개의 鎭管이 對敵하였는데 한 鎭이 失利하더라도 他鎭이 嚴兵堅守함으로써 奔潰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乙卯倭變후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分軍法을 실시하여 制勝方略이라고 諸道가 본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29) 《宣祖修正實錄》 권 25, 宣祖 24년 10월條.

이렇게 된 뒤로는 警急이 있으면 반드시 遠近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無將의 軍을 原野 가운데에 먼저 모아 놓고 千里 밖에서 오는 將帥를 기다리다가 將은 이르지 않았는데 賊鋒은 이미 가까와 軍心이 선동되어 반드시 潰滅되고 만다고 하였다. 이러한 制勝方略의 운용은 사실상 可用兵力을 모두 동원하는 總力戰體制로서 戰線이 무너지면 後方이 수습될 수 없는 전략상의 취약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군제는 소규모 局地戰에서 적용될 수는 있어도 대규모의 廣域戰에는 대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임란초기 대구지역도 이와 같은 연유로 쉽게 적의 수중으로 떨어졌고 전란중 상당한 기간동안 적의 통과지역 내지 후방 주둔지역으로 남게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本書》4篇 4章에서 그 구체적 서술이 있게 된다.

第3節 交通·通信과 大丘府의 位置

I. 道路網과 大邱地域의 驛院

조선전기는 중앙집권의 정치체제가 근간을 이루었으며, 농업경제가 그 중심인 사회로, 商工業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中央과 지방사이의 交通·通信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나 시설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 당시로서는 교통·통신체제가 사회·경제적 의미보다는 행정상·군사상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지녔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새로운 수도의 건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망과 驛院制·烽燧制까지도 모두 漢城府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갔다.

도로는 사람들의 步行·騎馬·轎子로 통행하는데 이용되었으며, 화물의 수송을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道路의 거리 표시는 《續大典》工典 橋路條에 周尺 6尺을 1步, 360步를 1里, 30里를 1息으로 한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하였다. 景福宮 앞의 元標를 起點으로 道程을 따라 每 10里에 이정표인 小墩, 每 30里에 大墩을 두고 墩에 里數와 지명을 새겼으며, 혹 5里마다 亭子를 세우거나 30里마다 榆柳를 심어 道里를 표시하기도 했다.

도로의 幅은 대체로 협소하였으나 都城內의 大路는 廣 56尺, 中路 16尺, 小路 11尺으로 하고 兩傍의 溝廣을 각 2尺으로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도로망이 퍼져 나갔는데 그 크기에 따라 大·中·小路로 구분되었고 도로를 따라 驛·院·站 등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經國大典》工典 院宇條를 통하여 살펴 보면 大路는 서울→開城, 서울→竹山, 서울→稷山,

서울→抱川間이며 이 4大路와 연결된 開城→中和, 竹山→尙州·鎭川, 稷山→公州·全州, 抱川→淮陽, 서울→楊根間이 中路가 되었으며 이 中路와 연결된 外方의 각종 도로가 小路였다. 《增補文獻備考》輿地考 12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路：京城→義州間, 重要經유지：開城府·黃州·平壤·安州·定州·義州

第2路：京城→慶興西水羅間, 重要經유지：鐵嶺·永興·咸興·北青·吉州·鏡城·隱城·慶興·西水羅

第3路：京城→江陵→平海間, 重要經유지：原州·大關嶺·江陵·三陟·蔚珍·平海

第4路：京城→幽谷驛→東萊釜山間, 經유지：漢江·板橋站(廣州)·險川·龍仁·直谷·陽智·佐替(竹山)·陣村·廣岩·石院·崇善·達川·忠州·丹月驛·安富驛·鳥嶺桐華院·聞慶·新院·幽谷驛(聞慶)·德通站(咸昌)·洛院驛(尙州)·佛峴·洛東津·餘次里站(善山)·古里谷·大川(仁同東5里)·東明院峴(漆谷)·牛岩倉(漆谷)·琴湖江·大丘·梧桐院·八助嶺·清道·榆川·密陽·耳倉內浦倉·黃山驛·梁山·東萊·釜山

第5路：京城→幽谷驛→固城統營間, 重要經유지：第4路로 幽谷·尙州·比川(開寧)·星州·玄風·咸安·鎭海(現昌原鎭東)·固城·統營

第6路：京城→素沙→參禦驛→固城統營間, 重要經유지：柳川(水原)·素沙(稷山)·成歡驛·天安·公州·恩津·炭峴·參禮驛·全州·南原·晉州·統營

第7路：京城→素沙→參禮驛→海南館頭梁→濟州間, 重要經유지：第6路로 參禮驛·井邑·羅州·海南·館頭梁·濟州

第8路：京城→素沙→忠清水營間, 重要經유지：第6路로 素沙·要路院(牙山)·新禮院(禮山)·廣川·忠清水營(保寧)

第9路：京城→江華間, 重要經유지：楊花渡·金浦·甲串津·江華

위와 같은 9개의 간선도로 이외에 시대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도로가 계속 만들어졌다. 즉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람들의 거주지가 새롭게 형성되며, 그들의 이동으로 인해 더 많은 도로가 생겨나게 마련이었다. 또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商工業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에 물산의 수송이 활발해 짐에 따라 도로망은 더욱 복잡해졌다. 경북지방은 鳥嶺에서 尙州를 거쳐 東萊로 나가는 간선도로, 낙동강을 따라 전개된 도로, 海産物의 공급을 위한 寧海·盈德에서 진보·靑松을 거쳐 安東으로 연결된 도로, 慶州에서 永川을 거쳐 河陽·大丘·星州로 연결된 도로, 永川에서 新寧을 거쳐 靑松으로 나가는 도로, 大丘에서 秋風嶺·鳥嶺·竹嶺으로 통하는 도로와 기타 中小路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經國大典》·《續大典》에 의하면 大丘를 지나는

도로는 大路도 아니고 中路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大丘가 京城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조선초기에는 京城以南보다 以北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續大典》兵典 驛路條에 의하면 京城에서 抱川을 지나 永平까지가 大路이며, 鐵原·淮陽·會寧·穩城·鏡城까지가 中路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當時 野人에 대한 대책을 매우 중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世宗朝 三浦開港으로 인해 점차 활발해지는 對倭貿易으로 倭人에 대한 대책이 점차 중요시됨에 따라 大丘를 거쳐 東萊·釜山에 이르는 交通路의 重要度가 더해졌던 것이다. 《攷事撮要》下에 의하면 당시 京城에서 釜山浦로 가는 中路가 大丘府를 지나게 되어 있었으며 또 大丘府에 倭使를 享宴하는 곳도 마련하였다. 이는 大丘府가 對倭關係의 긴밀화와 더불어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며, 나아가 많은 倭人들의 往來에 대비하여 내륙지방의 군사방어력 확충책은 드디어 대구를 都護府로 승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서 대구는 交通의 요지로서만이 아니라 軍事·政治의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역제는 대체로 고려의 것을 답습하였다. 戶曹는 驛站을 총괄하는 중앙의 최고 기관이었으며 실무를 관장하던 곳은 乘輿司였다. 승여사가 역의 사무를 관장한 것은 태종 5년 3월 6曹分職規定이 정해진 뒤부터 일 것 같으며 그 전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供驛署가 그 사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驛에는 驛長·驛吏·驛卒들을 두어 驛政의 관리와 公役에 당하게 하였고 몇 개 내지 몇 십개의 驛을 한 道로 하여 驛丞(從9品) 또는 察訪(程驛察訪, 從6品)이 이를 관장하는 동시에 교통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보고하기도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驛丞이 있었으나 점차 程驛察訪으로 바뀌게 되었다. 察訪은 고려시대의 官名으로 仁宗代 이전부터 시작하여 수시로 察訪·察訪使·察訪別監을 地方에 파견하여 州縣官吏의 업무수행 능력을 살피고 그 승진·파직을 담당하게 했다. 조선시대 太宗·世宗시대에 걸쳐 수시로 파견된 찰방은 거의 臺諫이나 正郎職에 있는 유능한 文臣들이었으며 그 직무는 고려시대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朝官을 察訪으로 分遣하는 목적은 州郡守令의 貪污酷刑과 민간의 飢寒困苦 및 含冤負屈을 고찰하여 법으로써 이를 징계함에 있었다. 그리고 程驛察訪을 찰방으로 通稱하게 된 이유는 ①程驛察訪의 직무와 성격은 찰방의 직무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②兩者는 본래 명망있는 朝官에서 파견되었으며 ③兩者는 사실상 직책구분의 편의를 위하여 역호에 파견된 것 만을 특별히 程驛察訪이라 호칭하였으며 ④世宗 17년 이전 수년간 어느 시기에 찰방의 파견이 중지되고 정역찰방만이 계속 파견됨으로써 이후 자연히 정역찰방을 그냥 찰방으로 호칭하게 되었던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驛丞制가 察訪制로 이행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世宗實錄》地理志가 성립된 1454년에는 특수한 지역에만 찰방이 파견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는 驛丞制가 지배적이었다. 《經國大典》이 반포된 1471년에는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찰방으로 개편되었으며, 中宗 30년(1535)에는 驛丞制가 완전히 혁파되고 찰방으로 바뀌었다.

驛馬의 사용에는 馬牌라는 증빙을 요하였는데 사용자의 品階에 차이가 있어 말을 그 數대로 새겨 넣은 銅製의 圓牌가 그것이다. 중앙에서는 兵曹가 馬文을 발급하면 그에 따라 尙瑞院에서 馬牌를 내주었으며, 外方에서는 監司, 兵·水使가 마패를 받아 啓聞 또는 進上 등 필요한 때에 이것으로 發馬케 하고 廻還文이 있으면 歸路에도 마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사정이 긴급한 때에는 雙馬를 사용하였다. 특별한 임무가 아니더라도 鎭將(僉使·萬戶)·驛官·沿邊의 未契家守令·遠方(洪原以北·博川以北)의 敎官에게는 給馬하였다. 이 公用旅行은 各驛官이 職名과 日時를 기록하였다.

고려시대에 설치된 역의 수는 525個였으나 조선시대에 몇 차례 개편을 거친 뒤 《經國大典》 편찬시에는 554個로 확정되었다. 역의 분포는 고려시대에 開京을 중심으로 黃海·江原北部와 北境一帶(朔州·雲山·永興方面)에 역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비하여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 방면의 것이 많이 감소되는 반면 새로운 국경선을 따라 漢城~義州間, 漢城~慶興間의 幹線과 江界方面·三水方面의 支線이 정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중부이남의 지방은 거의 고려시대 이래의 소재지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各道別 驛數는 경기 5道 54驛, 충청 6道 71驛, 경상 11道 158驛, 전라 5道 60驛, 강원 4道 82驛, 황해 4道 31驛, 평안 2道 39驛, 함경 3道 54驛으로 모두 549驛이었다. 驛의 수에 있어서 경상도가 최다이며, 察訪도 경상도에 11個所로 최고였다. 이에 비하여 平安·咸鏡 兩道の 산악지대에는 거의 역의 시설이 없고 찰방도 그 면적에 비하여 배치가 극소하였다.

역의 所在地는 주로 大路邊의 州縣 各邑에 설치하였으나, 그 가운데는 간선도로로부터 상당히 격리된 벽지에 역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識者層에서는 일찍부터 그 是正策을 논의하였으나 쉽사리 고쳐지지 못한 채 후기까지 그대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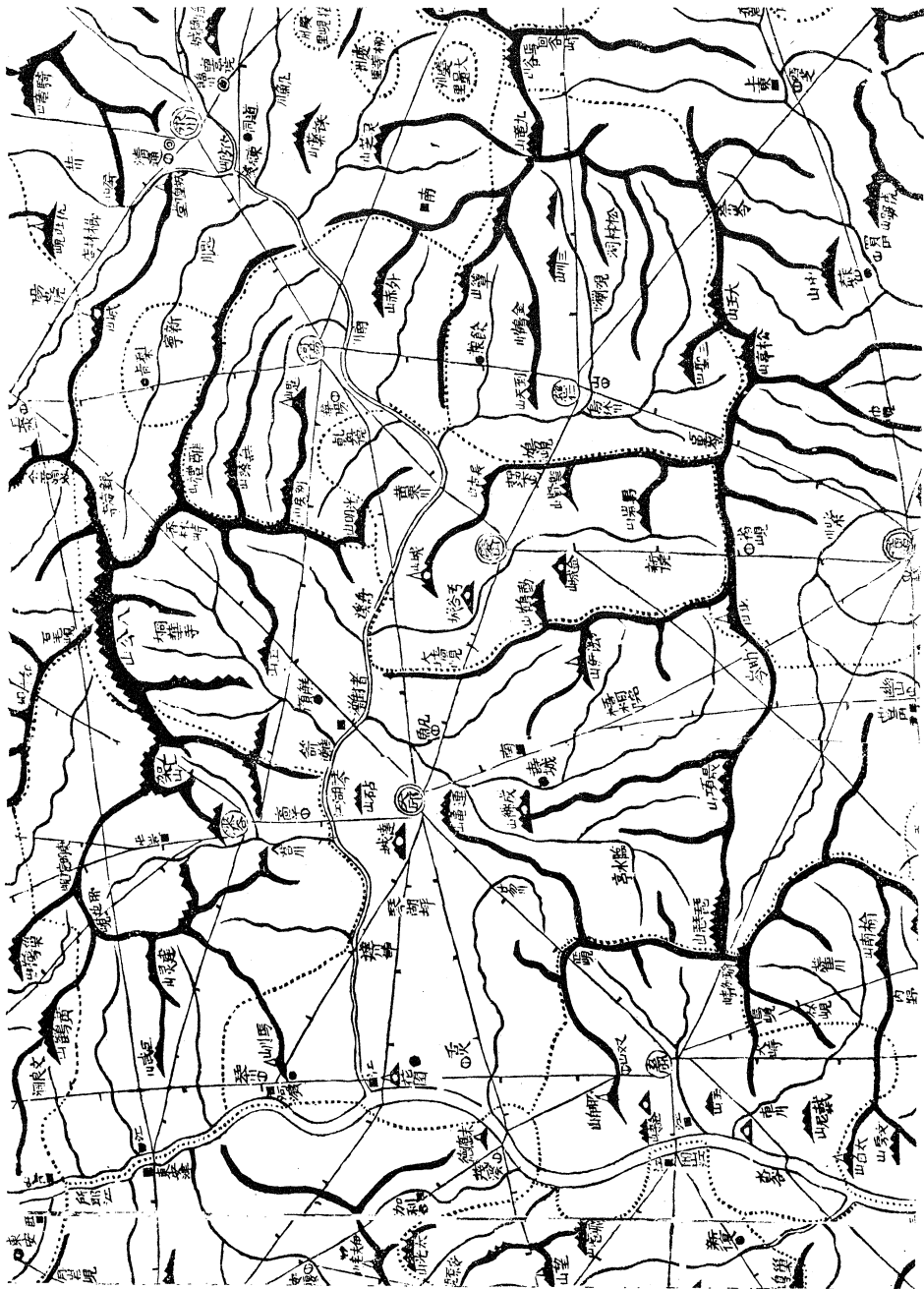
大丘를 중심으로 한 省峴道 察訪 소속의 역들을 살펴보면 淸道省峴·玄風雙山·昌寧內野·靈山一門·大丘凡於·淸道榆川·大丘舌化·靈山溫井·淸道鰲西·密陽幽山·淸道買田·淸道西芝·密陽龍駕·密陽金洞·密陽良洞·密陽水安·密陽無訖 諸驛과 成宗 이후 長水道에서 移屬해온 慶山押梁驛과 金泉道에서 이속해온 大川琴川驛으로 모두 小驛이다. 그런데 正祖 9년 이후 밀양의 5驛은 黃山道와 自如道로 移屬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大丘의 管轄구역

내에 있는 역은 凡於驛과 琴川驛이다. 凡於驛은 大丘都護府 廳舍에서 동쪽으로 9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범어역의 동쪽 25리에는 慶山押梁驛이 있었고 남쪽 55리에는 清道鰲西驛이, 그리고 西南으로 30리에는 花園縣舌化驛이, 북쪽으로 27리에는 星州任內 八莒縣 高平驛이, 서쪽으로 37리에는 河濱縣琴川驛이 있었다. 花園의 舌化驛에서 남쪽으로 20리에는 星州牧 茂溪驛이, 30리에는 玄風縣 雙山驛이 있었으며 河濱縣 琴川驛에서는 서쪽으로 35리에 星州 踏溪驛이 있었다. 당시의 범어역은 대구를 중심으로 사방에 뻗어 있는 교통로의 중심지였으며 대구가 점차 군사적 요충지 및 중요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그 역할도 점차 커져 인근 여러 읍을 연결하는 교통의 심장부 구실을 하게 되었다. 《大東輿地圖》소재 大丘의 2개 驛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驛은 交通·운수와 같은 특수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津 또는 鄉·所·部曲과 함께 일반 군현과는 엄격히 구분되었고 驛吏는 물론 역에 거주하는 역민들도 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驛村의 지역내에 거주하는 驛長·驛吏·驛民·驛奴婢 등은 소속역을 本貫으로 해서 編戶되어 있었다. 이들에 게 주어진 驛役은 고려시대부터 세습해 왔던 것이며 조선후기의 호적에 의하면 驛村에도 同姓村이 있었다. 그리고 驛姓은 驛吏의 姓氏이며 驛役은 특수 직역이기 때문에 군현토성처럼 명예로운 姓貫이 될 수 없고 국가에서 직역부과를 위해 성관을 편제했던 것이다. 따라서 驛姓은 후대에 土族으로 성장한 예가 거의 없고 단지 소속 驛을 본관으로 했다는 의미 밖에는 없었다.

驛과는 달리 行旅者의 宿食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院이 있었다. 이와 함께 中外使客을 접대하기 위해 각 군현에는 客舍인 館을 두기도 했다. 聞慶縣 犬灘院 記文에 의하면 “국가가 驛을 두어 使命을 전달하고, 院을 두어 商賈와 旅行者에게 혜택을 주니, 이 兩者는 公私와 上下의 分이 명백하다. 역에는 각기 驛吏가 있어 驛務를 관장하지만 院에는 단지 院田만 지급하고 사람을 모집하여 院主로 삼아 운영한다”³⁰⁾고 하였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驛과 院의 관계는 公·私와 上·下의 차이가 있어서 院보다는 역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慶州의 德方院 記文을 보면 “院館의 설치는 여행자를 접대하는 곳으로 勞者로 하여금 쉬게 하고, 留宿者로 하여금 寓宿케 하여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고 폭양이 쏘일 때는 그늘지게 하며 盜賊과 猛獸의 피해가 없게 하니 商人과 여행자들에게 이익을 줌이 실로 크다. 그러므로 院館은 王政이 중히 여기는 것이며, 또한 불교에서 권장하는 바다. 우리나라 법전에 院主를 특히 우대하여 賜田·免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院舍를 수축·운영케 하였는데 때로는 불교의

30)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9, 慶尙道 聞慶縣 驛院條



〈圖 1-2〉

大丘府를 중심으로 한 驛圖(《大東輿地圖》)

자선행위를 호모하는 무리들이 院宇를 짓고 또 園圃를 마련하여, 채소를 가꾸어 사람에게 제공하고 草料를 준비하여 牛馬를 사육하니 爲善의 보답이 어찌 적겠는가”³¹⁾라고 하였다.

院은 본래 寺院의 院宇에서 유래한 것 같으며 고려시대의 佛寺 가운데 교통의 요지에 있는 것은 佛寺로서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숙식소 역할도 하였다. 院의 명칭에는 불교식이 많으며 院宇도 종전의 사원에서 유래한 것이 많고 또 院의 설립자나 院主 가운데 승려가 많았는데 이는 불교의 ‘福田’ 사상에 그 배경을 두면서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天王寺 堂頭 然上人이 설립한 惠利院(慶州 德方院)이나 15세기초 華嚴大師 眞公이 중수한 聞慶縣의 大難院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승려들은 院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으로 이식을 늘여가는 방법(寶)을 취하기도 하고 전답을 개간하여 채소를 가꾸고 牛馬에 먹일 草料를 준비하여 施惠하기도 했다.

院은 半官半民의 性格의 기관으로 고려시대 이래 존재해 왔지만, 이것이 하나의 교통기관으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였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驛과 함께 院을,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군현에 확대·정비하였다. 15세기초부터 국가가 주동이 되어 종전에 개별적으로 설립·운영해 오던 院을 守令의 관할하에 두었고 守令의 책임하에 院宇를 수축하고 院主를 선정하였으며 院에 位田을 지급하는 등 院制를 정비하여 大小使客 등의 公用旅行은 물론 일반 商人이나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院制의 정비는 현물경제 체제하에 있던 조선전기에 있어서 더구나 교통·운수 수단이 극도로 불편한 상황하에서는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승려를 院主로 임명하고 혹은 승려로 하여금 院宇를 설립케 한다든지 院主대신 院住持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院이 종래의 寺院에서 유래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걸친 儒佛交替는 결과적으로各地에 혁파대상 佛寺가 많아졌고 定額外의 승려들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혁파대상 佛寺나 폐사직전에 놓인 寺院의 시설 및 정액외의 승려들을 활용한 데서 院의 전국적인 발달을 보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院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종전의 驛站制와 같은 公的 성격의 기관으로 개편되어 갔다. 太祖 6년에 편찬한 《經濟六典》에 ‘院館修補考察之法’과 ‘院主差任’ ‘院宇維持法’ 등 院에 관한 諸規定이 기재되어 있고 太宗朝를 거쳐 世宗朝에 이르러 院主에게도 驛吏·津尺 등과 함께 奉足을 지급하였고 동왕 27년(1445)에는 大·中·小路의 院에 각각 1結50負, 1結, 50負를 지급하되 院의 부근 토지로 하였다. 그 뒤

31) 《東文選》 권 79, 德方院記

《經國大典》에 의하면 ①院宇：지방의 院은 수령이 부근 주민으로 하여금 院主로 삼아 院宇를 修葺하며, ②院位田：‘自耕無稅’의 地目으로 院主田은 大路 1結 35負, 中路 90負, 小路 45負로 하며, ③給保：院主에게 3人을 給保하되 이들에게는 他役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世宗初에 편찬되었던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에 등재되지 않았던 院이 睿宗 元年(1469)에 편찬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비로소 院宇條가 있어 各邑마다 院의 명칭과 그 소재지가 명시되었던 것이며, 成宗朝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에는 各邑마다 驛院條가 있어 驛을 기재한 다음 院名과 院의 소재지 및 記文 등이 실려 있다. 《東國輿地勝覽》소재 1263院이 中宗 25년(1530)에 增補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309院으로 46院이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으나 16세기 말부터는 급격히 감소되어 갔다. 전국의 院 가운데 경상도가 468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大丘府를 비롯하여 各邑別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大丘都護府－洛中, 大櫓, 沙阜, 觀方, 馬川, 南川, 梧院, 朴實 (8).
- 慶州府－甫伊, 東院, 龍頭, 長嶺, 惠利, 毛火村, 要光, 利見, 典洞村, 南院, 大櫓, 天龍, 仇沙, 回隱村, 仇良火村, 大悲(豆豆), 金藏, 彌勒, 高院, 永慶, 果雙, 甘助村, 楓井, 新院, 天恩, 館院, 花山村, 廣濟, 所也, 閑甫, 礪院, 仁多, 多叱, 竹洞, 待候, 多文村(36).
- 永川郡－濟川, 普通, 赤栗, 要看, 烏邑浦, 新院, 要光, 臨河, 吉祥, 匙川, 永登(11).
- 興海郡－釜院, 玉山, 余川 (3).
- 清河縣－吉縣里, 金井, 古松羅 (3).
- 迎日縣－惠濟, 阿彌羅, 注津 (3).
- 長鬚縣－毛伊峴, 平安 (2).
- 安東大都護府－觀音, 所乙礎, 館院, 禿川, 慈濟, 迎秋, 兜率, 燕飛, 落木, 飛沙, 豆毛, 吾里, 望至, 申邑谷, 普濟, 加羅淵, 甘斤, 楊才, 歸毛, 茅峴 (20).
- 寧海都護府－眠眼峴, 濟仁, 蓴長, 赤穴, 廣濟, 川上, 德奉, 鼎足, 蒼水, 歡喜 (10).
- 青松都護府－三者, 枝院, 訥仁 (3).
- 醴泉郡－芒峴, 虎鳴, 黃利, 牛頭, 北院, 毛峴, 光德, 竹院 (8).
- 榮川郡－孝大, 文殊, 金林, 乘利, 加耳, 長金, 德山, 鐵鉗 (8).
- 豐基郡－南院, 山腰, 葦池, 昌樂驛南院, 寅賓 (5).
- 義城縣－南院, 許於里, 尹谷, 廉谷里, 黃山, 僧逢, 件峴, 冰山, 都里, 梨谷, 北院 (11).
- 盈德縣－北院, 酒登, 南驛, 豆牙禾, 知品, 新院(6).
- 奉化縣－長佛, 馬場里, 太子山 (3).
- 眞寶縣－普賢, 楸峴, 三豆等院 (3).

- 軍威縣－長水, 天寶, 義省, 倉庫, 上院 (5).
- 比安縣－興係, 玉彌, 長足, 楮川, 安溪, 加次(6).
- 禮安縣－大寺, 場院 (2).
- 龍宮縣－天德, 石峴, 省火川, 長安, 龍西, 津院 (6).
- 清道郡－濟生, 孔巖, 利吉, 冷泉, 如意, 陽院, 勒院 (7).
- 慶山縣－乾興, 新院, 月淵, 時和, 廣利 (5).
- 河陽縣－幅掛, 匙川 (2).
- 仁同縣－種子, 所也, 光惠, 石績, 草院 (5).
- 玄風縣－豐濟, 所道村, 長破高, 新院 (4).
- 義興縣－南院, 義樓, 李趙, 薪院, 錢拘伊, 凡朴, 陽也, 甲院, 新院 (9).
- 新寧縣－陽也, 甲峴, 新院(3).
- 尙州牧－南院, 安賓, 廣濟, 泥豆等, 要濟, 陽山旨, 興玉, 於巖, 唐梯, 退山, 柳等, 竹峴, 大豆, 重生, 長惠, 班岩, 東院, 西院, 北院, 城院, 松院, 栗院, 釜院(23).
- 星州牧－仁化, 蛇院, 東安, 公排, 李同, 若寶, 廣大, 大也, 鳳栖, 崇儒, 興王, 沙邑梯, 多品, 月恒, 退界, 觀音, 通信, 引院, 柳院, 鵲院 (20).
- 善山都護府－竹峴, 箭磨, 安谷, 茶亭, 所法谷, 吾乙吉介, 觀風, 觀心, 南上, 彌羅, 草積, 東院, 上林, 竝飛, 許忠, 三韓, 俗離, 柳院 (18).
- 金山郡－南院, 金泉, 果谷, 左峴, 堂旨, 梨亭, 豆下 (7).
- 開寧縣－東院, 西院, 龍旨, 興信, 飛下, 葛項, 彌勒, 乾川 (8).
- 知禮縣－禪院, 所淵, 石谷, 頭衣谷, 所盲, 上佐 (6).
- 高靈縣－安性, 白圭, 救生, 李托, 愁居非, 量田, 寶山 (7).
- 聞慶縣－鳥嶺, 要光, 觀音, 串岬, 回淵, 開慶, 佛井, 普通, 桐華, 犬灘, 華封 (11).
- 咸昌縣－茶方, 咸濟, 唐橋, 串川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 전체 468院 가운데 경북지방은 301院으로 전국에서 院의 분포가 가장 조밀하였다. 院의 분포는 邑勢에 비례하여 慶州·安東·尙州 등 大邑에는 20~30여院이 있었지만, 禮安·河陽·清河·眞寶 등 小縣에는 2~3院에 불과하였다. 大丘都護府에는 8개의 院이 있었다. 院의 위치를 보면 大丘府의 南方 3里에 洛中院, 30里에 梧院, 34里에 馬川院이 있었고, 西方 6里에 大櫓院, 10里에 沙阜院, 20里에 觀方院, 26里에 朴實院이, 31里에 南川院이 있었다.

各邑의 院은 대체적으로 邑治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전개된 도로와 촌락을 따라 배치되었다. 대개의 院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宿食을 제공하였는데 일반촌락에 위치한 院은 오래 가지 않아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소재 468院(경상도)이

英祖朝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36개로 격감되었고, 경북지방의 301院도 후기에 편찬된 各邑誌에 ‘今皆無’라 하여 이미 없어졌음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院의 소멸현상은 조선왕조의 사회·경제적 성격변화와 함께 촉진되었고,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로는 院대신 酒店 또는 旅店이 대치되어 갔다. 兩亂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강요 받은 조선왕조는 그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유통경제의 활성화는 상인이나 일반여행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기에 적합한 시설로서의 酒店이 증가하게 됨은 시대적 추세라 하겠다.

院의 규모나 시설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신분제에 따라 處所를 구별해야 했고, 겨울용 온돌방과 여름용 대청마루가 있었으며 주방과 창고 마굿간이 있었다. 혹 院의 부속건물로서 樓나 亭이 있는 곳도 있었다. 院의 위치는, ①준령의 밑이나 고개마루 ②河川의 兩岸 ③驛站, 江船의 乘降處, 河川의 渡나 津, 사람과 物量의 集散地 등이었다. 이 밖에는 혹 溫泉이나 藥水터 부근에 있는 것도 있었다.³²⁾

II. 通信體系와 大邱地域의 烽燧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道路와 驛站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펼쳐져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烽燧도 변경의 긴급한 정황을 中央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軍事的 목적으로 설치·사용된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조선왕조에서 계승·발전시켰다. 烽燧臺(烟臺)는 10리~70리 간격으로 설치되었지만 대체로 40~50리 떨어진 候望의 山頂에 두는것이 보통이었다. 연락방법으로서는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雨中이나 안개·구름이 덮혀 연락이 불가능할 때에는 烽燧軍이 차례대로 달려 보고하도록 하였다. 中央에서는 兵曹가 이를 主管하여 계속 이를 候望하고 다음날 일찍 承政院에 보고 하였으며 만일 變事가 있으면 밤중이라도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봉수에 京烽燧·沿邊烽燧·内地烽燧의 3종이 있어서 시설과 정원 및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었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 서울의 目覓山(南山)에 위치하였고, 沿邊烽燧는 海·陸 변경의 제1線에 설치하여 烟臺라 부르는 것으로 그 임무 수행이 가장 힘들었으며, 内地 봉수는 京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중간 봉수로 수적으로는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처음에는 ‘腹裡諸烽燧’라고도 불렀다.

32) 崔在京, 〈朝鮮時代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 3, 1975.

조선시대 봉수를 관장하는 기관은 중앙의 兵曹에 있는 武備司이며 지방은 監司·守令과 兵使·水使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그 업무를 감독하였다. 감사와 守令은 행정관으로서의 직무 외에 武職의 직무로서 봉수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守令은 봉수군 伍長(監考)의 候望업무를 감독하며 그들과 연대책임을 졌고 그들의 차출·근무상태 및 봉수대의 이상유무를 항시 살폈다. 수령은 伍長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유사시에는 즉시, 무사시에는 月末마다 감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매 계절의 마지막 달인 3·6·9·12월에는 兵曹에 보고하였다. 만약 봉화가 끊겼을 경우 수령은 곧 그 事由를 兵曹에 보고해야 하며 봉수를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수령의 功過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烽燧要員으로는 烽火軍(봉수군)과 伍長(監考) 五員이 있었다. 봉화군은 밤낮으로 候望하는 사람이고 伍長 五員은 봉화군을 독려·감시하는 감독자였다. 이같은 감독자를 두게 된 것은 세종 28년경부터이며 京烽軍의 伍長은 五員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봉수대의 入直人員과 定員은 다음 <表 1-12>과 같다.

<表 1-12> 烽燧臺入直 및 定員

烽 燧	軍		監 考		入直計	上下兩番 (10日遞)	定 員 總 數		
	每所入直	5所 計	每所入直	5所 計			烽 軍	監 考	合 計
沿邊烽燧	5	25	1	5	30	〃	50	10	60
内地烽燧	3	15	1	5	20	〃	30	10	40
京 烽 燧	2	10	1	5	15	〃	20	10	30

※ 陸軍本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編, p. 521에 依據함

이들은 上·下 兩番으로 10日 단위로 交代하였던 것 같다. 봉수군은 반드시 부근의 주민으로 하는데 이는 入直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처사였을 것이다. 봉수군의 신분은 身良役賤으로서 신분상으로는 良人이지만 국역담당에 있어서는 賤役을 맡았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伍長(監考)은 봉군보다는 우위에 있었으며 品官 또는 甲士를 監考로 삼는 때도 있었다.

舉火法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세의 완급에 따라 이를 炬數로 구별하게 하였다. 조선초기의 거화법은 무사시에 1炬, 유사시에 2炬로 하던 2舉區分法을 썼으나 世宗 元年부터는 5炬로 재구분하여 海上과 陸上을 구별함으로써 발전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무사시에는 종전대로 1炬로 하고, 해안지방에는 倭賊이 海中에 나타나면 再炬, 해안에 접근하면 3炬, 우리 兵船과 접전시에는 4炬, 왜적 下陸時에는 5炬로 하였다. 陸地에서도 賊이

국경밖에 나타나면 再炬, 변경에 접근하면 3炬, 국경을 침범하면 4炬, 我軍과 交戰하면 5炬를 올리도록 하였다.

세종 29년(1447)에 확립된 烽燧制의 施設面을 보면 沿邊烽燧는 烟臺를 쌓아 外侵을 막았다. 烟臺는 높이 25尺, 둘레 70尺, 臺下 4面의 길이를 각각 30尺으로 쌓고 그 바깥에 깊이·넓이 각 10尺의 참호를 파며 다시 그 外周에 위를 뽕족하게 다듬은 길이 3尺의 말뚝地帶를 형성하고 烟臺 위에는 假家를 지어 武器와 日常의 생활필수품을 간수하게 하였다. 火器를 비롯한 각종 무기는 敵侵에 對備하여 자기방어상 필요하였고 그 중 信砲와 發火 등은 角과 더불어 위급을 알리는 중요 신호수단이였다. 内地烽燧에는 위험도가 적으므로 烟臺를 쌓지 않고 烟竈(아궁이)만을 설치하되 위험한 곳에는 烟臺를 쌓게 하였다. 烟竈는 위는 뽕족하고 아래는 크게 네모 또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되 그 높이는 10尺을 넘지 않게 하였고 맹수가 침범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둘레에 담장을 쌓았다. 그리고 成宗 6년 이후 모든 봉수에는 烟臺나 烟竈 위에 반드시 烟箒을 만들어 바람으로 晝烟이 흐려짐을 防止하였다. 또 모든 봉수에는 다섯 개의 봉화대가 있었다. 炬數를 5구분하였으므로 5炬일 때는 횃불 다섯개를 동시에 올려야 되었기 때문에 烽火所가 다섯은 있어야 했다.

《慶尙道地理志》에 실린 경상북도내 각읍의 봉수는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그대로 전제되어 별 변동이 없었다. 各邑의 봉수 소재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丘府：馬川山·法伊山(2)	龍宮縣：龍飛山(1)
慶州府：兄山·下西知·禿山·大岾·東岳 高位山·乃布岾·朱砂山·所山(9)	
永川郡：方山·所山·城山·城隍堂(4)	清道郡：南山·八助峴(2)
興海郡：知乙山·烏山(2)	慶山縣：城山(1)
清河縣：桃季山(1)	河陽縣：匙山(1)
迎日縣：冬乙背串·沙火郎山(2)	仁同縣：件岱山·朴執山(2)
長鬐縣：磊城山·大串·獐谷·沙只·卜吉(5)	玄風縣：所山(1)
安東府：南山·申石山·藥山·所山·堂北山 開目山·甘谷山(7)	義興縣：繩木山·吐峴(2)
寧海府：大所山·廣山(2)	新寧縣：餘叱洞山(1)
青松府：없음	尙州牧：回龍山·所山·西山·國師堂山 山陽縣所山·中牟縣所山(6)
醴泉郡：西菴山·所伊山(2)	星州牧：星山·角山·末應德山·城山·伊夫老山(5)
榮川郡：城内山(1)	善山府：石峴·藍山(2)

豊基郡: 竹嶺·望前山 (2)	金山郡: 高城山·所山 (2)
義城縣: 馬山·古城山·盈尼山 (3)	開寧縣: 甘文山 (2)
盈德縣: 黃石山·別畔山 (2)	知禮縣: 龜山 (1)
奉化縣: 龍岫山 (1)	高靈縣: 望山 (1)
眞寶縣: 南角山 (1)	聞慶縣: 禪岩山·炭頂山 (2)
軍威縣: 馬井山·朴達山(2)	咸昌縣: 城山 (1)
比安縣: 肝岫山·大岩山 (2)	蔚珍縣: 全友仁山·符津山·竹邊串·恒出道山 (4)
禮安縣: 祿轉山 (1)	平海郡: 厚里山·表山·沙銅山 (3)

위의 39邑 가운데 靑松府를 除外하면 나머지 군현은 최저 1개소에서 최고 9개소까지 봉수가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烽燧線路는 直烽(幹線) 5路가 있으며 間烽(補助線)이 各直烽線上에 있었다. 直烽 5路는 東北 豆滿江邊의 牛巖(慶興西水羅), 東南 해변의 鷹峰(東萊 多大浦), 西北 鴨綠江邊의 餘屯臺(江界·滿浦鎮)와 古 靜州(義州), 西南 海邊의 突山浦(順天 防踏鎮)를 起點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木覓山(南山)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대체로 봉수의 기점에서 서울 南山에 도착되는 소요시간은 無事·平常時에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듯 하다. 동서남북 어느 변경에서 봉화가 올려지건 간에 아침에서 저녁이면 서울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봉수에서 舉火時刻과 서울 도착시각이 일정하였으므로 烽燧軍들은 봉수대에서 종일토록 항시 候望에 힘쓸것 없이 정해진 시각의 前後에만 候望하면 되었을 것이다. 즉 咸鏡道의 牛底에서 端川間은 每日 晝烟이고 같은 線路의 鐵嶺에서 서울間은 매일 夜火이고 서울 도착시간은 매일 未昏이었다. 그러므로 설사 그 시각에 前烽이 不舉 或은 不通하여도 힘들여 徒歩로 次烽에 馳告할 것 없이 平常時의 1炬를 올려 놓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전국 봉수網은 결국 北虜南倭를 대비한 것으로 경상도의 對倭關係 關門인 東萊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主烽을 중간에 두고 한쪽은 東萊에서 蔚山→慶州→興海→清河→盈德→寧海를 거쳐 安東의 主烽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東萊에서 梁山→密陽→清道→大邱→永川에 이르러 주봉과 만나고, 또 다른 하나는 東萊와 巨濟에서 주로 낙동강을 따라 星州와 尙州를 거쳐 忠州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 중에 大丘를 통과하는 봉수선은 上記한 바 東萊에서 서울로 가는 直烽에 연결되는 間線이다. 두개의 間烽이 大丘를 통과하는데 하나는 熊川에서 初起해서 昌原·昌寧·玄風·星州를 거쳐 대구의 城山 봉수대와 馬川山 봉수대를 통과하고 星州 角山에 연결되어 忠州 馬山の 直烽에 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熊川에서 初起하여 金海·密陽·

清道를 지나 大丘의 法伊山 봉수대를 거쳐 慶山·河陽을 통과하고 永川 城隍堂 直烽에 연결되었다. 참고로 大丘와 관련이 있는 東萊·漢城間의 直烽과 여기에 연결되는 間烽을 《增補文獻備考》에 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東萊→漢城 直烽 初起 鷹峰(以下東萊)→龜峰→荒嶺山→鷄鳴山→滑川(梁山)→夫老山(彦陽)→蘇山(以下慶州)→高位→蝶布峴→硃砂峰→方山(以下永川)→永溪→城隍堂→城山→仇吐峴→余音洞(新寧)→吐乙山(以下義興)→甫只峴→繩木山→繩院(以下義城)→大也谷→城山→鷄卵峴→馬山→甘谷山(以下安東)→峰枝山→開目山→祿轉山(禮安)→菖八來山(榮川)→龍岫山(奉化)→堂北山(安東)→沙郎堂(順興)→城內山(榮川)→望前山(豐基)→竹嶺山(順興)→所伊山(丹陽)→吾峴(清風)→心項(以下忠州)→馬山→加葉山(陰城)→望夷城(忠州)→巾之山(竹山)→石城山(龜仁)→天臨山(廣州)→漢城木覓山 第二烽.

間烽(1) 初起 于飛島(東萊)→南山(以下機張)→阿爾→爾吉(以下蔚山)→加里下山→川內→南木→下西知(以下慶州)→禿山→福吉(以下長鬐)→磊城→鉢山→大冬背→知乙(以下興海)→烏峰→桃李山(清河)→別畔山(盈德)→大所山(以下寧海)→廣山→神法山(眞寶)→藥山(以下安東)→新石山→峰枝山(直烽).

間烽(2) 初起 加羅山(巨濟)→彌勒山(以下固城)→牛山→天時→曲山→加乙浦(鎭海)→巴山(咸安)→可幕山(宜寧)→彌陀山(草溪)→彌崇山(陝川)→望山(高靈)→伊夫老山(以下星州)→星山→角山→朴執山(以下仁同)→件臺山→石古介(以下善山)→藍山→城隍山(開寧)→所山(金山)→回龜山(以下尙州)→西山→所山→南山(咸昌)→禪巖(以下聞慶)→炭項→麻骨山寺(以下延豐)→周井山→大林城(以下忠州)→馬山(直烽).

間烽(3) ①唐浦鎭羽背串(巨濟)→本鎭 ②助羅浦鎭柯乙串(巨濟)→本鎭 ③知世浦鎭內逸串(巨濟)→本鎭 ④玉浦鎭玉山(巨濟)→本鎭 ⑤栗浦鎭別望(巨濟)→本鎭

間烽(4) 牛山(固城 間烽 2)→蛇梁鎭主峰→佐耳山(固城)→晉州角山(間烽 9).

間烽(5) ①加背梁鎭 別望(固城)→本鎭 ②所非浦堡 別望(固城)→本鎭

間烽(6) 初起 天城堡(以下熊川)→沙火郎→高山→城隍堂(昌原)→安谷山(漆原)→所山(以下靈山)→余通→太日山(昌寧)→所伊山(玄風)→末乙應德(星州)→城山(以下大邱)馬川山→星州角山(間烽 2).

間烽(7) 沙火郎(熊川 間烽 6)→余浦(昌原)→加乙浦(鎭海 間烽 2).

間烽(8) 初起 天城堡(熊川 間烽 6)→省火也(以下金海)山城→子菴→栢山(以下密陽)→南山→城隍→盆項→南山(以下清道)→北山→法伊山(大邱)→城山(慶山)→匙山(河陽)→永川城隍堂(直烽).

間烽(9) 初起 錦山(南海)→臺防山(以下晉州)→角山→鞍峴山(泗川)→望晉(以下晉州)→廣濟山→笠巖山(丹城)→金城山(三嘉)→所峴山(陝川)→金貴山(以下居昌)→渠末屹山→龜山(知禮)→高城山(金山)→訥伊項(以下黃澗)所伊山→朴達羅山(永同)→月伊山(以下沃川)→環山→鷄足山(懷德)→所伊山(文義)→巨叱大山(清州)→所屹山(鎭川)→忠州→望實城(直烽).

間烽(10) ①南海猿山→錦山(間烽 9)→本邑·本鎭 ②南海彌助項鎭·別烽臺→錦山(間烽 9)→本邑·本鎭 ③泗川三千堡 別望→本邑·本鎭

III. 運輸體系와 大丘租賦의 陸運·漕運

조선전기의 도로망과 驛院·烽燧를 통한 교통·통신시설은 대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 다룰 운수체계는 도로망을 통한 陸運과 강과 바다를 통한 漕運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陸運보다 漕運이 편리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陸運·漕運이 병행되기도 하였다.

大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면, 上京道路에 관한 규정은 세종 14년에 결정되어 三浦에서 京城에 가는 3路가 지정되었는데 大丘는 富山浦에서 京城에 이르는 中路의 한 통과지가 되었다. 世宗 14년 이전에 있어서 倭使客의 왕래는 주로 慶尙道の 貢物輸送路와 같아 洛東江을 遡行하여 尙州에 이르고 그곳에서 鳥嶺을 넘어 忠州로 나아가 漢江 따라 서울에 도달하는 路順이었으나 世宗 14年 4월 禮曹의 稟에 의하여 驛路의 부담을 고르게 할 목적으로 三浦에서 각각 3路로 나누어 上京시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鹽浦(現在 方魚津과 長生浦사이)로 온 倭人은 蔚山·慶州·安東·榮州·丹陽·忠州·驪興·楊根·平丘를 거쳐 入京, ②富山浦(現在 釜山津)로 온 倭人은 東萊·梁山·密陽·清道·大丘·仁同·尙州·聞慶·延豐·槐山·陰城·陰竹·利川·廣州·廣津을 거쳐 入京, ③乃而浦(齊浦 現 昌原市)로 온 倭人은 昌原·星州·沃川·清州·鎭川·竹山·龍仁·漢江을 거쳐 入京하였다. 大丘를 경유하는 ②路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富山浦→東萊→梁山→密陽→清道→慶山을 지나 大丘에 이르고 다시 北上하여 漆谷→仁同→尙州→咸昌→聞慶을 거쳐 鳥嶺을 넘어 延豐→槐山→陰城→無極里·長湖院里·利川·廣州·廣津을 거쳐 서울에 이르게 하였다. 大丘에서는 密陽·尙州·槐山·利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足利將軍 또는 大內·小貳·斯波·澁川·京極·細川·山名 등 諸大名の 使者에 대하여 宴享을 차려 歡待하였다.

이러한 上京道路規定은 中宗 5년 三浦倭亂으로 삼포가 일단 閉鎖되었다가 齊浦만이 개방되고 그 후 齊浦를 폐쇄하고 富山浦 一個所만 개방되었을 때도 그대로 존속된 듯하다. 明宗代의 魚叔權이 撰한 《攷事撮要》卷下 倭人朝京道路條에 의하면 釜山浦에 상륙한 倭人들의 上京3路는 中·左·右路로 3分되어 있었는데 대개 세종대의 3路와 비슷하다. 大丘를 통과하는 中路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廣州牧(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慶安驛(廣州郡 慶安面 京安里), 利川府(利川郡 邑內面), 陰竹縣(利川郡 清漢面 善邑里), 無極驛(忠北 陰城郡 金旺面 無極里), 陰城縣(陰城郡 陰城面), 槐山郡(槐山郡 槐山面) 延豐縣(槐山郡 延豐面), 安保驛(槐山郡 上莚面 安保里), 聞慶縣(慶北 聞慶郡 聞慶面), 幽谷驛(聞慶郡 戶西南面 幽谷里), 咸昌縣(尙州郡 咸昌面 咸昌里), 尙州牧(尙州郡 尙州邑), 善山府(善山郡 善山面), 海平縣(善山郡

海平面(海平洞), 仁同縣(漆谷郡 仁同面), 八莒縣(漆谷郡 大谷面), 大丘府(大邱市), 慶山縣(慶山郡 慶山面), 省峴驛(清道郡 華陽面 松金洞), 清道郡(清道郡 清道邑), 榆川驛(清道郡 大城面 榆川), 密陽府(慶南 密陽郡 密陽邑), 無訖驛(密陽郡 下東面 栗洞里), 黃山驛(梁山郡 上西面 黃鶴洞 舊名勿禁), 梁山郡(梁山郡 梁山面), 蘇山驛(東萊郡 北面 仙里), 釜山浦

大丘의 産物 중 中央政府에 上納하는 租賦는 海路 또는 陸路로 서울에 수송되었다. 陸路로는 洛東江을 거슬러 올라가 尙州까지 운반하고 聞慶草站(지금의 島嶺)을 넘어 忠州 可興倉에 임시로 積置해 두었다가 漢江上流에서 배에 실어 서울로 수송하는 것이었다. 한편 海路는 大丘에서 洛東江을 따라 金海에 이르고 다시 南海 및 전라도의 多島海를 迂回하여 西海에 나와 北上하여 漢江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京倉에 納入하는 것이었다.

地方産物 내지 貢賦는 국가재정의 근간으로 이를 中央에 수송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따라서 후삼국을 통일한 高麗時代부터 漕運은 상당히 발달하였다. 《增補文獻備考》財用考 4 漕運條에 “租稅之舟運 而納于京師 謂之漕”라 하여 米穀 등 현물로 징수한 稅를 京都에 수송하는 것을 站運 또는 漕運이라 하며 또 漕運의 補助로 江水를 利用하는 것을 站運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기도 한다. 즉 국가에서 漕倉과 水站을 해안 또는 河川要地에 세우고 그 인근의 州縣으로부터 陸運·水運으로 세곡을 취집하여 이것을 京都로 站運하는 것이며 국가가 施設하는 漕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遠僻한 지방은 民船을 賃借하여 강과 바다를 통하여 上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경상도 각 지역의 조세를 주로 海路를 통하여 開城에 수송하였으나, 고려말기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여 지면서 陸路를 이용하게 되었다. 海運은 陸轉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였으나 漕船의 전복으로 한꺼번에 많은 人的·物的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었다. 太宗元年 8月 檢校漢城尹 朴惇之는 “貢賦의 수송은 三韓以來 모두 海道를 사용하므로 南民들이 舟楫에 便習하여 漕運의 弊를 모르고 있더니 왜구의 창궐로 陸輸를 하니 人畜이 負戴에 疲弊하여 道中에서 斃死하는 例가 자못 많으니 그 폐단이 심히 컸다. 開國以後 왜구가 점차 그치지자 다시 海運케 하니 貢賦의 納入이 倍나 되었다. 己卯(定宗 2년) 가을에 風波를 만나 漕船이 전복하여 人命의 손실이 많아 불편하다는 건의자가 있어 다시 陸輸하니 不數年間に 그 弊가 水運보다 심하니 다시 漕轉할 것”을 건의하자 太宗은 이를 議政府·6曹에 내려 토론케 하였다. 이에 政府는 “조운은 古今을 막론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물며 금년 貢賦는 米로써 수납하니 陸轉이 더욱 불편하다. 그러니 경상도의 上道(北道) 州縣은 종전대로 陸輸하고 기타 군현은 모두 海運케 하되 그 舟楫은 각기 州縣으로 하여금 축조케 하고 沙工·格人도 海路에 익숙한 사람을 모집하고 私船例에

따라 稅價를 주어 載送하고 各道兵船으로 하여금 護送토록 결정”하자 이후부터 慶尙下道(南道)의 租稅 수송은 오로지 海路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大丘의 조세는 依然히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陸路로 京城에 수송되었다. 이와 같이 경상하도의 州縣貢賦가 海運으로 의결되자, 下三道體察使 林整은 충청·전라·경상 3道の 백성을 동원하여 漕船 500隻을 건조하고 米·豆 10萬 2千여석을 京성에 수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太宗 3년 5월 경상도 조운선 34隻이 바다에 침몰하여 쌀 만여석과 선원 천여명이 다같이 水葬되어 버리자 태종은 “陸運이 險하고 牛馬의 勞가 대단하다 한들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덜하다”고 하면서 마침내 6월에는 경상도의 조세를 전부 陸轉하게 하였다. 《慶尙道地理志》 및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경상도의 조세는 태종 3년이전까지 각기 가까운 곳에 따라 金海의 佛岩倉·昌原의 馬山倉 및 泗川의 通洋倉에 分納한 다음에는 다시 海안을 따라서 전라도·충청도의 海路를 거슬러 올라가 京城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海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太宗 3년이후에는 漕船을 폐지하고 각 農夫로 하여금 직접 충청도 忠州의 慶源倉에 수납하도록 했다. 이중 낙동강 하류의 金海·昌原·密陽·梁山·咸安·草溪·昌寧·漆原·鎭海·宜寧의 舊邑은 소위 三價(船·人·馬價)稅를 立法하였다. 즉 人夫를 모집(人價지불)하여 배에 싣고(船價지불) 낙동강을 따라 尙州에 이르러 일단 荷物을 陸上하여 人夫와 馬를 雇入(馬價지불)하여 聞慶의 草站(鳥嶺)을 지나 忠州의 慶源倉에 納入하고 다시 京城에 도달하기 위해 站船에 싣려 漢江을 따라 入倉한다. 大丘의 조세수송도 이 路順에 따라 京城에 輸納되었고 大丘에서 忠州慶源倉까지는 대략 5~6日を 要한다고 한다. 그러나 成宗 8년에는 大丘以下 47읍의 軍資와 田稅는 각기 邑倉에 納入케 하였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軍事上 내지 國防上 北으로는 對明·對女眞관계에서 南으로는 對倭관계에서 필요한 경비의 보충·비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南으로는 倭人接待을 위한 沿路 各官의 飢餓를 회복하고 防倭軍輸를 위한 米穀 비축을 위해 경상도는 軍資와 田稅를 각기 州倉에 비축하여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成宗 8년부터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구구하였으나 대략 ①경상도는 對倭관계상 軍資備蓄이 필요하니 上道는 忠州 可興倉에 納付하고 下道는 州倉에 납부하자는 의견과 ②중전대로 하자는 의견 ③上道田稅는 京倉에 納入하고 中道以下는 각기 州倉에 납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戶曹에서는 “경상도에서 비축한 軍資가 부족하니 충족할때까지 尙州·善山·安東·醴泉·榮州·金山·知禮·豐基·開寧·龍宮·奉化·仁同·聞慶·咸昌·軍威·義城·比安·禮安 등 18邑의 軍資·田稅는 중전대로 상납하고, 慶州·晉州·星州·昌原·金海·密陽·靑松·大丘 등 48邑의 軍資·田稅는 각기 州倉에 납입”케 할 것을 주장하자 성종은 이에 따랐다. 이러한 조치는 대략 壬亂前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第2章 大丘府의 社會·經濟的 成長

第1節 大丘府의 人口動向과 鄉村社會의 成長

I. 編戶方式과 戶口統計

조선초기 戶口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및 《實錄》의 단편적인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철저한 戶口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編戶 방식도 달라 戶口의 개념이 후기의 戶口와는 상이하였다. 따라서 조선초 大丘의 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戶口정책과 編戶방식 및 戶·口의 개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선초기는 지역간 인구이동이 격심한 시기였다. 전란과 兇荒·기근 등으로 인한 유이민과 국가정책에 의한 북방(東·西北面과 황해도)徙民이 당시 지역간의 인구이동에 주류를 차지하였다. 즉 유이민은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山地에서 평야지대로 移入코자 하는 반면 북방徙民은 당시 국가의 拓境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고 또 양계 국경지대의 국방·군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에서 북으로 入居하였다.

여말에 격심했던 북로와 남왜의 침략으로 남북간 또는 연해·내륙과의 사이에 대규모적인 인구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15세기초부터 왜구가 종식되고 국가의 流民安集과 적극적인 권농책 및 失地회복과 영토확장에 따라 인구 증가의 소지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경북지방은 위치상 沿海지방보다는 내륙지방이 많은데다가 太白·小白 등 峻嶺을 끼고 있어 왜구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고, 또한 농지가 넓은 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시설이 좋은 등 농업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타도 출신의 유이민이 운집하게 되었다. 대체로 동해안 지역 몇몇 군현을 제외하고는 타지방으로부터 유입해 오는 피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에 앞서 서북지방 주민이 북쪽 오랑캐의 침범으로 鳥嶺과 竹嶺을 넘어 경북의 내륙지방에 정착하기도 하였고 동·남해변의 주민들도 여말 왜구를 피해 이곳으로 流寓하는 자가 많았다. 내륙지역인 대구의 경우도 이와같은 사정에 있었다고 본다.

한편 ‘安土重遷’하던 경상도 주민들도 흉년 기근에는 풍년이 들은 전라도지방으로 移就食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종 5년 전라도 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경상도 주민 1,455명이

전라도에 유입했던 것이다. 또한 경북에 인접한 강원도는 농경지가 협소하고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여말에 피난목적으로 한때 이주했던 유이민과 원주민들도 농업생산성이 높은 경상도로 많이 流移하는 추세에 있었다.

유이민 방지책은 조선왕조의 戶口정책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초부터 유이민 단속에 적극성을 띠었다. 그 결과 세종 5년 8월에는 流移民 推刷事目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제반 國役에 충당할 인적자원의 파악, 신분질서의 확립 및 지역적인 인구분포의 평형을 기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세종 25년 6월에는 추쇄한 各道流移民 1,300여명을 下三道 良民 대신에 北方에 入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중에 경상도 출신이 얼마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¹⁾ 당시 사족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恒産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이민이라 하면 양민과 천민이 주였다.

경상도 인구의 유출에는 이러한 유이민외에 北方徙民과 上京從仕를 들 수 있다. 下三道民의 北方徙民은 국초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세종후반 4군·6진 개척을 계기로 대규모로 실시되었고 이후 세조·성종조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충청·전라도보다는 인구가 조밀한 경상도에서 차출한 사민수가 가장 많았다. 당시 대구도 읍세에 비례하여 사민이 차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방사민과 함께 15세기 경상도 인구의 유출에는 土姓土族의 ‘上京從仕’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왕조교체로 인한 재경관인의 낙향도 있었지만, 신왕조의 개창과 동시에 기성세력의 참여는 물론, 국가의 ‘強根弱枝策’에 의하여 在外閑良層의 居京侍衛가 권장되고 적극적인 인재등용책에 의하여 재지사족의 상경종사가 활발하였다. 《경상도지리지》 소재 세종 7년도의 경상도 人丁 191,719명 가운데 ‘上京從仕各品人員’이 51,940명에 달하였으니 당시 경상도 재지세력의 서울진출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상도는 일찍부터 農法이 가장 발전한 데다가 物産도 비교적 풍부하였기 때문에 타도로부터 유입해 오는 피난민이나 이주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경북지방은 土俗이 순박 근검하고 安土重遷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어 유이민의 淵藪가 되는 동시에 토착민의 타도유출은 극히 적었다. 대구 또한 경상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타도유이민의 대량 유입은 이 지방의 재지세력에게 농장개설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그 만큼 유리하게 공급해 주었던 것이며 따라서 농토가 확장됨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더욱 향상되어 갔다. 南中國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이 일찌기 수용되어 休閒法에서 連作法으로 대체되었는가 하면 여말에 전래된 木棉도 영남지방에 맨 먼저 보급되었던 것이며, 稻作과 함께

1) 《세종실록》 권 33, 세종 8년 8월 무자조.

麥作은 경북지방이 가장 앞서고 있었다.²⁾

대구가 여말까지 한개의 조그마한 縣令官에서 郡으로, 다시 都護府로 점차 발전한 배경은 인접지역이 통합됨으로서 필연적으로 확대되는 府域과 거기에 따른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의 증가에는 위에서 제시한 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태종 13년에 전국적인 행정구획 개편과 군현제의 정비에 있었고, 이어 다음해인 동 14년에 壽城, 解顔, 河濱의 3개 현이 대구에 귀속됨으로서 대구는 곧바로 현에서 군으로 邑格의 승격을 가져왔다. 당시 대구의 지역적 범위는 본 縣域에다 주위의 3개 속현 구역인 公山·解顔·城北·河濱·多斯·城西·壽城·嘉昌·達西 등 지역을 포함한 영역이다. 《세종실록》권 4, 원년 5월 경오조에 “大丘縣을 郡으로 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호수가 1천3백戶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의 1,300호는 본현과 3개 속현의 호수를 합한 숫자이다.

조선초 대구군의 戶口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編戶방식과 ‘戶’와 ‘口’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조 최초의 호구통계인 태종 4년과 6년의 호구(丁)통계와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소재 호구통계는 후기의 戶數, 口數와는 성질이 다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戶 또는 口는 호구통계의 성질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하였다. 그것은 실제 가구수와 인구수를 戶·口數로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戶는 軍役 등 일정한 力役 또는 貢賦의 부과 단위로서 인위적인 編成戶를 말할 때도 있다. 이럴 때의 戶란 租·役·貢物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의무의 부담대상호로서의 ‘復戶’(戶에서 제외)되지 않은 호적에 등재된 ‘編戶’란 뜻이며, 戶首(正軍)·奉足이란 문제와 결부될 때는 助丁(保)에 대한 正丁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적인 編戶인 경우는 役의 경중과 신분의 고하 또는 지역에 따라 호의 규모에 현저한 차가 있었다. 호는 ‘并三戶爲一戶’와 ‘以三家爲一戶’에서와 같이 이중의 의미를 가져 ‘并三戶’의 戶는 自然戶인 家口와 같은 개념이며, ‘爲一戶’의 戶는 役이나 貢物을 부과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만든 法制戶이다. 이 경우는 위의 ‘三戶’, ‘三家’ 외에 ‘三丁爲一戶’로 편성하는 것이 국초이래 한 통례였으며 신분과 役種 외에 人丁數·田結數 또는 家舍間架數에 따라 호의 등급이 정해지기도 하였다.

‘口’는 호구통계의 자료에 따라 태종 4년과 6년 및 《세종실록지리지》소재 口數처럼 男丁을 지칭할 때도 있고, 《경상도지리지》처럼 男女丁을 의미할 때도 있으며 또 ‘男女老壯弱’을 합계한 인구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

2) 李樹健, 〈朝鮮初期 戶口의 移動現象〉《李瑄根古稀紀念韓國學論叢》, 1974

3) 李樹健, 〈朝鮮初期 戶口研究〉《韓國史論文選集》, 1976.

이상과 같은 편호방식은 조선왕조의 사회경제적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한 제도였다. 농업 위주의 현물경제하에서 國役부담자의 대부분이 농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첫째 兵農一致의 이상을 실현하되 한편으로는 營農에도 지장이 없고 다른 한편에서는 동원 내지 徵發의 목적도 달성하며, 둘째 고려시대처럼 立役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토지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立役者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맡은 奉族(保)이 한 생활체가 되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役種외에 지역에 따라서 편호방식이 또한 달랐다. 당시 국가의 수취체제가 전국을 일체화하지 못한데다가 농업위주의 자연경제하에 있었으니, 같은 국토이면서도 지역에 따라 주민에게 지우는 부담에 현저한 경중과 疎數의 차가 있고 또 토질의 비척도와 농지의 광협에 따라 인구분포의 소밀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지역적 이동에 정부가 즉시 조치를 취하여 軍額·요역·공물을 現住인구에 비례하여 그때 그때 조정해 준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재는 제반 부과가 종래부터 定額된 그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공평을 기할 수가 없었다. 세조 3년(1457) 梁誠之의 상소에

本朝 戶口의 법이 不明하여 강원·황해·평안도는 一丁을 一戶로 하는데가 많고 경상·전라도 및 咸吉道 6 鎭지방은 數十人을 一戶로 하고 경기·충청도는 그 중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망이 심한 강원·황해도의 山 郡에는 一戶가 前日 數戶의 役을 부담해야 하니 나날이 피폐하는데 반해 경상·전라도의 연해지방 土豪들은 一門안에 數家를 隱括한다.

라 하여 지방에 따라 편호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세조의 ‘二丁爲一保’책에 반대하고 ‘三丁爲一保’의 軍戶편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以三丁爲一保 則一人爲戶首 以之治兵 一人爲率丁 以之治農 一人爲餘丁 平時則供賦役 行軍則持輜重’⁴⁾이라 한 바와 같이 戶首·率丁·餘丁이 한 軍戶를 편성해야 精兵主義를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호구成籍은 철저히 하되 軍戶나 기타 定役戶를 편성할 때는 가급적 실재 호수를 減損하여 戶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구수의 名目으로 군현별 통계가 처음 등재된 것은 《慶尚道地理志》였다. 이 지리지에는 道總條에 時居戶數와 人丁數, 各軍額 및 ‘上京從仕’인원의 수가 기재된 다음 도내 각 군현별로 호수와 男·女 口數가 기재되었는데 7년 후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의 경상도 호구조에는 경상도지리지의 호수와 男口數가 그대로 전제되었다. 양 지리지 소재 대구현의 戶口數를 표

4) 《예종실록》 권 6, 예종 원년 6월 신사조.

로써 작성하면 다음 〈表 2-1〉과 같다.

〈表 2-1〉 大丘郡의 戶口數

구분 호구수 지역	世宗實錄地理志		慶 尚 道 地 理 志				
	戶 數	口 數	戶 數	口 數			戶當口數
				男	女	合	
本 縣	436	1,329	436	1,329	1,224	2,553	5.9
壽 城	264	644	264	644	704	1,348	5.1
河 濱	351	1,249	351	1,249	818	2,067	5.9
解 顔	198	1,203	198	1,203	1,458	2,661	14
합	1,249	4,425	1,249	4,425	4,204	8,629	6.9

위 표의 호수는 자연호가 아닌 編成戶에 의한 통계이며 口數는 男·女丁數로서 후기의 호구 통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또 이러한 호구통계는 조선왕조의 호적법과 철저한 호구조사에 의하여 이룩된 결과도 아니었다.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상도지리지》의 호구통계는 主邑은 물론 屬縣의 것도 주읍과 구분 기재하였고, 口數는 男·女 및 합계의 셋으로 구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호구수가 실록지리지에 그대로 전제되면서 女口數만 삭제 不錄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호구통계는 오늘날의 실제 주민의 호구수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예컨대 여기서의 남구수는 家口數를 빠짐없이 기재한 것이 아닌 다만 16세 이상의 丁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편 당시에는 호구조사 방법 및 호구신고 문제 등 전반적인 호구조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총설 戶口條에 당시 호구기록의 불철저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本朝의 戶口法이 不明하여 戶籍에 기재된 자는 겨우 十分之一二에 불과하다. 국가는 매양 이를 정리하려 했으나 민심을 잃을까 염려하여 후일을 미루다가 결국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各道 各郡의 人口數가 이러한 數에 그치고 마니 다른 道도 마찬가지이다.

대구군의 호구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편성 내지 통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호구수의 파악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당시의 편호방식과 호적법 등이 먼저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초기의 호적법은 고려말의 호적법 문란으로부터 생기는 諸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또한 국가의 통치상에 있어서 호적이 가지는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따라서 국가는 호적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호적법의 보조기능을 가진 隣保法, 號牌法 등을 제정 실시하기도 하였다. 세종 10년에 成給戶籍規式이 건국 후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이 規式은 후일 《經國大典》禮典 소재 ‘戶口式’과 ‘准戶口式’의 바탕이 되었다.

대체로 戶籍은 3년에 한번씩 官이 戶主의 신고에 의거 작성하되 1本은 호주에 지급하고 京中은 戶曹와 漢城府, 지방은 戶曹·監司營·各官에 1本씩 비치하였다. 당시 대구군의 호적도 위의 호적법에 의하여 작성 비치되었을 것이다. 호주에 지급되는 호적과 中外의 官衙에 비치되는 호적에는 호적의 기재사항이 전적으로 동일하나 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호적의 기재사항은 戶의 소재지, 호주의 職役·성명, 호주와 妻의 姓貫·年歲·四祖, 同居의 자녀·노비·雇工 등의 성명과 연령 등이다.

이러한 호적법의 정비는 태종조에서 세종조에 걸쳐 실시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양천신분의 혼란과 노비쟁송의 폐는 태종말년에 거의 시정되어 국역부담자가 급격히 증가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국가에 등록된 人丁數가 국초의 약 2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를 통하여 보면 流移者와 隱漏者가 끊임 사이 없었고, 따라서 호적에 부여된 제기능도 완전히 발휘했다고는 볼 수 없다. 流亡者와 漏戶隱丁의 사례가 뒤에도 끊임 없었던 사실은 官吏가 호적법을 바로 遵奉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겠지만 요역·군역·定役·공물·전세 등의 국가적 제부담의 과중, 관리의 가렴주구, 私家의 長利의 횡행, 수재·한발·충해 등의 천재에 기인한 기근 등에 따른 호주생계의 파정 및 勢家·토호·양반 등의 농장의 발달과 빈호의 투탁 등 당시의 사회적 및 자연적 제조건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호적법에 의한 호구통계는 세종 10년부터 《實錄》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보다 앞선 호구통계는 당시의 軍額과 비슷하였다. 즉 태조 2년(1393)에 各道가 올린 諸軍額 200,800 여인과 諸有役者 100,500여인 합 301,300여인은 태종 4년의 전국 口數 323,786口와 동왕 3년에 兵曹가 中外軍數로 올린 총 296,310명과 비슷한 수치였다.

따라서 이러한 戶數는 自然戶도 아니며 ‘三家爲一戶’, ‘三丁爲一戶’니 하는 썩의 일률적인 法制戶도 아니다. 그것은 각종 力役과 貢物 등의 부과단위로서 실제 호구수를 참작하여 위로부터 각도·각관별로 배정되어 정액된 호수이며, 口數는 물론 男丁數(경상도지리지 소재 구수는 男女丁數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口(丁)數 통계는 국내의 全男丁數를 대상으로 했다가 보다는 차라리 군역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호적에 등록되어 파악된 남정수였을

것이므로 당시 口數와 均畝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던 것이며 호구수와 均畝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均畝에 등재된 人丁은 바로 호적에 등록(編戶)된 口數(男丁)에서 추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 10년 이후부터는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호구수와는 성질이 다른 戶數 또는 口數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몇 개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 세종 14년 통계인 실록지리지 소재 제주도의 戶數와 口數는 각각 7,249戶와 18,897口인데 반해 동왕 17년 《실록》에는 9,935戶와 63,093口로 나타난다.⁵⁾

㉡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황해도의 호수와 구수는 각각 23,511戶와 71,897口인데 반해 동왕 29년 실록에서는 62,637戶와 462,664口로 나타나며, 同道 海州牧도 同지리지에서는 1,926戶와 6,814口가 동왕 29년에는 8,030戶와 33,567口로 기재되어 있다.⁶⁾

㉢ 세종 32년 정월 梁誠之의 上疏에 “明太祖의 말에 너의 나라는 70만 戶로써 戶當 3丁씩 계산하면 무릇 210만여人이나 된다”는 기사를 인용한 바 있으며, 세조 12년 상소에는 “我國人民 無慮一百萬戶”라 한데 이어 성종 6년 奏議에서는 “臣이 세조조를 살펴보니 八道戶數가 70만戶, 인구가 400만명이며, 軍兵이 27만, 助丁(保)이 58만 합계 85만餘丁이 되었읍니다”라 하였다.⁷⁾

여기에서 보면 실록지리지 소재 전국 男丁數 80만(세종 10년 한성부 口數 포함)여명과 위의 양성지가 거론한 세조조의 軍兵과 助丁의 합계가 85만여丁임을 유추할 때 양자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양성지의 말대로 세조조의 전국 戶數는 100만, 口數는 400만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구수의 규모는 16세기 《중종실록》에서도 다음 〈表 2-2〉와 같이 나타난다.

〈表 2-2〉 중종실록의 전국 호구수

연 대	호 수	구 수	호당구수	典 據
중종 14년	754,146	3,745,481	5人	《중종실록》 권 37, 14년 12월 기축조
중종 27년	—	3,965,253		《중종실록》 권 72, 27년 정월 기유조
중종 38년	836,669	4,162,021	5人	《중종실록》 권 101, 38년 12월 기해조

위의 이러한 세종·세조·중종대에 보고된 전국 호구수는 바로 현대적 의미의 호구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실제 호구수가 어느 정도 조사 成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5) 《세종실록》 권 70, 세종 17년 12월 기유조.

6) 위의 책, 권 118, 세종 29년 12월 신해조.

7) 梁誠之, 《訥齋集》 권 4, 奏議 兵事六條.

이러한 戶口에 대한 각종 보고를 토대로 당시 경상도의 현대적 의미의 실제 전체인구수와 대구군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국구수 801,847구 중 경상도의 전체구수 173,759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가 된다. 여기에서 중종 38년의 전국 인구통계인 4,162,021口 가운데 경상도가 위의 비율만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그 수는 915,645명이 된다. 한편 《경상도지리지》 소재 경상도 전체의 구수를 353,432口로 추정한다면 대구군의 구수는 8,629口로 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면 중종 38년의 전국인구수 4,162,021구 중 경상도가 차지하는 구수는 915,645口가 된다. 여기에서 다시 대구군의 인구수를 추정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함과 동시에 대구의 인구수가 조선전기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수 가운데 戶數는 당시의 편호방식 즉 ‘3丁爲1戶’ 또는 ‘3家爲1戶’의 방식에 의거, 조사 통계한 것이며 口數는 男丁數 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2) 《경상도지리지》의 호구수 가운데 호수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것과 동일한 것이며, 구수는 男女丁을 말한 것으로 《세종실록지리지》의 호수와 구수는 《경상도지리지》의 호수와 남구수를 그대로 이기한테 불과하다.

(3) 실록 소재의 세종년간 4회나 보고된 황해도 호구수와 중종년간 3회 보고된 전국호구수는 바로 현대적 의미의 호구수로서 호수는 自然戶 즉 ‘살림’의 단위로서의 독립호를 말하는 것이고 구수는 바로 인구수 즉 家口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구 호구수에 대한 고찰도 이러한 전국적인 호구문제와 결부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세종조의 전국호구수와 비교해 볼 때 대구의 호수는 《경상도지리지》 내지 《세종실록지리지》 소재의 1,249호보다 실제 호수는 약 3배를 가한 수 정도로 추정되며, 그것이 중종조에 가서는 더욱 증가하여 대구의 인구는 적어도 상기 비율로 환산해서 2만여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대구 호구의 증가는 郡으로의 승격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또한 인접지역이 내속함에 따라 평야가 넓은데다가 토질이 비옥하고 농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구가 타군에 앞서 급속히 성장한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II. 身分階層과 姓氏分布

조선시대의 사회신분 계층을 크게 나누면 士族과 良·賤民層 또는 兩班, 中人, 常·賤民으로

구분된다. 文武 내지 東·西班을 의미했던 종래의 양반이란 말은 이 시기에 오면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지배적인 사회계급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양반은 士大夫 또는 사족의 士(선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農工商이나 특수한 기술학과 같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유학에만 종사하여 관리로서 입신출세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신분층을 의미한다. 그들은 관리가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아서 그들의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에 종사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사족들의 유일한 생활수단이었다. 이러한 양반들은 대개 고려시대에서 유래하였지만, 대구의 재지사족 가운데는 고려후기의 토성이족에서 起家한 가문이 많았다.

지방의 양반들은 대개 수삼개 씨족이 흔히 동족부락을 이루어 각기 지방에 토호적인 세력으로 할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군현향리에서 과거·첨설직·산직 등을 통하여 사족화하였고 자신의 공고한 재지적 기반과 軍功 또는 학문적 소양과 文才를 발판으로 하여 起家 내지 출세하였다. 그들은 중소지주로서의 생활기반은 향촌사회에 두어졌고, 비록 한때 상경종사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처사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仕宦보다는 학문을 더 중시하여 出仕하더라도 文翰과 교수직을 좋아하였고 비록 중앙정계에 투신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권력구조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다.

사족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성리학적 분위기가 일찌기 조성되어 명분과 의리정신이 투철한 데다가 공고한 재지적 기반이 그들로 하여금 향촌사회에 머물게 하였고, 세조찬탈과 빈번한 사화는 그들의 정계투신을 기피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지배계급의 하층을 차지한 중인계층은 대개 中·外官屬의 행정실무와 기술직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특수 기술직을 세습하였고, 제한된 범위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雜科에 응시하여 한정된 직위를 보장받았다. 이 계층에는 中人, 胥吏, 軍校 등이 있었다. 중인은 譯官·醫官·檢律·計士 등 이른바 雜業(기술)에 종사하였고 서울의 중부나 지방의 읍내(城內)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데서 중인이란 호칭이 나왔다. 胥吏는 문무 또는 中外的 各官衙의 하급吏屬을 말하며, 京衙前인 錄事, 書吏와 外衙前인 향리가 여기에 속하였다. 또 양반의 庶出인 庶孽과 그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중인과 같이 限品敍用의 제한을 받았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방 각 군현은 서울과는 다르게 중인층이라 하면 향리와 사족의 서열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현이족은 주로 읍내관아를 중심으로 거주하였고 중앙관아의 문무이직과 같이 군현의 향리와 軍校職을 세습적으로 장악하였다. 특히 경북지방은 각읍마다 향리자원이 많아, 재지사족이 주로 城外的 촌락에서 동족부락을 형성해 나간데 반해, 향리들은

읍내에서 다른 官屬, 市井人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사족들은 대개 쫓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많은 곳에는 서얼도 많기 마련이었다. 서얼은 嫡系와 한 마을에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읍내나 다른 촌락에 이주하기도 하였다.

양반과 중인이 지배계급이라 한다면 農·工·商·漁業 등 각종 생업에 종사하여 국가에 대한 賦役(田稅, 力役, 貢納)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常(良)民계급 및 천민이 피지배층을 이룬다. 상민 중에는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농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資產의 빈부와 사회세력의 우열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었다. 농민층 가운데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지주라 할 수 있는 부농과 소규모적인 자영농 및 전호로 구분할 수 있다. 15세기부터 농민들은 능력에 따라 지주화 내지 자작농화의 길이 전대에 비하여 훨씬 보장되었다. 농민이 사적인 토지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전대에 비해 사회관계·경제관계상의 큰 진전이었다. 상민출신 농민들은 양반의 私田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전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전호로서 대개 ‘竝作半收’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역과 요역이라는 신분에 따르는 役의 임무를 지는 동시에 토지에 얽매어 이주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양반이 사는 마을을 ‘班村’이라 한데 대하여 상민이 사는 마을을 ‘民村’이라 하였다. 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수공업을 하기도 하였고 농한기에는 行商도 하였다. 병역이나 요역 이외에 특수한 직역은 상민이 아닌 신분이 치르는 고역이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천시하였다. 皂隸·日守·羅將·漕軍·水軍·烽燧軍·驛保 등 일곱가지 직역은 원래 양민에게 부과된 것이었으나 그 실제적인 처우가 거의 천민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회계층의 최하층인 천민은 마치 재산과 같이 매매·증여·상속되는 노비를 비롯하여 巫覡·廣大·娼妓·白丁 등이 있었다. 같은 노비라도 그 소속에 따라 公賤과 私賤의 구별이 있었는데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이들 노비였다. 公·私賤은 그 소속 관청과 上典에 대한 노동력의 제공이나 身貢을 의무로 하였다. 특히 지방에는 官衙使役을 담당하는 官奴婢가 군현마다 있었고 각처에 산재한 驛에는 驛奴婢가 있었다. 조선후기 邑誌에 의하면 대구의 관노비수는 官奴 42명, 官婢 40명으로 나타난다.

私賤은 그 主家의 가내 잡역이나 농경에 사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공사노비중에는 ‘外居(獨立)奴婢’라 하여 독립된 家戶와 가계를 유지해 가는 자가 많았다. 외거노비는 국가기관 또는 주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경리에 의하여 토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였으며 이 경우 주가 이외에 다른 지주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었으니, 이들은 사실상 상민의 佃戶와 다름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외거노비 가운데는 많은 토지를 축적하여 지주가 되었는가 하면

노비를 소유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공천은 그 조속기관에, 사천은 그 상전에 대하여 각각 1년에 奴는 綿布 2匹, 婢는 1匹半씩 신공을 바쳤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점 減貢되었다. 노비의 신분은 고려 이래 從母法에 따라 엄격히 세습되었고, 때로 從父法이 실시된 적도 있으나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노비는 사족의 手足으로서 뿐 아니라 중요한 생산수단 내지 재산으로써 양반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으며, 노비의 有無는 실로 사족의 家運성쇠에 관계됨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수요와 자연적인 증가 및 사족들의 적극적인 노비증식책에 의하여 노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갔다. 성종조 李深源의 상소에 “私賤의 수가 양민중에 十之八九”라 하였으니 벌써 15세기 후반에는 노비수가 격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해 원년(1609) 통계인 《蔚山府戶籍》에 의하면 노비가 전체 인구 가운데 48.6%를 차지하였으니 16세기에는 천민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관직의 고하와 家産의 빈부에 따라 사족 소유 노비의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경북지방 사족의 경우 한 家口에 대개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노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지방의 명족인 夫仁洞의 慶州崔氏, 山格洞의 大丘徐氏, 月背의 丹陽禹氏, 河東의 八莒都氏, 妙洞의 順天朴氏 등도 조선후기에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성씨 변천을 시대적으로 고찰해 보면 고유성씨에서 중국식 성씨로 발전해 왔다. 조선전기에는 이미 고려조부터 상층사회에서 일반화되어 가던 중국식 성씨가 보다 더 상하 계급을 막론하고 일반화되어 갔다. 즉 유교와 사대외교를 국시처럼 생각한 조선에 있어서 중국식 성씨는 전인민의 호칭을 완전히 개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이 시기에 오면 호패법 및 호적법의 실시, 홍황기근으로 인한 유이민의 지방이동 및 임란 등 전란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한국인 본연의 성씨호칭법은 특수한 경우와 천민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姓氏와 本貫을 가장 구체적으로 조사 수록한 최초의 자료는 세종 1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각읍 성씨조이다. 경상도지방은 이에 앞서 동왕 7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성씨조는 전자의 경상도 각읍 성씨조에 그대로 移記되었을 뿐 아니라, 전자는 후자에 없던 ‘續姓’ 등 구체적인 성씨관계 자료가 많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전자의 성씨조는 15세기초 우리나라 지역별 성씨의 분포와 그 내부구조 및 존재상태를 구명하는데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거 대구의 성씨조를 적기하면 다음 〈表 2-3〉과 같다.

〈表 2-3〉 大丘郡의 姓氏

지역 \ 성씨	土 姓	來 城	續 姓
대 구	5姓: 白·夏·裴·徐·李	1姓: 都	
수 성	4姓: 賓·羅·曹	7姓: 柳·張·崔·申·劉·高·鄭	6姓: 芮(缶溪)·陳(桂城)·崔(保寧)·金(金海, 淸道)·李, 皆爲鄉吏
하 빈	3姓: 申·李·宋		
해 안	5姓: 牟·白·河·申·丁	3姓: 諸·秦·朴	1姓: 韓

위 표에서 보면 대구군의 姓種은 다음과 마찬가지로 당시 성씨의 대종을 차지했던 土姓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성씨의 변통을 부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적 촌락공동체로서의 ‘土’와 혈연적 씨족집단으로서의 ‘姓’으로 구성된 토성은 그 구역에 토착해 온 지배적인 姓團으로서 前代 유래의 ‘古籍’에도 기재되어 있고 15세기초 지리지 편찬때의 보고문서인 ‘關’에도 실려있는 성씨를 지칭하였다. 來姓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성씨를 말하는데 대구군의 경우 그 所自來處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구의 來姓 都氏는 八莒(칠곡)縣 토성에서 入來했다고 볼 수 있다. ‘續姓’은 고적에는 없다가 관에 비로소 續錄된 성씨로서 《경상도지리지》에는 기재되지 않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나타난다.⁸⁾ 대구군에는 없지만 亡姓은 고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관에는 없는, 즉 15세기초에는 이미 없어진 亡土姓을 말하였다.

고대의 城과 村이 나중에 군현으로 개편되었듯이, 군현의 토성은 그 군현을 형성했던 ‘城姓’ 또는 ‘村姓’에서 발전해 왔다. 15세기 대구군의 속현인 수성현의 4개 토성은 그 전신인 壤城의 賓氏, 勾具城의 羅氏, 仍助伊城의 曹氏·韃氏였던 것이며, 해안현의 5개 토성은 그 전신인 省火城의 牟氏, 無價城의 申氏, 佛坐城의 白氏, 申氏, 鳴城의 丁氏였던 것이다.⁹⁾ 현재 각 姓의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인 군현은 원래 國·城·村 등 하나 또는 수개 이상의 구역이 합쳐 구획된 것이며 지리지 소재 각읍의 토성수는 대체로 군현으로 구획될 당시 합쳐진 구역의 수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중국식 성씨(漢姓制)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여말선초에는 국내의 구획은 정치적, 군사적인 비중과 성격 및 인구·면적의 규모에 따라 州·府·郡·縣과 鄉·所·部曲·村

8)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경상도 대구부 성씨조.

등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이러한 구역에는 각기 토착지배姓團인 토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역이 중앙정부와 연결될 때 주부군현이란 등급이 구분되듯이, 그곳에서 토착하면서 그 구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토성들도 그 세력의 대소강약에 따라 성세가 결정되었다. 주와 부가 군현과 향·부곡 또는 촌을 영유하고 있듯이, 大邑의 토성들은 소속 구역의 그들보다 우세하여 일찌기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향리의 상층부인 호장직을 맡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대구군과 그 속현 소재 토성을 비롯한 각종 성씨는 고려이래 15세기초까지의 該邑 지배姓團으로서 원래는 각 ‘邑司’(郡司, 屬縣司)를 구성했던 鄉吏의 성씨였다. 그들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上京官人이 되기도 하고 재지이족으로 존재했는가 하면 15세기초부터는 재지사족으로 분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향소부곡에도 각기 토성이민이 있어 왔는데 대부분 고려후기이래 소멸의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15세기초가 되면 극히 일부만이 잔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임내의 존폐여부는 그곳 토성이민의 存否여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향소부곡의 소멸은 토성이민의 流散을 의미하며 대체로 자체 성씨를 갖고 있던 곳은 15세기초 지리지 편찬 당시까지는 독자적인 토성이민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해안현 소속 資己所에는 속성인 金氏가 있었다. 이렇게 15세기 초까지 군현과는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던 屬縣姓·村姓이나 향소부곡성도 그 구역의 병합 내지 폐합과 함께 소속 군현성에 동화 내지 흡수되거나 타지방으로 流散되기도 했다. 또 顯祖를 확보치 못한 任內姓은 심지어 성과 본관을 유명 성씨의 본관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수성賓氏가 대구賓氏로, 八莒都氏가 星州都氏로 개칭된 것이 그 예이다. 대체로 僻縣이나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하던 토성들은 16세기이후부터 改姓·改貫해 갔던 것이다.

한편 위 표에서 보면 土姓은 本郡이 5성, 수성현이 4성, 하빈현이 3성, 해안현이 5성, 합계 17성으로 되어 있다. 당시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전자에서는 성씨의 종별을 土姓, 來姓, 續姓, 京來姓, 入姓, 鄉國姓, 賜姓, 天降姓, 入鎮姓, 亡姓 등 20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총계하면 전자에서는 모두 265성이 되고 후자에서는 모두 295성이 된다. 전국적인 성씨의 분포상황을 보면 평양에서 영흥을 잇는 선을 경계로 그 이남지방의 各郡은 빠짐없이 토성이 있는 반면 그 이북지방은 없다. 이는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후 신라의 영역으로 확보된 지역은 토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당시 신라통일이후 중국식 성씨가 점차 상층사회로 보급되자 그 지방토박이 토호들이 國有姓씨에 대신 한자식 성씨로 바꾸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토성은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宗族이 번식하여 盤根錯節 토호화 하는 동시에 인구수도 다른 新來姓에 비하여 많았고 여러가지 그 지방적 특권도 향유

하였던 것이다. 이 토성이 바로 본관화했던 것이다. 상기 대구군내 17종의 토성은 바로 해당지역의 ‘토박이’로서 적어도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숫적으로보나, 그 지역내의 사회적 지위를 봐서도 他來接姓에 비하여 우위 내지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來姓문제인데 본군이 1성, 수성현이 7성, 하빈현은 없고, 해안현이 3성으로 나타난다. 이 래성은 타지방에서 이주한 성이나 原住地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所從來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래성은 당시 사회적 사정으로 보아 한 종족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체로 凶荒, 失業 또는 범죄도피, 유배 및 친척 등 연줄에 따라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來接時에는 인구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주하여 안착한 다음에는 토성 못지 않게 확산되어 大姓名門으로 성장한 예도 많았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이후에 이주 또는 來寓한 성씨 가운데 특히 全氏, 蔡氏, 孫氏, 楊氏, 禹氏는 토성 못지 않게 번영하여 仕宦, 학문에 진출한 인물도 많았다.

續姓은 본군, 하빈·해안현은 없고 다만 수성현에 6성만 있었다. 이들 6성은 缶溪로부터 온 芮氏, 桂城으로 부터 온 陳氏, 保寧에서 온 崔氏, 金海로부터 온 金氏, 淸道에서 온 金氏, 原住地를 모르는 李氏 등인데 이들은 모두 鄉吏임을 밝히고 있다. 속성은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楊根郡條에 “續姓一古籍所無 今據本道關 續錄後”라고 주해한 바와 같이 고적에 없으나 당시 호적을 작성할때 본도의 보고에 의거 후미에 추가등록한 성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 속성은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분석해 보면 대개 원주지가 명시되어 있고 후미에 주석을 부쳐 “續姓00來 今皆爲鄉吏(役)”라 하여 거의 본읍 鄉役에 종사하는 향리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대구군 지방의 토성과 移住姓의 분화 및 발전과정을 몇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丘徐氏는 고려시대부터 본군의 향리세계를 주도하다가 고려후기에 상경종사하면서 전국의 대성명문으로 성장하여 士族과 吏族으로 분화되었고, 사족은 거주지에 따라 다시 京派(상경종사)와 鄉派(在鄉세력)로 나누어졌다.

(2) 대구裴氏·白氏, 河濱李氏, 壽城羅氏·賓氏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고급관인은 많이 배출하지 못했지만 본관을 중심으로 재지사족과 이족을 갖고 있었다.

(3) 속현의 혁파에 따라 수성, 해안, 하빈을 본관으로 했던 임내토성들은 일찌기 현조를 갖춘 상기 성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개 후대에 와서 改貫, 冒貫해 갔다.

(4) 16세기이래 토성이족의 사족화와 기성사족들의 활발한 낙향과 이주로 인해 이곳에도

기존의 토성보다는 다른 지방으로부터 이주해온 慶州崔氏(夫仁洞), 中和楊氏, 順天朴氏, 仁川蔡氏, 丹陽禹氏, 八莒都氏 등이 대표적인 사족으로 존재하였다.

한편 대구지방에는 15세기 사림파에 속하는 楊熙止와 朴漢柱 등이 대구와 관련을 맺음에 따라 16세기후반에는 徐思遠·全慶昌·楊拜善·李叔樑 등 사림파가 배출되었던 것이다.

第2節 大丘府의 經濟的 成長

I. 農業生産力の 增大와 農地擴大

조선전기 농업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 토지제도의 변천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 토지제도의 근간이 된 것은 여말에 개혁된 科田法이었다. 과전법은 관직의 품계에 따라 18과로 나누고 時·散官을 막론하고 모든 관료에게 경기의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전제개혁은 고려왕조를 지탱하던 舊家世族의 토지를 정리하여 이성계 지지 세력에게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기본인 科田의 특징은 첫째 귀족적 신분적으로 분배된 것이며, 둘째 功臣田은 세습을 인정하였고, 셋째 경작권은 면적의 제한이 없었다. 첫째 점은 권력의 성장과 문서 즉 田券의 不備와 더불어 상호작용하여 점차 一代所有에서 세습적인 것으로 전환할 우려를 내포한 것이며, 둘째 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적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며, 셋째 점도 또한 권력자인 양반의 兼併을 조장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에 있어서 개국공신을 포함한 여러 공신들과 새로이 등장한 귀족의 사유지인 농장은 벌써 畿內와 3南의 여러곳에 산재하였는데,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僅少한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고려말 권문세가의 토지점병의 弊風을 재현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民의 생활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히 신귀족의 외형적 교체만을 의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세조때 이르러서는 貧農인 殘戶와 極貧農인 殘殘戶의 숫자가 전농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인구의 자연증가나 田地의 협소로 인한 현상이라기 보다 농경권에 대한 무제한성과 농장에 대한 무통제성에 의한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전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백성의 생활이 일반적으로 약간 안정을 보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과전법 그 자체의 모순과 불완전성 그리고 그 운영의 불철저로 인하여 田土는 한정되어 있는데 세습이 가능한

私田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조 12년에는 과전으로서 사용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사전을 없애고 職田을 두게 되었다. 이 職田制는 現職者에 한하여 전토를 급여하는 것으로서 《경국대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준수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전제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외형적 제도적 측면에서만 기능하였을 뿐 실제로 있어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兩班이 職田의 稅를 농민으로부터 거두는 例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소위 官收官給制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던 職田折給은 유명무실해지고, 관리들은 職田稅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國庫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명종조까지는 존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토지소유는 양반의 농장소유 형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농장은 15세기에서 16세기초로 넘어오면서 집권력이 점차 해이되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자 더욱 발달되었다.

농장의 성립 배경으로는 국가의 賜田·陳荒地의 개간, 寺刹에 대한 기부, 농민의 投托, 관리의 贈賄·強占·買得, 墓位土의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長利’라는 고리대는 田主의 貨殖은 물론 농장 자체를 확대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들 농장에는 亭榭 등 건물을 세워 別莊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齋舍나 書堂을 세워 유교문화에 그 물질적 토대로 삼기도 하는 한편, 때로는 그 관리자 또는 경작자가 田主의 세력을 믿고 관권에도 대항할 만큼 鄉村 농민을 위압하기도 하였다. 權貴들이 소유하는 농장의 屬民들은 대개 ‘復戶’(요역 면제)의 특전이 있기 때문에 양민들이 그 소유지를 농장에 투탁하여 그 속에 逋逃하는 예가 많았다.

이러한 농장의 확대와 함께 종래의 중소지주였던 재지사족이 때로는 토호로 탈바꿈하여 주위의 民有地를 매득·투탁·점병의 수단으로 集積해 갔던 것이다. 문종 3년 3월 前大丘郡守 李甫欽이 문종에게 진언한 자리에서

대구에는 巨室의 農莊이 많다. 그래서 빈민들이 이들 부호가의 사체에 의존하여 失業 流離하는 자가 있다.

고 한 바와 같이 대구에도 큰 규모의 농장이 많았으며 동시에 영세농민 또한 많았는데 이는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세종18년 강원도의 예를 보면

大戶(50結이상) 10戶(0.1%), 中戶(20結이상) 71戶(0.6%)
 小戶(10結이상) 1,641戶(14.2%), 殘戶(6結이상) 2,043(17.7%)
 殘殘戶(5結이하) 7,773戶(67.4%), 計 11,538戶(100%)

와 같이 강원도는 경작지 5결이하의 殘殘戶가 67%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 4년 記事에서 보면 “田地가 없는 人民이 3/10이나 된다”고 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면적은 영세한 반면 公私의 收斂은 막심하여 추수기에 이르러서도 그 수확이 이미 소진되어 관청에서 지급하는 種穀조차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후대로 내려옴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조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公田制를 원칙으로 하여 貴族, 官公吏, 官廳 등에는 특히 私田을 許容하였는데(祿貢, 功臣田, 屯田, 學田, 祭田 등) 公田은 無稅, 私田은 收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공전의 경우에는 수익의 1/10을 租로써 받아들이고 사전의 경우는 田主가 佃客(소작인)으로부터 취득한 租에서 1結마다 2斗씩 稅로 바치게 하였다. 그런데 租稅取斂의 대상인 耕地는 그 面積의 量定과 아울러 地質의 良否와 農形의 如何에 따라 그 規準이 필요 하였으므로 태종 4년에는 각도 전결수와 量田事目을 조사케 하였고, 同 5년에는 6道の 양전을 다시 명하였으며, 세종조에는 8도의 田品(田分6等)과 年分9等法을 시행하여 토지의 鑑定과 農形等級으로서 납세의 차이를 정하였다.

고려말 공양왕 3년의 토지개혁 및 세종조의 새로운 稅法이 정비된 뒤에 정리된 諸田과 그 뒤 經國大典에 나타나는 諸田 가운데 당시 대구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토지의 종류를 들어보면 세종대까지는 寺院田, 衙祿田, 公須位田, 人吏位田, 諸色匠人田, 院位田, 渡廩給位田, 津尺位田, 水站夫位田, 賜田, 學田 등이 있었고 경국대전에는 위의 諸田이 다시 정리되어 寺田, 衙祿田, 公須田, 站渡田, 院田, 津夫田, 馬田, 長田, 副長田, 急走田, 賜田, 鄉校田, 國屯田, 官屯田 및 기타가 있었다. 또한 당시 토지의 종류를 量案의 실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¹⁰⁾

- (1) 土地性能上의 區分; 家垓, 耕地(水田, 旱田), 未墾田, 火田(山田), 楮田, 桑田, 稻田, 粟田, 麻田, 菜田, 藥田 등
- (2) 收稅上의 區分; 不易田, 再易田, 正田, 續田, 續降田, 起田, 墾田, 加耕田, 新加耕田, 原田, 熟田, 實田, 翻作田, 災傷田, 陳田, 免稅田, 復戶田, 閑曠地 등
- (3) 所屬上의 區分; 公田, 私田.

조선초기에 있어서 대구지역이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앞절에서 이미 언급한 府域의 확대와 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田結數의 증가와 함께 농업생산의 현저한 발전을 들

10)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田制考》 제2장 제1절.

수 있다. 대구가 인접한 세 縣의 귀속으로 수성평야 및 금호강유역의 평야와 하빈현의 농경지를 확보하자,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인구의 소장이 호구통계로서 표현되듯이 농업생산력의 증감은 전결수의 통계로서 나타난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성장과 농지개간 및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지역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여말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왜구의 창궐로 인한 유이민의 대량 발생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전결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신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정치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고 밖으로는 왜구의 漸息에 따른 유이민의 還本과 국가의 住民安集策과 적극적인 권농정책에 의하여 陳荒地의 起耕과 새로운 개간의 활발은 전결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공양왕 3년(1391) 5월 양계를 제외하고 경기와 육도 田地를 改量한 결과 實田·荒遠田 합계가 798,127結이던 것이 태종 4년 5월의 통계에서는 922,685결, 세종 14년도의 통계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1,632,006결로 격증하였다. 태종 4년의 양계를 빼고 여말의 통계와 대비해 보면 114,639결이 증가된 셈인데 이는 건국후 10여년간 치적의 소치인 동시에 이제까지 방치되었던 沿海지방에 양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태종 5년 9월에는 경상도를 비롯한 下三道에 量田敬差官 45명을 파견하여 양전한 결과 六道元田 96만결에 새로 얻은 剩田이 30여만결이나 되었다.¹¹⁾ 이러한 전결수의 증가는 무엇보다 연해지방에 왜구가 종식되어 유이민이 모여들고 개간이 날로 왕성해 갔기 때문이다. 태종 7년 정월 충청감사 金自粹의 보고에 의하면 淸州·忠州와 같은 내륙지방에도 결수가 격증하여 1畝당 3·4,000결씩 加剩田을 내었다. 내륙 지방인 대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집권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태종의 적극적인 농지확대책은 그의 치세동안 강력히 추진된 결과 경상도의 경우 태종 4년 5월 전결수 224,625결이 세종 7년에는 301,147결로 격증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구군의 田結상황을 설명하면서 “墾田數는 6,543結이며 그 중 水田은 3/10強”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호구수 기록과는 달리 지역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고 본군과 속현을 전체 한 묶음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토지의 結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다시 《세종실록지리지》 소재의 인구(男丁)수와 위의 전결수를 대비할때 인구에 대한 비율은 1.5인데, 이는 경상도 전체의 비율인 1.7과 비교해 보면 인구에 비해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水田과 旱田의 비율을 볼때 대구는 수전이 전결 전체의 3/10強을 차지하고 있어 田作보다는 畚作이 많았으며, 농경기술의 미발달과 수리시설의

11)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5월 임진조.

미비로 인해 수전이 적었던 것이다. 즉 대구는 지세로 보아 平地가 많고 新川, 琴湖江 등 냇물이 平野를 貫流하기 때문에 밭농사 보다는 논농사가 더 적합하지만, 세종초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일반적 추세로 보아 水田은 겨우 3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조선왕조는 집권체제의 강화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철저한 파악과 農地의 확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새 왕조는 農本主義를 산업정책으로 채택하였던 만큼 필연적으로 강력한 重農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농업의 발전과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개량과 水利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태조는 그 4년(1395)에 全國의 守令들에게 令을 내려 現地의 前衙品官을 勸農官에 선임하여 提堰을 수축케 하고, 뒤에는 이것을 수령의 책임으로 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보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언과 裨補所의 林藪에서 伐木耕田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다. 태종은 태조보다 더 강력하게 수리사업을 전개하여 李殷, 禹希烈 등의 도움으로 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金提의 碧骨堤 修築을 비롯하여 전국의 제언을 증축 내지 보수함으로써 고려말 이래 황폐되었던 제반 수리시설이 비로소 정비되었다.

태종의 治世 동안에는 특히 旱害가 심했으므로 태종은 水利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여 제언 등 수리시설을 활발히 수축하였다. 세종은 즉위년 10월에 禹希烈의 건의대로 各道 監司에 지시하여 관내 수령으로 하여금 堤堰과 灌溉數를 기록 備置하게 하여 黜陟에 반영하게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장려책은 성종·중종조에도 계속되었고 특히 下三道는 ‘地窄人稠’하다는 데서 국가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開墾장려와 함께 旱田의 水田化 傾向에 따라 수리施築은 계속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편 조선전기 전결수 통계에서 보듯이 경북지방은 전라도 다음으로 농경지가 많았던 곳이며 南中國의 선진적인 농경기술이 일찍부터 수용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休閑法에 대신하여 連作法이 보급되어 갔고 여말에 전래된 목면도 영남지방에서 시험재배되어 점차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麥作도 稻作과 함께 타도와는 다르게 함께 경작하고 있었다. 凶荒과 기근이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닥치던 당시에 있어서 보리농사의 장려는 서민들의 춘궁기를 넘기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수도작의 재배는 비록 전라도에 뒤졌지만 경북지방은 춘궁기에 보리를 수확하고 가을에 벼를 수확하는 데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유이민의 발생이 적었던 것이다. 대구의 경우도 경북의 일반적인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방의 중소지주층에서 성장한 신흥사족들이 15세기에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자 농

경기술의 개선과 권농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不在地主인 在京權貴와는 달리 그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고 또 농촌과 농민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지사족들은 자기들의 田地를 착실히 경영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경제적기반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중농정책은 농서의 편집과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태종14년에는 고려말에 開板된 바도 있던 元의 ‘農桑輯要’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前大提學 李行 등으로 하여금 本國俚語로 번역케 하여 이를 간행하고 또 이와 전후하여 各道에는 모범농장과 養蠶所를 만들어 그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세종 10년에는 3南의 비교적 발달된 농업기술을 평안, 함경도에 移植하기 위하여 3남의 관찰사로 하여금 도내의 耕種耘穫과 雜穀交種 등의 방법을 각 지방의 경험있는 老農들에게 물어 撮要成書하여 농서 1천부를 인출케 하였고, 다음해에는 지방老農들의 경험비결을 채방한 결과를 鄭招로 하여금 편찬케 하였는데, 이것이 《농사직설》로서 조선시대의 실험적인 농사방법은 이로써 처음으로 집성된 것이며 농업기술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 姜希孟이 4時의 農作과 그 기술을 개설한 《四時纂要》와 衿川(始興)지방을 예로 한 농사법을 수록한 《衿陽雜錄》을 내놓아 農家の 寶典이 되었다. 또 이때에 姜希顔의 《養花小錄》이 나와 園藝書로는 선구가 되었으며, 농사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중종13년에는 金安國의 《農事諺解》와 《蠶書諺解》가 간행되었다. 15세기에 걸쳐 이러한 새 농서의 편찬보급, 농경기술의 개량, 수리시설과 농경지의 확대정책은 주로 이러한 신흥사족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한편 당시 農具는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어 조선조 말기에도 겨우 畜力을 사용하는 보습(려)이 가장 대표적인 정도였고 수력을 사용하는 물방아를 비롯하여 耒·鋤·耜, 耙碎用에 평이·호미·가래·고무래·씨래와 收穫 및 調製用에 낫·도리깨·벼훅이·갈퀴·절구·방아·연자매 등이 있었다. 水稻栽培의 기술로 前期에는 直播法이 보통이었고 거기에 약간 개량된 방법으로 直播하여 苗가 상당히 성장한 다음에 疎密한 곳을 移植調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移秧法은 훨씬 후기에 보급되었으나 이것도 요즘처럼 정조식이 아니고 ‘혈을 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수리시설과 농업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조 대구군의 旱田과 水田의 비율은 7:3 정도였으나 후기로 내려옴에 따라 5:5의 비율로 되었다. 이는 국가의 水稻栽培 권장에 따른 수리시설의 확충에 기인한 것이다.

조선전기 수리관개 시설로는 堤堰과 防川(洑)이 대표적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洑가 堤堰에

비해 늦게 보급되었지만, 세조조 堤堰敬差官 姜叔卿의 事目에

旱害를 救濟하는 시책은 전적으로 堤堰과 防川(川防=湫)뿐이다. 湫의 이익은 제언에 비해 배가 된다.¹²⁾

라 한 바와 같이 湫도 이미 15세기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제언의 축조에는 湫(防川)에 비하여 工役이 훨씬 많이 투입되었으나 규모가 적어 조그만 한밭에도 쉽게 고갈되었던 것이며 또 토호들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많아 한재시 관개용으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보가 오히려 농민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대소하천의 상류와 중유역 또는 산간계곡에 보를 만들어 引水灌漑함으로써 그 이익이 무궁했던 것이다. 그 결과 15·16세기 權貴들의 농장이나 재지사족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개 천방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분포되어 있었다.

대하천의 하유역이나 평야지대는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장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곳은 근대적인 대규모적 수리시설과 제방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 홍수시에는 수해가 많고 한 발시에는 재해가 심하여 沓作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세기초까지는 제언이 수리관개시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堤堰은 흔히 ‘防築’이라고 하며 규모는 대체로 작았다. 그 形態는 대체로 洞口, 山谷峽間에 제방을 수축하여 貯水한 것이 많았으며, 때로는 평지의 약간 높은 곳을 파서 수축하거나 평야중간에 제를 수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권세가들의 대농장이 도처에 발생하자, 이들 집단농장의 상부에 제언을 수축하여 자기 농장만을 관개하는 개인소유의 小提도 있고 한 부락이 共有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는 蒙利면적이 여러 부락을 끼고 있는 제언의 경우 蒙利地主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權豪들이 公有的 제언을 헐고 耕地化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방관리중에는 제언을 탐낸 나머지 決水 捉魚하는 험잡도 있어 국가는 감사와 수령에 下讞하여 단속하기도 하였다.

대구군내의 堤堰數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聖堂, 佛上, 屯洞, 釜堤의 4곳에 불과하던 것이 그후 예종 원년에 편찬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위의 4곳 외에 새로이 18개의 堤堰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는 기재상의 차이에서 오는 數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후대로 내려옴에 따라 제언이 증설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제언의 소재지와 灌漑面積을 적어보면 다음의 <表 2-4>와 같다.

12) 《세조실록》 권 10, 세조 3년 12월 丁未條.

〈表 2-4〉

大丘郡內 水利施設

堤 名	所 在 地	灌溉面積	堤 名	所 在 地	灌溉面積
松羅堤	府東北上里	20결	栗堤	府西余兒山里	16결
聖堂堤	府南甘川里	48결	新方洞里堤	同 新方洞	13결
蓮花堤	府南南山里	25결	漆田洞里堤	同 漆田洞	16결
甘勿三堤	同 花山里	56결	知里谷里堤	同 知里谷	16결
沙里洞里堤	同 沙里洞	23결	佛上堤	府北檢之里	64결
鼎堤	府北無台里	16결	堀川堤	河濱縣北	24결
屯洞堤	壽城東聞山里	21결	沙等堤	同 佛會里	46결
光清洞堤	同 光清洞	13결	牆洞堤	解顔佛會里	39결
牆堤	同 枝只西里	19결	乃里堤	同 上香里	54결
竝亨子堤	同 注谷里	18결	金谷堤	同 釜谷	52결
末山里堤	河濱末山里	4결	計 22堤		606결
仍邑城堤	同 縣 南	3결			

이상에서 보면 제언 가운데는 관개면적이 10결미만도 있는가 하면 50결이상 되는 것도 있었다. 이들 제언은 대체로 洞口나 山谷의 물을 평소에 모아 두었다가 필요시 관개하는 것이며, 江水를 引用하거나 水源이 많은 하천의 물을 引用貯水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위의 대구지역 제언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제언의 숫적 증가현상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경우 중종 18년에 800개소이던 것이 정조년간에는 1,520개로 약 2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현저한 숫적 증가이다. 대구부내의 제언도 전술한 바와 같이 후대로 내려옴에 따라 더욱 증가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군현마다 제언의 명칭과 관개면적이 적혀 있는데 그 총수를 합하면 제언은 769所이고 관개면적은 20,239結 14負 76束, 223卜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경상도지리지》에 적혀 있는 경상도의 田地 301,147結 가운데 水田 114,339結 88負 9束과 비교해 보면 경상도의 水田은 1/5이 저수로 관개가 되고 나머지 4/5는 天水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국에서 경상도의 제언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수리시설이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의미인데, 대구의 경우 《경상도속찬지리지》소재 22개 제언의 관개면적은 606결로,

이를 세종조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의 대구군 墾田 6,543결 가운데 3/10이 水田이라 한 것, 즉 대략 1,963결과 대비해 보면 약 31%가 수리답이고 나머지 약 69%가 천수답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대구의 경우 경상도 전체 관개면적인 1/5보다 훨씬 많은 1/3이 灌溉 水田임을 알 수 있다. 《중종실록》 권 62, 23년 8월 임자조에

대구부에 큰 비가 와서 水沈된 田地가 3,160餘結이나 되었다.

고 한 바와 같이 洪水時 일반적으로 침수되는 경작지는 계곡이나 하천유역인데 이러한 지대는 대체로 旱田보다 水田이 많으며, 특히 금호강유역의 경우 많은 沙田이 있어 이러한 홍수때마다 침수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浸水 田地 가운데 그 절반을 旱田이라 간주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인 약 1,600결은 水田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때 세종조 대구군내 墾田 6,543결중 水田이 3할인 약 2,000결이었던 것에 비해 후세에 내려옴에 따라 수전이 증가하였고 또한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관개수전의 면적이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종 원년경에 大丘府內 제언수가 22개소였던 것이 후대 정조년간에 편찬되었다는 《大丘府志》에는 66개소로 기록된 것에서도 그 증가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제언보다 工役이 적게 들고 대규모로 관개할 수 있는 湫(川防)은 16세기부터 경북지방에 보급되어 갔다. 《林園十六志》에는

넷물을 끌어 관개하는 田地를 湫田이라 한다. 그 湫制는 田이 높고 川이 낮으면 상류를 막아 물이 겹으로 돌도록 하여 도랑을 만들어 끌고, 田이 낮고 川이 높으면 沿邊에 築岸하여 田段을 護하여 구멍을 내어 灌水하는 것이다. 먼 길은 十餘里, 가까운 것은 수십백步에 이르며, 큰 것은 數千頃, 작은 것은 數十百畝를 관개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대구지역의 湫에 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속찬경상도 지리지》 등 15세기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고 다만 후기의 기록인 大丘邑誌에서 수리시설로 제언 다음에 보가 나오는데, 本郡에 18개소, 壽城이 11개소, 解顔이 3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보가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5세기나 16세기 전반에는 보가 활용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경북지방에는 제언과 함께 보가 일찍부터 보급되어 있었다. 경북은 지세상 태백·소백·가야산 등 大小山脈 사이로 낙동강이 관류하면서 그 상류와 중유역 또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지류와 산간계곡을 따라 보를 축조하여 引水灌田하였다. 15세기부터

재지사족들은 이러한 곳을 택해 卜居하거나 농장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농장에는 보를 이용하여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引用할 수 있어 재해가 적고 또 河床이 낮기 때문에 수해가 적었다. 보는 시대적으로 제언보다 훨씬 뒤에 이용되었고 제언에 비해 항상 흐르는 溪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제언이 위치에 구애를 적게 받는 반면 보는 地勢 및 河溪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언보다는 후기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리시설에는 제언과 보 외에 溝渠(도랑)와 防堤가 있었다. 제언이나 보 혹은 하천에서 관개에 필요한 물을 끌기 위해서는 溝渠 즉 도랑을 수축해야 한다. 도랑은 대체로 흙으로써 뚝을 쌓아 만드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제언 또는 보의 부속물인 것이다. 한편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뚝을 쌓는 것이 방천이다. 旱魃로 물이 부족한 것도 농사에 큰 문제가 되지만 이와 반대로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농업기술이 열악하였던 당시에 있어서는 旱魃時 수전보다 한전이 旱害가 적었고 홍수의 피해는 더욱 커서 농작물의 손실은 물론 농토의 유실과 인명의 피해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구는 신천, 금호강 등 여러 河川들이 농경지를 관유하기 때문에 진작부터 방천에 유의하였던 것 같다. 《성종실록》 권 51, 6년 정월 을축조의 기록에 의하면 사헌부는

大丘府使 崔灝元이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여 防川하였다

하여 탄핵하였고, 같은 책의 권 125, 12년 정월 정유조에 “前大丘府使 崔灝元이 發軍防川하여 주민들의 田地를 掘鑿, 그 川水를 引水灌之한 결과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사를 보아 당시 崔灝元의 처사는 수리관개 내지 방천의 목적으로 공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농민들이 水利 내지 防川에 대한 이해부족과 공사로 인한 그들 所有 田地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영든 조선전기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방의 농업은 전국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수리 관개시설의 확충, 水稻作의 보급과 이양법의 실시, 稻麥併作과 함께 한전의 수전화 현상이 다른 지방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다.

II. 地方商工業의 成長과 對外交易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농본국가로서 ‘務本抑末’책에 입각하여 상공업의 억

제라는 전통적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수공업 내지 상공업의 발달이란 처음부터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지 왕실생활 내지 國用의 필요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명맥이 유지되었다. 효종 5년(1654) 李敬輿의 上疏에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빈곤하여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고, 단지 밭을 갈아 먹고 배를 짜서 옷을 해입고 살므로 비록 工·商을 業으로 삼는 자가 있어도 그것은 기껏해야 土木皮革의 器具나 麻絲米穀類를 사용해서 서로 교역하면서 겨우 自給하는데 불과하다.¹³⁾

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상공업은 유치한 단계를 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방에 있어서는 대개 영세농 경영과 결합된 가내부업으로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여 가족단위로 생산하는 일이 많았고, 그 중의 일부가 貢物로 貢納되고 또는 물물교환으로 거래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농민의 수공업 이외에 專業的인 수공업자를 ‘匠人’이라 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고, 그 가운데 중앙에서는 工曹를 비롯한 京中各司에, 지방에서는 각도·각읍에 소속된 장인을 ‘工匠’이라 하여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구별하였다. 工匠은 良人 또는 公賤으로 형성되어 工曹·京中各司·本道·本邑에 등록되었다. 《경국대전》(공전)에 의거 경상도감영 소속의 외공장 종류와 그 정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冶匠 18, 弓人 2, 矢人 2, 弓弦匠 1, 皮匠 3, 漆匠 2, 梳省匠 2, 梳匠 1, 扇子匠 2, 油具匠 1, 箱子匠 4, 甲匠 1(12種 39人)

여기서 다시 大丘府의 工匠種類와 匠人數를 적기하면 다음 〈表 2-5〉와 같다.

〈表 2-5〉 大丘府의 工匠種類와 匠人數

工匠種類	甲匠	冶匠	弓人	矢人	木匠	皮匠	鎗匠	漆匠	紙匠	席匠	墨匠	油具匠	計12
匠人數	1	1	1	1	1	1	1	1	4	2	1	1	16

지방의 공장은 중앙에서 배정받은 공물의 생산 제조에 종사하면서 民需用도 겸하여 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공장은 작업장의 官設·私設을 막론하고 관의 필요에 따라 無償義務의 公役에 응해야 하고, 그 외 자유노동으로 되는 생산에 대해서는 工匠稅를 부담하였다. 공장제는 16

13) 《增補文獻備考》財用考 6.

세기부터 점차 私匠化의 길을 걸으면서 후기에 가서는 거의 붕괴되었다.

이와같이 수공업이 시종 침체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상품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연경제에 입각했다는 것과 수공업의 억제라는 전통적 정책 등을 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는 관부 또는 지배층에 의한 혹심한 수탈과 밖으로는 明의 誅求 또는 수입품에 의한 압박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초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明에 대한 金·銀의 貢이 면제된 뒤로 채광은 물론 그 공예생산까지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대구는 郡縣等級의 승격에 따라 官府所屬의 工匠數도 점차로 증가하여 마침내 위와 같이 定數되었으나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外工匠 가운데 治匠은 각 읍마다 분포되어 있었다. 治匠은 鑄·鑄·水鐵匠으로 구분되며 農具 제조 뿐만 아니라 官府의 무기 제조에도 동원되었다. 농기구는 농촌사회의 필수품이었으므로 治匠이야 말로 농촌 수공업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금속기 수공업에는 농구 제조와 함께 釜·鼎의 제조가 중요하였고, 銅과 錫의 合金인 鑪器의 제조가 상류층의 일용품으로 보급됨에 따라 발달하였다.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나는 대구군의 공물중 工產物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紙地·木器·笠草·陶器類에 불과하였고, 貢賦로서는 綿紬·紵布·麻布 등 棉苧麻織物이 주된 품목이었다. ‘男耕女織’의 농촌사회에 있어서 織布業은 농촌수공업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농가에는 主食을 제배하는 전답과 함께 綿田·麻田·桑田이 있어 농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陶磁器는 조선전기에 지방으로 확산되어 발전하였다. 대구에는 磁器所는 없고 陶器所가 두 곳에 있었는데 하나는 解顔의 東村汝里에, 또 하나는 壽城의 南村上院洞에 있었는데 그 품질은 하급이었다. 당시 이들의 품질은 上品과 中品은 극히 적고 대부분 下品이었다. 陶·磁器所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크게 官需와 民需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민수용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계속 증가해 갔던 것이며 沙器와 陶器는 이미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용의 食器·用器로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농촌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지업도 상당히 활발하였다. 위표에서 보면 공장 가운데 紙匠이 제일 인원수가 많다든지 또한 《경상도지리지》에 대구 및 3개 屬縣의 土產貢物 가운데 紙地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제지업이 발달되었음을 볼 수 있다. 紙地는 국가나 官司에 공납하는 관수용의 제조도 활발하였지만 이외 민간의 필수품으로 家用, 習字, 書冊用 등 그 용도가 다양하였다. 경북지방은 사림의 고장이라는 데서 민수용이 어느 지방보다 많았다. 특히 이러한 제지업은 각지에 산재한 사찰에서 크게 활발하였다. 그리고 대구에는 각종 자리(席), 木器, 竹제품, 皮革, 冠帽 및 賤

人所製의 鎗器類 등이 각처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도속찬지리지》의 대구군조에 歲貢으로 正鐵 409斤을 공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대구에도 鐵場이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제련장인 철장은 農隙에 吹鍊上納케 하였는데 대구군내 철장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 밖의 광물로는 金·銀·銅·鉛의 채굴이 있었다. 金·은은 明의 歲貢으로 국초부터 큰 곤란을 겪은 뒤 세종 12년(1430)에야 비로소 그 면제를 받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다시 명의 요구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국내의 金·은의 채굴을 금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軍器와 鑄貨의 재료인 銅의 채굴이 성행하여 세종 11년에는 대구의 河濱에 銅鐵을 시굴하는 한편 일본銅을 수입 사용하였는데, 특히 세조때의 花園倉이 이의 중개처로서 유명하였다.

한편 대구는 광업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세종 6년 9월 辛巳條의 “(工曹의 啓請) 曹知印으로 하여금 장인 金獨夫를 鉛鐵產出地인 대구 등지에 覈견하여 爐甘石을 심사케 하여 곧 시행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구에도 연철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구에는 銅도 산출되었는데 《세종실록》 권 46, 11년 12월 乙未條에서 보면 中軍總制李巖이 啓請하여

대구任內 河濱 등지에 銅鐵이 산출되니 大護軍 白環을 覈견 製鍊試驗함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며, 또한 銅鐵은 본시 본국 所產이나 동제련법이 오래동안 폐기된 까닭에 銅產地까지 잇고 전하지 않는다. 청컨데 일본의 製銅法을 진습하여 널리 동철의 산지를 조사 求得할 것이며 경상一道에 한 할 것이 아니라 타도에도 산출되는 곳이 많을 것이니 아울러 移文知會하여 동산지를 알려주는 자가 있을 때 良人일 경우는 賞職하고 천인은 賞給할 것

을 건의하자 세종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당시 대구에서 실제 동철을 제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문종과 세조때는 軍器와 화약제조도 지방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문종 즉위년 9월에는 경상도에 慈仁·安東·星州·晉州 등 4개 都會所를 설치하고, 각기 부근의 군현을 소속시켜 소속 각읍으로 하여금 화약원료인 焰硝土와 燒木을 마련 도회소에 수납케 하고, 여기에서 화약과 각종 軍器를 제조하였다.¹⁴⁾ 도회설치 기준은 각도의 界首官制와 동일하게 구획되었고 도로·거리 등을 참작하였는데, 당시 대구군은 星州都會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배정받은 양의 焰硝土와 燒木을 수납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도회소에는 화약 이외에 각종의

14) 《문종실록》 권 3, 문종 즉위년 9월 경신조.

軍器도 제조하였다. 세조 12년에는 전국의 군현을 5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한 군기를 제조 공납케 하였다.

端宗 원년 6월에는 議政府가 兵曹의 狀啓에 의거 上啓하여 경상·전라·충청·강원 諸道의 都會所에서 제조하는 軍器에 대해 額數를 정하지 않고 제조관에 일임해 놓으니 그 제조도 個中에는 과다하여 民弊가 많으니 앞으로는 매 1년마다 액수를 정해 제조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그래서 위의 건의대로 대구를 위시하여 성주·합천·초계·창령·현풍·거창·고령·지례 등 9읍과 함께 매년 甲 5부, 冑 5頂, 角弓 25張, 長片箭, 弓俵, 羅韜筒兒 각 25부씩 제조케 하였다. 그 후 세조 12년 7월에는 병조가 軍器製造額數를 軍器寺와 함께 전국의 各 郡에 배정하였는데 우선 군기시는 별도로 하고 전국 각 군을 대소등급으로 구분 배정함에 따라 대구는 3등군(전국 각군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음)에 해당하였다. 그 배정 군기액수는 角弓 36張, 磨箭·筒箭 각 18部, 長槍 15柄, 中槍 21柄, 環刀 36把, 弓弦 72個 鐵甲 2領 大鎗 1, 中小鎗 각 2, 大小角 각 2, 鼓 2를 제조하되 이들 군기는 1년에 한번 제작하며, 旗髦는 2년에 한번 제작하고 上貢數 외에는 모두 巨鎭에 보관하고 甲冑鎗鼓角은 오직 巨鎭에서만 제조 공납케 하였다.¹⁶⁾ 그리고 《世宗實錄》권 31, 9년 윤 7월 경신조에 慶尚道 敬差官 柳緩이 道內 여러 읍의 產物을 진헌하는 가운데 대구군의 소산으로 白鐵·雜黃·白石이 있었다고 하니 당시 대구군 내에서 백철·잡황·백석 등 鑛物도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朝鮮前期에 있어서 상업의 발달이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수공업의 침체와 영세한 농업생산하에서는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하기란 극히 좁은 범위에서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검약생활로 인한 物貨의 消費力의 미약, 교통의 불편과 수송수단의 미비, 화폐유통의 부진, 상업에 대한 정책상의 억압과 수탈 등 여러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상업도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하였다. 조선전기의 상업활동은 첫째 高麗以來의 開城과 조선시대의 漢城에 있던 각종 市廛, 둘째 15세기 후반부터 향촌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場市, 세째 상설店舖의 미비에서 더욱 발달된 樛負商 등의 行商, 네째 중국·만주·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국제무역, 다섯째 官府의 권력을 배경으로 공물의 代納을 담당하였던 각종의 ‘防納’商人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당시 대구는 지리적으로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往來交通路의 중요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水運을 이용한 倭商 및 倭物의 주요 집산지인 花園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15) 《단종실록》권 6, 단종 원년 6월 갑오조.

16) 《세조실록》권 39, 세조 12년 7월 신사조.

보부상 등의 行商, 對倭貿易, 場市 및 貢人들의 활동이 활발했었다고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지방경제의 특징은 場市를 중심으로 한 상업경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 경제생활의 토대는 역시 농업생산에 있었으며 그 잉여물을 자기의 필요한 물품과 서로 교환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물의 교환처로서 鄉市가 필요하였다. 지방에 있는 ‘場市’ 또는 ‘場’은 “行商이 모여 교역하는 것을 ‘場’이라”¹⁷⁾한 바와 같이 별다른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상인 또는 인근 주민이 모여서 교역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장시는 서울에서는 건국초부터 형성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성종초에 처음으로 전라도에서 있었던 기근을 계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를 ‘場門’이라 불렀다. 발생초기에는 官에서 이를 금지하였지만 중종·명종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라·충청·경상 등 三南의 각 지방에 점차 파급되었다.

이것은 상품이나 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민들이 饑饉·天災를 당하여, 혹은 가혹한 民役을 피하기 위하여 場市로 집중되는 것이었으며 그 발생이 국정이 해이하기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官府는 처음에는 농사를 버리고 末業을 쫓는다 해서 이를 금압하였고 또 많은 사람이 會集하는 것을 꺼려서인지 장시가 도적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끝내 이를 금압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救荒策의 하나로 이를 묵인하게 되었다.¹⁸⁾ 또한 지방향시 개설을 촉진케한 중요한 한 원인으로는 세종말 이후 貢納請負가 성행됨에 따라 각종 생활품이 상품을 목적으로 생산되면서 나타난 교환경제의 진전을 들 수 있다.

지방場市는 성종초부터 전라도에서 시작되어 경상도로 급속히 파급되었다. 성종 4년(1473) 申叔舟는 장시개설을 건의하였다. 그는 “화폐는 반드시 市場을 전제로 하여 통용된다. 경인년(성종 원년) 凶荒때 전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聚會하여 市舖를 개설하였는데, 이를 ‘場門’이라 불렀으며 주민들은 이에 의지해서 救荒하였으니 지금부터 외방의 大邑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장을 개설해 주는 것이 便益하겠다.”¹⁹⁾고 건의한 바 있었다. 그 뒤부터 장시문제는 救荒과 盜賊·逐末로 조정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三南지방에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지방장시는 각 지방의 개발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 초기부터

17) 《萬機要覽》財用篇 各塵條

18) 宮原禎一, 〈15·16세기 조선에 있어서 地方市〉《朝鮮學報》9, 1956, pp. 165~184 참조.

19) 《성종실록》권 27, 성종 4년 2월 임신조.

‘出市之日’을 따로 정하는 定期市였다. 《명종실록》에 “出市之日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었으므로 서로 貿遷하였는데, 이로 인해 도적이 흥행하였다. 만약 1개월 내에 2번 혹은 3번 開市한다면 폐단이 없겠다.”는 기사가 있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 定期市는 1월 2회, 3회, 6회(5일장)로 후기로 내려옴에 따라 점차 증가해 갔다. 장시는 대개 一日程을 기준하여 각 邑治와 屬縣治 또는 교통상 집산지에 주로 개설되었으며 一邑內의 각 장시는 개설일을 서로 달리하여 보부상과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抑商策에도 불구하고 大商富賈들이 각지에서 상행위를 자행하여 재부를 축적하기도 하였고, 지방의 토호들은 魚鹽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었다. 가령 下道에서 생산된 어염과 일본상인이 가져온 교역품은 낙동강을 溯上하여 대구·성주·산상 등 沿江各邑에 공급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해산물과 내륙산물과의 교역은 舟楫이나 行商들에 의하여 영위되었다. 행상들은 때로는 水運과 陸馱로 대량의 상품을 일시에 운반 판매하고 있거나 대개는 소량의 상품을 가지고 각지의 장시나 민가를 순회 소매하는 이른바 보부상이 많았다.

당시 상품의 교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존재는 行商이었다. 행상에는 負商과 樞商이 주류를 이루는데, 負商은 주로 조악한 일용잡화, 乾魚, 海藻 등을 취급한데 비하여 樞商은 다소 정밀한 小形物雜貨, 衣服, 被服材料 등을 상품으로 삼았다. 15~16세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황의 대체를 《世宗實錄》 세종 21년 11월조에 실린 判中樞院事 安純의 上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工商輩들이 草笠, 鎗器, 皮鞋와 같은 상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詐飾하여 혹은 등에 지고 혹은 실어서 諸道에 橫行하면서 서로 다투어 價格을 조작하고 閭里에 출입한다.”라고 한 바와 같이 草笠, 鎗器, 皮鞋, 魚鹽, 襦衣, 綿絮, 農器 등을 주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일반농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장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용하였을까? 물론 조선시대에도 종류에 따라서는 專業的인 상인이 지방에 산재하여 일반인의 需供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조선과 같은 유교적인 농업사회에서는 모든 필수품을 自家에서 생산하는 것이 理想的이었지만, 지역과 사람에 따라 土產과 生業이 다르고 또 빈부의 차가 있기 마련이니, 여기에 어떤 형식이든 商行爲는 필요하였고 따라서 장시가 후대로 내려옴에 따라 증가하였던 것이다. 소위 ‘日中爲市交易而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곡물류를 두고 보더라도 한 농가에 필요한 모든 농산물을 생산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농가 상호간에는 물물교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전문적인 수공업자들에 의해 제조되는 農器·食器類·木器·竹제품 등은

농산물과의 교환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고, 의류에 있어서도 지방마다 綿·麻·絹·紵織物의 생산이 서로 다르고 또한 魚鹽과 곡물의 경우도 생산지가 서로 달라 이의 교역을 위해서도 장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타 지방과의 교역은 裨負商 등 行商의 활동과 또한 개인이 私用上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의 산지에 직접가서 구매해 온다든지, 재지사족이나 부호들은 자기 노비로 하여금 米 또는 布를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케 하는 등 상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財富을 축적하는 데는 농경보다는 상행위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조선전기 경북지방의 재지사족이나 토호 가운데는 그것을 통해 부를 축적한 예가 많았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는 1道の 중앙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주위에는 농산물 또한 비교적 풍부하였다. 따라서 당시 교환의 일차적 형태인 물물교환이나 농경자와 수공업자 간의 상호교역이 행해졌다. 조선중기 이후부터 급속히 발전한 지방장시의 발생에 대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문헌가운데 吳希文이 임란중 일종의 피난일기체로 쓴 《鎖尾錄》이 있다. 이 일기 가운데 지방장시 및 당시 場利用, 매매교환 등을 摘記하여 그 일면을 보고자 한다.

- (1) 선조 28년 12월 13일조; 五升木(麻布) 兩疋을 장시에 가지고가 팔아서 粗米斗를 質得하였다.
- (2) 同 12월 26일조; 鷄兒(병아리) 3首를 장시에 내다 팔아서 各首에 米 1斗 5升 함께 4斗 5升을 교환하여 이 쌀로서 炭 1石, 沙器 등을 구입하였다.
- (3) 同 29년 5월 3일조; 장시에 가서 布로서 米 15斗를 마련하였다가 후일 다시 靑蓆를 사서 혼사때 사용케 하였다.
- (4) 同 12월 16일조; 米 15斗를 韓山장시에 가져가서 皮郎笠 35개를 質來하였다.
- (5) 同 5월 16일조; 乾柿 5貼을 가지고 해변에 가서 甘藷를 質來하였다.
- (6) 同 10월 23일조; 女商이 집에 가지고 온 고기(魚)를 쌀 3升과 교환하였다.
- (7) 同 4월 25일조; 쌀을 가지고 鹽을 사두었다가 다시 布를 質得하였다.

위의 몇가지 기사로 보아 임란 이전에 이미 장시가 형성되었고, 장시에서의 교환관계는 米, 布가 교환척도가 되지만 거의 모두가 물물교환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북지방은 위치상 對倭關係에 있어서는 경남에 비해 덜 긴밀하였다.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간의 사절왕래가 東萊를 중심으로 하였고, 또 三浦가 모두 경남지방에 위치하는데다가 慶尙左·右道の 兵使·水使의 본영이 모두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지방은 國初에 왜구의 종식과 함께 한때 防倭要衝地로 간주되었던 경주의 감포·영일·영덕·영해의 丑山浦 등은 이제 군사적 의미를 상실해 갔고, 그 대신 對倭貿易이 활발해지자 대구·성주·상주 등 낙동강의 沿邊各邑이 대왜무역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세종조의 三浦개설 이후 倭使客과 興利倭人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倭人의 왕래는 주로 경상도의 貢賦輸送路와 같이 낙동강을 거슬러 상주에 이르고 이곳에서 鳥嶺을 넘어 충주로 나가 한강을 따라 서울에 도달하는 路順이었으나, 세종 14년부터 驛路의 부담을 평균시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三浦에서 각각 3路로 나누어 상경케 하는 방침을 세웠다.

- ㄱ) 鹽浦;蔚山-慶州-安東-榮川-丹陽-忠州-入京
- ㄴ) 乃而浦;熊川-昌原-星州-金山-沃川-淸州-入京
- ㄷ) 釜山浦;東萊-密陽-淸道-大丘-仁同-尙州-聞慶-陰城-廣州-入京

위의 3路는 모두 경북지방을 통과하였으므로 倭人과 그들이 갖고 온 물품수송에 沿路의 各官과 各驛의 疲敝가 컸다. 세종 20년 議政府의 啓陳대로 “지금 倭人들이 銅·鐵·鐵을 가져오는 것이 연락부절이다. 이를 중전대로 陸輸한다면 郵驛이 凋弊할 것이니 今後로는 배에 실어 낙동강을 溯上하되 江邊各官이 차례로 忠州 金遷江까지 轉輸케 하고 다시 站船으로 서울까지 輸送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⁰⁾ 이러한 對倭貿易關係에서 星州牧 屬縣 花園縣에 ‘倭物庫’가 설치되었다. 그 설치배경은 世祖 말년 我國商人和 倭商 사이에 刃傷사건이 일어나자 그 동안 행해졌던 일체의 私貿易이 금지되고 公貿易에 한하여 정부가 스스로 모든 倭商品을 구입하여 倭物庫에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에 응해 수시로 민간에 매각한데서 유래했던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성종실록》에서 찾아진다.

倭使一行이 바치는 銅鐵 蘇木(染料)이 거의 3·4백駄에 이르니 이를 農月에 轉輸하면 그 폐가 적지 않다. (三)浦所에서 민간에 무역을 허락하면 편리할 것 같으나 興利人(商人)이 몰래 禁物을 숨겨 外人과 교역함에 옳지 않다. 銅鐵·蘇木·牛馬皮 등 모든 것을 公家의 무역으로 삼아 민으로 하여금 轉輸케 함도 또한 불가하다. 今後로 倭使客이 바치는 물품은 船軍을 시켜 배에 실어 星州의 花園縣에 옮기고 國用에 쓰일 것은

20) 《세종실록》 권 82, 세종 20년 8월 정사조.

農隙을 기다려 酌量上納시키고 나머지 물품은 민간에 무역케 하였다.²¹⁾

즉 삼포에 가져온 倭商品은 하나 남기지 않고 國費로서 매입한 다음 人夫와 馬匹을 징집하여 그것을 삼포에서 梁山의 東院津에 수송시켰다. 東院津(현재 金海郡 下東面 月堂里)에 운송된 화물은 다시 배에 실어 낙동강을 溯上하기 6·7일 만에 花園縣의 倭物庫(현재 達城郡 花園面 川內洞)에 收藏하였다. 이 倭物庫는 ‘花園倉’이라고 했는데 《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花園倉은 종전에는 仁興寺를 빌려 本縣의 軍資米穀을 저장하였던 곳인데, 世祖朝에 이르러 별도로 縣治 南편에 창고를 세우고 倭使가 가져온 銅鐵과 蘇木 등 雜物을 모두 이곳에 저장하였다가 支用에 제공되었다.²²⁾

이 倭物庫가 16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壬亂전까지 대체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영든 낙동강 연안에는 서울의 譯人과 富商들이 많은 자본을 갖고 倭商과 거래하여 상당한 商利를 보고 있었다. 사실 당시의 낙동강은 對倭交易에 있어서나 海陸產物의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동맥역할을 하였다. 부산과 김해·마산 등에서 올라온 倭物과 魚鹽 등 海產物은 곧 낙동강을 溯上하여 경북의 내륙지방에 수송되어 각지에서 분산 거래되었던 것이다.

III. 貢賦·進上과 地方財政

1. 大丘府의 貢賦와 進上

1) 貢 賦

조선전기 收取制度는 唐代에 확립된 租·庸·調라는 전통적인 공납형태를 麗代에 이어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태조는 그 원년(1392) 10월에 이미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貢物을 詳定하도록 하였다. 즉 前朝의 제도적 제폐단을 제거하고 토지의 산물에 의거하여 공부의 等第를 정하고 상납할 액수를 감량하도록 하여 一國의 재정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개괄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던 役(庸)을 제하면 貢과 賦 2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貢賦制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21) 《성종실록》 권 19, 성종 3년 6월 정해조.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8, 성주목 창고조.

태종때인데, 태종 8년 9월 제주에 공부가 실시되고 동왕 13년 10월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兩道의 공부를 정함으로써 전국에 모두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貢賦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문헌에 따라 貢 대신 賦를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貢과 賦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賦’는 田稅 및 田結貢物을, ‘貢’은 土產貢物 즉 別貢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上之所取를 賦라 하고 下之所供을 貢’²³⁾이라 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전자의 공부가 ‘厥賦’條에, 土產貢物이 ‘厥貢’條에 실려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자의 공부조는 없고 厥貢과 藥材條가 ‘土產’條에 통합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貢은 토산공물 즉 지방특산물인 別貢을 의미하고, 賦는 田賦인 일반농산물·綿布類, 油蜜類 등의 常貢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賦는 田結 및 田結貢賦, 貢은 土產貢物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조선시대 농작물로서는 당시 ‘九穀’이라는 稻, 粱, 黍, 稷, 黍唐(기장), 小豆, 大斗, 小麥, 大麥을 재배하고 또 東西籍田에는 粘, 菉豆, 薏苡(율무)를 아울러 재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田稅에서도 ‘水田以米, 旱田以太’라 하듯이 水田에는 米, 旱田에는 大荳·粟이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대구의 농작물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土宜稻, 黍, 稷, 麥, 麻, 大綿”이라 하듯이 穀類로서는 稻, 黍, 稷, 麥과 衣料作物로 麻, 木綿이 잘 되었던 것이다. 이를 다시 《경상도지리지》의 ‘土宜耕種’條에 의거 대구와 3개 속현지역의 物產의 적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丘郡：稻·黍·粟，長於苗種

壽城縣：稻·黍·麻·粟

河濱縣：稻·稷·太·小麥

解顔縣：稻·黍·粟 長於苗種，麻·木綿

여기에서 보면 대구지역은 약간의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경북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稻·麥·黍·粟의 재배 적지였으며, 특히 대구와 해안은 ‘長於苗種’이라 한 바와 같이 이앙법이 일찌기 보급되었던 것이다. 한편 수성·해안현은 피복의 재료인 麻가 생산되었고, 대구와 영천·성주·상주 등 경북 南西지방은 木棉의 주산지였다. 한편 《경상도지리지》에서는 대구의 土品을 설명하면서

23) 《태조실록》 권 2, 태조 원년 10월 경신조.

토지는 肥脊이 半半씩 되고 水泉은 淺으며 기온은 溫煖하고 風俗은 儉素하고 養蠶을 힘쓴다.

고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土質은 肥脊이 相半하고 氣候는 溫煖하고 住民은 農耕을 좋아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대구는 경상도 전체의 일반적 특징인 ‘重禮讓 崇質儉 崇文好務 務農桑’과 같이 자연환경은 농경에 적합하였고 주민의 습속은 예의와 검소를 숭상하며 농사에 힘썼던 것이다. 특히 대구는 ‘務蠶桑’이라 한 바와 같이 경상도에서 榮州, 淸道, 禮安, 仁同, 奉化와 함께 양잠지역으로도 유명하였고 담수어로서 銀口魚와 魚, 黃魚, 鯉魚 등이 많이 산출되어 토산공물로써 진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산의 기초위에서 田賦와 土貢이 각도·각읍별로 부과되었다. “무릇 郡邑의 田賦는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같으며, 中外官司에서 需要되는 물품은 모두 郡縣의 土貢에서 제공된다”²⁴⁾는 조선왕조의 수취체제가 말해 주듯이 각읍의 공부는 그 지방의 물산을 거의 망라하고 있었다. 《경상도지리지》 소재 대구군 貢賦條를 예시하면 다음 〈表 2-6〉과 같다.

〈表 2-6〉 대구군의 貢賦

구분 지역	貢 賦		
	布 類	穀 類	油 蜜 類
대구군	綿紬, 木棉, 紵布 正五升布, 常綿子	粘更米, 間中米, 更米, 白米, 常中米, 造米, 田米, 眞麥, 太	淸蜜, 獨蜜 眞油, 法油
수성현	綿紬, 木棉, 正五升布, 常綿子	粘更米, 更米, 間中米, 白米, 常中米, 造米, 田米, 眞麥, 太	淸蜜, 獨蜜 眞油, 法油
해안현	綿紬, 木棉, 正五升布, 常綿子	粘更米, 間中米, 更米, 常中米, 造米, 田米, 眞麥, 太	淸蜜, 獨蜜 眞油, 法油
하빈현	綿紬, 木棉, 紵布, 正五升布, 常綿子	粘更米, 間中米, 更米, 常中米, 造米, 田米, 眞麥, 太	眞油, 法油

24) 《世宗實錄地理志》, 京畿道 道總, 貢賦條.

위 표와 같이 田租(稅)는 본래 미곡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 일부를 곡물이 아닌 布·木·油 등으로 代納한 경우가 있어 이를 ‘田結布貨’ 또는 ‘田結貢納’ ‘田貢’ 등으로 불러 뒤에서 언급되는 토산공물과 중복되는 군현이 있지만 이 역시 田稅의 변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상도는 阻山隔海하여 租稅輸納의 어려움이 실로 타도의 배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 이래 각읍의 물산을 고려하여 혹은 紬布를 收納하고 혹은 紬絮를 거두면서 米粟은 수납하지 않았다.²⁵⁾

고 하였듯이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운수송의 곤란으로 곡물 대신에 지역에 따라 綿紬·布木으로 대납했던 것이다. 당시 대구군은 본군과 3개 속현을 막론하고 곡물로서는 米·麥·太와 布로서는 綿·麻布 및 油蜜로서는 眞油(芝麻油), 油油(蘇子油)가 공통으로 공부로 책정되어 있고 본군과 하빈현에는 紵布가 있는 반면 하빈현에는 淸蜜과 燭蜜이 공부에서 제외되었음이 특색이다.

한편 조선초기 稅制의 변천을 보면 세종조 ‘貢法’이라는 신세법이 고정되기까지는 공양왕 3년 토지개혁과 함께 公定된 收稅의 규정이 그대로 준행되었다. 이때 수조율은 종전의 ‘什一’制를 근원으로 삼았는데 이는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 한 것이요, 또 종래 사전에서는 징수하지 않던 세를 징수하게 한 것이다. 이 세제와 동시에 따로 ‘답험손실법’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그해의 흉풍을 조사하여 세율을 정하게 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견 좋을 듯하지만 그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조사관리의 농간, 주구와 田主의 가혹한 답험 등으로 폐단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때는 私田도 전주의 횡포를 방지한다 하여 관에서 답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초기의 세법에는 ‘답험손실법’에 의한 세율의 유통법을 비롯한 여러 결함이 내포되어 있어 세종조 세제개혁은 그러한 결함의 시정을 지향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세종대에는 모든 토지에서 일정률의 조세를 수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세제를 토지의 肥瘠과 그 해의 흉풍에 따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하여 田分6等과 年分9等の 법을 제정하였다. 전분6등은 隨等異尺法을 사용하여 토지를 肥瘠에 따라 면적을 1등전에서 6등전까지 6등분으로 나눈 것이고 年分9等은 매년의 수확을 그 흉풍에 따라 上上年에서 下下年까지 9등분하여 조세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結負制와 田稅制가 확립되었으며, 조세(전세)는 水田에서는 米, 旱田에서는 太로써 추수후에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5) 《태종실록》 권 4, 태종 2년 9월 갑진조.

이의 실시를 위하여 매 20년마다 양전, 즉 전답의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을 새로 꾸미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게다가 복잡한 계산에는 허위와 작간이 섞이기 쉬웠으므로 반드시 목적과 일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대구에 있어서의 양전은 이미 세종 11년 10월에 실시하였다.

量田敬差官을 경상도 醴泉, 晋州, 昌寧, 咸陽, 善山, 慶山, 大丘…등의 군현에 分遣하였는데 田地 1萬結에 경차관 1명의 비율로 파견한다.²⁶⁾

고 하였다. 아마 이때 조사되었던 대구군의 전결수는 3년후인 세종 14년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 소재의 “墾田六千五百四十三結, 水田十分之三強”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리고 세종 26년에 확정된 新定貢法에 의하여 대구군의 과세기준도 이에 따랐을 것이다. 이 新稅法은 구법에 비하여 중간수탈과 비합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국고수입의 증대와 농민부담의 公平 내지 경감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위 지리지 소재 각읍의 田賦는 공법이 실시되기 전의 구법에 의한 것이었다. ‘田分6等’과 ‘年分9等’法에 의하여 부과된 이러한 전세는 水田은 米, 旱田은 太로써 납부하되 추수후에 징수하기 시작하여 11월초부터 조운 또는 陸輸를 통해 京倉에 납부를 시작하였는데 익년 정월에 수세를 끝맺어 6월까지 상납을 완료하였다. 다만 함경·평안도의 전세는 현지에 仍留하여 軍資 등에 충당하였고 경상도는 倭人접대 내지 軍需보충을 위하여 도내 일부지역(대구도 포함)의 軍資와 전세를 州郡倉에 납입한 적도 있었다. 또한 전세 수송에 소요되는 징수의 수수료, 荷役 및 운수료, 落粒, 雀鼠 등에 의한 자연소모를 보충하는 각종의 부과세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전세와 함께 납세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도 耗米와 船價는 고려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戶를 대상으로 부과된 공물은 民이 공납하는 토산의 현물로서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였다. “凡百司供之物 皆收土貢 自郡縣輸之”라 하는 이른바 土貢이다. 곡물을 공납하는 稅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油·蜜·布·木 등으로 대납하는 ‘田貢’이 있었고,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役에도 保布·軍布·奴婢貢布 등의 현물대납이 있으며, 그 밖에 神稅布·漁船稅·鹽稅·匠人稅 등의 雜稅도 현물에 의한 것이 많아 이런 것들도 국고에서 보면 모두 공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토산공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공물은 각 군현단위로 그 지방의 物產과 전결의 다과를 기준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26) 《세종실록》 권 46, 세종 11년 10월 계미조.

소용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고 그 군현 단위의 액수는 다시 각 민호에 배정되었다. 각 민호가 공납하는 공물은 군현별로 중앙에 상납하되 중앙에는 그 공물의 수납을 전담하는 관아가 없고 중앙의各司가 소정의 물품을 수납하였다. 공물은 중앙각사 뿐만 아니라 監·兵·水營에서도 역시 그 관하의 각읍으로부터 징수하였으며 또 각 군현은 군현대로 그 所需의 油·蜜·紙地·雉鷄·柴草 등을 현물로써 징수하였다. 후기까지도 그 일부는 현물공납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민호에서 보면 일종의 공물이라 할 수 있다.

공물의 수량은 전결의 다과가 그 기준의 하나였지만 이것을 다시 민호에 분정하는 기준은 호구와 전결을 참작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때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없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대개 지방관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수령이 그 사무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물의 분정은 향리의 권한에 속하였다. 또한 공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그 분정은 더욱 어려웠다. 공물은 이와 같이 현물을 민호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혹은 民丁을 동원하여 그 力役으로써 調辦하는 것도 있고 현물의 대가로 米穀이나 布木 등을 부과하는 것도 많았다. 가령 鳥獸類의 공납을 위한 狩獵, 광산물의 공납을 위한 採畵, 焰硝의 공납을 위한 煮取作業 같은 것은 모두 요역으로 했던 것이다. 또 관아에 소속된 定役戶가 職役으로서 소정의 노동에 종사하여 생산하는 것도 있으니, 工匠·藥夫·鹽干·牧子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민호에 분정하지 않고 관아가 공물을 직접 준비하는 관비공물을 위하여 漆·楮·莞草·箭竹·桑·果木 등은 官有로 하여 그 소산을 직접 공납하는 것도 많았다.

공물은 그 부담 자체가 稅나 役에 비하여 무거운 것이지만 그 징수의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불합리가 많았다. 우선 공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수요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인 만큼 그 변경은 용이하게 허용되지 않았다. 전세의 경우는 改量의 경우에 정기적인 田籍의 개록이 있고 天災에도 공납의 감면이 있음에 반하여 공물은 한번 상정되어 기록되면 감면은 어려웠다. 특히 관찰사의 狀啓 등으로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에 移定 혹은 引納케 하여 貢額을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한편 공물의 부과는 각읍의 토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 종래의 토산물이 시대에 따라 產絶되는 것도 있고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도 않고 求得할 수 없는 것도 책정되는 수가 허다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나 이 ‘不產貢物’은 산지에 가서 구입 상납해야 하는 것으로 민폐가 막심하였다. 이리하여 세종은 不緊한 공물은 量減하고 不產貢物의 改錄에 힘써던 것이며 세조조에 와서는 세종대 詳定案의 1/3을 감축한데 이어

성종조에 다시 그 절반을 줄였다고 하나 전국 각읍의 토산물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부과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연산군대에는 왕의 낭비가 심하여 그 7년 4월에 공안선정청을 두고 공물의 재조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하여튼 국초에 각읍에 배정 부과하였던 貢額은 조선왕조의 진전에 따라 감축되어 갔고 성종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는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각읍의 土貢·藥材·土產條가 통합되어 감축 기재되었다.

토산이 아닌 공물 또는 농가에서 생산기 어려운 가공품 등이 분정되었을 때는 현물을 구매 해서라도 이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개재하여 取利하는 상인 또는 官吏들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니 ‘代納’ 또는 ‘防納’이 그것이다. 대납은 처음에는 공인된 것이 아니었으나 점차로 공공연히 묵인되고 나아가 권문의 비호아래 심지어 대납을 강화하게 되고 그 요구하는 대가도 더 혹심해 졌던 것이다. 또 공납은 그 收納에 있어 그 규격을 심사하여 불합격품은 이를 黜退하여 다시 상납케하는 것이니 防納은 이 점되나 혹은 점퇴의 위협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납은 부과 과정에서 갖가지 농간과 중간모리를 거쳐 京司에 상납되었기 때문에 민폐는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납은 전세에 비하여 8/10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볼때 이것이 조선왕조의 가장 중요한 財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기에 貢이 대동법으로 고쳐져서 전세와 같이 토지에 부과하게 될 때 전세는 結 4두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하여 大同은 12두를 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貢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것이다.

공물은 내용상으로 보면 대개 농산물·가내수공업외에 해산물·과실류·광산물 및 산야조 수류의 자연산물과 약재 등이 주로 되어 있었다. 15세기초 대구군의 토산공물을 《경상도 지리지》에 의거 정리하면 다음 <表 2-7>과 같다.

<表 2-7> 大丘郡의 土產貢物

구분 지역	土 產 貢 物						
	果 類	皮 毛 類	紙地	木器	陶器	기 타	藥 材
大 丘 郡	唐楸子, 大棗 黃栗, 全黍	獐皮, 狸皮, 狐皮, 猪毛	紙地	木器		笠草 銀口魚	白篇豆, 天門冬 麥門冬, 當歸生, 地黃, 楮實破古紙
壽 城 縣	唐楸子, 黃栗, 全黍	獐皮	紙地			笠草	當歸, 白篇豆, 松子仁
解 顔 縣	唐楸子, 大棗茸, 全黍	狸皮	紙地		陶器	芝草	白篇豆
河 濱 縣	黃栗, 榛子	山賴皮	紙地			芝草	

위의 토산공물은 세종초에 책정한 것이므로 그 종류가 비교적 많으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세조·성종조로 내려옴에 따라 점차 量減되었을 것이다.

2) 進 上

조선전기 人民의 上納公課로는 田稅·雜稅·貢物외에 進上이란 제도가 있었다. 즉 《경국대전》戶典 稅貢條에

무릇 貢物로서 收徵하는 것은 다음해 6월까지 상납해야 하며 祭享進上 및 節物은 모두 그때 그때 進獻한다.

라고 하였고, 또한 동 魚鹽條에 의하면

諸道·諸邑·諸浦魚鹽에서 所出되는 魚物은 進上和 常貢으로 薦新하고 나머지 것은 穀食과 質賣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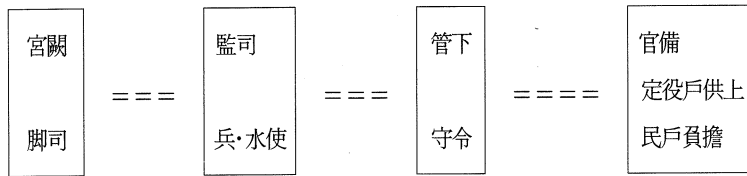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즉 전자는 진상의 公課상납의 기한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魚鹽에 의한 漁獲 進上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진상은 ‘奉上’의 뜻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進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진상도 土產의 貢物을 상납한다는 뜻에서는 공물과 다를바 없지만, 본래 납세의 의무라기 보다 국왕에 대한 外臣의 禮獻이라는 의미로 국왕의 御膳을 비롯하여 궁중의 祭享, 賓客, 賜與 등에 쓰일 물품을 각도 단위로 감사와 병수사가 月1차 상납하는 것이며, 진상물을 수납하는 京司는 이것을 逐日進排하였다. 한편 각도가 진상의 단위라고 하지마는 각도는 역시 管内 各邑에 分定하여 民戶의 부담이 되는 점에서 공물과 크게 다를바 없었다.

進上物을 단지 監營, 兵·水營에서 收集하는 것이 아니고 통례로 거리의 원근을 참작해서 수개의 都會所를 정하여 부근 諸邑으로 하여금 分納케 하였다. 예컨대 문종 원년(1451) 경상도 進上物膳은 上道는 안동과 상주, 下道는 진주와 밀양을 넷 道會로 하여 分收 供進하였는데 성종2년에는 밀양 대신에 경주로 정하였다. 4개 都會로 수합된 경상도 진상품은 감사가 巡歷에 즈음하여 각 도회에 所收한 것을 輪次 封進하는 것이 통례였다.

진상의 종류로서 (1) 物膳進上(朔望進上·別膳·日次物膳·到界進上·瓜遞進上), (2) 方物進上(名日進上·行幸·講武時), (3) 祭享進上 (4) 藥材進上 (5) 別例進上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進上物 封進의 관계를 알기 쉽게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²⁷⁾

27)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日本 東京, 1964, pp. 260~269 참조.



진상은 공물과는 달리 각읍의 수령이 우선 진상물을 소속 監營, 兵·水營 또는 都會所에 납부하면 그곳에서 감사는 다시 差使員을 선임하여 封進케 하였는데, 감사의 직접 감시하에 상납되었다. 관찰사 또는 절도사로부터 分定받은 진상물자는 혹은 管下民戶에 부과하든지 혹은 鄉吏·公賤·匠人 또는 上番軍士 등을 사역하여 조달징수 하였던 것이다. 진상품은 주로 역로를 통해 신속하게 수송되었는데, 이는 감사가 가장 신중을 기하는 업무였다.

이와같은 진상제도는 고려조 이래로 행해졌던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정비하여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장구히 계속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진상제는 官民이 왕실과 국가의 祭祀에 대한 奉上的 禮物이란 관념하에서 그 物目과 수량·상납度數·상납기한 등 그 명목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여 거의 국민의 부담으로써 충당하였다.

조선전기는 후기처럼 상세한 《읍지》가 남아 있지 않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각 읍에 배정된 진상품에 대해서는 공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상도지리지》道總 ‘道卜常貢’條 소재 物目²⁸⁾은 성격상 당시 경상도 감사가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진상품일 것 같다. 이 常貢은 貢物의 別貢의 대칭어가 아닌 정례적인 경상감사의 진상물이었다. 이러한 물목이 도내 각 읍에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물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토산을 고려하여 分定하였을 것이다.

2. 大丘府의 地方財政

국가재정은 세조조에 확립된 세출표인 橫看과 세입표인 貢案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세입 재원은 賦稅·鹽鐵과 山場·水梁·工商稅와 船稅 등이 주이며, 세출의 費目은 上供·國用·祿俸·軍資·義倉·醫療 등이 주였다. 지방官衙의 경우 수입은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명목으로 획급된 토지가 그 기본이었으며, 그 밖에 徭役·貢物 등을 民戶에 배당하고, 또 鹽鐵·山場·水梁 및

28) 槍·角弓·箭·筒介·鐵甲·鏢子甲·紙甲·環刀·鐵頭具·小刀子·別馬·正鐵·虎皮·豹皮·鹿皮·獐皮·狸皮·狐皮·水獺皮·竹席·皮竹籠·皮竹箱子·滿花席子·細綿紬·細木綿·笠草·丁香脯·鹿尾·乾鹿·獐·猪·天鵝·野鴈·青魚·年魚·大口魚·廣魚·銀口魚·雙魚·文魚·生鮑·紅蛤·紫蝦·海衣·旱蓍·牛毛·細毛·蓼藁·石茸·松茸·新乾竹笋·生梨·石榴·唐楸子·乾柿子·紅柿子·松子·皮扶栗·大棗

還耗(還上의 耗穀) 등의 수입도 있었다. 지출면에서 보면 그 용도에公私의 구별이 분명치 않았으며,胥吏·僕隸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하여지고 민호에 대한 침탈이 심하게 되었다.

州·府·郡·縣은 각각 지방관의 祿으로서 衙祿田, 賓客의 支待를 위한 公須田,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는 官屯田, 그리고 소정의 노비, 馬匹를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州鎮·巨鎮·諸鎮 등 군사지휘관의 경우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衙祿田, 公須田이 없고 官屯田만이 규정되어 있고 행정관의 겸임인 군사지휘관(내륙 각지는 겸임이 많다)은 행정관으로서 지급된 아록전, 관둔전을 쓰고 兵·水使鎮과 獨鎮인 僉使·萬戶鎮 등 행정관이 아닌 경우와 虞候·軍官·教官(행정관의 하나)은 軍資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교통기관은 매우 중요시되어 驛에는 공수전·관둔전, 그리고 長田·副長田·急走田·馬田이 지급되었고 站(水站)에는 아록전, 院에는 院主田, 渡에는 津夫田 등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급 규정도 군현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구는 선초를 통해 현, 군, 도호부로 차례로 승격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구에 해당하는 것을 《경국대전》에 의거 이를 구분 정리하면 아래 <表 2-8>과 같다.

<表 2-8> 大丘府의 地方財政

구분 등급	衙 祿 田	公 須 田	官 屯 田	奴 婢
都護府	50結	大路 25배 中路 20배 小路 15배	16結	300명
郡	40結		16結	150명
縣	40結		12結	100명
巨 鎮			10結	

당시 대구도 위의 규정에 의해 각종 명목으로 田地와 奴婢가 지급되어 지방재정에 충당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있어서의 田稅는, 軍需用으로 해당 지방에 비축하는 양계 지방 또는 성 중조에 일시 군수보충책으로 각기 邑倉에 납입한 경상도 일부 제읍을 제외하고는 그 전부를 중앙으로 漕運輸納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중앙에서 移晝되는 것이 없었다. 다만 각기 주

현에서 필요한 노동력과 현물(油蜜, 紙地, 雉雞, 柴草 등)은 수시로 민호에 배당하였고, 監·兵·水營은 각 주현으로부터 공물을 징수하였고, 환곡의 耗穀에서 그 9/10를 지방관이 사용하는 것 등이 지방재정의 주요한 財源이었다.

지방재정의 지출면을 보면 우선 외관은 원칙적으로 녹과가 없이, 감사·兵水使는 未設家의 경우만 수령·僉使·萬戶는 未挈家의 경우라도 극히 일부에만 녹이 있고, 都事·兩界虞候·評事는 녹을 받았다. 따라서 아록·공수전 등의 소출은 그 용도에 있어 공사의 분별이 분명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외관은 그 수입이 풍부하다는 관념이 성행하여 기강이 해이해 짐에 따라 屬僚 또는 민간에 대한 침어가 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외방의 吏胥·僕隸는 아무 보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 후대에 내려옴에 따라 탐관오리의 橫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外官의 지출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公用, 公解所需 외에 使客 혹은 監司, 兵·水使 巡行의 支供, 수시로 파견되는 중앙관인의 접대, 新舊官의 迎送 등은 그 出費와 民役이 컸던 것이다. 《반계수록》 소재 祿制條에 나타나는 외관의 지출費目を 참고하여 조선전기 대구부에서도 그러한 항목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用 및 公解所需

- ① 監司, 兵水使, 守令이하 諸官의 所需米穀
- ② 官需(鹽醬魚肉, 果實) 및 營(邑)中 應需雜物價
- ③ 清蜜, 眞油, 法油, 雉鷄
- ④ 公事紙地, 厠陳, 藥材 및 邑中 應用雜物等

(2) 使客支供과 監兵使 巡行支供

(3) 每年 年分災傷文書 修正에 드는 紙地

(4) 公廩, 城池의 修補 등 工設費

(5) 鄉所廳, 將官廳, 鄉校의 要員所需와 紙地, 館陳

(6) 雜費

- ① 犒軍米
- ② 社稷, 釋奠, 諸祀의 祭物, 幣帛所需
- ③ 各種兵器, 旗幟의 製造 및 修理
- ④ 各驛의 供容需
- ⑤ 各罷撥의 馬軍料와 邊營巨鎮의 加定諸邑人等 廩料
- ⑥ 漕船改造費
- ⑦ 監營, 兵營의 進上措備 및 刷馬費

이러한 지방재정은 각읍 수령의 賢否에 따라 좌우되었다. 즉 수령이 明察淸렴하면 吏屬이 畏懼하여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반면, 탐학하면 가렴주구가 심하여 1읍이 잔폐되었던 것이다. 특히 鄉吏는 신분적인 제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말단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령과 인민의 중간에 서서 자의로 부정을 자아냈던 것이며 당시 수령들이 대개 신진仕宦으로 吏務(실무)를 모르는데 다가 더우기 그 재임기간이 짧아 향리의 실무를 크게하는 소지를 준 것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官紀가 엄정하고 수령의 선임에도 신중을 기하여 이서의 부패도 적었으며 따라서 吏胥가 그 고역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부터는 수령이 그 재임중의 안전과 私利에 열중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향리도 또한 이와 결탁하여 사욕을 마음대로 하였는데 이러한 향리의 부정의 원인은 소위 ‘江流石不轉’이란 유행어처럼 향리는 토착화한데 반해 수령은 그 임기가 짧고 지방실정과 실무에 어두어 刀筆업무 등은 거의 이서배에 일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吏役은 녹과도 給田도 없는 長番으로서 그 생활상의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따라서 官威를 빙자하여 인민을 위협하거나 경리의 부정으로 이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曹植은 ‘朝鮮以吏胥亡國’이라 하여 당시 사정을 개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에서도 선초부터 문제되었다. 《동국여지승람》권 26, 대구부 名宦條에 郡吏 裴漣이 名宦 琴柔와 玉沽를 섬기고 나서 晩年에 하는 말이 “전후 수령(대구)을 내가 다 조종했으나 오직 金유·옥고만은 내가 꿈쩍 못하고 侍居하였다”라 하듯이 수령의 賢否가 郡治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실록 등을 통해서 조선전기에 대구 수령을 역임한 인물들을 적기해 보면, 琴柔(세종7~8년), 玉沽(세종8년경), 鄭還(세종), 李次若(세종), 尹祥(세종), 李甫欽(세종-문종), 朴崇質(성종), 林壽昌(성종), 申儼(중종), 李賢輔(중종), 辛駟(명종) 등은 대구수령으로 재임하면서 치정이 있는 명관으로 알려졌고, 崔灝元(성종), 鄭士龍(중종), 邊永淸(선조) 등은 재임시 탐오매직하여 대구吏民이 다같이 잔폐하였다고 한다.

IV. 大丘府의 社倉設置와 그 運營

社倉은 義倉·常平倉과는 다르게 마을을 단위로 한 低利의 賑貸制로서 촌락자치적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세종조 사창에 대한 한 견해를 제시하면 좌찬성 하륜은 그의 救荒策에서 “외방의 閑良品官이 慈惠心이 있어 朱子의 사창처럼 私財를 내어 의창을 세워서 里内の 飢民에게 賑貸하자”고 하였다. 한편 당시 사창주창자들은 사창문제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할 때 향촌질서에서 늘 문제되어 온 祭禮的인 淫祀에 대한 관심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里社法과 사창법이 논의될 때마다 귀신을 誦事하여 무리를 지어 會飲하는 香徒의 행위와 음사의 낭비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사창제는 조선초기 里社法, 鄉射·鄉飲酒禮와 함께 도입되어, 향도와 음사를 중심으로 한 고려적인 향촌질서를 성리학적인 유교사회로 대체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시험 운영되었다. 주자가 고안한 사창법이 향촌자치의 방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초였다. 그것이 대구군수 李甫欽에 의하여 시험 설치되고 곧바로 경상도 제읍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대구의 역사를 고찰할 때 사창의 설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종조에 처음 논의된 사창이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처음 설치했을까? 물론 이보흠이 사창설치를 적극 주장하였고 세종이 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지만 그 보다도 이 시기 대구의 정치·경제적 성장, 발전의 토대가 사창의 시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임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대구에서 설치 운영한 사창을 주자의 사창과 비교하면서 그 시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救荒賑恤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옛날부터 의창이 있었고 사창도 이미 隋의 文帝때 長平孫의 건의에 의하여 諸州의 백성과 군인에게 사창을 권유, 米·麥을 捐出하여 作倉 저장하고 흉년이 들때나 기근자가 있을때 賑給한 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사창은 의창에서 나온 것이다. 주희는 상평창과 의창 외에 또 사창을 두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평창과 의창은 다 주현에서 저장하여 혜택을 입은 것은 시정의 惰遊輩에 불과하고 심산궁곡의 力穡遠輪之民에 이르러서는 비록 飢餓하여 빈사할 상태가 되더라도 혜택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법이 지나치게 엄밀하여 避事畏法하는 吏輩로 하여금 백성의 주립을 보고도 發倉救恤하지 않으며 때로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검점하지 않다가 일단 유사시 부득이한 경우에 發倉해 보면 저장해 놓은 곡물은 이미 浮埃로 변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라고 하여 상평창과 의창은 관이 주관하는데 반해 사창은 지방향촌에서 공동으로 설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穀倉이며 때로는 개인 독지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설치 목적은 비상시의 상호구제와 구황 내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救病, 產兒家扶助, 舉子旅費補助에 있었다. 주자는 그의 邵武軍光澤縣사창기에서 사창의 역할은 구황진휼외에도 상평창의 역할을 하여 중·하貧家의 解産을 부조하고 무의탁자의 구휼, 질병자의 기식 또는 의탁의

장소로서 혹은 지방자제의 부경응시자의 여비보조 등에 있다고 하듯이 실로 광범위한 구호 사업을 다하였던 것이다. 남송 효종 4년(1168)에 주희가 建寧府 崇安縣 開羅鄉에 설치한 사창은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로 浙江지방에 점차 보급되어 갔는데 설치 주동자는 대개가 지방수령이었으나 때로는 지방의 유력자들이 자발적으로 捐財設倉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창설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근거로서는 첫째 사창의 운용에 그 묘를 기하기 어렵다는 것과 둘째로 사창은 왕안석의 靑苗法과 다름이 없다는데 두고 있다. 상평창과 의창은 다 주현에 설치하되 관부의 관할하에 속하고 그의 출납성적은 지방관의 공과에 영향되는 것이지만 소수의 부호가 義舍, 義穀을 거출하여 구제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창을 사창의 명의로 각 鄉村을 단위로 해서 조직하였으므로 형식상으로 사창과 大差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창의 社란 지방향촌(마을)의 뜻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사창이란 지방향촌의 공공단체가 자치적으로 설치한 곡창을 의미하고 그 목적은 비상시의 상호부조에 있었다. 옛날부터 사창법은 지방인민의 자치적 조직에 의한 것이지만 때로는 국가에서 설치한 의창, 상평창과 거의 같은 기능을 발휘하였으므로 순수한 자치단체는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남송이후 원대를 거쳐서 명대에 이르러 다시 각지에 사창이 설치되어 청말까지 그의 성쇠는 있었지만 대체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5년(1423) 9월에 常平倉과 아울러 朱子의 社倉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즉 주자의 사창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창을 설치하되 每 1石에 대하여 利息은 年 3升을 징수하여 후일의 耗損에 대비하자는 戶曹의 啓請이었다. 이후 동 10년에도 사창의 설치를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을 벌였으나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만 사창제가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²⁹⁾ 어쨌든 당시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하였던 조선왕조에서 주자가 몸소 설치 운영한 사창법을 채용하자는 논의가 일찍부터 대두된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시단계에 이르자 廷臣間에 의견이 대립하여 곧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후 사창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세종 20년대 초에 다양한 의창보첩책이 강구되던 상황에서였다.³⁰⁾ 세종 21년(1439) 공조판서 李藎은 당시의 의창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진대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 진대기구의 명칭은 여전히 ‘義倉’이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의창을 鄕社에 설치할 것, 元本은 인민들이 매년 出粟하여 마련할

29) 《세종실록》 권 39, 세종 10년 정월 갑진조.

30) 金勳植, 〈朝鮮初期 義倉制度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pp. 170~187.

것, 의창곡의 출납은 조적법에 따를 것 등으로 되어 있었다.³¹⁾

이진은 의창을 邑治에 설치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한 것이 의창제도가 갖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무능한 수령은 境内에 기근이 들어도 아예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며, ‘良有司’의 경우에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미곡을 분급하는 것이 원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창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읍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민들은 제대로 분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隋나라의 의창제도를 제시하면서, 官穀으로 元本을 마련하고 수령이 그 출납을 주관하는 현재의 의창제도와는 달리, “의창을 鄉社에 설치하고 매년 가을에 鄉社의 민호 가운데 25호씩 돌아가면서 入粟하게 해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즉 民營의 사창 건립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세종 20년대초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창보첩책 가운데 사창제와 연관이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동 22년에 議政府左參贊 河演이 건의한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는 閑良品官이나 時行各品이 私財을 내어 마을이나 農舍에 ‘의창’을 세우고, 飢民에게 진대하도록 하자고 하였다.³²⁾ 이 의창 역시 邑治가 아닌 촌락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민간에서 出粟하여 그 원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진이나 河演이 제안한 새로운 진대기구의 설립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후 사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된 것은 동왕 20년대후반이었다. 세종 26년 7월 의정부에서는 사창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먼저 주민중에서 社倉長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廉謹한 자를 택하여 社長에 임명하고 최초에는 약 千石의 곡식을 官給하여 사창의 本으로 삼고 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시키는데 元本은 本官에 납부하고 그 利息을 가지고 管内의 빈민을 구제하며, 만약 운영실적이 좋고 주민에게 救助를 잘한 社長은 賞을 주고 그와 반대로 取息도 救民도 제대로 못한 자는 죄를 주고 또한 貪黷不廉者는 주민에게 告訴를 허락해서 科罪하자는 것이었다”. 세종은 이 건의를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群臣에 자문하였는데 예조판서 金宗瑞도 사창법 실시에는 많은 난점이 있으나 결국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세종은 세자(文宗)로 하여금 集賢殿直提學 李季甸과 함께 사창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협의케 하였다. 그 결과 이 계전은

사창법은 先賢이 이미 실행한 良法이므로 古制에 따라 각 지방의 廣狹과 居民의 疎密을 참작하여 사창을 설립하고 의창의 곡물을 내어 基本으로 삼고 斂散權은 수령이 주관하게 하되 胥吏에 위임하지 말라

31) 《세종실록》 권 107, 세종 21년 11월 기유조.

32) 앞의 책, 권 88, 세종 22년 3월 을축조.

고 啓陳한 다음 아래와 같이 ‘社倉可行事目’³³⁾ 8개조를 條陳하였다.

(1) 倉庫를 建造하는 材木 및 功役은 當面주민의 各戶의 助力을 요량하여 分定하고 만약에 空廢된 寺院 및 今後新造하려는 寺社가 있으면 取破하여 사용하고 그 4面이 官府를 距하기 1息(30里정도)에 불과한 것은 반드시 各面에 創置하지 말 것이며 오직 별도로 義倉측에 社倉을 設치하여 되도록 4方民에 惠택이 均점되도록 하고 4方이 혹은 멀리 혹은 가까우면 그 먼곳은 常例에 따라서 創置하고 그의 近者도 上項의 常例에 의한다. 또 宋眞宗의 景德年間に 邊境의 州郡에는 上平倉을 두지않는 예에 따라서 沿邊各邑의 社倉도 또한 義倉 옆에 設립한다.

(2) 社倉의 看守는 當面에 거주하는 品성이 淸廉하고 의지가 堅實한 品官을 擇하여 別差로, 또 부근의 富實家를 擇하여 倉直에 任命하고 當面의 各호로 하여금 輪番宿直시키고 그의 倉直 및 看守의 雜役은 一절 減免한다.

(3) 貸出時에 當하여서는 미리 期日을 定하여 널리 주민에 告示하고 人民은 當該 期日내에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한다. 매 10명을 1保로 하되 연대보증제로 한다. 還納時에도 또 期日을 定하여 同保者는 함께 一通에 작성하여 所定價에 達하지 못하면 還納할 수 없다. 또 保內의 사람이 도망하였을 경우는 同保者는 연대책임을 진다. (주희의 社倉法 모방)

(4) 매10斗에 利息 2斗를 取하고 혹은 小數점에 奉納하면 그 이식의 반을 減하고 大凶일 경우에는 全免한다.(주희의 예) 소정期日에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또 利息 2斗를 催하고 年月이 많다 해도 1本 1利를 초과할 수 없다.

(5) 매운영에 있어서 의복이 闕하지 않은 자는 請貸할 수 없고(주희의 制) 그 兩經倚閣의 人戶는 다시 支借하지 못한다.(宋神宗의 制)

(6) 新立의 법은 마땅이 점차적으로 行할 것이며 또 各道 各官의 豐歉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倉고의 建립도 일시에 하지 말고 먼저 凶年이 든 곳에 設치하고 農사가 不實한 곳은 凶年을 기다려서 이를 行한다.

(7) 守令교대시에 아직 수납의 責을 畢하지 않은 경우에는 義倉의 예에 따른다.

(8) 출납회계는 義倉의 예에 따라서 社倉의 이식이 元庫의 10배에 이르면 元數를 義倉에 납입한다.

여기에서 보면 社倉의 建립과 위치선정, 別差·倉直의 선임문제, 社倉庫의 斂散과 이식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제 조문은 주자가 시행한 社倉法의 모방으로서 특히 (3)(4)는 문자 그대로의 轉文이고 나머지는 그 대의를 따서 우리 의 實情에 맞도록 만든 것이다. 제1조에

33) 위의 책, 권 109, 세종 27년 7월 을미조.

사창을 건립하려고 할 때에 廢寺 또는 지금부터 새로 건립코자 하는 寺社를 이에 충당시키려고 한 것은 당시 조선의 억불정책의 일단을 표시하는 정치적 반영이며 동시에 사창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건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건립자재와 노무의 공역을 절약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한편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지방으로 부터 시작하여 점차 타지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창의 성격을 표명한 것으로 즉 사창은 극빈자가 대상이 아니라 다소 여유가 있는 중류층을 상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창에 있어서 곡물의 대여가 소정기일내에 이식의 수납이 완료되느냐, 안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창운용에 圓滑을 기하며 손실을 예방하여 그의 목적인 구제사업을 영속화하려는 의도에서 수납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서는 문제외가 아니었던가 한다. 사창과 의창의 상이점을 요약하면 의창은 비상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官立의 구휼기관인데 반하여 사창은 평상시 운용을 주로 하는 半官半民의 자치단체라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이 ‘社倉事目’은 사창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한 동안 사창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다가 세종 30년 정월에 가서야 비로소 大丘郡에서 그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즉 세종 30년 정월 壬子에

경상감사에게 論書를 내려 함양군수 이보흠을 대구에 이주시켜 사창법 실시의 便否를 시험하고자 창고를 及時설치하여 시험케 하는 한편, 이보흠에게도 직접 유서를 하달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論書를 받아본 이보흠이 ‘社倉事宜’를 마련해 올리자 세종은 의정부와 집현전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였다.³⁴⁾

여기에서 먼저 이보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永川人으로 세종 11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문장과 정치가로서 명망이 점차 높아져 세종 25년 11월에는 성균관主簿에 올라서 築城의 方略을 상소하여 주목을 끌었고 동 28년 7월에는 田制貢法의 득실을 상서하여 논란한 바가 있다. 특히 그는 경상도 출신인 만큼 도내 각지의 사정에 능통하고 주자의 사창법을 신봉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함양知郡事에서 대구知郡事로 전임한 시기는 세종 30년 정월이 아니고 그 전년인 동 29년 정월이었다. 이는 《문종실록》 권 12,

34) 《세종실록》 권 120, 세종 30년 5월 기해조.

2년 3월 庚戌條에 “이보흠이 문종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丁卯(세종 29년) 정월에 함양에서 대구로 移任해 왔으나 上(세종)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아직 감히 시험해 보지 못했는데 戊辰(세종 30년) 2월에 유서를 받고 上의 뜻을 알고서 즉시 사창 13개소를 설립하였다”라고 한 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이것은 이보흠이 문종 2년 3월 사헌부장령에 영전하여 문종의 하문에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종 30년 정월 임자(25일)에 내린 유서가 다음 2월에 대구에 도착하자 이보흠이 그것을 수령하여 곧 사창의 설치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보흠의 이러한 ‘사창사의’에 대해서는 군신간에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즉 세종 30년 5월 기해조에 의하면 集賢殿副提學 鄭昌孫, 直提學 辛碩祖·崔恒, 直殿 李石亭, 校理 金禮蒙·河緯地, 副校理 梁誠之, 修撰 柳誠源·李克堪, 副修撰 徐居正 등은 이에 대체로 찬성하여 사창법은 이미 선현이 행한 良法이므로 이것을 잘 시행하면 백성의 편익이 되겠지만 만약 社長에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상세한 규칙을 제정한 연후에 면적의 대소와 토지의 膏腴를 달리하는 몇개 군에 시행하여 수년간 그의 이해를 시험해서 과연 이윤이 있고 손해가 없다면 널리 여러 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또 應教 魚孝瞻도 대체로 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사창법의 의도는 본래 善美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斂散출납에 있어서 사장은 유약자가 아니어야 가능할 것이며 끝내는 반드시 사창의 운영권이 猾吏의 수중에 올라갈 것이니 옛부터 財利의 權柄을 장악하고 나서 혜택이 일반민중에 미치는 경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이보흠이 糶의 폐단을 논함에 15두가 거의 18~19두에 이르니 사창의 이식은 3두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 비해서 큰 폐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지금 사창법을 두고 살펴볼때 15두에 이식 3두를 받으니 이는 18두가 된다. 그러나 豪吏들이 수납한다면 반드시 20여두에 이를 것이니 폐단이 심할 것이다”라 하면서 보다 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應教 申叔舟, 校理 李嶸, 修撰 鄭昌 등은 반대론을 주장하였는데 “근래 기근이 계속되어 민생이 궁핍하여 의창의 대여곡마저 상환할 수 없는 형편인데 다시 사창을 세워서 이식을 징수한다면 도리어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출납에 있어서는 반드시 폐해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창은 이미 선현이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실행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立法이란 民情과 事勢의 추이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으므로 사창법도 역시 시행한 후에 그 불가함을 알기 보다 지금이라도 그 불가함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찬반론을 검토하여 결국 찬성하는 편에 서게 되었고 곧이어 이보흠에게 다음과

같이 유지하였다. 즉 네가 啓請한 사창문제를 의정부에 내려서 논의케 하였더니 모두 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집현전으로 하여금 토의케 하였더니 贊否兩論이 나왔다. 그러므로 사장 賞職의 절차는 갑자기 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창법은 본래 주자가 이미 시행하였고 또 네가 바야흐로 銳意시행코자 하니 우선 1읍에 시행하여 주민의 好惡를 관찰한 다음 실시하되 布置의 방략은 되도록 서서히 하여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³⁵⁾ 이에 이보흠은 즉시 대구관내에 사창을 설치하고 그 好惡여부를 시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왜 대구관내에 제일 먼저 실시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전이 상기한 사창가행사목 제6조에 의거한 듯하다. 즉 전국에 일제히 시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지방으로 확대하되 豊富하지 못한 곳은 풍년을 기다려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대구는 달성평야를 중심으로 옛날부터 생산기술이 발달해서 농산물이 타군에 비하여 풍부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곳 지방사정에 능통하며 사창설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보흠을 함양에서 대구로 전임시켜 사창법의 시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할 것이다.

세종의 유서를 받은 이보흠은 곧 사창설립을 착수하였다. 그 당시의 사정을 세종30년 6월(1448) 을묘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대구知郡事 이보흠은 세종의 유서를 받들어 境内에 포고하여 사창 설립의 본의와 社長賞職의 사실을 明示하였다. 그 결과 주민중에서 사장을 自願하는 자가 20여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13인을 선발하여 13개소의 사창을 境内에 分置하고 각각 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위치는 자료가 없어 전혀 확인 할 수 없다.

사창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도 동년 6월 이보흠의 보고를 통해서 그 개략은 짐작할 수 있다. 즉 官에서는 每 社倉마다 2백석의 官穀을 元本으로 지급하고, 출납을 기록할 小圖書(印章)를 만들어 사장에게 나누어 주는데 까지만 관여하며, 그 이후 사창곡의 출납을 비롯한 모든 운영은 사장에게 맡겼던 것이다. 또한 매분급에 당해서는 그 받는 자의 성명 및 斗升수를 기록한 다음 비치한 圖書로써 이것을 인쇄하여 그것으로 간위를 방지하고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사장이 보관하고 타 1건은 관부에 비치하여 그 유실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사창곡을 수납할 때는 매 1석에 이식 3두를 받게 하였다. 사창의 이식이 년 2할을 징수하였다는 것은 고리인듯 생각되지만 당시 백성의 비상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관에서 설치한 의창에서도 매 1석에 대하여 년 3두 즉 2할의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 또한 長利라 해서 왕실의 경제를 담당하는 內需司 및 부호들이 백성에 미곡을 대여하고 복리계산법에 의한 고리를 징수하는 사체가 있었지만 그 이식은 물론 사창 및 의창 이식보다도 훨씬 고율이었던 것을

35) 앞의 책, 세종 30년 5월 기해조.

감안하면 당시에 있어서 년 2할의 이자란 결코 고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대구 백성은 사창법 실시에 호감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境内人民들이 모두 말하기를 ‘의창이 있는데다가 또한 사창까지 있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다시 私家의 長利인 고리대를 받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다고 하나 오직 사사로이 長利를 축적하는 자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³⁶⁾

사창제 실시의 효과에 대하여 이보흠은 다음과 같이 문종에게 보고하였다.

세종 30년에서 신미년(문종원년)까지 사창곡을 斂散한 결과 이식이 모두 2,700여석이다. 이를 모두 收納封庫하였다. 대구에는 巨室의 농장이 많아 빈민들이 그들의 長利를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流離失所하는 자가 많았다. 경내 13개소에 사창을 설립하고 1倉의 저축이 본과 이식을 합해 400여석이나 되었다. 이렇게 비축된 사창곡을 의창과 함께 수시로 빈민에게 대부하니 경내주민 가운데 장리를 빌리는 자가 전일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만약 이대로 5.6년 斂散을 계속한다면 매창의 비축이 一千여석에 달할 것인데, 13개소에서 각각 천여석을 가지고 빈민을 賑貸한다면 부호가들의 侵漁하는 폐단은 (나라에서) 금하지 않아도 자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단지 臣이 염려되는 것은 국가가 이대로 取息을 계속해서 십년후에도 중지하지 않는다면 取息이 무궁할 것이니 그것이 걱정됩니다.³⁷⁾

여기에서 보면 처음으로 대구에 신설된 13개소의 사창은 세종30년에서 문종원년까지 겨우 4년간에 이미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보흠의 보고와 같이 1倉당 2백석의 증가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사창의 이익은 물론 백성의 사창이용이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는 짐작이 된다. 그 결과 이식이 많은 부호의 장리에 시달리고 있었던 빈민들은 국가의 이러한 사창법 실시를 환영하였고 또한 이를 적극 이용하였다. 따라서 사창 본래의 목적은 유감없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보흠이 기도한 사창의 궁극적 목적은 그의 진술과 같이 10년후가 되면 1창의 곡물이 1천여석에 달하게 되고 따라서 이 이후부터는 무이식으로 대여하려고 생각한 데 있었다. 그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성실하게 운용 지도하였기 때문에 4년간에 斂散取息한 것이 2,700여석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수렴했으며 또 13개소의 매창에 있어서도 본과 息을 합해서 400여석이나 증식하였다고 한다. 의창에서 차입한 본곡 2백여석을 제하고도

36) 앞의 책, 세종 30년 6월 을묘조.

37) 《문종실록》 권 8, 문종 2년 3월 경술조.

이식만 2백석을 보고 있으니 국가재정상으로도 이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常時的 구제사업에도 물론 유효하였다.

만약 그가 문종2년 2월 사헌부장령에 영전 안되고 계속 재임하면서 그 사업을 운용하였더라면 참으로 그의 말과 같이 1창의 곡물이 1천여석에 달하여 명실상부하게 무이식으로 곡물을 대여하여 사창 본래의 목적인 救荒賑恤에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所定額에 달할때까지는 년 2할의 이식을 취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의창과 같은 인민수탈의 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대구에 시행한 사창법의 성과와 공훈으로 이보흠은 문종 원년 9월에 1資를 승급하고, 익년 2월에는 임기를 마치고 사헌부掌令으로 영전하였다.

문종은 대구에서의 시험 성공을 바탕으로 그의 원년 2월에는 사창법을 전국에 시행하고자 하여 먼저 경상도내의 각읍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서를 경상감사 李仁孫에게 내렸다.

사창의 설치가 진실로 이익됨이 많으니 지금 知大丘郡事 이보흠의 조치에 따라 시행하면 폐단이 없을 것이나 만약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폐단이 있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니 사창설치 便否를 도내 각 읍 수령에게 널리 문의하여 만약 사창설치를 찬동하는 자가 있거든 조사 보고케 하라³⁸⁾

이에 이인손은 유서의 취지를 管下 각 수령에게 문의하여서 그 결과를 동년 5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당시 경상도내 66읍중 영덕·칠원·경산·인동·신령·산음·지례·하양·군위·영천·금산·거창 등 12읍은 사창설치를 찬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각읍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종은 의정부와 호조의 논의를 거쳐 위 12읍중에서 해변에 위치한 영덕·칠원 2개읍을 제외한 10개읍에만 사창을 설립하여 시험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10개읍은 모두 중소군현으로서 토호가 적었기 때문에 찬성한 것 같으며 재지세력이 강성하였던 大邑에는 부호들의 방해가 컸던 것이다. 사창법 실시로 인해 손해보는 쪽은 부호였기 때문이다. 해변에 위치한 두 縣은 왜구가 침략할 경우 관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창은 쉽게 노략질 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이때 제정된 사창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⁹⁾

(一) 경상도내의 각官(邑)에 사창을 둔다.

38) 앞의 책, 권 6, 문종 원년 2월 임진조.

39) 위의 책, 권 9, 원년 9월 무신조.

- (-) 매1倉마다 의창곡 2백석으로써 분급해 준다.
- (-) 매년 본1석에 이식3두를 부가해서 수납하되, 전혀 수확이 없는 해에는 3두의 이식을 면제한다.
- (-) 매창에는 社長을 두어 사창사무를 관리한다.
- (-) 1창의 所受2백석에서 이식이 5백석에 이르면 그 2백석은 의창에 반납한다.
- (-) 사장은 九品の 散官에 제수하고 이로부터 5백석이 증가할 때마다 官位 1계급을 승급하여 보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 (-) 사장의 動·慢은 당해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년말이 될 때마다 근무실적을 기록하여 감사에 보고하고 그를 叙用할때는 그의 실적을 참고하고 그들 가운데 폐단없이 자산을 증식한 사장은 具由 啓聞하여 상기 예에 따라 賞職하고 비록 그의 資殖이 數滿하더라도 인민에 해를 입힌자는 依律科罪하고 상직하지 않는다.
- (-) 사장의 상직업무는 병조로 하여금 마감 조사케 한다.
- (-) 이상의 사창법은 경상전도를 들어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읍에 시험실시하는 것이니 賞職의 事는 시험후 관찰사로 하여금 그 실적을 조사계문하여 다시 마감시행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종 2년이후 대구를 비롯하여 신설된 10읍의 사창은 그후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전혀 문헌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종 2년에서 5년후인 세조 2년(1456) 7월 신미조에 경상도관찰사로 하여금 “대구군에 일찌기 사창을 설치하여 시험시행 하였는데 그 결과가 과연 백성에게 유리하였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방문하여 신고하라”하였고 동시에 사창의 원금곡수와 滋息數 및 처음 설치된 일시와 斂散의 절차를 아울러 조사 보고케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세조 14년(1468) 6월 병오조에서 보면 폐해가 많은 전국의 의창을 폐지하고 사창만을 설립 하자는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결국 신숙주의 獻策에 의하여 의창과 사창을 병존시키기로 결정 하였다. 이와 같이 사창은 대구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그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社倉은 원래 元資를 의창에서 빌려서 利穀을 붙여 대출하였으므로 軍資穀과 의창곡의 無利息대출에 비하여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세조 2년(1457)에는 軍資穀과 의창곡의 대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石에 3斗의 이곡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니 사창설치 이후 부터는 종래의 의창과 군자창의 사명은 깨뜨려지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사창을 비롯한 의창과 군자창 역시 이식을 목적으로 한 관곡 대출의 일종의 영리적 貸穀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사창의 斂散도 의창곡, 군자곡과 마찬가지로 그 回收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고 또 사장의 循私弄奸이 심하여 많은 폐단을 유발하자 세조 14년 6월에는 進士 宋希獻이 사창의 禍를 주장하였다.

소위 사창이라는 자들은 사창곡을 인민에 분급할 때는 情意의 薄厚에 따라 다과가 결정되어 심지어는 失農과 餓死하는 경우가 있고 收斂時에는 강약과 愛惡으로서 勸懲은 달리하며 혹은 虛를 盈이라 하고 無를 有라 하여 이른바 千倉萬箱이 한갓 紙上의 虛數이다.

라 하였고 대사헌 양성지도 “수령시 사장의 역부족에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금년에 회수를 끝내지 못하고 명년에 또 회수를 마치지 못하니 契券만 空還하여 도무지 실적이 없다”고 하여 사장의 무력과 무책임으로 그 회수가 수령이 관권을 가지고 의창곡을 수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장과 간수에 대하여도 “公家의 穀粟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로 출납하여 혹은 바꾸고 혹은 私竊하기도 한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허술하게 간수하므로서 도적을 부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세월이 오래되어 이미 모손된 것이 누적되어 마침내 변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중국에 가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창고를 불지르고는 도적이 불질렀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데리고 逃散하고 만다”고 하여 사창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사창도 처음 계획대로 원곡이 축적되기는 고사하고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창의 존치의의는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그 혁파가 누차 반복되어 오다가 성종 1년(1470) 호조의 啓請으로 마침내 혁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후에도 연산군 8년(1502) 7월에 함경도 각지에 사창을 설립하여 邊民往來의 폐를 제거하자는 감사 민효증의 上啓가 보인다. 이 문제를 정승 尹弼商, 李克均, 韓致亨 등과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 기구와 조직 및 운용은 어떠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중종 5년 7월에 역시 경상도감사 高荊山이 사창설치를 청하였으나 廷臣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후 선조 10년(1577)에 李珥는 퇴관후 해수에 돌아가서 향약을 제정 실시함과 동시에 사창을 설립하고 향약一團의 경제적 相互救恤方途를 강구하기에 노력하였다. 율곡의 사창법은 앞의 이계전, 이보흙 등의 대구군내 설치한 사창규정에 비하면 거의 완비한 감이 있다. 이는 주희의 사창법을 가장 충실히 모방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세종말년에 창설한 대구의 사창은 구체적인 사료의 결여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선조 25년 임진왜란까지는 존속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대구의 사창은 南宋 孝宗때 주자가 사창을 설치운영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보흙의 개인적인 노력도 많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창의 시험설치 후보지로서 전국에서 대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가 사창을 설립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第3章 朝鮮前期 文教政策과 大邱의 文化

第1節 朝鮮初期 文教獎勵策과 大丘鄉校

I. 朝鮮初期 崇儒政策과 文教獎勵

1. 朝鮮初期의 崇儒政策

麗末에 신흥사대부들과 李成桂를 중심으로 한 무인에 의하여 건국된 조선왕조는 신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철학으로 성리학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유교교육의 이념으로 강조하였다.

성리학의 이념에 바탕한 유교적 양반관료체제를 확립한 조선의 양반들은 官路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고 이를 삶의 보람이며 최고의 목표로 여겼다. 그러므로 조선왕조는 창업의 사상적 배경을 성리학으로 삼았으며 성리학적 이념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둔 적극적인 崇儒政策을 쓰게 되었다. 조선의 官學教育은 이같은 배경하에서 창업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신왕조의 통치이념인 신유학을 민간에까지 보급시키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고자 관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한양(서울)에는 성균관과 四學을 지방 군현에는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태조원년(1392)에는 濟州로부터 孔州·甲山에 이르기까지 향교를 세워 一邑 一校의 설립을 보도록 강조하였으며, 태종 6년(1406)12월에는 修明學校를 守令七事의 하나로 넣고 그 성과로 수령 褒貶의 기준으로 삼았다.¹⁾ 성종 7년(1476) 7월에는 諸道의 관찰사에 내린 敎書告諭에서 治國의 도는 敎化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없을만큼 학교를 통하여 忠孝悌信과 小學·三綱行實의 실천을 천명한 것²⁾을 보면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교육을 통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학교육을 위한 관학 기구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四學을, 外方에는 향교를 설치하였으며, 私學으로는 서원·書齋·서당등이 설치되어 교육적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良人이하의 자제에게는 그 길이 폐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의 대부분이 양반자제에 국한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士大夫의 자제는 대체로

1) 《太宗實錄》 권 12, 太宗 6년 12월 乙巳條.

2) 《成宗實錄》 권 69, 成宗 7년 7월 乙丑條.

7·8세가 되면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서당에 들어가 초보적인 한문(千字文·童蒙先習 등)을 배우고 15·16세가 되면 중앙에는 四學에 지방에는 향교에 각각 입학하여 修學을 하고 小科에 응시하였다. 소과에 합격하면 生員·進士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게 된다.

성균관 유생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가 다시 大科(文科)에 응시하여 급제하면 비로소 고위관직에 나갈 자격이 공인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정규 과정이었다. 조선사회는 유교적인 양반관료체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나 교육·과거 등은 주로 양반자제를 대상으로 한 官僚의 양성에, 교육기구는 과거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나 다름이 없었다. 과거시험이 經書의 암송이나 이해, 詩文의 창작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교과와 내용도 성리학적 철학의 사색이나 연구가 아니라 유학과 한문학이 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2. 文教獎勵

1) 성균관교육

成均館의 成均이라는 두자는 周禮의 「大司樂掌 成均之法 以治建國之學政」에서 나온 말이며 성균관을 國學·大學·泮宮·賢閣, 首善之地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성균관은 태조 6년(1397) 2월에 서울의 동북방 崇教坊에 先聖과 선현을 봉사하는 문묘, 유생들을 강학하던 明倫堂, 유생을 기숙시키는 東·西齋 등을 짓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3월에 착공하여 태조 7년(1398) 7월에 준공하였다. 신축된 성균관의 건물은 孔子와 4聖·10哲의 위패를 모시는 大聖殿(단종 원년에 大成殿으로 고침), 從祀 제선현의 위패를 모신 東·西序, 강의실인 명륜당, 학생의 숙소인 東·西齋 그외에 尊經閣, 巫闡堂을 비롯하여 관내의 사무를 관장하던 正錄所 등 96간의 건물이 있었다.³⁾ 그러나 정종 2년(1400)에 문묘가 소실되었다. 그후 태종은 즉위하여 성균관에 나아가 謁聖하고 태종원년(1401)에 성균관의 직제를 개정하고 趙庸을 성균관 大司成에 임명하여 유생의 교육을 적극장려하였다. 태종 5년(1405)에는 한양으로 환도한 후 문묘를 재건하고, 學田 1만여 畝와 노비 300구를 주어 학생의 供饋를 풍족하게 하였다.⁴⁾

성균관의 직제를 《經國大典》에 보면, 知事(정2품), 同知事(중2품)는 겸직이었으나 大司成(정

3) 申奭鎬, 〈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大東文化研究》6·7합,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9 ~1970, p. 36.

4) 위의 논문, p. 5.

3품), 司成(중3품) 司藝(정4품), 直講(정5품), 典籍(정6품), 博士(정7품), 學正(정8품), 學諭(정8품), 學錄(정9품) 등 총 38인을 두었다. 성균관에 입학자격은 생원·진사에 합격한 자라야 하나 정원이 부족할 때에는 15세 이상의 四學生과 공신과 3품이상의 관리의 嫡子中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입학시키고, 문과·생원·진사 初試의 향시및 한성시에 합격한 자 및 현직 관리도 입학시켰다. 유생의 정원은 150명이었으나 세종 11년(1429)에 50명을 증원하여 200인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법제적 정원은 시대에 따라 미달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성균관의 교육과정의 주된 과목은 4書5經이었으며 그 방법은 考講과 製述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과거의 과목과 방법이 바뀔때마다 그에 준하였던 것 같다. 兩齋에 기숙하는 유생은 上·下齋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생원·진사를 上齋生, 생원·진사가 아닌 중외의 幼學을 수용하여 이를 寄齋生(下齋生)이라 하였다. 유생의 居齋生活은 學令(학칙)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어 이를 위반하면 儒罰을 주었다. 그러나 유생들은 국정의 참여의식도 높았다. 국왕의 실정이나 國政의 문란시는 儒疏를 올려 規諫 또는 탄핵을 하기도 하였다. 만약 만족할만한 批答을 얻지 못할 때에는 捲堂(식당에 들어가는 것 거부)이나 空齋(기숙사 탈출), 空館(대성전 문밖에서 4拜禮 후 퇴거)을 하기도 하였다.

유생들은 매월 1일에는 관대를 갖추고 廟庭에 나가 알성하고 4배예하였다. 매일 未明에 북을 한번 치면 기침하고 일어나며, 平明에 북 두번을 치면 의관을 갖추고 정좌하여 독서한다. 북을 3번 치면 식당앞에 정렬하여 마주보고 揖을 한 뒤 차례로 식당에 들어가 동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식당에서의 앉는 차례는 榜次坐(장원한 사람이 上坐)가 행해졌으나 齒次坐(연령순)으로 바뀌어졌다. 식당에 출석한 유생은 그 증거로 到記(출석부)에 서명하고 圓點 300점이 되면 文科初試인 館試나 한성시 또는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유생중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매년 6월과 12월의 都目政전에 유생들이 상의하여 2·3인을 골라 예조에 천거하여 등용케 하였다.

성균관의 유지를 위하여 교육재단인 養賢庫를 설치하고 경비를 조달하고자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노비를 지급하여 사역을 시켰다. 고려 예종때 설치된 양현고는 조선 건국후에도 계속 존치되었고 이곳에 관원을 두고 그 출납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양현고의 재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태종이 토지 1만여무(畝)와 노비 300구를 주었다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태종 13년(1413)에 양현고에 소속된 토지는 총 1천결이었으나 실제 수입이 얼마되지 아니하여 供饋에 어려움이 많아 權遇(大司成)가 魚場 한두곳을 양현고에 전속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⁵⁾ 成宗 15년(1484)에는 호조및 예조에 전지를 내려 특별히 전지 400결을 주게하여 경상·충청도의 田地

5) 《태종실록》 권 25, 태종 13년 6월 丁丑條

각 200결씩을 주어 양현고에서 收稅하도록 하였다.⁶⁾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양현고의 재원여부와 교수관의 질적 여하는 성균관교육의 성패를 좌우하였던 것 같다.

2) 사학(四學)교육

四學은 도성내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中·東·西·南學을 말하는데 4部學堂이라고도 한다. 조선 개국초에는 5部學堂(東·西·南·北·中學堂)이 설치되었으나 학사가 없이 사찰에 학생을 모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종 11년(1411) 6월 許稠의 건의로 남부 誠明坊(서울 중구 筆洞과 을지로 3가 사이)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9월에 완성하고 그해 11월에 5부학제를 제가받았다. 5부학당의 교수와 훈도는 성균관 학관으로 겸임시키고 생도는 10세 이상의 아동이 입학하여 15세 이상이 되어 小學을 마치면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5부학당은 세종 6년(1424) 이후 4부학당으로 바뀌어져 그 제도적인 확립은 세조 12년(1466)에 이루어졌다.

四學의 생도는 《경국대전》 禮典의 생도조에 보면 각 학마다 정원이 100명(계 40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법제적 인원이었을뿐 실제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정원이 미달되었던 것 같다. 四學의 교수관은 교수(중6품) 훈도(정9품)를 각 2인씩 두었는데 이들 교수관은 성균관의 典籍이하의 교관이 겸하였던 것 같다.

四學의 구성은 성균관의 축소판이나 明倫堂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명륜당 좌우에 東·西齋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며, 전후에 재건되었다.

3) 향교교육

조선왕조는 유교적 정치이념인 성리학적 실천 정신을 전국에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향교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여말의 향교교육제도를 이어 받아 더욱 정비 확충하도록 하였다. 성균관의 중앙에 설치된 최고의 학교로서 정치적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졌다면, 향교는 유학의 정신과 유교적 실천윤리를 향촌사회의 보급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향교의 설립은 지방교육 내지 향촌 교화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치 각기 그 지방의 유지들의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군현의 유지들은 향토의 발전과 교화를 위하여 향교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자기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향교교육에 이바지 하였다.

향교의 설립은 수령, 교수관, 지방 유지등 3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향교

6) 《성종실록》 권 173, 성종 5년 12월 丙子條.

설립공사에는 儒戶나 향리, 工匠, 僧徒를 많이 동원하였다. 비록 태조원년(1392)에 一邑一校의 정신을 가지고 향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시에 각 군현에 향교가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향교가 건립되기 전에는 佛舍나 精舍, 官衙의 한 건물 등을 비려 강학소로 이용하였던 것 같다. 佛舍가 향교의 강학소로 이용되거나 폐사가 이용된 것은 佛寺가 유교의 강학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폐사된 田民의 일부를 향교의 토지와 노비로 지급한 것이라든가, 향교 건립에 僧徒를 동원한 것이라든지, 校生들이 무리를 지어 절에가서 승려들과 충돌을 일으킨 것 등의 사실은 儒佛交替期에 편승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사원의 경제력을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 대체하고자 한것은 국가의 도움으로 사원의 인적 물적 기반을 흡수하려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태종 2년(1402)에 「密記」 付 70개 裨補寺社와 常住僧 100명 이상되는 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社院田을 혁파하여 軍資田으로 영속시켰으며, 태종 6년(1406)에는 寺社 정비 작업을 단행하여 사찰의 전지나 노비를 屬公하고 남은 12宗 242寺의 각 사찰의 승려, 전지, 노비수를 제한하였다.⁷⁾ 특히 이러한 사원전이나 노비는 조선왕조의 경제적 기반의 주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5세기 중엽부터는 寺社에 대한 정비작업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따라 향촌 사회의 지배세력이 불교적 淫祀의 吏族에서 유교적인 在地土族으로 넘어갔으며 佛寺는 이후 황제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⁸⁾ 佛寺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寺院이 향교 등 공공기관으로 대체되어 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開寧향교(獅子寺), 海平향교(폐사의 材瓦를 사용), 安義향교(朽岩寺엿터), 天壽院(天壽寺엿터), 司圃署(開國寺엿터)등을 들 수 있다. 즉 향교의 건립에 寺址基나 材瓦등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종 6년(1424)에 僧錄司 노비 및 寺社노비를 혁거하여 東西學堂에 각 30戶를 지급하였으며,⁹⁾ 중종 5년(1510)에는 각도의 폐사사전을 혁거하여 향교에 소속시켜 諸生의 경비에 충당하도록하고 동왕 12·13년(1517·1518)에는 福泉寺 소속의 전답 100결과 노비 80구를 성균관에 이속시킨 것 등을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같은 국가적 조치와 각 지방의 수령·유지들의 노력으로 16세기이후에는 一邑一校의 향교가 건립되어 지방 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북지방 43개 향교중 17세기에 설립된 칠곡·자인·영양의 향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郡이상의 主邑에는 여말 선초에 걸쳐 향교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건물은 先聖의 위패를 모신 大成殿, 그 좌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신 東·西무가 있었는데 이를 문묘라 하였다. 문묘앞에는 강학소인 명륜당, 그 좌우에는 교생의 기거소인 東·西齋가

7) 李樹健 <朝鮮初期 文教獎勵策과 慶北鄕校의 發展>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學校, 1991, p. 73.

8) 위의 논문, p. 74.

9) 《世宗實錄》 권 24, 世宗 6년 5월 癸巳條.

10) 李樹健, 위의 논문, p. 76.

있었으며, 그외에도 부속건물이 있었다. 향교의 건물은 성균관의 축소판이라 하겠다.

향교의 교수관은 州·府에는 교수(종6품) 1인, 군현에는 訓導(종9품) 1인을 두어 교학을 담당 하도록 하였으며,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감독케 하였다. 교수관은 교수·훈도·교도 등으로 구분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의 품계에 따라 달랐다. 이외에도 學長이 있었다. 이것은 관품이 낮은 생원·진사 출신으로 교관이 부족한 경우에 수령이 지방 인사 가운데 나이가 들고 교생을 지도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관찰사에 제청하여 교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학장의 직은 공직이면서도 신분은 非官人이며, 이직은 녹봉은 없고 다만 戶役만 면제받는 정도이다. 교관의 연령 규정은 《경국대전》에 40세이상 6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장·교도는 40세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각 지역의 교수관수를 《경국대전》에서 합하여 보면 교수는 72명, 훈도는 257명이었다. 교수관은 중앙의 예조와 지방의 관찰사가 시험을 보아 합격자에 한하여 임명함이 원칙이었으나 벽지 향교의 교관은 지망자가 없고, 한직으로 교수관에 대한 예후가 좋지 못하여 부임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수관의 법정임기는 900일(30朔)이었으나 단종 원년(1453)에는 흥학책을 강구하면서 參外교도는 30朔을 15朔(450일)으로 감하였다.

향교의 생도(校生)는 그 입학 연령이 10세 이상 16·17세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그것은 법제적 제한이었을 뿐 실체는 그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향교에 입학할 자격은 법제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良人이상의 자제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학이 가능하였던 것 같다. 校生の 정원은 태종대에 留守官에 50명, 대도호부와 목에 40, 도호부에 40명, 知郡事에 30, 현에 15명을 책정하였으나 《경국대전》에 보면 府·대도호부·牧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수관 및 校生, 학전, 노비 지급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1〉 각도의 교수·훈도·교생 수

道 名	教 授	訓 導	道 名	校生定員數
京畿道	11(15.3)	26(10.1)	漢城	400(2.6)
忠清道	4(5.6)	50(19.5)	京畿道	1,770(11.5)
慶尙道	12(16.7)	55(21.4)	忠清道	2,100(13.7)
全羅道	8(11.1)	49(19.0)	慶尙道	2,870(18.7)
江原道	7(9.7)	18(7.0)	全羅道	2,350(15.3)
黃海道	6(8.3)	19(7.4)	黃海道	1,140(7.4)
平安道	11(15.3)	31(12.1)	江原道	1,240(8.1)
永吉道	13(18.0)	9(3.5)	平安道	2,160(14.1)
計	72(100)	257(100)	永安道	1,320(8.6)
			計	15,3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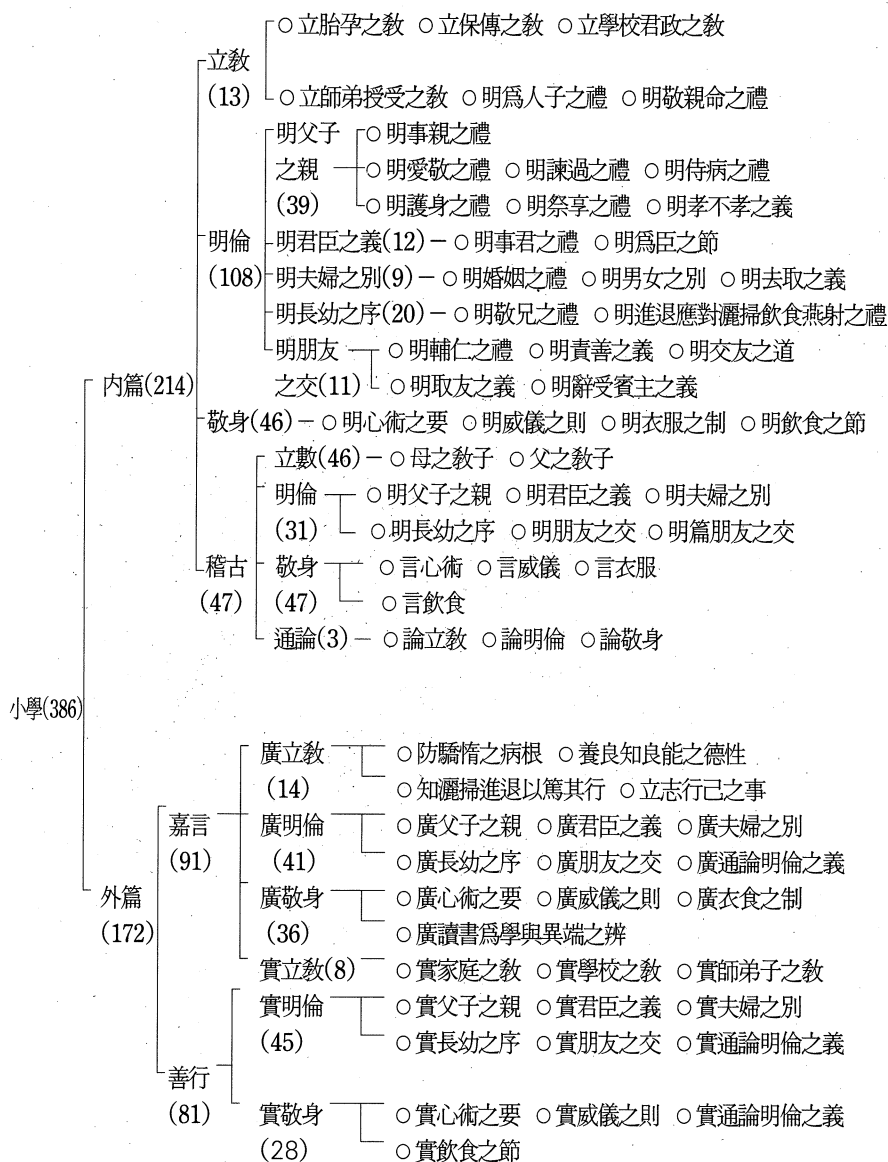
〈表 3-2〉 향교의 학전·학노비 지급내용

區 分	太宗 6年 給田數		太 宗 13年 奴婢給數(戶)	太 宗 17年 奴婢給數(戶)	備 考
	稟田(結)	祭田(結)			
留 守 官	50	6(15)	20	30	太宗 6년 윤 7월 稟田 15結 加給
大 都 護 府 · 牧	40	4(10)	15	25	世宗25년 7월 祭位田 15結로 증가
都護府(有敎授官)	15(30)	4	10	20	世宗27년 7월 祭位田 10結로 증가
都護府(無敎授官)	10(25)	4	10	20	
郡 (有 敎 授 官)	15	4	7	15	
郡 (無 敎 授 官)	10	4	7	15	
郡 令 縣 監	10	2	5	10	

〈表 3-3〉 경북지방의 교생수

郡 縣 名	校 生 數	郡 縣 名	校 生 數	郡 縣 名	校 生 數
安 東	90	慶 山	30(26)	新 寧	30
慶 州	90	慈 仁	30	開 寧	30
尙 州	90	河 陽	30	知 禮	30
星 州	90	玄 風	30	咸 昌	30
寧 海	70	延 日	30	漆 谷	30
清 道	70	清 河	30	仁 同	30
大 丘	70	盈 德	30	高 靈	30
善 山	70	眞 寶	30	海 平	30(40)
醴 泉	50	奉 化	30	蔚 珍	30
榮 川	50	聞 慶	30	平 海	30
永 川	50	龍 宮	30	英 陽	30
金 山	50	義 城	30	長 鬐	30
清 松	50	比 安	30	禮 安	30
眞 海	50	軍 威	30		
豐 基	50	義 興	30	計	1,830

이같은 정원은 법제적 정원이었을 뿐 향교가 쇠퇴하였을 때에는 그 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校生들에게는 軍役의 면제, 무상교육(교육비 부담없음), 과거 응시의 자격 부여등의 특전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군역 면제는 향교가 避役의 장소로 이용되어 교육을 받는 교생이 아니라 피역교생의 수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향교의 儒籍에는 늘 정원이 초과하는 파행적 현상이 나타나 校内生과 校外生으로 구분하기까지 하였다.



〈圖 3-1〉

小 學 圖

〔()안 아래비아 숫자는 本文 章數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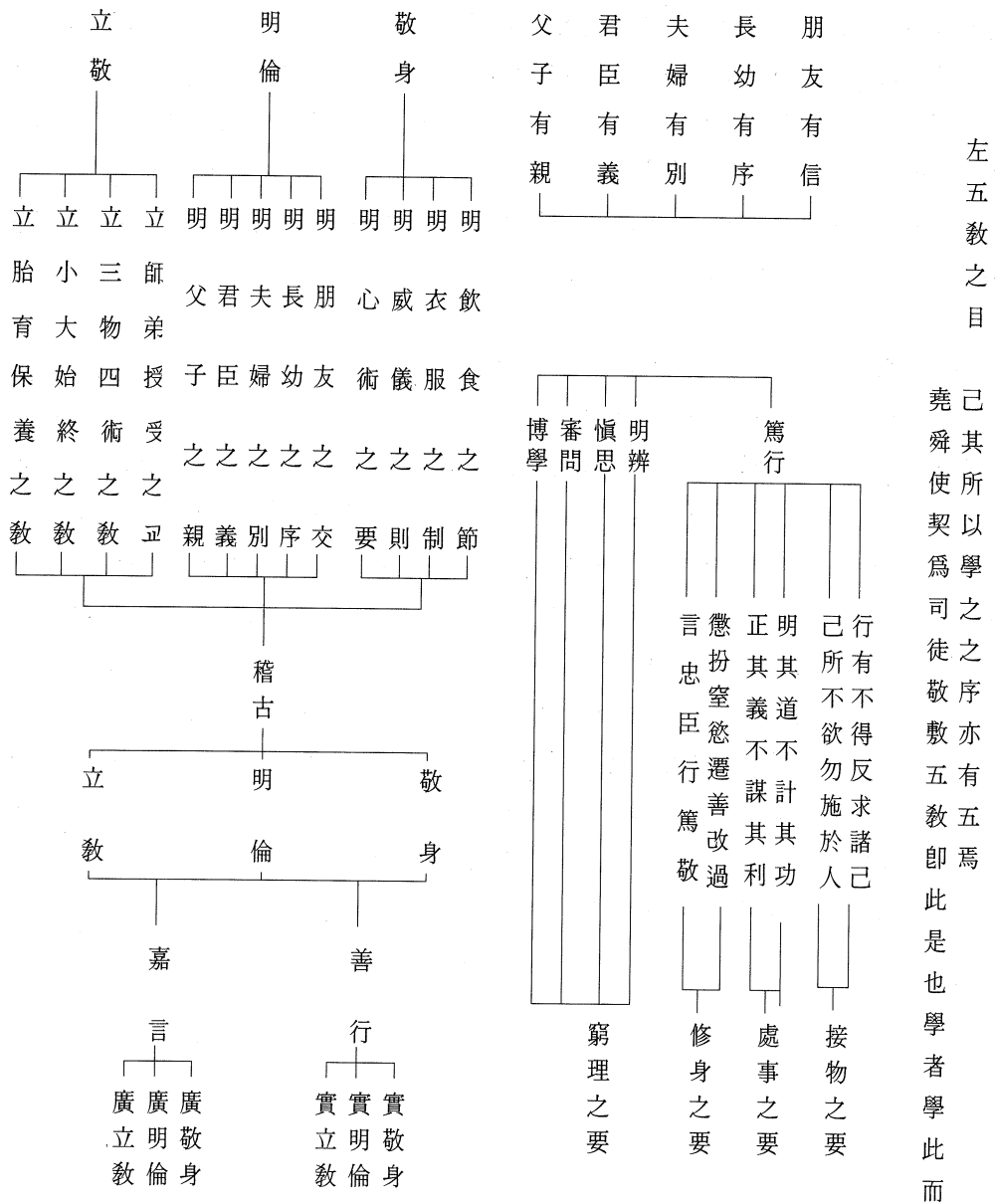
향교의 교육과정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小學·4書3經 또는 5經·성리대전·家禮·近思錄·通鑑·宋元節目·綱目·史略·文選·古文眞寶·儀禮經傳·三綱行實등이었고, 기술교육 관계 서적은 제외되었다. 그 중에서도 小學은 향교와 四學의 기본 교재로서 중요시 되었으며, 성균관 입학시험, 生員試의 예비심사과목이 되었다. 따라서 《小學》은 官學 일반의 학칙인 學令의 기초가 되어 직접·간접으로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小學》은 전편을 立教·明倫·敬身의 3大綱으로 나누고 다시 內·外篇으로 구분되었는데 도시하면 위의 〈圖 3-1〉과 같다.¹¹⁾

향교교육은 《소학》을 존중한 士林에 의하여 확충되어 갔다. 吉再는 왕조교체기에 善山에 낙향하여 《소학》을 기본 교범으로 가르쳤으며, 그의 문하인 金叔滋는 《소학》을 더욱 중요시 하여 居家事親과 학생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는 평생의 벼슬에서 성균관 장관과 교수관을 하는 동안 一世의 英才를 《소학》으로 훈도하였다. 그의 아들 金宗直도 소학대로 행동하는 이른바 소학의 化身者였다. 또한 그의 제자인 趙光祖·金安國 등이 중종조에 배출되어 《소학》 교육의 발흥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국가에서는 소학교육의 진흥책으로 과거와 성균관 입학 및 考講에 講試케 하였다. 取才에도 《소학》을 강하였다. 성종 2년(1471)에는 諸道에 하교하여 《소학》과 《三綱行實》등을 간행하여 中外에 반포시키고, 제읍 유생으로 하여금 長幼를 불문하고 《소학》을 학습케 하였으며, 四學의 유생들도 校生들과 마찬가지로 小學을 읽은 다음에 다른 서적을 읽도록 하였다.¹²⁾ 그리하여 《小學》은 京外의 학교에서 初學入門書로서 반드시 지도하도록 하였다. 李滉은 교육의 기본지침으로서 「聖學十圖」에서 소학도와 白鹿洞規圖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³⁾

11) 李樹健, 〈李朝時代 小學教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論文集》 2, 1969 참조.

12) 李樹健, 앞의 논문, 1991, p. 99.

13) 위의 논문,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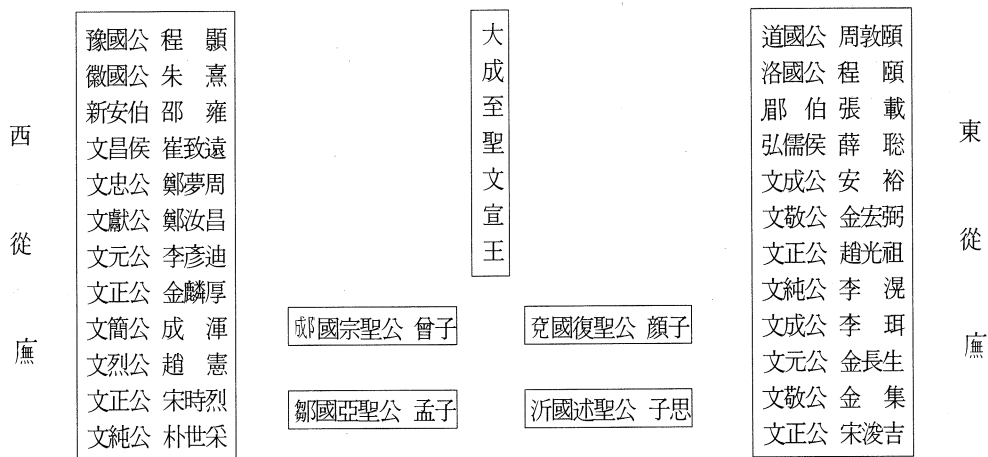
〈圖 3-2〉

小學圖 및 白鹿洞規圖比較

李珣도 《小學集註》를 편찬하여 소학교육에 공헌하였으며 東國의 小學이라 할만한 《擊蒙要訣》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小學》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소학》 다음으로 중요시된 과목은 효경과

4서 5경이었다. 이러한 향교의 교육 내용은 學습이나 권학사목, 진학절목, 학교모범 등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학령은 교생과 교수, 수령과의 관계, 학생의 알성에, 사제간의 예절, 학생의 일과생활, 독서 순서, 考講, 제술의 평가, 교내생활과 언행수칙, 학생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때 향교는 과거 준비를 위한 官人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지방 敎化의 센터로서 유교적 化民成俗뿐만 아니라 享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문묘에 대한 석전의례는 향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정비되었다. 관학이 발달하였던 15세기에는 향교의 양대기능이 조화를 이루었으나 16세기 이래 향교가 쇠퇴하고 私學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향사적 기능이 중요시되어 갔다. 석전의례는 향교의 문묘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향교의 문묘체제는 界首官에는 성균관과 동일한 문묘체제를 갖추었고, 州郡에는 공자를 비롯한 4聖 10哲, 宋儒 4賢, 당시까지 陞廡된 동방유현을 향사케 하였으며, 현에는 주군에 비해 10哲을 제외한 향사를 하였다. 17세기 이후는 東方儒賢으로서 陞廡된 자가 증가하여 마침내 18현으로 늘어났다.¹⁴⁾ 주·부·군향교에 봉향한 先聖先賢의 位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圖 3-3〉

鄕校大成殿東西廡先聖先賢位次圖

석전의례는 춘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것은 향교의 경우 감사와 수령의 감독과 책임하에 鄕中士林과 공동운영해 나갔던 것이며, 향교의 임원들은 석전의식과 함께 사직단, 성황사, 厲壇의 향사까지 주관하게 되었다.

14) 李樹健, 위의 논문, p. 109.

15) 李樹健, 위의 논문, p. 111.

文宣王像을 비롯한 문묘제향사자는 고려시대에는 塑像으로 모셨으나 조선초에 문묘의 정비에 따라 종래의 소상이 栗木으로 제작된 位版(牌)으로 대체되어 갔으며 從祀位 序次도 계속 정비되어 갔다.

鄉校의 경제적 기반은 향교전과 노비가 중심이었다. 태종 6년(1406)부터 《續大典》에 이르기까지의 향교전과 노비 액수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表 3-4〉 향교전 액수 변천표 (단위: 結)

各官府	鄉校田 年代	位田(祭田)額數		學 田 (廩 田) 額 數			
		太宗 6年	世宗27年	太宗6年7月乙酉	太宗6年潤7月丁丑	大典續錄(成宗)	續大典(英祖)
留 守 官 (府)		6	15	50	50	10	7
大 都 護 府 · 牧		6	10	40	40	10	7
都護府	有敎授官	4	4	15	30	10	7
	無敎授官	4	4	10	30	10	7
郡(知官)	有敎授官	4	4	15	10	7	5
	無敎授官	4	4	10	10	7	5
縣 令 · 縣 監		2	2	10	10	5	5

〈表 3-5〉 향교노비 액수 변천표

官府	年 代	太 宗 13 年	太 宗 17 年	經 國 大 典
留 守 官		20戶	30口	30名
大 都 護 府 · 牧 官		15	25	25
都 護 府		10	20	20
知 官 (郡)		7	15	10
縣 令 · 縣 監		5	10	10

위의 향교전이나 노비는 법제적 액수이지만 이러한 법정액수는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향교전의 放賣, 소속 불명의 향교전의 점탈, 전란으로 인한 전지의 황폐, 노비의

16) 李樹健 앞의 논문, p. 131, 및 p. 135.

도망, 방매와 贖良, 면천 등으로 그 액정을 유지하기란 어려웠다.

4) 잡학교육

유교적 양반관료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행정실무와 전문적 실무를 맡아 볼 기술계의 관원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건국초부터 기술계 교육기구를 설치하여 雜學教育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잡학교육 기구는 해당 부서에서 관장 운영하였다.

중앙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漢學(語)·몽학(몽고어)·여진학(여진어)·왜학(일본어)을 司譯院에서, 의학은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천문학·지리학(풍수)·命課學(占卜)은 觀象監에서, 算學(籌算)은 호조에서, 율학은 형조에서, 畫學은 圖書署에서, 도학(도교)은 昭格署에서 각각 교육하였다. 지방에는 학문의 중요성과 성질에 두었는데, 의·율·산학등은 각 府·대도호부·목·군·현에서, 외국어는 漢學은 평양·의주·황주에서, 여진학은 북청·의주·창성·초산·벽동·위원·만포진 등에서, 왜학은 부산포·재포·염포 등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이러한 기술계 교육은 양반들에게 천시되어 주로 中人이 세습적으로 습득하여 관료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良人의 자손이라든가, 양반의 자손도 잡학교육기관에 입학이 가능하였던 것 같다.

II. 大丘府의 鄕校와 書堂教育

1. 大丘鄕校

대구 향교의 설립 년대는 잘 알 수 없으나 《大丘邑誌》에 보면 태조 7년(1398) 府東 2리(현 동성로 교동)에 세웠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나 관찰사 韓俊謙, 부사 金九鼎이 선조 32년(1599)에 달성공원 南角에 건립하였다. 관찰사 柳永詢이 이곳의 地相이 ‘蛇蝎不祥之兆’로 상계를 올려 윤허를 받아 옛유지인 校洞에 옮겼지만 명륜당은 건립하지 못하였다. 그후 인조 2년(1624) 鄕地의 士林이 부사 韓明勗에게 명륜당 건립을 건의하여 그 이듬해에 준공하였다. 이후 300여년동안 그곳에 있다가 지사 金瑞圭, 군수 朴濟輪, 直員 全柄坤이 상의하여 1932년에 현 소재지로 이건하였다. 1932년 4월 8일에 開基하여 그해 6월 25일 상양하였으며, 그해 9월 25일 준공하였고,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여 10월 8일에 낙성식을 가졌다.¹⁷⁾ 건물위치의 구도는 大成殿 앞에 東·西廡가 있고, 명륜당 앞에 東·西齋가 있어야만 했으나,

17) 《大邱鄕校齋錄》, 大邱鄕校沿革

대구향교가 현 소재지로 옮길 당시 대구 유림단에서 항일운동이 심하였으므로 동·서재가 있으면 유생들의 독립운동 장소로 사용될 염려가 있어 제재되었다가 1990년 시비 1억5천만원과 자체(향교) 부담금 5천만원으로 樂育齋 32평, 동·서재 각 16평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⁸⁾

대구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大邱鄕校齋錄》의 목차에 보면 1. 향교연혁, 2. 임원록, 3. 직제변경(제1차) 4. 향교이건사실 5. 직제변경사실(제2차), 6. 위패존폐사실 7. 聖牌복설사실, 8. 大祭집사록, 9. 校宮중수사실, 10. 향교중건사실, 11. 향교중건사실추록, 12. 명륜당보수사실이 있고 부록으로는 13. 향교직제, 14. 향교운영규정, 15. 표창규정, 16. 효열선행표창사실, 17. 향교보존義損錄, 18. 향교보수찬조록, 19. 전국향교분포도, 20. 관내院祠분포도, 21. 跋 등이 기재되어 있다.¹⁹⁾

대구향교에는 이외에 1981년에 간행된 《대구향교약사》가 있으나 상당부분이 《대구향교재록》과 비슷하다.

대구향교의 경제적 구조는 상고할 수 없으나 순종 3년(1909) 11월의 전체 재산목록을 군·면전답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6〉 대구향교 전답내역

區分 地域	畓	田	區分 地域	畓	田
大邱郡 東上面	132斗落只	15斗落只	大邱郡 租巖面	34斗8升落只	3斗5升落只
東中面	47.5斗落	10斗落只	仁興面	32斗5升落只	
東下面	14斗落只		河西面	31斗落只	
西上面	62斗7升落只		河東面	51斗學只	
西中面	88斗8升落只		上守西面	25斗落只	
下水西面	34斗6升落只		清道郡 初同面	35斗落只	
守北面	58斗5升落只		二洞面	4斗落只	
守東面	2斗落只		縣內面	35斗6升落只	
守縣內面	19斗落只		角北面	14斗5升落只	
下守南面	10斗落只		漆谷郡 下北面	27斗落只	
解北村面	27斗落只	2斗落只	東北面	24斗落只	17斗落只
解西部面	75斗落只	1斗落只	文朱面	22斗落只	

18) 《慶北鄕校誌》, p. 803.

19) 《大邱鄕校齋錄》, 이 문헌은 1779년부터 1908년까지의 춘추향사시 都有司·掌議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1932년 李根泳이 부청 도서관에서 발견하였고, 全柄坤이 楊在湖·具龍會와 함께 謄書하여 대구향교에 비치하였으며, 그후 1952년과 1978년에 그후의 내용을 보충하여 새로 반질하였다.

地域	區分	畓	田	地域	區分	畓	田
大邱郡	解東村面	146斗5升落只	8斗落只	密陽郡	上東面	267斗6升落只	56斗落只
	月背面	39斗落只			穿火面	13斗落只	
	河南面	25斗落只	18斗落只		丹陽面	97斗6升落只	
	甘勿面	46斗落只		慶山郡	內東面	45斗6升落只	49斗3升落只
	達西面	135斗9升落只	9斗落只				
	城西面	18斗落只	1斗落只	합	계	1517斗5升落只	345斗落只

(《경북향교지》, 1991, p. 806.)

대구 향교의 전답은 大邱郡의 23개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청도군에 42개면, 칠곡군·밀양군에 각 3개면, 경주군에 1개면 계 31개면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답은 畓이 101石 2斗 5升落只요, 田이 23石나지기로 전체 124石을 넘는다. 그뒤 1948년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창립되면서 향교재산이 여기에 귀속되었는데 당시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表 3-7〉 대구향교 재산내역(1948) (단위 ; 坪)

地	域	區 分			計
		畓	田	垵	
大	邱	82,876	2,432	2,077.63	87,385.63
達	城	89,601	3,705	447	93,753
慶	州	9,684	4,084	501	14,269
漆	谷	14,226	3,460		17,686
密	陽	64,243	15,396	2,378	88,017
總	計	260,630	29,077	5,403.63	295,110.63

대구향교의 재산은 大邱府를 중심으로 달성군, 경주군, 칠곡군, 밀양군에 분포되어 있고, 총 295,110.63평으로 1마지기를 200평 단위로 볼 때, 1,475마지기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향교재산은 1948년 농지개혁, 관리소홀 등으로 태반이 망실되었으며, 그 중 100만원은 大邱大學校 설립에 기부하였다.²¹⁾ 그러나 1973년 망실 재산이 상당량 색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慶北鄕校誌》, p. 807.

21) 대구대학교 개교20주년 기념간행위원회, 《二十年 略史》, 1966, pp. 13~14참조.

〈表 3-8〉 1973년 색출된 대구향교 재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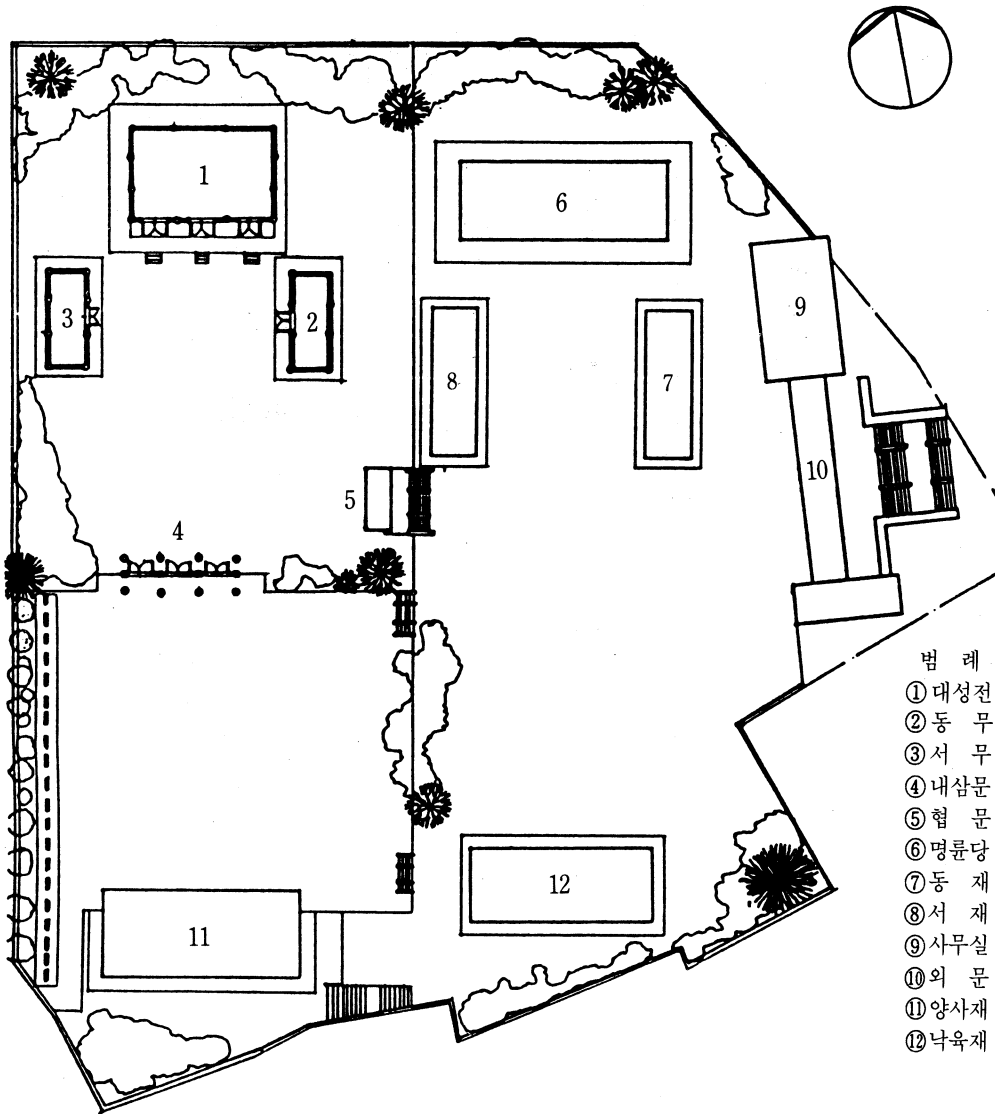
所 在 地	番 地	地 目	坪 數	所 在 地	番 地	地 目	坪 數
太平1街洞	27	垜	66	南山洞	590	垜	315.6
大明洞	1892~1	〃	33.8	新岩洞	245~3	垜	515.7
院垜3街洞	1120~1	〃	537	壽城1街洞	213~2	道路	176
〃	1435~1	溝渠	24	池山洞	1042~4	垜	289
飛山洞	1102~2	道路	104	公山, 百安洞	467~10	道路	37
枝底洞	696~1	〃	100	〃	467~11	〃	16
道洞	739~2	畚	75	月背, 松峴洞	961~1	溜池	558
中里洞	347	〃	416	城西, 梨谷洞	51	〃	202
魯谷洞	977~2	〃	4		52	〃	201
〃	977~3	〃	28	城西, 本里洞	169~2	田	135
砬山洞	264~2	垜	4	多斯, 世川洞	1156~1	畚	280
公山, 百安洞	467~2	道路	180	〃	1156~2	溜池	117
〃	467~3	垜	165	〃	1057~1	垜	142
〃	467~5	垜	86	〃 竹谷洞	592	林野	272
〃	467~6	道路	24				

1973년에 색출된 재산은 대구부외에 공산, 월배, 성서, 다사 등지에 산재해 있으며 그 지목도 垜, 溝渠, 도로, 溜池, 밭, 논, 임야 등 다양하다.

대구향교의 건축물은 左學右廟式으로 높은 터에 대성전을 건립하였는데 제향공간내의 건물만 목조이고, 나머지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하였다. 대구향교를 현지로 이전하기 전의 건물배치는 《大丘邑誌》에 의하면 문묘뒤에 명륜당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前廟後學의 배치인 듯하다.

현재 대구향교의 건물은 대성전(정면 3칸, 측면 3칸), 동·서재(정면 3칸, 측면 1칸) 內三門(정면 3칸, 측면 2칸)이 있다. 대구향교의 건물 배치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²⁾

22) 《慶北鄉校誌》, p.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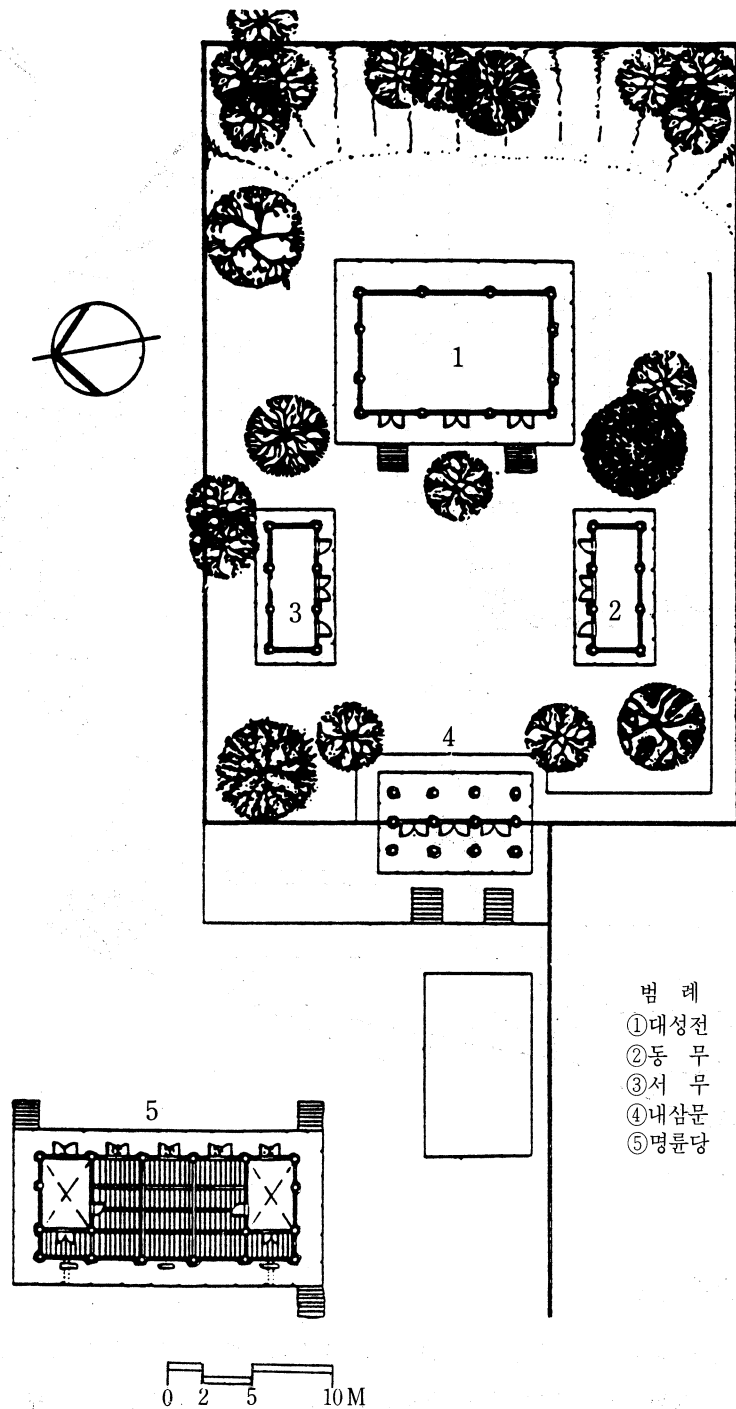


〈圖 3-4〉

대구향교 배치 평면도

2. 漆谷郷校

칠곡향교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나 《郷校謄錄》을 통해 인조 20년(1642) 4월 10일의 향교건설과 경종 2년(1722) 2월 30일(음력)의 香祝사실만 알 수 있다.



〈圖 3-5〉

칠곡향교 배치 평면도

칠곡향교의 경제적 기반은 현황조사서의 내용에 田 569평, 畓 1,015평, 기타 387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현재보다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칠곡부 사례 舉行秩의 禮房 각 祭物行移式을 보면, 祀稷大祭, 석전제, 城隍發告祭, 厲祭, 사직단, 道德山 기우제의 제수품이 많고 그 양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같은 행사를 치루고, 향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경제적 기반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칠곡향교의 건물배치는 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명륜당이 대성전의 축에서 서쪽으로 약간 벗어나 병렬축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은 동·서무와 함께 內三門과 담장으로 둘러 쌓인 方形 광내에 배치되어 있다. 칠곡향교의 명륜당은 현 칠곡중학교의 운동장 확장으로 운동장의 한구석에 담장없이 놓였으나 최근에 外三門과 담장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칠곡향교의 현존건물은 대성전(정면 3칸, 측면 3칸), 동·서재(정면 3칸, 측면 2칸), 명륜당(정면 5칸, 측면 3칸), 내삼문(정면 3칸, 측면 2칸)이 있다.

칠곡향교의 건물 배치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³⁾

III. 書堂教育과 書齋

1. 書堂教育

조선시대의 유학교육은 성균관이나 향교, 四學 등 관학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書院·書堂·書齋 등 사학교육에서도 그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중 書堂은 향지에 있어서 가장 말단의 사설교육기구로서 전국의 향촌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설립되었다. 서당이나 서재는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향촌 在地土民이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사설 교육기구는 조선시대 이전에도 설립되어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書堂은 그 설립자와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訓長自營書堂: 이것은 훈장 자신이 자기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나 자기의 교육 취미로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

2) 有志獨營書堂: 이것은 향촌의 가세가 유족한 사람이 자기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장의 給費를 혼자 부담하고 이웃의 몇몇 자제들을 무료로 수업을 받도록한 서당이다.

23) 앞의 책, p. 814.

3) 有志組合書堂：이것은 향촌의 유지들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조합원의 자제만 교육시키는 서당이다.

4) 村組合書堂：이것은 향촌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두고 그 향촌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서당이다.

이러한 서당 중 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훈장과 그 가족의 생계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만 하였다. 서당에는 訓長과 接長, 생도로 구성되어 있다. 훈장은 몰락 양반이나 또는 신분적으로 상승한 신흥 인테리 등으로 그들의 학문적 수준은 한결같지는 않다. 經史나 諸子百家書에 능통한 자는 드물었을 것이며, 가끔 名儒가 지도하는 서당은 고차적인 교육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생도도 지방별이나 문벌별, 당색별로 폐쇄되었을 것이다. 훈장은 교재를 註解나 諺解를 참고로 하여 경서의 文義를 해독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한문자의 활용을 제대로 활용못하는 훈장도 있었다. 接長은 훈장이 혼자 지도하기에 힘들 경우에 생도 중에서 연령이나 학식으로 보아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표자격인 접장으로 선출하여 접장 자신이 훈장에게 배우는 한편 그 아래에 있는 학도들을 가르쳤다. 서당의 생도는 대체로 7·8세부터 15·16세가 보통이었으며, 20세내외 내지 25세이상 30이 넘는 만학자도 때로는 있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講讀, 製述, 習字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천자문·동몽선습·통감·史略·소학·史記·4書3經·唐宋文·唐律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朴世茂의 《童蒙先習》이 채택된 것은 종래의 중국사중심의 내용으로 하던 교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사 학습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서당의 교재로서 동몽선습을 제외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製述로는 5·7言絶句, 4律과 古風18句詩의 작문등이 보통이었고 훈장의 수준에 따라 개별지도를 중심으로 달리하였다. 분량을 많이 지도하지 않고, 高妙한 문장을 말하지 않으며, 둔한 아이일수록 참고 용서하였으며, 사물의 명칭을 알게하면서 習字書, 韻書를 지도 하였다.

이러한 서당은 조선후기에 올수록 향촌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근대교육기구가 확립된 후에도 보통교육의 보조기구로 계속되었으나 1929년에는 일제가 도지사의 인가제로 하여 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당변천사에서 대구지방의 서당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존 서당중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서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獨巖書堂(문화재자료 제12호)

이 서당은 조선시대 고종 2년(1865) 현 대구직할시 동구 鳳舞洞 223~3에 사는 최씨 문중에서 건립한 서당이다. 독암이라 한 것은 서당의 서쪽에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싸움에서 견훤에게

패하여 혼자 피신해 앉아 있었다는 獨坐巖이 있었다는데서 유래하였다 한다.²⁴⁾

(2) 孤山書堂(문화재자료 제15호)

이 서당은 지금 대구직할시 수성구 城洞 山 22에 있다. 이 서당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곳에서 李滉(1501~1570)과 鄭經世(1563~1633) 두분이 講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 늦어도 이시기에는 서당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두분 사후에 서당 뒤편에 祠堂을 지어 두분의 위패를 모시고는 서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강당은 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그후 고종 16년(1879)에 慶山의 유림에서 강당만을 중건하여 孤山書堂이라 편액하고, 1904년에 중수하였다.²⁵⁾

비록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서당이 두개뿐이지만 대구의 서당명이 邑誌에는 기록이 없더라도 많은 서당이 설치되어 강학을 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2. 書 齋

書齋는 원래 사대부나 유생의 개인독서실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었으나 뒤에 와서 그것은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외부인에게 개방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광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서재는 麗末부터 설치되어 선초에 활발하게 나타났다. 원래 서재는 고래의 家塾黨庠의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사대부층의 요구와 향촌 사회의 교육 기능을 보강하려는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이 합치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의 교육부담·능력의 한계 등 제요인으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탓으로 국가는 향촌의 교화교육 내지 관인 양성을 위한 科業教育을 서재에 맡겨 이를 묵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을 것이며, 그것은 곧 《經國大典》의 法制的 규정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여말의 정치적 격동과 향촌 在地勢力의 유교적 질서와 교화정책 특히 15세기 이후의 양반 사회의 발달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서재 발달의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서재는 은거 사대부 유생들의 연찬과 후진교육 등 교육적 기능을 지닌 私學의 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재는 師儒의 능력이나 학문적 수준에 따라 그 교육목표나 수준이 다른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재는 초보적 교화교육에서부터 科業教育 더 나아가서는 성리학적 연구를 위한 爲學의 교육 등 폭넓은 영역을 지녔다. 李穡, 鄭夢周, 吉再 등에서 비롯하여 金叔滋, 金宗直 등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자들의 경우는 이에 속한다. 즉 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의 기초교육이나 도덕 윤리적

24) 大邱直轄市, 《達句伐文化財》, 1991, p. 20..

25) 위의 책, p. 123.

실천을 주된 목표로 하는 敎化的 書齋(黃鑑平, 金懼知등의 서재), 문과를 목표로 科業敎育을 주로 하는 高第의 서재(朴恒, 趙須, 柳方善등의 서재), 그리고 성리학 연구의 爲學的 서재(吉再, 金叔滋, 金宗直의 서재)가 곧 그것이다.²⁶⁾ 서재의 교재는 經典을 중시하였다. 童蒙訓·孝經·大學·論孟·中庸·詩書·春秋·주역·예기·통감·諸史·百家등을 독서순에 따라 학습시켰다. 서재는 대체로 사대부나 재지사족의 농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거기에는 軒·齋·菴·室 등의 건물이 있어 교육장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서재에는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대구지방에 이같은 서재가 몇개나 설립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잘 알 수 없으나 이곳에도 서재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第2節 嶺南學派의 成立과 大邱文風의 勃興

I. 性理學의 深化와 嶺南學派의 確立

1. 性理學의 深化

조선시대의 양반관료체제를 이끌어 갔던 사상과 학문계를 풍미한 것은 朱子學이었다. 주자학은 유교철학으로서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문제에 대한 사색적 학문으로 宋代에 확립되었다.

고려 忠烈王때 安珦에 의해 전해진 주자학이 조선조에 이르러 보급·심화된 것은 여말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속에서 세속화 타락된 불교나 訓詁·詞章中心의 유학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당시의 新進士大夫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뿐만 아니라 개혁의 실천윤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건국의 주체자인 在鄉中小地主的 학자적 관료인 신흥사대부들은 朱子家禮와 주자의 정치적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은 새로운 학풍으로 자리잡혀 갔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유학은 경학내지 성리학을 위주로 하는 학풍과 다른 하나는 詞章을 주로 하면서 현실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학풍으로 두가지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러말 선조의 왕조교체과정에서 집권 세력으로 계속 上京從仕여 재경관료가 된 세력과 다른 하나는 정몽주·李崇仁과 같이 순절하거나 吉再·元天錫처럼 在野隱居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즉 鄭夢周·吉再계열의 이학과성리학과 鄭道傳·趙浚·權近 계통의 경세파성리학이

26) 李秉杰, 〈麗末鮮初의 科業敎育—書齋를 중심으로—〉《歷史學報》67, 1975 참조.

그것이다. 두 학파는 理氣哲學을 신봉하고, 佛·道敎를 배척한 것은 공통이지만, 전자는 철학·도덕·종교 등 관념 세계에 대한 문제에, 후자는 정치·경제·군사 등 현실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렇다고 후자는 철학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전·권근같은 사람은 《佛氏雜辨》, 《學者指南圖》, 《心氣理篇》, 《入學圖說》등 뛰어난 철학서를 지어 불교와 도교의 모순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기보다는 寺院經濟와 연결된 불교와 미신화된 도교의 사회적 해독성을 극복함으로써 사회개혁의 정신적 기초를 다지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성리학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經史·兵學·천문·지리학·의학·문학등 經世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하였으며, 사회개혁에 모순되는 것이라면 비록 성리학의 사상이라도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같은 경제과의 학풍은 15세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官學을 지배하며, 문물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민족문화 건설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에 대해서 理氣派의 학풍은 신왕조의 건국에 반대하였고, 경제과를 비판하면서 朱子의 사상철학을 존중하며 道學을 발전시켰으며, 명분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향촌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향촌 자치제나 신분질서, 綱常의 윤리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들은 15세기말 크다란 정치세력을 이루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이른바 士林派를 형성하여 훈구파와의 반목·대립되었다. 이들의 주체가 곧 영남지방의 士林이었다.

이들은 국초의 재야세력과 세조의 즉위를 반대하였던 節義派의 계통을 이어받아 鄭夢周→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로 학통이 이어졌고 기묘사화이후 인종조에는 趙光祖로 연결된다.

이처럼 신흥사대부는 安珦이후 權溥·李齊賢등을 거쳐 李穡代에 이르러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성리학파를 이루어 왕조교체로 확립되어 갔다.²⁷⁾

安珦을 祖로 하는 朱子學은 그 문하에 白頤正과 禹倬이 나왔다. 백이정은 충선왕대에 왕을 따라 元에 가서 程朱學의 책을 구해 돌아왔으며, 우탁은 程伊川의 易傳을 연구하여 易理學을 전승하였다. 백이정의 학은 이제현과 이색으로 이어졌으며, 이색이 성균관 大司成으로 들어간 후 그의 문하에는 권근·정도전·卞李良이 나와 조선유학으로 그 계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여말에 보급된 성리학은 정몽주를 大宗으로 하여 그 문하에 길재가 배출되었다.

여말선초의 정치적 격동기에 정몽주는 죽고 길재는 善山의 金烏山下에 은거하여 후진의 교육에 힘썼다. 그 결과 그 문하에서 金叔滋와 金宗直이 나와 조선 유학의 正統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것은 성리학 발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p. 243.

鄭道傳은 불교와 老莊思想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功利說을 배제하면서 유학의 바른 길을 밝히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이색의 문인으로서 공민왕대에 登仕하여 李成桂의 브레인이 되어 국초의 정책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經史·문학·정치·병학·천문·역학·樂·醫등 각 방면에 才를 겸비하였으며, 그의 《學者指南圖》는 권근의 《入學圖說》에도 영향을 주었다.²⁸⁾

權近은 안향의 문인이었던 權溥의 증손으로 三峯과 같이 이색의 문인이었으나 정도전 보다는 훨씬 후배였던 것 같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바 적지않았다. 그의 저서 중 《入學圖說》은 39살때 益山에서 귀양살이를 할때 지은것으로서 조선유학도설의 효시이며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金叔滋는 길재의 문하에서 나와 주자학의 계통을 잇고 세종조에 성균관 司藝에까지 이르렀으나 만년에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金宗直은 김숙자의 아들로 성종대에 外官에서 京官으로 옮긴후 士林의 중심이 되었다. 在野의 士林이란 길재·김숙자의 계통을 잇는 성리학파의 김종직 일파로서 그의 문하에 김굉필·鄭汝昌을 비롯하여 曹偉(金山人)·金駟孫(청도인)·金孟性(성주인)·朴漢柱(밀양인)·康伯珍(선산인)·李崇準(안동인)·郭承華(현풍인)등이 있고 청담파에도 이들 문도와 기맥을 통하는 이가 많았다. 김종직은 영남학파의 영추로서 詞章에도 뛰어났다. 김종직의 문인인 김굉필·정여창은 도학의 실천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김굉필의 문인에 金安國·金正國·李長坤·趙光祖등이 있어 조선 주자학의 정통이 김죽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져 갔다. 후일 李退溪가 寒暄堂을 近世의 道學之宗이라 한 것을²⁹⁾ 보면 김굉필은 실천위주의 도학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柳崇祖는 성균관 재직 18년간에 성리학에 전심하고 經史子集에 박통하여 年少名流를 많이 가르쳤다. 趙光祖는 유송조가 성균관 재직시에 太學에 들어가 도학을 강구하였고, 일찌기 寒暄堂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실천위주의 도학정신을 계승하여 도학정치로까지 전개하게 되었다. 그의 도학정신은 후세에 많은 德化를 미쳤으며, 한국 유학사에서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조선의 성리학은 士禍를 거치면서 학문의 경향도 사색과 이론 방면으로 바뀌어져 갔다. 徐敬德과 李彥迪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서경덕은 평생을 학문에 전념하여 그의 主氣學說은 李珥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의 主理學說은 李退溪에 영향을 미쳤다. 서경덕은 개성의 花潭에 은거하여 수십년을 사색에만 전력하였으며, 그의 氣一元論은 창의적 철학으로 보여진다.³⁰⁾

28) 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pp. 682~683.

29) 위의 책, pp. 688~689.

30) 위의 책, pp. 691~692.

이언적은 경주인으로 다년간 관계에 나갔으나 경주의 紫玉山中에서 학업에 전념하였으며 江界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타계하였다. 그의 철학사상은 그가 27세때 지은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를 비롯하여 28세때에 계속하여 忘機堂(曹漢輔)에 대답한 제1서에서 제4서까지의 논문이 있다. 그외에 《晦齋集》, 《元朝五箴一綱十目疏 大學章句補遺續或問》은 만년에 진력한 업적이다. 그의 학문은 李滉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아 이 언적을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와 함께 東方四賢으로 추송하였다.

조선 전기의 유학은 서경덕과 이언적을 이어 명종·선조대에도 훌륭한 유학자가 배출되어 宋學이 크게 일어나 그 전성을 이루게 된다. 그 중에서도 李滉과 李珥는 가장 대표적 인물로서, 嶺南人은 退溪를 동방의 朱子라하고, 畿湖人은 栗谷을 동방의 聖人이라 하여 후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退溪는 퇴관후 예안의 陶山에 낙향하여 후진을 강학하면서 退陶라 하였다. 그는 명종과 선조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大提學·左贊成에까지 이르렀으나 곧 사양하였다. 그는 知行의 相資互進을 주장하고 誠을 기본으로 삼아 전 생애를 통해 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의 철학적 사상은 理氣二元論을 철저히 발전시켜 59세때에 奇大升과의 논쟁은 四端七情을 주제로 書簡 왕복만도 8년간에 걸쳤으며, 그의 《聖學十圖》중 ‘四端理發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라 한 것은 그의 사상의 결론인 동시에 이이에게도 논쟁의 제재가 된 것이다. 그의 저서로는 문집외에도 《啓蒙傳疑》, 《朱子書節要》, 《宋季元明理學通錄》, 《心經釋疑》, 《七書釋疑》 등이 있으며, 특히 《天命圖說》, 《自省錄》, 《聖學十圖》, 《朱子書節要》, 《退溪集》등은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明治時代 교육의 근본정신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元·明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영남지방에서 가장 추존을 받았다. 그의 문하에는 趙穆·禹性傳·黃俊良·權好文, 李德弘, 鄭推一, 鄭琢 등이 배출되었다.³¹⁾

李珥는 江陵의 외가에서 태어나 坡州의 栗谷이 그의 世居之地가 되었다. 그는 天資가 초매한 稀有의 천재로서 벼슬이 大提學·吏曹判書까지 이르렀다. 그는 퇴계와는 성격이 달라 기상이 탕연하고 마음이 통활하여 학문에 있어서도 章句의 분석적 해설보다는 근본 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하려 하였다. 그의 철학사상은 ‘氣發理乘一途說’로 대표할 수 있다. 그가 37세때 成渾과 四端七情論으로 6년간에 걸쳐 서간을 왕복한 것은 花潭과 퇴계의 학을 종합·절충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그는 經世家로서도 공을 세웠으니 《東湖問答》, 《萬言封事》, 《聖學輯要》, 《人心道心說》, 《時務六條疏》등은 군왕과 시무에 관한 논단이며, 조광조와 같이 修己治人과 化民成俗의 방법으로 향읍의 제규례조약을 많이 만들었다. 그의 저서로는 《擊蒙要訣》, 《經筵日記》, 《金時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 1981, pp. 132~140.

習傳》이 있다. 그의 문인으로서는 金重峰, 趙憲, 黃愼, 安邦俊 등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이이는 한국 유학사에서 퇴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존재로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李滉과 李珥의 交友·門人이 하나의 학파로 형성되어 갔을무렵 선조 8년(1575) 동서분당은 봉당발전의 기점을 이루었다. 李滉과 曹植계통은 대개 東人에 李珥·成渾계통은 西人에 가담하여 당시의 士流라면 어느 한편에 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후 학문과 지역간의 대립, 정치상의 이견등은 더욱 閥閥政治의 폐단을 가져왔으며, 李栗谷의 학통을 이은 金長生, 宋時烈 등은 기호의 서인이 되었고, 李退溪의 학풍을 이은 鄭經世, 李玄逸등은 영남의 남인이었다.

2. 嶺南學派의 확립

安珦에 의하여 전래된 朱子學은 조선건국의 주체세력인 신흥사대부의 새로운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져 보급되어 갔으며, 조선시대에 이를 더욱 발전시킨것은 영남사람이었다. 주자학이 영남사람에 의하여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학문적 배경과 바탕이 일찍부터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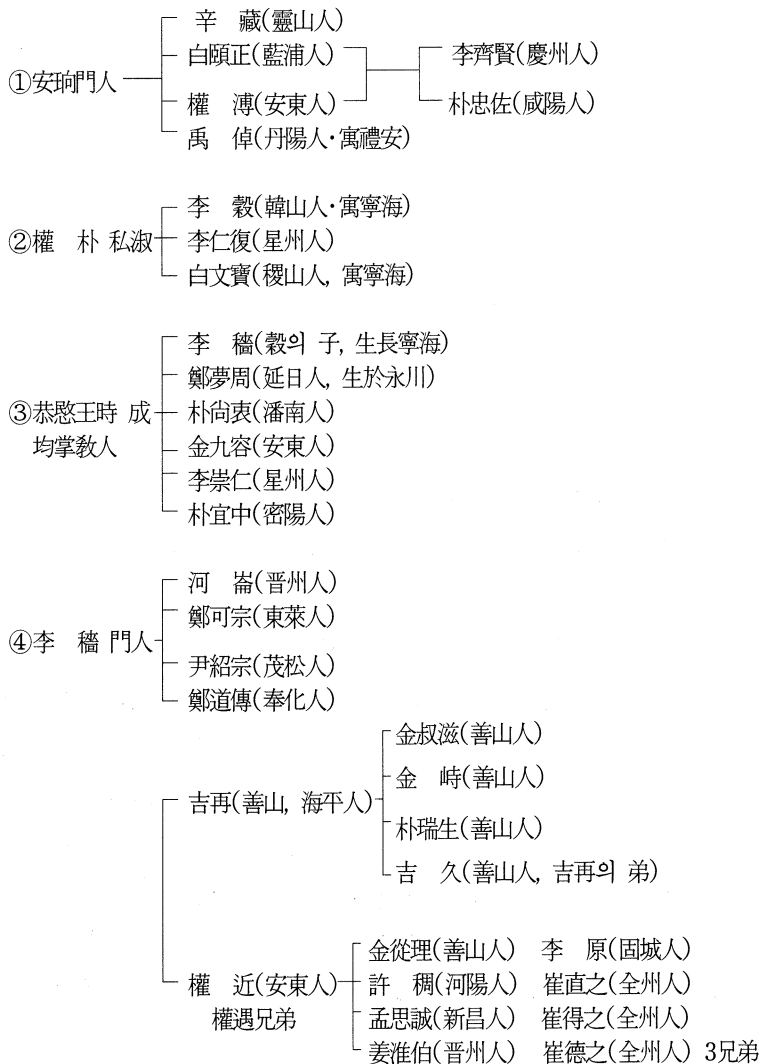
영남지방은 역사적으로 신라와 가야문화의 발원지인 동시에 유교문화와 사림파의 정신적 고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善山, 安東, 慶州, 尙州, 星州, 등지는 영남사람과의 온상지적 구실을 하였다.

고려 전기이래에 慶州崔氏와 金氏의 문신이 중앙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武人執政을 계기로 중앙 귀족들의 낙향이 많아짐에 따라 영남지방에는 일찍부터 문풍이 진작되어 갔다. 고려 중기에 金富軾 가문을 중심으로 申淑(고령), 金守雌(상주), 金存中(용궁), 朴適(안동), 鄭襲明(연일), 張脩(인동) 등 영남 출신의 문사가 중앙에서 크게 활약하였고³²⁾ 이들중에는 在京官人과는 달리 정치적 변동기에 낙향하여 在地土族으로서의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元支配下에서 지방 토성의 吏族子弟가 중앙으로 진출하여 관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군현에서 上京從仕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琴儀(봉화), 金之岱(청도), 安裕(순흥), 金暉(의성), 李兆年(성주)등이 배출되었다. 무신집정이후에 林椿, 吳世才등이 영남지방을 전전하면서 영남의 문풍을 진작시켰다. 《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詩文 중 朱子學 전래 이전의 것을 대상으로 그 작자를 출신지별로 보면 영남출신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방이 주자학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학문적 바탕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영남지방의 토성 진출은 元支配下에서 활발하였다. 金方慶·權溥(안동) 가문에서 진출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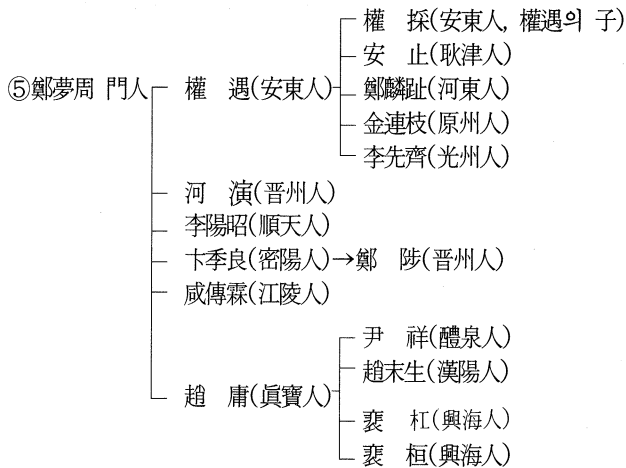
32) 李樹健, 〈高麗時代土姓研究〉《亞細亞學報》12, 1976, pp. 135~136.

따라 金堧, 安珦, 李頊(이재현의 父)은 金堧의 제자였고, 崔濯는 金開物(金堧의 子)와 친구인 동시에 金諫(김개물의 子)은 崔濯의 문인으로 이들은 상호 중첩적인 인척관계를 맺었으며, 학문적으로는 師弟관계를 유지하였다. 安珦으로부터 金宗直에 이르는 師友관계를 《東儒師友錄》에 의거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³⁾



33) 李樹健, 앞의 책, 1980, pp. 235~236.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의 成立과 發展》, 一潮閣, 1981, p. 12.



⑥太宗~世祖時 成均掌敎人

- 金 汶(彦陽人), 黃 鉉(平海人), 金 泮(江西人)
- 鄭自英(盈德人), 金 鉤(牙山人), 金 末(義城人)

위의 53명의 학자 중 영남지방과 관계없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주자학이 전래된 이후 영남출신의 인사가 文翰·敎授之任에 포열해 있었다는 것은 영남지방의 성리학 발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安珦을 선두로 安軸·安輔형제, 安積등과 그들의 子壻와 문생에 학자가 배출되었다. 李穀은 그에게 수업하였고, 鄭習仁은 그의 문생이었다. 李齊賢은 權溥의 女壻인 동시에 그의 학통을 이었고, 白頤正과는 사돈간이었으며, 그의 일문에서 李在吾·李達尊·李達衷·李寶林등이 배출되었다. 李存吾는 鄭夢周·李崇仁·鄭道傳·金九容 등 영남출신 인사와 교분이 두터웠다.³⁴⁾ 李兆年은 鄭允宜(草溪)의 女壻이며, 그의 손인 李仁復은 薛文遇(경주인 大司成)의 외손이었다. 鄭夢周는 金得培(상주)의 문생이었고, 趙云佐는 그의 女壻였다. 金得培·金先政형제가 여말에 등용되자 그 일문에서 仕宦者가 배출되었고, 그 晋州地方에는 河允源·河崙·河演등과 姜氏·鄭氏 및 草溪·河東鄭氏가 여말 선초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朴忠佐·朴宜中은 함양·밀양출신으로 성리학 보급에 이바지하였다.³⁵⁾

李穀·李穡부자와 權近은 영해와 영덕에 인연을 맺게됨에 따라 영남지방의 문풍은 더욱 진

34) 《高麗史》 권 112, 李存吾傳.

35) 《高麗史》 권 112, 河允源, 鄭習仁, 朴宜中傳.

작되었다. 영해는 李穀의 妻鄉으로 한때 그곳에서 우거하였고, 李穡은 외가인 영해에서 성장하였다.³⁶⁾ 權近은 여말에 영덕에서 謫居한 적이 있었다. 그들을 매개로 영해박씨와 흥해배씨 등이 크게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은 성균관과 향교교육을 통하여 보급되어 갔다. 공민왕 16년(1367)에 성균관을 중영하고 김구용·정몽주·박상충·박의중·이숭인 등 經術之士를 성균관 교관을 겸직케하였으며, 이색이 學式을 개정하고, 명륜당에서 分經授業을 한 다음에는 상호 강론하도록 함에 학자들이 운집하여 程朱性理學이 진흥하게 되었다. 특히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한 국왕의 안동 피난은 안동·상주의 재지세력이 중앙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남출신의 사류가 과거를 통하여 대거 중앙에 진출하였다. 정도전 부자도 안동·영주의 향교에서 수학하였다. 修明學校는 守令 7事目の 하나였다. 15세기 영남 사림파에 속하였던 인사들이 수령으로 나감에 따라 지방교육을 진흥시키고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실천하면서 化民成俗하였다. 《東國輿地勝覽》의 경상북도 각급 군현의 名宦條에 의거 당해 읍의 교육 및 성리학·보급에 이바지한 수령을 추출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表 3-9〉 교육 및 성리학 보급에 기여한 수령

군 현 명	수 령 명
慶州府	安珦·田祿生·安輔·趙云乞·咸傳霖·權克和·金淡·崔善復·李約東·李賢輔
尙州牧	安珦·鄭云敬·安軸·朴以昌·金鉤
安東府	李璵·李仁復·李穀·鄭云敬·李寶林·朴全之·趙云乞·金淡·孫昭·金克儉
善山府	鄭以吾·金宗直
星州牧	尹澤·李寶林·孫昭
寧海府	金守雌·禹倬
醴泉郡	趙云乞·全伯英·安省·鄭從詔·朴漢柱
永川郡	鄭習仁·河崙·尹祥·李賢輔
開寧 및 高靈縣	金叔滋
義城縣	俞好仁·鄭從詔·李紱
晋州牧	安震·李瑀·安魯生·孫昭
密陽府	鄭云敬·李彥迪·權撥
陝川郡	李兆年·田元均·權軫·曹尙治·俞好仁
金海府	安軸·李岳·金峙
昌原府	安珦·金得培·鄭思道·田祿生
咸陽郡	曹尙治·鄭從詔·金從直·曹偉

36) 《高麗史》 권 115, 李穡傳.

37) 李樹健, 앞의 책, 1980, pp. 239~240.

영남지방의 사림과 형성의 배경의 하나는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학문적 전통외에도 孝悌忠烈을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성숙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東國輿地勝覽》의 下三道의 효자·열녀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충청도는 효자 31, 열녀 18, 전라도는 효자 46, 열녀 35, 경상도는 효자 111, 열녀 33인으로 효자가 전체의 59%, 열녀는 38.4%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도의 111명의 효자중 경북이 61.3%인 68명, 열녀는 33명중 54%인 18명인 것을 보면³⁸⁾ 이 고장에는 유교적 실천적 윤리의 실행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慶尙道地理志》의 序文에 경상도는 타도에 비하여 人材와 산물만이 아니라 유교적 미풍을 가장 많이 지닌 고장으로 찬미하고 있으며 각 읍지에서 好學의 民俗을 지닌 군현을 보면 경주·상주·안동·성주·선산·영천·진주·밀양·창녕·김해 등 10여개를 들수 있는데 이는 사림과의 분포지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鄭夢周는 공민왕 9년(1360)에 급제한 후 文翰之任에 발탁되었으며, 朱子의 《四書集註》, 《程子集會》등을 바르게 이해하여 유생에게 전수하여 동방 理學의 祖로 추대되었다. 吉再는 공민왕 2년(1353)에 선산의 鳳溪里에서 성장하였으며, 11세때 冷山 桃李寺에서 수학하였고, 18세 때 尙州司錄 朴賁에게 4서를 배웠다. 그는 上京하여 이색·정몽주·권근등을 쫓아 수학하면서 성리학을 듣게 되었다. 그는 공양왕 2년(1390)에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여 후학의 교육에 힘썼다. 길재의 학문적 전수에는 家學을 비롯하여 朴賁·李穡·鄭夢周·權近을 들 수 있으나 정몽주와의 관계가 가장 희박하다. 그러나 고려조에 대한 충절을 대표하는데 정몽주와 함께 손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몽주→길재의 학문관계가 성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⁹⁾

金叔滋는 길재의 동향인으로 선산의 迎鳳里에서 출생하여 父祖 밑에서 수학을 하다가 16세때에 향교에 나가 학문을 닦았으며 26세때 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그는 세종 원년(141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京外의 교수관직을 역임하였다. 김숙자는 尹祥이 黃澗 현감으로 갔을 때도 찾아가 周易을 배웠으며 사마시 합격후에는 성균관 유생들과 經術을 강론하면서 학문을 증진시켜 갔다. 이처럼 선산지방은 金宗直이 나기전에 길재·김숙자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학문체계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그는 在京士大夫와 접하면서 卞李良, 許調등과 또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趙庸, 尹祥, 金末 등과도 교류하면서 학문적 소양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기반위에서 다음의 金宗直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김숙자외에도 趙庸은 정몽주의 문하로 예천에 적거하면서 지방 교육에 힘을써 趙末生, 尹祥,

38) 《慶尙北道史》上, 1983, p. 802.

39) 李樹健, 앞의 책, 1980, pp. 245~246.

裴桓, 裴尙, 등의 문생을 내었으며 성균 大司成에 이르렀던 儒宗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尹祥은 조용의 문인으로 성균관에 16년간 재직하면서 훌륭한 문인들을 배출시켰다. 김종직은 윤상을 ‘經術과 文章을 겸비한 학자겸 교육자이며, 당시의 達官文人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니 권근이후 오직 한 사람뿐이다’고 격찬하였다.⁴⁰⁾ 김종직은 윤상의 私淑人으로 자처하였고 그의 아들 尹季殷(군위현감)은 김종직과 진사 동기였다. 조용과 윤상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은 예천을 중심으로 영남북부지역에 보급되었다.

선산과는 달리 星州는 李氏·呂氏·都氏 가문에서 상경하여 벼슬하는 자가 많았다. 李兆年→李仁復과 李文興, 李堅幹→李玘……李審之→李孟專등으로 이어지는 성주및 碧珍李氏등은 여말에 학문적 기반을 닦아놓았던 것이다. 李孟專은 처향을 따라 선산에 이주하였고 河澹, 河緯地형제로 이어지는 河氏도 선산에 왕래하였으며 田可植도 선산출신이었다. 길재의 문인인 朴瑞生도 선산에 거주하였다.

경주지방은 孫昭, 영해·영덕지방은 李穀·李穡부자와 권근의 영향으로 문풍이 진작되어 朴經·鄭自英등이 배출되었으며, 안동·상주지방도 안동권씨, 풍산홍씨, 상주김씨 및 박씨의 토성 가문과 그들의 인척관계로 이곳에 이주한 다른 읍의 士族이 각지에 분포되어 국초에 학문적 기반이 구축되었다.⁴¹⁾

金宗直은 세종13년(1431)에 밀양의 大洞里에서 출생하여 가학을 이어받고 19세에 南學에 입학하여 성리학에 전념하였고, 23세에 해평의 金孟性和 能如寺에서 독서하고 進士에 합격하였으며, 성균관에서 경전을 탐독하였다.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記事官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함양군수로 부임하였을 때는 문하들이 운집하여 小學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 후 성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士林派의 영수로 군림하게 되었다. 김종직의 문인을 《점畢齊集》소재의 弟子를 보면 약 50여명이 넘는다.⁴²⁾ 이 50여명의 문인들중 영남출신이 절대다수였다. 그 중 金宏弼과 鄭汝昌, 金駟孫은 김종직의 3대제자라 할 수 있으나 김종직의 학통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金宏弼은 20세가 넘어서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鄭汝昌은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왔을 때 수학하였으며, 김일손형제도 가학을 받다가 17세에 김종직의 문하가 되었다.⁴³⁾

사림파의 기반은 영남지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호지방에도 보급되었다. 종종 10년

40) 李樹健, 앞의 책, pp. 249~250.

41) 위의 책, p. 251.

42) 위의 책, p. 257.

43) 위의 책, pp. 259~260.

(1515)경을 전후하여 김종직→김굉필→조광조 일파로 이어지는 己卯名賢이 집권하자 소학교육과 家禮에 의한 유교적 실천윤리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영남의 잔유 사림과 신진사류들이 점차로 진출하였으며 이들은 사림적 성향의 인사였고 이들은 김종직·김굉필등의 문하에 많았다. 15세기 영남사림파를 16세기에 와서 발전시킨 사람은 金安國이었다. 김안국이 경상감사로 있었을 때 조정에 천거한 인물은 김종직·김굉필의 문하로서 在地土族의 사류가 많았으며, 그때 천거된 사람은 32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경주의 孫昭·孫仲暉의 계열에서 李彥迪이 나오고 權撥·李堦·李賢輔등의 기반위에서 李滉이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등의 학문적 전통의에서 曹植이 각각 배출되어 마침내 영남성리학파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영남학파에 전해준 2대유산은 爲己之學의 바탕이 된 小學과 家禮에 의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라 하겠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은 이같은 영남학파에 의하여 더욱 발달되어 갔으며, 16세기에는 이기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학파를 확립시켰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동지방은 16세기 후반부터 李滉과 그 문하에 柳成龍과 金誠一등의 名官碩學들이 배출되어 동방의 추로지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5세기의 영남학파가 16세기의 영남학파로 발전하면서 마침내 낙동강 좌측의 退溪學派와 그 우측의 南冥學派로 나누어졌다. 즉 경상좌우도를 대표하여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형세가 대등하여 양쪽을 넘나드는 문도가 많았으나 선조초에는 퇴계의 문도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이 많았고, 왜란때 영남 지방의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던 의병장 중에는 남명계의 문도가 많았다. 선조 8년(1575) 동서분당시에는 퇴계와 남명의 문도는 동인편에 섰으나 남북분당때에는 퇴계계는 남인·남명계는 북인편에 서게되면서부터 학문적 입장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반목 대립하게 되었다. 퇴계파는 16세기 후반 사림파가 중앙 정계를 장악할 때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그중 퇴계는 학덕을 겸비한 사람의 영추자로 학파를 초월하여 조야의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퇴계파에 속하는 鄭經世·張顯光·李堦·金玘·金涌·李元禎·李玄逸등 이황·류성룡·김성일·鄭述의 후광을 업은 경북의 사족들은 때로는 西人 내지 노론정권과 타협하면서 종종 발탁의 기회를 얻었으나 남명계는 鄭仁弘이 실각되고 병자호란이후 鄭蘊이 낙향한 후부터는 凋落하고 말았다. 이처럼 양파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은 퇴계학파는 ‘尙仁’ 내지 主理의 입장에서 현실과 타협·온건하게 처신하려는 태도를 가져 保身保家の 반대급부를 향유한데 대해서 남명계는 ‘尙義’ 내지 主氣의 입장에서 流俗과 타협하지 않고 立直하려는데서 꺾이고 도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학파는 안동·예안을 중심으로 한 在地土族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중첩적 혼인관계를 통하여 妻父·外祖의 학통을 이어갔으며, 거주지 소재의 서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II. 書院의 勃興과 大邱士林의 成長

1. 書院의 발흥

한국의 私學教育史에서 서원이 차지하는 그 위치나 의의는 다른 사학기구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서원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은 《三國史記》에 崔彥위가 입당유학하고 42세에 귀국하여 瑞書院學士가 되었다는 것이 효시이다. 그러나 이것은 執事省내에 있는 한관부의 직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조선시대의 서원과는 다른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성종때와 평양에 修書院을 설치하고 장서를 보관한 일종의 도서관적 성격을 지닌 기구가 있었지만 그것도 조선의 서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조선의 서원은 奉祀와 敎誨의 기능을 지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신라나 고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조선시대에 서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의 설립 연원을 려말선초 이래 발전하여 온 사학과 사묘에서 찾고 사림파의 정계진출이 빚어진 士禍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유림의 정치도피와 학문연구 경향 및 선현에 대한 숭배열의 고조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양자의 결합으로 보려는 입장과 학문의 도학적 경향을 추구하는 사림파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 사림파의 학문적 역량의 축적에 의한 수적 확대와 사림의 향촌질서 재확립을 위한 일련의 운동의 하나로서 사림의 세력기반상의 구심적 기능을 구축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외에도 사림을 위한 교학진흥책의 모색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고, 단순한 교육적 기능을 지닌 사학기구의 입장에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것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15세기 조선의 교육은 왕권이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성균관과 향교 등의 관학교육이 발달하였으나 4대사화를 겪으면서 士林派세력이 대거 정계에서 제거되고 낙향한 士林들은 그들의 在地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향지에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후진의 양성에 힘썼다. 이에 따라 16세기에는 교학진흥을 위한 사학이 발흥하게 되었으며 서원의 설립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 나타난 필연적 역사적 산물이라 하겠다. 특히 中宗反正이후 문치주의를 추구한 결과 학문과 사상면에서 크다란 발전을 보여준다. 즉 중종은 사림의 趙光祖를 중용하고 덕치와 절의를 내세워 王道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선비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종은 왕 원년(1506)에 성균관과

44)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韓國史論》8, 國史編纂委員會, 1983, p. 25.

문묘를 중수하고 위패를 환봉하고 박사이하의 관을 다시 두어 중외의 교육시설을 부흥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교학 부흥책에도 불구하고 관학은 부진하였으며, 학교는空舍가 되어 갔으며, 학사가 도살장으로 변해갔다.⁴⁵⁾ 이러한 상황하에서 관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름대로의 노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서원이 등장하여 관학의 부진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종때에 설립된 白雲洞書院을 그 효시로 하겠으나 그 이전에도 서원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즉위년(1418)에 儒士로서 개인이 서원을 설치하여 敎誨를 하는 사람은 보상하여 장려케 하였고, 동왕 2년(1420)에는 金堤의 전교수관 鄭坤과 光州의 生員 崔保民이 서원을 세워 교육을 한 공으로 포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奉祀的 기능은 없었지만 講學的 기능을 담당한 서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중종조에는 南연이 선현의 강학하던 곳에 祠宇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였고, 우의정 申用溉는 朱子의 白鹿洞規를 채택하여 학규로 삼아 敎化하도록 하였으며, 중종 37년(1542)에는 魚得江이 서원 진흥책을 피력하였다. 이같은 中宗朝의 교학진흥책은 중종 38년(1543) 周世鵬이 풍기 군수로 갔을 때 安珣을 봉향하고 白雲洞書院을 세워 유생을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⁴⁶⁾ 이처럼 16세기의 서원은 祠廟와 강학의 기능으로서의 精舍가 통합되어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명종 5년(1550)에는 退溪가 그곳 군수로 부임해 와서 국가에 건의하여 白雲洞書院을 紹修書院이라는 편액과 서적, 노비, 전답 등을 하사받아 賜額書院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점차로 발달하여 선조조에는 124개소나 설립되었다. 15세기의 서원이 단순한 강학적 기능만을 지녔으나 16세기이후의 서원은 향사우위의 서원으로 바뀌었으며, 향교보다도 교육적 권위가 더욱 확대되어 鄉班들의 자제들은 이곳에 모여 수학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士林들의 활로를 개척해주고 이곳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中宗이후 서원은 더욱 남설되어 명종조에는 29개소나 되었던 것이 선조조에는 124개소로 증가되었으며, 숙종때에는 한 도에 80·90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정조때에는 무려 724개소에 이르렀다. 참고로 조선시대에 건립된 祠宇의 건립과 賜額書院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45) 崔完基, 〈朝鮮朝 書院成立의 諸問題〉 위의 책, p. 19.

46)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pp. 26~27.

47) 위의 책, p. 32.

〈表 3-10〉 시대별 원·사의 건립 및 사액수 일람표

연	대	건립 수	사액 수
中宗以前		13	1
中宗	宗(1506-1544)	1	—
仁宗	宗(1545)	—	—
明宗	宗(1546-1567)	17	3
宣祖	祖(1568-1608)	82	21
光海	君(1609-1622)	38	15
仁祖	祖(1623-1649)	55	5
孝宗	宗(1600-1659)	37	10
顯宗	宗(1660-1674)	72	44
肅宗	宗(1675-1720)	327	131
景宗	宗(1721-1724)	29	—
英祖	祖(1725-1776)	159	13
正祖	祖(1777-1800)	7	13
純祖	祖(1801-1834)	1	1
憲宗	宗(1835-1849)	1	1
哲宗	宗(1850-1863)	1	1
高宗(大院君執權期 1864-1873)		1	1
年代未詳		62	—
합	계	903	270

위의 표에서 서원이 가장 많이 설립된 시기를 보면, 숙종연간이 전체 903개 중 약 3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조연간으로 전체 903개소중 17.6%나 된다. 이중 사액서원은 전체의 약 30%인 270개소이며 사액서원도 숙종연간이 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현종연간으로 18%나 된다. 이러한 서원을 시대별 지역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⁴⁸⁾

〈表 3-11〉 시대별·지역별 원·사의 건립 및 사액수

지역 년대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京畿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鏡道	合 計
~宣祖까지	42(10)	23(7)	11(1)	8(2)	9(3)	1(-)	7(-)	5(2)	106(24)
光海	16(4)	9(2)	7(4)	2(2)	1(1)	2(-)	-(1)	2(1)	39(15)
仁祖	21(2)	12(-)	6(-)	3(1)	2(-)	4(1)	3(-)	2(-)	53(4)
孝宗	11(-)	8(4)	-(1)	5(4)	3(-)	5(1)	1(-)	1(-)	34(10)
顯宗	20(11)	12(8)	9(7)	7(5)	2(1)	3(4)	5(5)	8(1)	66(42)
肅宗	115(29)	59(22)	49(17)	24(25)	11(16)	10(2)	19(15)	8(6)	295(132)

48) 위와 같음.

위의 표에서 보면 경상도 지역에 설립된 서원은 전체 650개소 중 약 37.4%인 24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라도로 전체의 약 20%인 136개소, 충청도가 약 14%가 된다. 그런데, 《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경북지역에 설립된 서원을 지역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表 3-12〉 경북지역의 지역별·시대별 서원일람표

시대 시·군	中 宗	仁 宗	明 宗	宣 祖	光 海	仁 祖	孝 宗	顯 宗	肅 宗	景 宗	英 祖	正 祖	純 祖	憲 宗	哲 宗	高 宗	末 詳	計
慶州	-	-	1	1(1)	-	(1)	-	-	3	-	-	-	-	-	-	-	-	5(2)
安東	-	-	-	3	3	-	1	1(1)	4(2)	-	-	-	-	-	(1)	-	-	12(4)
星州	1	-	-	(1)	-	1	-	-	2(1)	-	1	-	-	-	-	-	-	5(2)
尙州	-	-	-	1	-	1	1	1	8(2)	-	-	(1)	-	-	-	-	-	12(3)
順興	1	-	(1)	-	1	-	(1)	-	-	-	-	-	-	-	-	-	-	2(2)
大丘	-	-	1	-	-	1	-	(1)	4(1)	-	-	-	-	-	-	-	-	6(2)
善山	-	-	-	1(1)	-	2	-	-	2(1)	-	-	(1)	-	-	-	-	-	5(3)
仁同	-	-	-	1	(1)	-	1	-	(1)	-	-	-	-	-	-	-	-	2(2)
青松	-	-	-	-	-	-	-	-	2(1)	-	-	-	-	-	-	-	-	2(1)
寧海	-	-	-	1	-	-	-	-	3	-	-	-	-	-	-	-	-	2
漆谷	-	-	-	-	-	-	1	-	1	-	-	-	-	-	-	-	-	2
永川	-	-	1(1)	-	1	-	1	-	1(1)	-	-	-	-	-	-	-	-	4(2)
清道	-	-	-	1	-	-	-	(1)	1	-	-	-	-	-	-	-	-	2(1)
榮川	-	-	-	1(1)	-	-	1	2	1	-	-	-	-	-	-	-	-	5(1)
興海	-	-	-	1	-	-	-	-	-	-	-	-	-	-	-	-	-	1
金基	-	-	-	-	-	1	-	-	-	-	-	-	-	-	-	-	-	1
豐基	-	-	-	-	-	-	-	1	1	-	-	-	-	-	-	-	-	2
醴泉	-	-	-	-	1	-	-	-	1(1)	1	-	-	-	-	-	-	-	3(1)
義城	-	-	1	(1)	-	-	-	1	-	-	-	-	-	-	-	-	-	2(1)
盈德	-	-	-	1	-	-	-	-	-	-	-	-	-	-	-	-	-	1

※()안의 숫자는 사액서원임.

위의 표에서 보면 경북지역에 설립된 서원은 모두 108개소(사액 36개소)로 그 중 선조때 까지 설립된 것은 23개소(사액 9개소)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안동 12(4), 상주 12(3), 大丘가 6개소(사액 2), 경주·성주·선산·영주가 각 5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 서원은 조선후기에 더욱 많이 설립되었는데 17·18세기에 설립된 서원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49) 《慶尙北道史》中, pp. 824~825.

50) 丁淳睦, 앞의 책, p. 32.

〈表 3-13〉 17~18세기 지역별 원·사의 건립수

연대 \ 지역	慶尙道	全羅道	忠淸道	京畿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鏡道	合 計
光海君	15	9	6	2	1	2	1	2	38
仁祖	20	13	6	4	1	5	4	2	55
孝宗	12	8	3	5	3	4	1	1	37
顯宗	23	12	11	7	2	4	5	8	72
肅宗	127	67	53	24	15	11	23	7	327
景宗	7	5	5	—	1	5	4	2	29
英祖	51	26	17	88	16	12	18	11	159
正祖	2	2	—	3	—	—	—	—	7
合 計	257	142	101	53	39	43	56	33	724

〈表 3-14〉 17~18세기 지역별 원·사의 사액수

연대 \ 지역	慶尙道	全羅道	忠淸道	京畿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鏡道	合 計
光海君	6	2	4	2	1	—	—	—	15
仁祖	2	—	1	1	—	1	—	—	5
孝宗	—	5	—	4	—	1	—	—	10
顯宗	13	8	7	5	1	4	5	1	44
肅宗	28	21	18	25	17	2	14	6	131
景宗	1	3	5	1	1	—	—	—	11
英祖	3	1	4	1	—	—	3	1	13
正祖	4	3	—	3	1	—	2	—	13
合 計	55	38	39	42	21	8	24	8	242

위의 표에서 보면 17·18세기에 설립된 서원은 모두 242개소로 이것은 전체 903개소중 약 22%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55, 경기도 42, 충청도 39, 전라도 38개소이며 함경도가 8개소로 가장 적다.

조선후기의 서원의 특색은 봉향하는 인물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당시 7백여개소의 서원에 봉향된 人物이 1500여명에 이르고, 그중 1개소에만 제향된 인물이 1,300여명, 2개소 이상이 180여명, 5개소 이상이 44명, 10개소 이상이 13명이나 된다. 10개소 이상에 제향된 인물을 도별 서원의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¹⁾

51) 앞의 책, p. 33.

〈表 3-15〉 10개소이상에 제향된 인물과 그 원·사의 도별분포수

도별 인물별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京畿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鏡道	合 計
宋	時	烈	5(1)	6(4)	20(9)	5(3)	3(1)	2	—	2(2)	44(20)
李		滉	15(8)	2(1)	5(1)	—	4(4)	1(1)	1	1(1)	29(16)
朱		熹	1	2	7(3)	1(1)	9(8)	2	2(2)	1	25(14)
李		珥	1(1)	1(1)	1(1)	2(2)	12(11)	1(1)	1(1)	1(1)	20(19)
鄭		述	10(3)	1(1)	2(2)	—	—	2	1(1)	—	16(7)
趙	光	祖	—	3(1)	2	2(2)	4(4)	—	2(2)	2(2)	15(11)
李	彥	迪	10(3)	1(1)	1	1(1)	—	—	1(1)	—	14(6)
宋	浚	吉	2(1)	2	8(5)	—	—	—	—	—	12(6)
鄭	夢	周	6(3)	1	—	2(1)	—	—	1(1)	2(2)	12(7)
趙		憲	—	2	7(4)	1(1)	1(1)	—	—	1(2)	12(8)
金	長	生	1(1)	3(3)	4(4)	2(2)	2(2)	—	—	—	12(12)
金	尙	憲	2(1)	1(1)	—	4(2)	—	—	2(2)	2	11(6)
金	宏	弼	4(3)	2	1	—	3(2)	—	—	—	10(5)
合 計			57(25)	27(13)	57(29)	20(15)	38(33)	8(2)	11(11)	13(10)	232(137)

* ()안은 사액수임.

위의 표에서 보면 가장 많이 봉향된 인물은 宋時烈이 232개소 중 약 20%인 44개소로 그중 충청도의 20개서원에 향사되고 있다. 다음은 李滉으로 전체의 약 13%인 29개소에 향사되고 있으며, 그중 15개소가 경상도에 있는 서원이다. 이러한 인물의 변화는 조선 후기 봉당정치와 발달과 벌열정치와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숙종연간의 정치적 변동과 사액서원의 추세를 관련지어 보면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⁵²⁾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조이전에 설립된 서원은 성현을 추앙하여 세워진 서원이었으나 선조이후는 先賢을 奉祀하는 서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전자의 경우는 봉당과 관련이 없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전자의 서원으로는 紹修書院(安珦 주향, 순흥소재), 首陽書院(崔冲 주향, 해주 소재), 臨臯書院(鄭夢周 주향, 영천소재) 濫溪書院(鄭汝昌 주향, 양주소재), 玉川書院(金宏弼주향, 순천소재)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조이전의 서원은 주향자의 직접문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향자의 대를 이은 문도나 후세의 추앙자들과 그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초담적으로 전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로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서원은 어느 학자가 세운 書堂을 중심으로 해서 서당이 발전하여 서원이 된 것이 많다. 도산서원은 도산서당을, 遯巖書院은 沙溪(金長生)서당을 그의

52) 앞의 책, p. 34.

〈表 3-16〉 숙종 연간의 정치적 변동과 사액서원수

時期 院祠數 黨派	賜 額 數			賜 額 總 計
	南 人 系	西 人 系	黨 色 無 關	
1~6년 (南人執權時期)	13	1	3	17
6~15년 (南人執權時期)	—	19	4	23
15~20년 (西人執權時期)	13	1	1	15
20년以後 (西人執權時期)	2	55	19	76
計	28	76	27	131

제자들이 그곳에 세운 서당이다. 이러한 서당은 대체로 그 지방에 在地의 기반과 밀착되어 있었다. 주향자들이 서당을 가지고 직접 유생들을 지도하다가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세운 서원의 예를 보면 〈표 3-17〉과 같다.⁵³⁾

서원이라 하더라도 주향자의 일족과 그 지방과 관계에 있는 서원과 거국적으로 추앙되는 성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주향자를 추앙하던 나머지 그 격을 올리려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향자의 격상운동이 전개되면서 우열을 따지는 시시비비가 생기게 되고 복잡한 문제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즉 문묘종향문제로 시비가 일어나고, 位次의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晦齋와 退溪, 同春堂과 尤庵, 栗谷과 牛溪, 西厓와 鶴峯의 격상 문제는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조선 후기의 서원을 중심으로 斯文이 진흥되고 많은 교화사업이 이뤄지고 공론이 조성되어 지방자치에 큰 몫을 담당하였으나 禮訟문제와 연계되어 서원이 발달함에 따라 서원의 逆機能이 적지 않았다. 大司成 金萬重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읍에 7·8개의 서원이 있었고, 1도에 8·90개의 서원이 있어서 넓은 田土를 점유하고 閑丁을 모아 무위도식케 하여 국가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면에 적지 않는 폐단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고종 8년(1871)에는 大院君이 서원철폐령을 내려 600여개소의 院祠를 훼손하고 47개의 서원만 두게하였는바 그 47개의 서원과 그 중 경북에 잔존한 서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다음의 표에서 47개의 서원을 보면 60%가 충절서원이며, 道學書院은 경상도가 약 30%인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의 14개 잔존서원 중 경북이 9개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5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 8, 1981, p. 81.

54) 丁淳睦, 앞의 책, p. 36.

〈表 3-17〉

제자들이 세운 서원

書院名	主享者	所在地	書院名	主享者	所在地
陶山書院	李曹柳	安州山山城州	華陽書院	宋權俞	山德川州
德川書院	成		陽山書院	時	大羅州
屏山書院	金		山溪書院	象	林羅州
遜魯書院	尹		高澗書院	顯	安星善
筆巖書院	金		洛東書院		
月峯書院	奇				

〈表 3-18〉

신미존치 47개 원·사

書院名	主享者	創年	立度	賜年	額度	所在地	書院名	主享者	創年	立度	賜年	額度	所在地
崇陽書院	鄭夢周	1573		1575		開城	興岩書院	宋浚吉	1702		1705		尙州
牛渚書院	趙憲	1648		1675		金浦	玉洞書院	黃象賢	1714		1789		萊州
深谷書院	趙光祖	1650		1650		龍仁	烈山書院	宋柳成	1605		1624		東萊州
龍開書院	李德馨	1691		1692		抱川	彰烈書院	金千舜	1613		1863		安東州
坡山書院	成守琛	1568		1650		坡州	忠烈書院	李致遠	宣祖時		1607		晉州
四大書院	宋昌集	1725		1726		廣州	武忠書院	崔厚命	1614		1723		忠武昌
老峯書院	吳斗寅	1785		1785		羅安	筆忠書院	金麟敬	1738		1738		居井邑
忠烈書院	金尙容	1642		1658		江華	彰烈書院	高朴彭	1590		1662		長城山
鷺顯書院	朴泰輔	1695		1697		議政府	忠烈書院	洪金應	1601		1603		光寧越
顯節書院	金權生	1688		1693		廣陽	聖廟書院	伯崇	1635		1699		化原州
紀功書院	尹集	1841		1841		高論	清大書院	申李	1650		1652		金鐵海
逐魯書院	尹慶業	1634		1660		餘州	鳳老書院	朴世福	1665		1668		平山
彰烈書院	林鳳祥	1717		1721		扶忠	三忠書院	李諸石	고려시대		1701		川山
忠烈書院	薛聰	1697		1727		清州	忠烈書院	宏弼	1691		1796		白川
表忠書院	岳修	1731		1736		慶州	溪金書院	李彥迪	1695		1696		長北
西紹書院	烏吉	1561		1623		榮善	道溪書院	李彥迪	1627		1687		青柔
紹金書院	鄭李	1543		1550		達咸	濫玉山書院	李彥迪	1603		1668		永平
道溪書院	李彥迪	1570		1575		月安	玉山書院	李彥迪	1693		1693		安壤州
濫玉山書院	李彥迪	1605		1607					1681		1682		州邊
玉山書院	李彥迪	1552		1566									
陶山書院	李彥迪	1573		1574									
		1574		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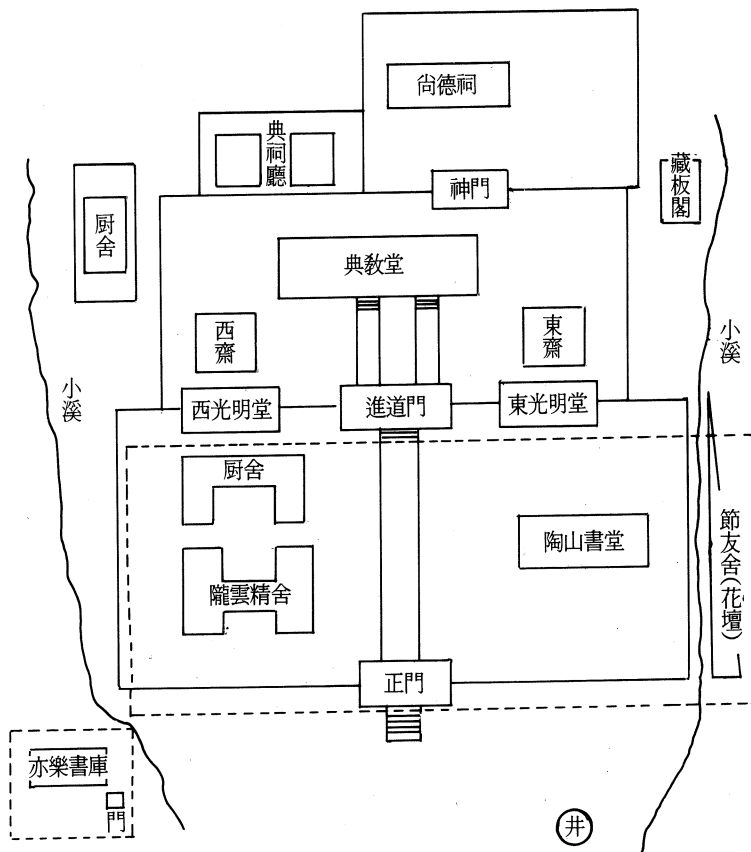
47개 전체의 약 19%에 해당된다.

서원의 건물규모는 적어도 30여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紹修書院은 祠廟와 동·서재를 합하여 30여간, 伊山書院은 32여간, 迎鳳書院이 50여간이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表 3-19〉

47서원 중 경북에 잔존한 서원

書院名	始建年代	賜額年代	所在地	主享者
紹修書院	中宗 癸卯(1543)	明宗 庚戌(1550)	豐基郡 順興面	安 裕 (珣)
西岳書院	明宗 辛酉(1561)	仁祖 癸亥(1623)	慶州市 西岳洞	薛 聰
金鳥書院	宣祖 庚午(1570)	宣祖 乙亥(1575)	善山郡 善山面 院洞	吉 再
玉山書院	宣祖 癸酉(1573)	宣祖 甲戌(1574)	月城郡 安康邑 玉山里	李 彦 迪
陶山書院	宣祖 甲戌(1574)	宣祖 乙亥(1575)	安東郡 陶山面 土溪洞	李 湜
道東書院	宣祖 乙巳(1605)	宣祖 丁未(1607)	達城郡 求智面 道東里	金 宏 弼
屏山書院	光海 癸丑(1613)	哲宗 癸亥(1863)	安東郡 豐川面 河回里	柳 成 龍
興巖書院	肅宗 壬午(1702)	肅宗 乙酉(1705)	尙州郡 內西面 蓮院洞	宋 浚 吉
玉洞書院	肅宗 甲午(1714)	正祖 乙酉(1789)	尙州郡 牟東面 壽峰里	黃 喜



〈圖 3-6〉

도산서원 배치도

있다. 서원의 배치도는 도산서원의 경우 廟宇아래 강당이 있고 강당 좌우에 양재가 대열하고 있는 參進式이며, 西岳書院은 사묘 아래에 강당이 있고, 강당 우편에 재가 있는 兩進式으로 일반 서원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외에도 單齋型의 서원, 紅門과 碑가 院宇내외에 있는 변형형 서원이 있다. 참고로 도산서원의 배치도를 보면 〈圖 3-6〉과 같다.⁵⁵⁾

55) 《慶尙北道史》上, p. 334.

서원은 藏書講學하였는데 도서관시설은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장서를 院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院內에 장서하였다. 玉山書院에는 866종의 4,115책이, 도산서원에는 1,271종의 4,917책이 兵火를 면하여 전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서원은 출판문화로서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원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서원에 배부하고, 홍문관이나 규장각에 납본하며, 문중의 학자와 인척간에 관련이 있는 집에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서원에서 開板한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⁵⁶⁾

〈表 3-20〉 서원별 개판 건수 통계표

所 在 地	書 院 名	開板件數 (冊板種類)	所 在 地	書 院 名	開板件數 (冊板種類)
京畿道開城	崧陽書院	1	慶尙道晉州	德川書院	1
〃	花谷書院	1	〃	新塘書院	2
忠清道清州	華陽書院	2	〃	大覺書院	2
〃	韓山文獻書院	3	〃	臨川書院	1
〃	林川七山書院	2	〃	道南書院	2
〃	報恩象賢書院	2	〃	興巖書院	2
〃	連山遜巖書院	3	〃	玉城書院	3
〃	尼城魯岡書院	2	〃	近巖書院	3
慶尙道慶州	西岳書院	2	〃	淵嶽書院	1
〃	玉山書院	6	〃	西山書院	5
〃	崇烈祠	1	〃	密陽林書院	2
〃	龜岡書院	8	〃	善金烏書院	3
〃	東江書院	1	〃	洛峰書院	5
〃	虎溪書院	2	〃	松山書院	1
〃	三溪書院	1	〃	東洛書院	4
〃	周鏡光書院	3	〃	永阜書院	1
〃	屏山書院	1	〃	道峯書院	3
〃	魯林書院	1	〃	環邱世德祠	1
〃	默溪精舍	3	〃	紫溪書院	4
〃	檜淵書院	4	〃	三峯書院	2
〃	柳溪書院	1	〃	迂溪書院	1
〃	晴川書院	1	〃	義山書院	1
〃	安峰影堂	1	〃	龜江山書院	1
〃	德巖書院	1	〃	西忠愍祠	1
〃	鄉祠宇	1	〃	芝峰書院	1

56) 《韓國史論》 8, p. 74.

所 在 地	書 院 名	開板件數 (冊板種類)	所 在 地	書 院 名	開板件數 (冊板種類)
慶 尙 道	豐 基 郁 陽 書 院	1	〃 長 城	筆 巖 書 院	1
〃	豐 基 遇 谷 書 院	1	〃 礪 山	竹 林 書 院	1
〃	義 城 藏 侍 書 院	4	〃 長 興	淵 谷 書 院	1
〃	禮 安 陶 山 書 院	17	〃 錦 山	徒 容 祠	1
〃	安 義 龍 門 書 院	3	〃 古 阜	道 溪 書 院	2
〃	山 清 西 溪 書 院	1	黃 海 道 海 州	紹 賢 書 院	5
〃	泗 川 龜 溪 書 院	1	〃 延 安	顯 忠 祠	1
〃	新 寧 龜 川 書 院	1	〃 平 山	九 峰 書 院	1
〃	統 制 營 忠 烈 祠	1	〃 〃	雲 峰 祠	1
全 羅 道 全 州	石 溪 書 院	1	咸 鏡 道 北 青	老 德 書 院	1
〃 羅 州	眉 川 書 院	1	〃 咸 鏡	彰 烈 祠	1
〃 綾 州	竹 樹 書 院	1	平 安 道 龍 崗	鰲 山 書 院	2
〃 光 州	褒 忠 祠	4	總 計		167
〃 順 天	玉 天 書 院	1			

※ 본표는 鑄板考(徐有渠編, 正祖 20年; 1796)에 의거해서 成大 李春熙교수가 作成한 表임.

위의 서원에서 刻板印出한 책의 내용은 문집이 10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기류로서 26종, 유교서적류 16종, 경서류 15종, 史書類 3종이나 되었다.

서원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원경제가 필요하였다. 토지, 노비, 현물 경제 등은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사액서원의 경우는 각 3결을 국가에서 지급하였던 것 같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에 토지와 寶米를 마련하였으며, 명종 2년(1547) 2월에는 백운동서원의 서원전이 30결에 달하였으며, 그후 감사의 充給으로 30결 이상의 서원전을 보유하였다. 이 서원전은 면세되었으며 각가지 방법을 통하여 서원전을 확대해 갔다. 노비도 지급하였으니 사액시에는 노비 1구씩을 하사하였으며, 매득, 출생, 기진, 상납 등을 통하여 명종대에 백운동서원은 노비 16구, 도산서원은 11구나 되었으며 효종때에는 사액서원에는 7구를, 비사액서원에는 5구, 鄉賢祠에는 2구를 주도록 법제화하였다.

서원경제는 토지나 노비외에 현물경제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즉 생활용품의 공여로서 백미, 醬油, 사기그릇, 개와, 목반, 도배지, 모필, 먹, 연료화목 등 다양하다. 서원의 교재는 4서5경을 원전으로 하여 小學·家禮를 중요시 하였다. 즉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근사록·춘추 등이었으며 이들 교재를 교수하는 方法으로는 講義란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

서원에 입학하는 자격은 생원·진사를 우선 받아들이고, 또는 初試 합격자를 入院시켰다. 비록 未入格者라도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斯文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입학이 가능하였다. 특히 관

권의 개입으로 서원의 자율성의 침해를 막고자 하였다. 재생수는 사액서원은 20명, 문묘종사 유현서원은 30명(20명으로 삭감), 미사택서원은 15명으로 하였으나 법제적정원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大邱의 書院과 士林의 成長

1) 대구의 서원

조선시대에 설립된 서원 중 경상도지방에 설립된 것은 모두 240여개이며, 그 중 경북지방에 설립된 서원은 100여개나 되었다. 경북지방에 설립된 서원 중 선조대까지 설립된 것을 府誌나 邑誌, 또는 《增補文獻備考》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두 29개소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21〉 선조때까지 설립된 경북지역의 서원일람

市郡	書院名	創建年代	賜額年代	享祀人物
大丘	研經書院	明宗 甲子(1564)	顯宗 庚子(1660)	李滉·鄭述·鄭經世
慶州	四岳書院	明宗 辛酉(1561)	仁祖 癸亥(1623)	薛聰·金庚信·崔致遠
〃	玉山書院	宣祖 癸酉(1573)	宣祖 甲戌(1574)	李彥迪
安東	虎癸溪院	宣祖 丙子(1576)	肅宗 丙辰(1676)	李滉·金誠一
〃	三溪書院	宣祖 戊子(1588)	顯宗 庚子(1660)	權撥
〃	鏡光書院	宣祖 戊辰(1568)		裴尙志·李宗準·權宇·張興孝
〃	盧江書院	宣祖 乙亥(1575)		李滉
星州	川谷書院 ⁵⁷⁾	中宗 戊子(1528)	宣祖 癸酉(1571) 丁未 重賜額	黃俊良·李兆年·李仁復·金宏弼·鄭述·張顯光
尙州	道溪書院	宣祖 丙午(1606)	肅宗 丁巳(1677)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彥迪·李滉·守愼·柳成龍
善山	金烏書院	宣祖 庚午(1570)	宣祖 乙亥(1575)	吉再·金宗直·鄭鵬·朴英·張顯光
永川	臨臯書院	明宗 乙卯(1555)	宣祖 癸卯(1603)	鄭夢周·皇甫 仁·張顯光
榮川	伊山書院	宣祖 癸酉(1573)	宣祖 甲戌(1574)	李滉
〃	迂溪書院	宣祖 庚午(1570)		李彥迪·趙綱
順興	紹修書院	中宗 癸卯(1543)	明宗 庚戌(1550)	安裕·安軸·安輔·周世鵬
清道	紫溪書院	宣祖 戊寅(1578)	顯宗 辛丑(1661)	金克一·金駟孫·金大有
〃	仙巖書院	宣祖 戊辰(1568)		金大有·朴河淡
寧海	丹山書院	宣祖 乙卯(1608)		禹悼·李穀·李穡
仁同	吳山書院	宣祖 甲戌(1574)	光海 己酉(1609)	吉再
玄風	道東書院	宣祖 乙巳(1605)	宣祖 丁未(1607)	金宏弼·鄭述
慶山	孤山書院 ⁵⁸⁾	宣祖 癸酉(1573)		李滉·鄭經世
義城	氷溪書院	明宗 丙辰(1556)	宣祖 丙子(1576)	金安國·李彥迪·柳成龍·金誠一·張顯光

57) 《星州府邑誌》에는 川谷書院의 창건연대가 명종 戊午年(1558)으로 기록되어 있음.

58) 《增補文獻備考》學校考 12, 慶山條에는 孤山書院의 창건연대가 숙종 甲戌年(1694)으로 기록되어 있음.

市郡	書院名	創建年代	賜額年代	享祀人物
禮安	鎮民祠	中宗 丁丑(1517)	肅宗 甲子(1684)	金龍庇
	易東書院	宣祖 戊辰(1568)		禹倬·朴忠佐
禮安	陶山書院	宣祖 甲戌(1574)	宣祖 乙亥(1575)	李滉·趙穆
	陶南書院	宣祖 甲戌(1574)		趙穆
盈德	南江書院	宣祖 乙巳(1605)	光海 癸丑(1618)	李彥迪·李滉
延日	烏川書院	宣祖 戊子(1588)		曺鄭令明·鄭夢周
興海	曲江書院	宣祖 丁未(1607)	肅宗 庚午(1690)	李彥迪·趙綱
眞寶	鳳覽書院	宣祖 壬寅(1602)		李滉
奉化	文巖書院	宣祖 甲辰(1604)	肅宗 甲戌(1694)	李滉·趙穆

위의 표에서 보면 선조대까지 설립된 서원은 29개, 그중 선조연간에 설립된 것은 22개며, 이 중 賜額을 받은 것은 20개, 未詳이 10개나 된다. 이제 대구의 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研經書院(명종 18년 ; 1563, 창건)

대구에 설립된 최초의 서원은 연경서원이다. 이 서원은 명종 18년(1563)에 창건되었다. 연경서원은 李滉의 문인인 李叔樑이 연경동 畫巖下에 서당을 세워 강학하던 곳을 대구의 유생들의 열망에 따라 대구부사 朴應川의 후원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시켜 마침내 명종 19년(1564) 3월에 착공하여 익년 명종 20년(1565) 10월에 준공하였다. 이숙량의 연경서원기에 의하면 嘉靖癸亥年(명종 18년) 여름에 독서 유생이 향교에 많이 모여 講學綴文하는 여가에 서로 奪臂歎息하여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전에는 서원이 없었는데 周世鵬이 白雲洞書院을 創立하여 문화의 진작과 인재의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모방하여 서원은 계속 흥기하여 海州의 文憲, 星州의 迎鳳, 永川의 臨臯, 경주의 西岳書院을 비롯 대소주현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가면서 서로 흠모하여 서원을 널리 설립하였으며, 그 기구와 제도 또한 정비되어 갔다. 이는 대체로 수령과 향중인사 및 유생의 상호 협동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향촌 大丘는 한 도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의관의 자손이 적은 것도 아닌데, 人私其身하고 士私其學하여 弓馬의 末技에 따르기를 좋아하고, 학문에는 힘쓰지 아니하니, 어찌 그 사이에 豪傑之才와 奇偉之人이 없는가? 능히 그 중에서 분발할자가 없겠는가? 이로 인하여 풍속이 차이가 없고, 인심은 날이갈 수록 투박해지니 이 어찌 우리고장 대구의 일대수치가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국가의 불행한 일이다. 지나간 일은 후회 막급하나 장래에 할 일은 勉勵할 수 있다. 지금 聖主를 받든데다가 또한 현명한 수령을 만났으니 실로 향풍을 혁신할 기회이다. 선비의 거처할 곳이 서원이 아니고 무엇이 따로 있겠는가’ 하면서 府使를 뵈고져 서원 건립의 뜻을 여쭙었다. 그때 부사는 朴應

川이었다. 그는 유생들의 향학열을 가상히 여겨 서원건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고 다음날에는 향중의 老父들을 鄉射堂에 집합시켜 그 뜻을 고하니 모두 찬성하였다. 이에 주관하는 사람을 정하고 경비 예산을 작성하여 인원등 빈부에 따라 자기 역량대로 돈이나 穀物을 거두고, 노력동원도 능력대로 책정하니 몇일이 되지 않아서 모든 건축비가 준비되었다. 이에 건립할 대지의 선정에 나서 마침내 本府里에서 20리 떨어진 研經洞에 건립하였던 것이다.

이 주위는 산수가 아름답고 암석과 수목의 勝景이 좋은 곳이다. 甲子(명종 19년) 3월에 상량하고 그 이듬해 10월에 준공하니 대개 건물이 40여간으로 正堂인 仁智堂을 비롯하여 왼쪽에 收方齋, 오른쪽에 警隋齋가 있고, 東齋는 輔仁이고 西齋는 時習이며, 長廊 가는데 招賢門이 있고, 그 문 서쪽에 童蒙齋가 있고 그 동쪽에 涼軒二間이 있었는데 이것이 養正이며, 그 서쪽에 溫房 3간이 있었는데 幼學齋이다. 厨房은 동편에 두고 4면이 담으로 둘러 쌓였다. 이상의 주의 건물을 연경서원이라 한다. 이처럼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제반비품이 미비되었으므로 다시 향중 유지들에게 移文通諭하여 각기 능력에 따라 盤盂器皿을 내도록 하고, 전곡서책 등을 희사받았으니 이는 한 고을의 동심협력한 결과이며 향중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염원에 힘입은 바 컸지만 또한 전후부사의 노력이 다대하였다. 전직 부사였던 박응천이 재목과 陶瓦를 비롯하여 土田·노비·養士廩祿과 書油鹽醬에 이르기까지 살피다가 준공전에 전임되고, 후임으로 朴承侃이 전임부사의 뜻을 이어받고, 향인들이 본인(李叔樑)으로 하여금 시종 서원건립을 주관하게 하였고, 이 서원기를 본인으로 하여금 退溪先生에게 받도록 하였으나 병환으로 사양하지 자신이 지었다고 하였다. 〈書院記後跋〉은 퇴계가 썼는데 그는 그의 발문에서 본서원 건립에는 李叔樑의 노력이 다대하였음과 대구의 향중 노부, 제생들이 협심단합하였음을 찬양하고, 일찌기 10개의 書院詩(전국대표적 서원)을 지은 적이 있는데 연경서원의 것이 그 중의 하나라 하였다.

이처럼 연경서원은 조그만한 촌락의 서당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대구부 전체 학생들의 강학독서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이 서원에는 임란후에 퇴계를 主享으로 하여 寒岡 鄭述와 愚伏 鄭經世를 配享하고 현종원년(1660)에는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았다. 이 연경서원은 대구부에 설립된 최초의 서원인 동시에 사액서원으로서도 대구부에서 효시였다. 그러나 大院君의 辛未(1871) 서원철폐령으로 철회되었다. 조선후기에 세워진 대구의 서원 및 祠宇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⁹⁾

59) 大邱直轄市, 《大邱의 禮樂》, 1988, pp. 167~168.

〈表 3-22〉

대구지역의 서원과 사

名 稱	位 置 (舊 地 名) (現 地 名)	建 立 年 代	享 祀 人 物
研經書院	府北 20里 畫岩下 大邱直轄市 北區 研經洞	明宗 18年(1563)	李 滉(主) 鄭 述·鄭經世(配)
表 忠 祠	府北 20里 智妙 王山下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	顯宗 11年(1670)	申崇謙(主) 金 樂(配)
洛濱書院	府西 40里 鈔洞 達城郡 下濱面 鈔洞	顯宗 15年(1674)	朴彭年 등 死六身(并)
伊江書院	府西 20里 伊川下 洛江上 達城郡 多斯面 伊川洞	仁祖 14年(1636)	徐思遠(獨)
龜巖書院	府西 3里 南山下 大邱直轄市 中區 東山洞	顯宗 6年(1665)	徐 沈·徐居正·徐해·徐省 (并)
南崗書院	府北 70里 豐角縣 南山下 清道郡 角北面 南山洞	肅宗 17年(1691)	朴漢柱(主)朴壽春(配)
青湖書院	府東 20里 守東面 大邱直轄市 壽城區 黃金洞	肅宗 20年(1694)	孫處訥(主)柳時潘(配) 孫肇瑞·鄭好仁(追)
百源書院	府北 40里 大邱直轄市 東區 道洞	肅宗 18年(1692)	徐時立(獨)
尙 德 祠	府東門外 大邱直轄市 中區 東門洞	肅宗 8年(1682)	李今·俞拓基·金義淳·李存秀 (并)
德洞書院	府南 20里 月背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上仁洞	肅宗 34年(1708)	禹拜善(獨)
西山書院	府北 10里 東中面 大邱直轄市 北區 檢丹洞	純祖 24年(1824)	蔡貴河·蔡應麟 蔡先修·蔡光見(并)
西溪書院	府北 10里 東下面 大邱直轄市 北區 山格洞	?	李文和·李予(并)
玉溪書院	府南 30里 達城郡 嘉昌面 大逸洞	正祖 22年(1798)	徐鈞衡(主)徐朴(配)
梧川書院	府北 20里 上守西 大邱直轄市 壽城區 巴洞	英祖 20年(1744)	楊熙止(獨)
清白書院	府北 40里 解北村 大邱直轄市 東區 百安洞	肅宗 27年(1701)	李 榮·鄭守忠(并)
琴巖書院	府北 40里 河南 達城郡 多斯面 梅谷洞	英祖 40年(1764)	鄭師哲·鄭光天(并)
柳湖書院	府北 20里 解西村 大邱直轄市 東區 不老洞	正祖 8年(1784)	郭再謙(獨)
龍湖書院	部北 20里 河東 達城郡 多斯面 鋤齋洞	肅宗 34年(1708)	都聖俞·都汝俞·都慎修(并)

名 稱	位 置 (舊 地 名) (現 地 名)	建 立 年 代	享 祀 人 物
屏巖書院	府西 30里 城西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龍山洞	英祖 40年(1764)	都應俞·都慶俞(并)
鳳 巖 祠	府南 10里 下守西 大邱直轄市 壽城區 上洞	正祖 23年(1799)	孫 린(獨)
平 川 祠	府北 20里 解西村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	正祖 1年(1777)	崔 認·崔 誠·崔東輔(并)
鹿洞書院	府北 40里 上字南 達城郡 嘉昌面 蛛洞	正祖 15年(1791)	金忠善(獨)
龍岡書院	府西 30里 城西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龍山洞	肅宗 22年(1696)	許得良·許復良(并)

(備考) 主: 主享, 并: 并享 혹은 合享, 獨: 獨享

2) 대구사람의 성장

조선왕조는 유교적 양반관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임용제도를 더욱 확립시켰다. 광종 9년(958)에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제도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면목을 더욱 일신하였다. 조선의 양반들은 관직에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삶의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육은 과업위주의 교육이 중요시되었으며, 교육은 과거의 영향을 크게 받게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小科(司馬試)·大科(文科)·武科·雜科 4종류가 있었으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보는 式年試와 수시로 보는 부정기시인 增廣試·別試·庭試·謁聖試·春塘臺試 등의 특별 시험이 있었다. 小科(사마시: 生進試)는 경술로 보는 生員科(明經科)와 문예·사장으로 보는 進士科(製述科)가 있었으며 이 소과는 초시·복시 두 단계로 나누어졌으며 소과에 합격하면 白牌를 주었다. 소과에 합격하면 하급관리로 나갈 수 있었으며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소과 초시의 시취액수(인원수)를 《經國大典》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⁰⁾

〈表 3-23〉 생원초시의 시취액수

道別 時期	漢城府	京畿道	慶尙道	忠清道	全羅道	江原道	黃海道	平安道	咸鏡道	計
世 宗 元 年	200人		80人	60人	60人	30人	30人	30人	30人	520人
世 宗 8 年	200		100	75	75	30	30	40	30	580
經 國 大 典	200	60인	100	90	90	45	35	45	35	700

60) 《經國大典》禮典, 諸科條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表 3-24〉 진사초시의 시취액수

時期 \ 道別	漢城府	京畿道	慶尙道	忠清道	全羅道	江原道	黃海道	平安道	咸鏡道	計
端宗元年	200人	70人	100人	75人	75人	45人	45人	60人	45人	715人
經國大典	200	60	100	90	90	45	35	45	35	700

위의 표에서 보면 漢城을 제외한 다른 도에 비하여 경상도지방이 많게는 65명, 적게는 10명이나 많음을 알 수 있다.

大科(文科)는 초시·복시·전시 3단계가 있으며, 초시에서 340명(뒤에 223명)을 선발하였고, 복시에서 33인을 선발하였다. 마지막 전시에서는 33인에 대한 등급 결정을 국왕이 친림하여 하는데 甲科 3인, 乙科 7인, 丙科 23인을 등급 결정하는데 甲科 1등을 壯元, 차석 합격자를 榜眼, 3등을 探花라 하고 합격자에겐 紅牌을 주었다. 文科에 합격하면 文官으로 나갈 자격을 주었는데 문과 초시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¹⁾

〈表 3-25〉 식년문과 초시의 시취액수

지역 \ 시기	館試	漢城試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계
태종 17년	50인	40	(20)	10	10	20	30	20	10	10	200
경국대전	50	40	20	15	10	25	30	25	15	10	240
속대전	50	40	(20)	15	10	25	30	25	15	12	222 (242)

위의 표에서 보면 경상도지방의 선발인원이 성균관시와 한성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10~20여명이 많다.

武科는 소과·대과의 구별이 없고 초시·복시·전시 3단계를 겪었으며, 200인을 선발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28인의 등급을 결정하고 이들에게도 홍패를 주었다.

雜科는 의과·譯科·음양과·율과 등 4종이 있으며 모두 초시·복시 2단계를 겪었다. 이들 잡과에 합격하면 백패를 주며 이들은 기술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조선시대에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과거외에도 천거와 門蔭이 있었다. 천거는 학행과 덕망이 있는 자를 지방관이나 중앙의 고위층에서 추천에 의한 것이며, 문음은 유공한 사람의 자손이나 궁정의 친척 등으로 특별히 관직을 주었던 것으로 음직은 2품이상의 자제에 한하

61) 앞과 같음.

였다. 이러한 문음은 조선 후기에 과거가 문란하였을 때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시대는 양반관료사회였기 때문에 士族이라도 大小科에 응시할 자격 제한을 두어 양반들의 지위와 정통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良人이상의 자제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조선시대에 실시된 과거회수와 입격인원을 文科(小科·大科)와 雜科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26〉 문과·사마시의 실행

구 분		과종 회수·인원	文 科		司 馬 試 (生 進 試)	
			回 數	人 員	回 數	人 員
式 年 試			163	6,063	162	34,159
別 試	增 廣 試		68	2,713	67	13,589
	各 別 試		523	5,844	—	—
계			744	14,620	229	47,748

國會圖書館, 《國朝榜目》, 1971, p. 8.

〈表 3-27〉 잡과 실행

구 분		과종 회수·인원	譯 科		醫 科		雲 科		律 科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식 년 시			110	1,802	110	967	65	534	84	446
증 광 시			59	1,135	54	556	31	297	36	169 (94미상)
계			169	2,937	164	1,523	96	831	120	70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 1990, pp. 15~19.

※ 역과는 1498~1891, 의과는 1498~1894, 운과는 1513~1885, 율과는 1609~1861년까지의 시기에 한 한 것임.

《대구부지》에 수록되어 있는 과거 입격자 중 선조때까지 입격한 사람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28〉 대구부지에 수록된 과거 입격자(선조때까지)

科別	時代	合 格 者 姓 名						계
		徐 氏	裴氏	蔡氏	全氏	李氏	其 他	
小科 (生進科)	世宗	徐居正, 徐坎元 徐鎭元		蔡禧		李世輔	都夏, 崔孟淵	7名
	世祖		裴 著 裴 縉	蔡胤周			楊稀枝(熙止) 柳止	5名
	成宗	徐濟	裴士溫 裴益臣			李時榮	楊拜善, 殷佐, 柳淙	7名
	中宗		裴世寧		全胤昌	李希曾		3名
	明宗	徐 湜, 徐時雄 徐 炯		蔡應麟 蔡應昌	全慶昌 全應昌		朱信言	8名
	宣祖				全春年	李閔文 李宗文	鄭師哲, 崔伏龍	5名
	계	7	5	4	4	5	10	35名
大科 (文科)	太宗						白仁寬, 卞季良	2名
	世宗	徐居正		蔡倫			朴翊, 鄭守忠	84名
	世祖 成宗	徐 渡 徐 涉				李末興	都夏, 賓大期, 郭汾 宋軼, 楊熙止, 朴漢柱	9名
	明宗 宣祖	徐仁元	裴益臣	蔡楸	全應昌	李 羽 李元香 李壽千 李之英 李之華	洪纘元 石之珩, 林蘭 盧盖邦, 孫遜	14名
	계	4	1	2	1	6	15	29
合 計		11	6	6	5	11	25	64

《大邱市史》 권 1, 1973, p. 204.

다음의 표에서 보면 총 64명중 소과입격자가 35명, 대과 입격자 29명으로 소과가 많으며, 시대별로는 64명중 명종 선조때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세조·성종때가 21명, 세종때가 11명이다. 이를 성씨별로 보면 徐氏·李氏가 각 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裴氏·蔡氏가 각 6명이다. 武科出身은 全伯英의 후손인 全由性(군수), 全益(병참), 全璉(병판), 全琛(현감), 명종때 北兵使를 지낸 李榮 등이 있다. 위의 문과 입격자 중 《國朝榜目》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表 3-29〉 대구지역의 문과 입격자 일람 (선조때까지)

市 · 郡	登 第 者 名	時 代	年 榜	科 種	歷 官
大 丘	郭 德 淵 蔡 居 正	太 祖 世 宗 世 宗 世 宗 世 宗	丙 子	進 士	掌 令 獻 納
			庚 子	進 士	判 圖 判 書
			甲 子	乙 科	左 贊 成
			丁 丑 重 試	丙 乙 科	甲 子 式
			丙 戊 拔 英 試	乙 甲 科	甲 子 式 禮 參
	鄭 守 忠 朴 漢 柱 裴 益 臣 全 應 昌 全 慶 昌 孫 昌 린	世 宗 成 宗 成 宗 宣 祖 宣 祖 宣 祖	登 俊 試	甲 科	甲 子 式 三 科
			庚 午 秋 場	丁 科	判 中 樞
			乙 巳 別 試	甲 科	都 承 旨
			壬 子 別 試	乙 科	府 使
			壬 申 親 試	丙 科	忠 清 都 事
			癸 酉 式 年	丙 科	獻 納
			丙 午	〃	縣 監

대구지역의 과거 입격자는 조선 전기 대구의 문풍을 진작시키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초의 문운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鮮初의 權近의 문도중에는 세종초에 중앙의 학계에서 명성을 떨친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 천인인 趙庸이 나와 약 20년간 성균관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그의 문하에서 尹祥이 나와 한때 大丘郡守를 역임한 바 있고, 권근의 문하에서 나온 卞季良은 밀양출신으로 대구에 자주 왕래하였다. 그후 徐居正은 대구 출신으로 권근의 외손인 동시에 그의 학통을 이어받아 세조조로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文衡으로 당대를 풍미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대구의 문풍을 발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성종조의 楊熙止는 주로 대구에 우거하면서 대구의 문화 발전에 일차하였을 것이며, 그의 후예도 줄곧 대구에 世居하였다.

그러나 선초에는 대구가 현에 불과하였고 文教도 미미하였던 것 같다. 서거정은 《四佳集》 권 12, 〈送都壯元夏還鄉詩序〉에서

나의 고향 대구는 경상도의 巨邑이다. 그 산천의 수려한 기상이 의당히 영재를 산출할것이어늘 어찌 수십년 이래로 문헌이 凋謝하고 그 습속이 儉陋하여 한 사람의 문인 才士도 나오지 않는나, 저으기 한탄해 마지 않는 것은 내 고향 대구는 한 도를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또 주민과 물산이 번성하여 다른 荒遠한 지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대구의 土風이 그렇다기 보다는 그 중에 특출한 인물이 나와 諸生을 위해 계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출신으로 내가 요행히 급제한 것이 15년이 경과하였고, 그후는 한번도 대구에 발을 디딘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 都夏가 소과에 급제하였고 다시 謁聖試에서 장원을 하여 成均注簿가 되었다가 司諫院正言에 승진되었으니 이는 내 고향의 大幸한 일이다.《大丘邑誌》題詠 〈送徐四佳兄弟榮親歸達城〉)

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구의 문풍은 미진하였던 것 같으며, 따라서 士林도 침체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서거정이 권근의 외손으로 세종 20년(1438) 生員·進士 양과에 합격하고 동왕 26년(1444)에는 文科 제3인에 합격한 후 세조와 성종조를 통하여 그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형제가 중앙에서 형은 金吾가, 동생은 玉堂(弘文館)이 되었다(《大丘邑誌》題詠〈送徐四佳兄弟榮親歸達城〉). 이처럼 서거정 형제의 관로진출은 대구지방의 士林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四佳集》권 13, 〈送楊修撰詩序〉에서

國朝人才가 영남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내고향 대구도 또한 巨邑이다.……甲子년에 내가 요행히 급제한 후 15년만인 세조 4년(1458)에 대구출신 都夏가 장원급제하였다. 이때 내가 도하에게 당부하기를 ‘내고향 대구는 한 도의 중추지에 위치하면서도 士林이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솔선계도하는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고향에 내려가서 諸生을 고무하는 동시에 고향의 모범이 되라’고 하였더니 과연 그후 10여년간에 대구의 士林가운데 진사·생원과에 합격한 자가 속출하였다.

고 한 것을 보면 서거정과 都夏이후 대구의 문풍이 진작되고 이곳 士林들이 성장하여 중앙 관료계에 진출하였으며, 그 시기는 세종이후로 보여진다. 대구출신은 아니지만 대구에 우거하던 楊熙止의 공도 간과할 수 없다. 위의 자료중에서 ‘前日에는 都夏가 내고향을 교화하더니 지금은 양희지가 다시 그의 뒤를 이었으며, 내가 비록 不才하나 文柄을 쥐고 있으니 이때야 말로 내고향 대구가 鄒魯之鄉이 될수있는 기회이다’라고 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하여 준다. 성종이전에 향교교육을 통하여 大小科에 진출한 사람 중 전백영(판서), 白仁寬(판서), 변계량(대제학), 朴翊(좌의정), 정수충(좌찬성), 서거정(좌찬성), 도하(정언), 송질(영의정), 양희지(대사헌), 全璉(판서)등 대구출신 내지 대구에 우거하는 인사들의 노력이 대구의 학풍과 士林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성종이후는 사학의 발흥, 성리학의 발달과 영남학파가 확립되면서 대구의 士林들도 더욱 성장하여 갔다. 金宗直은 영남사림의 영추로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가 함양·선산 등지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영남지방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金宏弼, 정여창을 비롯하여 曹偉(金山人), 金駟孫(청도인), 金孟性(성주인), 俞好仁(함양인), 表沿末(함양인), 康伯珍(선산인), 李宗準(안동인), 郭承華(현풍인), 朴漢柱(대구인) 등 영남출신의 고제들이 배출하여 중앙 관계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영남사림의 중앙 관로 진출은 훈구파와의 반목 대립을 가져와 연산군조의 두차례에 걸친 土禍로 영남사림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낙향하여 학문을

하면서 후진의 양성에 힘썼다. 김종직의 문인중 朴漢柱는 자가 天支, 호는 迂拙齋로 일찌기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연산군때 獻納으로 있으면서 任士洪 등의 奸詐를 극간하였고 무오사화때는 김종직의 문도라는 이유로 碧潼에 유배되었다가 甲子土禍때 피해를 입었으나 종종때 伸冤되어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당시 金淨(홍문관부제학), 조광조(홍문관응교), 李靖(교리), 金絿(副校), 奇遵(부수찬) 등 기묘명현들은 박한주의 追崇을 주청하면서 ‘박한주는 天資가 穎悟하여 소년시절부터 큰 뜻이 있어 성현을 모방하고 독신역행하고 博文強記하였다. 그의 학문의 고명함과 凜然한 충열은 실로 후년의 師表가 된다’고 하였다. 金安國도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小學을 권려하고 유생의 교육에 힘써 지방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대구나 경상북도 지역의 수령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대구의 사림은 성장하여 갔다. 朴壽昌, 申儼, 李賢輔, 朴崇質 등은 그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성종조 이후 대구주변의 각 지역에서 김종직(밀양), 김굉필(현풍), 정여창(함양), 이황(예안), 조식(三嘉) 등의 대학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구출신의 유생들이 각기 연고대로 樞衣受學하게 되었다. 퇴계의 문도인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나온 孫處訥, 徐思遠, 鄭師哲, 郭再謙, 柳堯臣, 蔡夢硯 등은 대구출신의 학자였으며 퇴계의 문인으로 예안에서 대구로 이거한 李叔樸 및 대구부의 巴峇에 거주하면서 仕官과 후진양성을 겸한 全慶全 등의 노력으로 대구의 문풍이 진작되고 士林이 더욱 성장하여 갔다.

第3節 佛教의 衰退와 民間信仰

I. 朝鮮初期의 抑佛策과 寺院의 整備

朝鮮王朝를 건국한 주체세력은 성리학을 지배체제를 이끌어 가는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억불책을 펴게 되었다. 고려왕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발달하였던 불교는 이제 왕조의 교체로 인하여 불교계는 이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鄭道傳 등은 仁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왕도정치를 하는 이른바 이상적인 유교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세종조에 集賢殿을 중심으로 한 儒臣들은 유교적 의예를 갖추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방대한 편찬사업을 이룩함으로써 유교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갔다. 五禮의 정비, 삼강행실, 효행록의 간행·보급, 朱子家禮의 준행, 왕권과 신권의 균형 등을 가져와 유교정치의 이상적 정치형태를 이루어 갔다. 이에 따라 불교에 대한 배척과 제한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태조를

비롯한 태종이나 세종, 세조들이 모두 처음부터 불교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태조와의 여러 왕들이 불교를 믿은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였던 것이지 정치의 이념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가 불교를 배척한 것은 여말의 지나친 사원경제의 팽창과 부패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함에 따라 불교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역이 면제되고, 면제되었던 사원의 승려나 寺社奴婢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비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초부터 사찰에 대한 정비작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태조는 無學(自超)을 왕사로 삼고 祖丘를 국사로 삼았으며, 건국초에 演福寺塔과 해인사의 古塔을 중수하고 대장경을 印出하는 등의 불사를 일으켰지만, 常任僧 100명 이상되는 곳 이외의 사찰은 전지를 몰수하여 軍資에 영속하였고, 승려가 되는 사람은 양반자제면 布 100필, 서인이면 150필, 천인이면 200필을 관에 납부하여야 도첩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⁶²⁾ 사찰의 영조나 불서의 간행을 위하여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종은 寺社田民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이 당시 불교가 개인의 구복적 색채가 강하였고 토착적 도참신앙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신라말의 道誑의 密記가 중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때문에 密記附 70寺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외의 사찰전민은 모두 속공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6년(1406)에는 의정부의 啓請에 따라 신구도읍지 5敎兩宗 각 1寺에는 속전 200결과 노비 100구, 나머지 각 사찰은 속전 100결, 노비 50구, 각 도의 界首官 관하의 禪敎各寺는 속전 100결, 노비 50구를 인정하고 각 읍내의 資福寺에는 전 20결, 노비 10구, 읍외의 각사에는 전 60결, 노비 30구로 제한하도록 하여 전국의 242寺社를 제외하고는 폐사기로 하고 그 전민을 屬公기로 하였다.⁶³⁾ 당시 정비한 사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曹溪宗·摠南宗	合留 70 寺
天台宗·疏子·法事宗	〃 43 寺
華嚴·道門宗	〃 43 寺
慈恩宗	留 36 寺
中道·神印宗	合留 30 寺
南山宗	留 10 寺
始興宗	〃 10 寺
	도합 242寺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1, 1981, pp. 150~152.

63) 《慶尙北道史》上, pp. 863~864.

이상의 242寺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密記附 70寺와 踏山記附 사찰은 포함되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7년(1407)에는 242寺외에 별도로 88寺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 88寺의 분포를 종파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30〉 각도별 88寺 분포 현황

종 파	도 별 사찰수		경기	함경	평안	황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曹 溪 宗	24寺		3	·	·	·	·	2	2	·	5	7	5
天 台 宗	17寺		3	·	·	1	·	2	2	2	3	3	1
華 嚴 宗	11寺		1	1	·	·	2	1	·	·	2	2	2
慈 恩 宗	17寺		5	·	·	1	·	·	2	·	2	2	5
中 神 宗	8寺		·	1	·	1	·	1	1	1	1	1	1
摠 南 宗	8寺		1	·	·	1	2	·	·	·	3	1	·
始 興 宗	3寺		1	·	·	1	·	·	·	·	1	·	·
計	88寺		14	2	0	5	4	6	7	3	17	16	14

위의 표에서 보면 경상도가 30寺로 가장 많은데 그 중 경북이 16寺, 경남이 14寺이며, 다음이 전라도 20寺, 경기도 14寺, 충청도 13寺, 강원이북이 11寺이나, 평안도는 전무하다. 경상도의 30寺 중 경북지역에 있는 사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31〉 88寺 중 경북지역에 있는 사찰

宗 派	寺 刹 名	所 在 地	現 在 市 郡
曹 溪 宗	雙 巖 寺	松 生	靑 松 郡
	水 鼎 寺	義 城	義 城 郡
	麟 覺 寺	永 川	永 川 郡
	法 角 寺	義 興	永 軍 郡
	淨 住 寺	軍 威	軍 威 郡
	嘉 林 寺	基 威	榮 豐 郡
	漆 林 寺	仁 同	漆 谷 郡
天 台 宗	雨 長 寺	寧 海	盈 德 郡
	龍 泉 寺	大 丘	大 邱 市
華 嚴 宗	眞 興 寺	金 山	金 陵 郡
	七 葉 寺	清 道	清 道 郡
慈 恩 宗	功 德 寺	新 寧	清 永 郡
	獅 子 寺	開 寧	金 陵 郡
中 神 宗	原 興 寺	善 州	金 善 郡
	太 子 寺	奉 化	奉 化 郡
摠 南 宗	天 王 寺	雜 林	慶 州 郡
始興宗은 없음.			

이 당시 경북도내의 사찰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사찰수는 약 170여개소인데 실제 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제 식민지시대인 1911년에 내려진 寺刹令으로 전국에는 引本山에 1401개사가 있었는데 이 引本山の 도별 통계를 보면 경북과 전남이 각 5, 경기도 4, 경남과 강원도가 각 3, 전북·황해·평남·함남이 각 2, 충남·북과 평북이 1로서 경북과 전남이 가장 많다.

경북의 5개본산은 桐華寺(대구), 銀海寺(영천), 孤雲寺(의성), 金龍寺(문경), 祇林寺(경주)인데 이를 앞의 88寺의 경상도세와 종합해 보면 이 고장의 불교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 대한 정리는 세종조에도 계속되었다. 세종은 好學의 군주로서 스스로 佛信이 두터웠으나 유교적 관료들의 억불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불교 내부의 잇단 비행이 일어나고 旱災로 인한 凶荒이 거듭되어 민생이 어려워지고 軍資가 위험이 따르게 되자 司憲府에서 寺社 田民의 폐단을 지적하게 되었다. 세종 5년(1423)에 전국에서 流移民이 많이 발생하여 전라도를 6,000여명의 유이민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 충청도에서 2,500여명, 경상도에서 1,500여명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동왕 6년(1424) 4월에는 불교 7宗을 선·교 양종으로 대정비를 단행하였다. 이때 曹溪·天台·攄南의 3宗을 합하여 禪宗으로, 華嚴·慈恩·中神·始興의 4宗은 教宗으로 하고, 중외의 사찰 중 승려가 거처할 수 있는 것을 택하여 36寺를 정하였다. 이 36寺는 각기 18寺를 양종에 속하게 하여 전지와 居僧의 수를 정하고 僧錄司를 폐지하여 興天寺를 선종의 都會所로 興德寺를 교종의 도회소로 삼아 각 宗의 行首를 정하여 僧中의 모든 일을 감독하도록 하였다.⁶⁴⁾ 이 36寺는 각 지방의 본사를 말한다. 이 36寺의 분포를 도별로 보면, 興天寺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 각 사찰은 경기도가 8寺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도·전라도·강원도가 각 2寺, 충청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가 각 1寺이며, 興德寺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각 사찰은 경기도가 7寺로 가장 많고, 경상도·전라도·황해도가 각 2寺, 충청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가 각 1寺이다. 이것을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면 선종은 진주의 斷谷寺, 경주의 지림사, 교종은 거제의 見巖寺, 합천의 海印寺였다. 전국의 36寺 중 경상도 소재 本寺는 祇林寺뿐이었다. 이때 분급된 지림사의 전결수를 보면 전지 150결(加給田 50결 포함), 恒居 승려수는 70명이었다. 경상도 소재 각 본사의 전결 및 승려수를 비교해 보면 海印寺 200결, 恒居僧 100명으로 진주의 단곡사와 같고, 거제의 전암사는 경주의 지림사와 같다. 이는 선초의 승려 1명에 전지 2결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하였던 것과 같다.

그러나 세종말에는 억불과는 달리 好佛의 태도로 변하여 昭憲王妃 사후에는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내에 內佛堂을 신축함으로써 불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불사를

64) 앞의 책, p. 866.

일으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염출하고자 세종 5년(1423)부터는 승려에게까지 공납청부권을 부여하여 많은 이득을 축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津寬寺가 水陸寺로 지정되면서 중수공사를 할 때 典農寺에서 쌀 400석, 면포 200필을 자본금으로 지급하여 각 주현의 공납을 청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특히 문종때는 津寬寺의 幹事僧이 경상도의 貢布를 수송하는 수송권까지 청부받아 징수함으로써 크게 이득을 보기도 하였다.

그후 세조때는 興佛의 여건이 조성되어 전대와는 달리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왕위 찬탈을 속죄하려는 뜻에서 간경사업을 일으키고 圓覺寺를 건립하여 好佛의 군주로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세조는 세자(德宗)의 명복을 빌고자 강원도의 洛山寺를 중수하였으며, 예종때에는 합천지방(三嘉縣)의 전지 200결을 낙산사에 회사하였다. 이에 따라 왕실을 중심으로 그 비호하에서 불교는 더욱 발달하였으며, 특히 경기지방과 강원도에 소재하였던 寺社는 많은 보호를 받았으나 경상도의 사찰은 이와는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조선 전기의 불교는 성종이후 중종대에 이르러 제2기의 억압을 받게 된다. 성종 6년(1475) 이후 강력한 崇儒抑佛策을 펴 승려의 도첩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丁錢을 거두어 들이고 사찰의 창건을 억제하였으며 도첩이 없는 승려는 환속시켜 그 수를 격감시켰다. 이어 燕山君때는 원 각사를 연희장으로 하며 승과와 승계를 폐지함으로써 불교의 法脈이 흐려져 그 위치가 어렵게 되었다. 선교 양종의 都會附인 흥덕사와 흥천사의 불상을 城外의 廣州의 淸溪寺로 철거하였다. 그후 中宗은 정지한 僧科를 혁파하여 강력히 억압함으로써 승려의 지위는 구법수도의 본분을 잃고 범죄의 도피소 내지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 중종 34년(1539)에는 僧尼의 출입이 금지된 길내 후원에서 부랑한 승려 闇修의 체포사건이 일어난 후 유신들의 건의 따라 《輿地勝覽》소재의 사찰만 남겨두고 그외의 사찰은 모두 철거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사찰 중 경상북도지역의 사찰수는 170여개寺이며 이중 대구지역에 있는 사찰은 地藏寺, 仙槎庵, 夫人寺, 慈華寺, 把溪寺, 普提寺 등이다.

위의 사찰은 《신증동국여지승람》大丘府條의 「佛宇」條에 소개하고 있는 사찰이지만 「古跡」條에도 美理寺란 사찰명이 보이는데 이것은 폐찰된 것임이 분명하다. 비록 고적조나 佛宇條에 보이지 않지만 미등재된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文定王后가 섭정을 하게 되자 普雨를 맞이하여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명종 5년(1550)에는 선종과 교종을 일으켜 奉恩寺를 선종의 8奉先寺를 교종의 本寺로 하고 승과와 승계를 부활하였다. 그리하여 普雨를 判禪宗事로, 守眞을 判敎宗事로 임명하여 불교 진흥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名僧이 배출되었으니 임진왜란 때 僧將으로 활약한 休靜(西山

大師)은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억불책은 세조대와 文定王后때를 제외하고는 일관되었다. 이 결과 신라 불교의 중심지였던 경상도 지역의 불교는 고려시대의 개경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교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에 배출된 고승 중 경상도 출신의 승려는 靈圭(진주), 惟政(밀양)이지만 경북 지역 출신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불교 중심지의 변화와 이 고장이 유학의 중심지로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억불책이 추진되어 寺社를 정비하고 전지와 노비를 屬公시켰으나 백성들의 생활양식이나 풍습에는 쉽사리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成俔의 《용재총화》에 寺社의 정비와 노비속공이후에도 公卿·儒士의 집에서 초차 중을 불러 法度이라 하여 說經하고, 山寺에서는 七日齋를 배풀면서 사치스럽게 꾸미고 비용과 재곡을 낭비하였으며 食齋라 하여 친척과 친구들은 시주를 하였다. 忌日에는 僧齋라 하여 승려들을 맞아다가 먼저 대접한 후에 혼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을 보면 역사의 흐름속에서 깊숙히 스며든 민중들의 불교의식은 쉽사리 단절되지 않고 유교사회의 근저에 면면히 이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II. 淫祠禁斷策과 民間信仰

1. 淫祠禁斷策

祠廟는 祖先 또는 先賢을 봉사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이것은 서원 건립의 요건이 되었다. 祠廟는 서원과 달리 교육 기능없이 기절있는 사람들, 대개 臨亂殉節人이나 효자 또는 그 지방에 공덕을 남긴 사람들을 祭享하여 풍화의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묘는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설립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왕성하게 건립되었다. 사묘는 家廟외에 生祠·一般祠宇, 影堂 등이 있으나 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生祠와 一般祠宇이다. 生祠란 피봉사자 자신이 또는 생존시에 享祠하던 것이며, 일반사우는 그 사람이 죽고난 뒤에 享祀한 것이다. 향사는 有德·善政의 관료, 국가민족 또는 절의를 위하여 몸을 바친 공로가 많은 위인, 英傑, 의·열사의 사당을 지어 향사하였다. 조선의 사묘는 文益漸 및 吉再를 처음으로 공신·명유의 사묘영건운동이 태종대에 일어났다. 길재는 여말의 명유로서 善山의 金烏山下에 書齋를 마련하고 후진양육에 노력하여 그 문하에서 많은 명유현신을 배출시켰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문생이 吉再祠(후에 金烏書院으로 발전)를 지어 길재를 향사하였다.

이러한 사묘영건 운동은 조선의 성종대에 이르러 중국의 예를 본받아 중종대에는 충신·의사·현신을 제향하는 운동이 일어나 중종 5년(1510)에는 정몽주와 길재를 포상하여 2인의 立

祠致祭가 요망되었고 중종 12년(1517)에는 死六臣과 사화때 희생된 명유등을 雪冤하여 관작을 추증하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으로 선현선사를 문묘에 종사하고, 그 사람의 講學所에 사묘를 세워 제향하는 2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선현추모를 위한 立祠致祭의 기풍은 4대사화후 신진사류들이 대거 낙향하여 山林에 운둔하여 학문과 후진의 양성에 전력함에 따라 사우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우는 비록 하나의 家廟的 성격을 띠었으나 국가가 사액을 내릴 정도로 一節의 士를 제향한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우는 조선후기에 남설되어 숙종대를 계기로 100리의 邑에 私祠가 수십에 이르고 일문중에 부자형제가 효행이나 戰亡을 일컬어 나이 순으로 서열하여 1院에 향사하는 것이 12·3인에 이르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숙종 4년(1678)에는 淫祠禁令을 내렸으며 대원군때에는 晙澈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한 사우는 경북지방에 세워진 것만 해도 府誌에 보면 179개소로 대구가 그 중 5개소나 되었다. 대구에는 선조이전에 설립된 사묘는 없고, 인조때 1, 현종때 1, 숙종때 3개이며 이중 사액을 받은 것은 1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방에 설립된 사우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32〉 대구·경북지역의 사묘(《增補文獻備考》)

시대 사·군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未群	計
大丘	-	-	-	-	-	1	-	1(1)	3	-	-	-	-	-	-	-	-	5(1)
慶州	-	-	-	-	-	-	-	1	1(1)	-	-	-	-	-	-	-	-	2(1)
安東	-	-	-	-	-	-	-	-	2	-	-	1(1)	-	-	-	-	-	3(1)
星州	-	-	-	1	-	2	-	-	3	-	1	-	-	-	-	-	-	7
尙州	-	-	-	-	-	-	-	-	2	-	-	-	-	-	-	-	-	2
順興	-	-	-	-	1	-	-	-	2	-	-	-	-	-	-	-	-	3
善山	-	-	-	-	-	1	-	-	-	-	-	-	-	-	-	-	-	1
仁同	-	-	-	-	-	1	-	-	1	-	-	-	-	-	-	-	-	2
寧海	-	-	-	-	-	-	-	1	2	-	-	-	-	-	-	-	-	3
永川	-	-	-	-	-	-	-	-	1	-	-	-	-	-	-	-	1	2
清道	-	-	-	1	-	-	-	-	-	-	-	-	-	-	-	-	-	1
榮川	-	-	-	-	1	-	-	-	1	-	-	-	-	-	-	-	-	2
醴泉	-	-	-	-	-	1	-	1	-	-	-	-	-	-	-	-	-	2
義城	1	-	-	-	-	-	-	-	2	-	-	-	-	-	-	-	-	3
盈德	-	-	-	-	-	-	-	-	1	-	-	-	-	-	-	-	-	1
慈仁	-	-	-	-	-	-	-	-	2	-	-	-	-	-	-	-	-	2
禮安	-	-	-	-	-	-	-	-	2	-	-	-	-	-	-	-	-	2

시대 시·군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未群	計
延日	-	-	-	-	-	-	-	-	-	-	1	-	-	-	-	-	-	1
玄風	-	-	-	-	-	-	-	-	2	-	-	-	-	-	-	-	-	2
英陽	-	-	-	-	-	-	-	-	1	-	-	-	-	-	-	-	-	1
奉化	-	-	-	-	-	-	-	-	2	-	1	-	-	-	-	-	-	3
龍宮	-	-	-	1	-	-	-	1	2	-	-	-	-	-	-	-	-	4
軍威	-	-	-	-	-	-	-	-	-	-	-	-	-	-	-	-	1	1
聞慶	-	-	-	-	-	-	-	-	2	-	-	-	-	-	-	-	-	2
新寧	-	-	-	-	-	-	-	-	2	-	-	-	-	-	-	-	-	2
平海	-	-	-	-	-	-	-	1	-	-	-	-	-	-	-	-	1	2
蔚珍	-	-	-	-	-	-	1	-	-	-	-	-	-	-	-	-	4	5
計	1	-	-	3	2	6	1	6(1)	36(1)	-	3	1(1)	-	-	-	-	7	66(3)

※ ()안의 숫자는 사액수이며 사묘의 기록이 없는 시군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경상북도사》상, p. 842.

2. 民間信仰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왕조는 건국초부터 숭유억불정책을 폈으나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사상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양반세력의 내면적 생활에 자리잡고 있었던 당시에는 불교의 탄압이 쉽사리 구체화되기 어려웠다. 특히 好佛君主의 치하에서는 오히려 불교가 흥융하였음은 이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여 준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를 억압하던 왕은 태종, 세종, 성종, 중종이었으며 특히 세종은 조선전기 민족문화의 꽃을 피운 업적을 남겼음에도 사찰의 수를 제한하고 사찰을 정리하면서 그에 소속된 田民을 屬公시켰고, 經行의 금지와 승려의 都城 출입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그후 성종, 연산군, 중종등의 억불책으로 불교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불교는 개인의 영험적 신앙으로 유지되면서 재래의 토속적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비록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양반관료체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巫·佛·仙 등의 종교와 민간신앙이 당시의 사회에 깊이 뿌리박아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불교를 억압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배층 사대부들의 실생활에서도 그것과 상당히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당시에서는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민중의 생활이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유교가 민중의 내면적 사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였고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삼고 농경생활을 하였던 민중들에게는 재래의 신앙을 통하여 자연의 재해를 극복하려 하였으며, 불교는 이러한 민간신앙과 연관되어졌다. 자연의 재해(천재지변)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경험적

으로 전승하여 온 민중들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계속되었다. 고대부터 자연의 재해 즉 災變과 異兆는 지배자들의 부덕의 소치로 발생한 것이며, 그것을 天意로 보고 治者들의 修省과 德治를 통하여 仁政을 베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君臣이나 민중들의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농업국가였던 당시에 있어서 치자들은 자연의 재해에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天象의 변화와 地變의 기사를 天文·五行志에 기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孔孟의 유교이론과도 상호 사상적 맥락이 연계되었다.

조선시대에 자연의 재해로부터 극복하려는 방법은 여러가지 제사의식이 있었다. 먼저 醺祭를 들 수 있다. 醺祭란 星辰에 올리는 제로서 태조 5년(1396)에 昭格暑가 영조되어 국가에서 주도하는 開福神醺, 北斗一醺, 太一醺, 鎮兵醺 등이 있었다.⁶⁵⁾ 이것은 국가나 민간에 있어서 다같이 실시된 것이다. 자연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山川祭, 祈雨祭, 城隍祭 등을 올렸다. 조선시대의 산천제는 첫째 수호 祈福을 위한 것과 둘째 救病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명산대천은 고래로 신비한 것이어서 신화로서 전승되어 왔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여 명산대천, 성황, 海鳥의 神에 제사하였고, 태종도 鎮兵醺을 올리고, 향을 내리어 한라 산천신에 제사지내었다.⁶⁶⁾ 세종도 거동할 때는 명산대천에 제사하였고, 왕이 사냥을 갈 때도 산제를 올렸으며, 축성시에도 木覓·白岳山神에게 제사한 것은 이러한 수호·기복을 위한 것이었다. 후자는 인간의 길흉화복과 생사는 산천신이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惡疾이 유행하면 제사의 성의와 그 음식물의 불결, 그 방식의 결함이 있다고 보고 산천신에 제사하여 구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왕실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 왕실의 구병을 위한 산천제나 사원에 가서 기도한 사례는 실록에서 허다히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 祈雨祭를 들 수 있다. 기우제는 旱災에 대한 제사로서 명산산천과 종묘, 佛宇, 城隍, 龍穴 등에 가서 행하였다. 이러한 제사외에 또 다른 것은 風水地理說이 있었다. 羅末 道說에 의하여 시작된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시대에 더욱 발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신봉되었다. 地德을 찾아 궁궐을 지으며, 묘지를 정하였다. 이 풍수지리설은 불가에서도 깊이 신봉하여 裨補寺刹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세종 11년(1429) 11월에 禮曹에서 ‘영험처를 혁파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으니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산천기암·용혈·寺社등을 찾아 영험처에 祭室과 位版을 설치하고 四仲月(2, 5, 8, 11월)의 길일을 택하여 사자를 보내어 제사할 것을 건의하였다.’⁶⁷⁾ 이에 왕명에

65)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出版部, 1975, p. 166.

66) 《태종실록》 권 23, 태종 12년 3월 丙申條.

67) 《세종실록》 권 46, 세종 11년 11월 癸丑條 및 戊申條.

따라 海豐의 白馬山, 加平의 華嶽山, 인천의 紫燕島, 水深島 등 산과 섬 160여곳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岳, 瀆, 山, 川의 제사에 쓰이는 祭需의 예에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제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城隍祠의 수호신에 대한 俗信이 있다. 이것은 고려중기부터 上神祭가 성황이란 이름으로 부락제로 계승변해왔다. 성황이란 말은 城邑을 수호하기 위하여 성 둘레를 파 놓은 중국의 城池를 지칭한 것인데, 城池의 神, 즉 水(隍)神과 庸(城)神이 성읍의 수호신으로 신앙하게 된 것인데 이 신앙이 보편화된 것은 宋代이후였다 한다.⁶⁸⁾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관민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巫覡들의 淫祠之處로 변하여 성행하였으며 세종때에는 전국에 성황사의 수가 334개소나 되었다. 이를 도별로 보면 경기도 39, 충청도 54, 경상도 69, 전라도 53, 황해도 24, 강원도 25, 함경도 25, 평안도 45개소로 경상도가 가장 많다.⁶⁹⁾

城隍은 “서낭”과 다르다고 한다. “서낭”은 고려중기이전부터 수호신으로 산신을 지칭하던 말이고 “성황”은 중국에 있어서의 城池神을 가리키는 말인데 중국식 표기를 함에 따라 성지가 없는 조선에서는 수호신을 성황이라하여 부·목·군·현에 城隍祠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성황과 서낭이 수신과 산신을 각각 기원으로 하고있음은 다르나 고을과 부락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의 군현에 설립된 사묘는 사직단, 문묘, 성황사(단), 厲壇이 필수적이었으나 이외에도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 사묘를 보면 경주부에는 시조묘(赫居世廟, 昔脫解祠), 聖母祠, 경순왕 影堂, 神母祠, 군위현에는 金庾信祠, 선산도호부에는 吉再祠, 문경현에는 主屹山祠, 曦陽山祠, 梓木山祠, 獐山祠, 冠兮山祠 등이 있다.

사직단은 토지신인 社와 5곡신인 稷에 제사하는 것으로 국태민안을 위한 관주도형의 사묘이었고 성황사는 수호신에게, 厲壇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塊와 惡疾로 유명을 달리한 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關王廟가 여러곳에 세워졌다. 이 관왕묘는 중국 고대의 蜀漢의 무장인 關羽의 신령을 모시고 신봉하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중국인의 신앙이 임란때 전래되어 믿게 된 것으로서 서울 성문밖의 두곳과 康津, 南原에 세워졌으며, 경상도에는 중국인인 俞國器와 薛虎臣이 각각 성주와 안동에 관왕묘를 세웠다. 이외에도 민간에는 占卜이 유행하였는데 이같은 과목은 命課學이라하여 觀象監에서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의 禮俗은 관혼상제의 예를 중요시여겼으며, 이는 朱子家禮에 바탕하였다. 冠禮, 婚禮,

68) 柳東植, 앞의 책, p. 179.

69) 위의 책, p. 180.

喪禮, 服制, 祭禮, 외손 奉祀, 遷祀 등은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예속은 대체로 5禮儀나, 朱子家禮를 적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예속의 특징적인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부터 전해진 예속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변해왔기 때문에 변형 또는 줄어들기도 하였다. 대구지방의 鄉禮로는 향교의 釋奠과 서원의 향예를 찾아올 수 있을뿐 민속향예로서 洞祭같은 것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대구의 예속으로는 향예와 출생의례를 포함한 관혼상제의 4예에 한정할 수 없다. 冠禮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미혼남자에게 관을 가하는 의식인데 1895년 단발령이후 관을 씌울 필요성이 없어지고 특히 반상의 차별이 사라진 요즈음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의미는 혼례속에 포함되나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서의 관례적 성격은 ‘성인의 날’에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혼례도 오늘날 구식결혼은 대구향교에서 주관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신식예식장에서 올리는 결혼으로 바뀌었으며, 6예도 다 밟지 않고 四星과 禮束등이 관행되고 있다. 중매위주의 혼인이 당사자간의 애정과 의견이 중요시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연애 결혼으로 바뀌었다. 상례에 있어서도 절차의 간소화와 服期의 단축으로 전통적 상례절차를 다 밟지 않는다. 묘지도 풍수지리설을 수용할 수 없고 집단공원묘지화되어 가고 있다. 상여는 영구차로 대체됨에 따라 상여 소리도 듣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祠堂을 소유한 집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며 제례도 간소하게 치루고 그 시간도 친족집단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도시화 해짐에 따라 4代奉祠에서 2대 혹은 3대로 간소화하고, 자정에 지내던 제사를 入祭日 초저녁으로 옮겨 지내는 경향이 많다. 時祭는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보다도 친족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묘사일은 제관들이 편리하도록 공휴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지역사회는 班禮와 民俗, 향예와 가례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전통적 예악의 고장이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라는 시대속에서 전통적 예속이 이미 잊어지거나 사라져가는 듯하다. 조상이 남긴 전통의 예속을 현대 생활에 맞게 그 文脈을 간직해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出生儀禮는 인간이 일생동안 겪어야 하는 과정중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통과 의례이다. 祈子俗을 비롯하여 임신·출산·육아·칠일·백일·돌 등의 생활습속은 이에 속한다. 또한 除禍, 除厄을 도모하여 장수·초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계를 계승하고자 혼인을 하여 자식을 놓으려는 것은 인간사회의 중요한 윤리이다. 그러나 자식을 두지 못하면 아녀자에게는 七去之惡이라 하여 쫓겨날 정도로 엄하였다. 祈子俗은 受胎를 하여 아들을 출산하려는 致誠祈子가 있고, 어떤 사물이나 음식을 갖거나 먹어서 그 주술적 힘으로 아기를 얻으려는 呪術祈子가 있다. 이러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할머니나 본인이 드리며 이러한 습속은 전승되어 오늘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치성은 산치성, 절치성, 집치성 등이 있다. 대구에서 알려진 자연물의 치성 장소는 대봉동의 건들바위, 봉덕동의 고산골, 팔공산의 갯바위와 계곡, 대명동의 안지랭이 계곡, 신천변 등이 있으며, 동화사, 파계사, 용계사 등의 사찰에서도 치성을 드린다. 치성을 드리는 대상은 삼신, 용왕님, 조상, 부처, 산신령 등으로 나타났다. 집에서는 붓뚜막에 촛불을 켜놓고 절을 하고 큰방 옷묵에 삼신판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며, 성주, 두지단지, 장독대, 신주단지 등에서도 한다. 그외에 집에서 치성을 드리고 제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연물에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자연물은 큰바위나 나무, 냇가, 산기슭, 계곡 등이 있다. 팔공산 계곡이나 고산골, 안지랭이 계곡은 유명하다. 특히 팔공산의 갯바위는 유명하며 전국에서 찾아든다. 절에는 부처나 석탑, 석등에 치성을 드린다. 쌀, 돈, 과일, 초, 떡, 명태 등은 치성을 드릴때 사용하는 제수품이다. 육류나 비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큰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것은 지산동의 洞神木과 祈子木은 유명한 곳이다. 치성을 드릴때는 禁忌를 한다. 부정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妊婦들의 금기는 태교를 위하여 많다. 가족원은 장례나 초상집에 가지 않기도 한다. 출산시에는 금줄을 치고 삼신상을 차려 놓고 빌기도 한다. 이처럼 대구지방에서 행해지는 출산의례는 다른 지역과 특별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의례도 집집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자취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祭禮에는 祠堂祭, 四時祭, 彌祭, 忌日祭, 墓祭 등 5종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忌祭, 茶禮, 時祭(墓祭) 등 3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례는 각 집안의 가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不遷祭라는 것이 있다⁷⁰⁾. 이것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한가문에 내려 주는 최고의 명예로 여겼다. 불천제는 기제사를 영원토록 계속하라는 것으로 이런 분은 5대가 넘어도 代盡하지 않고, 가묘도 별도의 사당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불천지위를 모시는 종가에서는 4代奉祖까지 합하여 최소한 연 10회의 기제사를 행한다.

대구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不遷之位의 하나가 경주최씨(웃골 최씨로 통합)인 臺巖 崔東集의 불천위와 그의 5대손인 百弗庵 崔興遠의 불천위를 들 수 있다. 경주최씨(웃골최씨)의 불천위는 道不遷位로, 1988년 7월 20일(음 6월 7일)에 행해진 臺巖公의 불천위의 제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불천위를 행하는 친족조직은 웃골경주 최씨문중이다. 불천위를 행한 후에는 문중회의에서 有司 2명을 선출하고 이들이 제수를 준비하고 비용을 관리한다. 유사들은 제사일 2~3일 전에 제실에 와서 제반준비를 한다.(지금은 入祭日 일찌기 와서 宗家에서 기거하면서 준비함) 제사

70) 不遷祭에는 國不遷位, 道不遷位, 私不遷位, 孺不遷位 등의 종류가 있다 (《大邱의 禮樂》, pp. 145~148).

준비는 제실인 報本堂에서 하고 관리는 고직이가 하였으나 현재는 고직이가 없어서 종가에서 제실을 직접관리하고 제사준비도 유사와 함께 친족들이 직접한다.

입제일 저녁 6시경이 되면 옷골에 거주하는 경주최씨문중어른들이 도포를 입고 유건과 갓을 쓰고 報本堂으로 모여든다. 밤 12시경 제구를 정비하여 제상을 차린다. 제상주위에 푸른 색깔의 휘장을 3면으로 치는데 이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휘장 속에서 정면으로 12폭 병풍을 치고 병풍정면에 높이 4자 정도의 제상을 설치하여 제수를 그 위에 진설한다. 별묘사당에 봉안한 위패를 모셔오기 위하여 1시 10분경 종손이 분향 재배후 꿇어앉아 出主告辭를 한다. 고사가 끝나면 종손이 위패독을 두손으로 받들어 가슴에 안아 모시고 와 제상위의 교의에 받든다. 이후 신위의 독을 연후 제관들은 參神再拜를 하고 초헌례를 올린다. 초헌 후 독축을 하고 아헌을 드린다. 중헌이 끝나면 피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쬔는다. 그후 병풍을 제상 주위로 돌리고 3면에 쳐 두었던 휘장의 앞면을 내려 제상의 4면을 모두 막는다. 제관들은 휘장밖으로 나와 1~2분 묵도를 한 후 장막 앞에서 축관이 3번 기침을 하면 휘장의 전면을 걷어올리고, 둘러친 병풍을 열어 둔다. 집사는 준비한 熱水 두 그릇을 탕그릇과 바꾸어 놓고 피밥을 3번 떠서 숙수에 푼다. 숟가락은 숙수 그릇위에 걸쳐 둔다. 잠시후 집사는 낙시·정저를 하고 피그릇의 뚜껑을 덮고 제관은 재배한다. 종손은 제상의 술잔을 내려 꿇어앉아 마신다. 축관은 축문과 出主告由文을 향로위에서 태운다. 장손이 신주의 독을 덮고 위패를 별묘사당의 원래 위치로 모셔 안치한다. 집사는 제수를 철한 다음 휘장을 벗긴다. 그후 음복상을 준비하고 지손들에게 나누어 줄 봉과를 만들어 문중의 어른들에게 돌린다. 봉과를 싸고 남은 음식물로 참례한 제관들에게는 비빔밥을 돌린다. 이 비빔밥은 100여년간 지켜온 음복방식이다. 음복례의 절차를 다마치면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민간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등제, 동제, 산신제, 龍神祭, 鎭魂祭, 安宅, 寵王祭, 告祀, 驅病祭, 除厄祭 등이 있다. 연등제는 음력 2월 1일 연등할머니가 지상에 내려왔다가 2월 20일 승천한다고 한다. 속설에 연등할머니가 내려올 때는 머느리나 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면 일기가 온화하여 풍년이 들고, 머느리를 데리고 오면 흉년이 든다 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아침 일찌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 놓고 연등할머니에게 풍년을 기원했다. 동제는 수령이 많은 큰 나무나 堂宇를 지어 제단을 만들고 연중 동리의 태평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제사를 드리는 화주는 3일전부터 매일 아침 목욕제제하고 대문에는 대나무나 농기를 세워 제주의 집임을 알린다. 왼쪽으로 비벼올린 새끼에 흰천이나 흰종이를 오려 일정간격으로 매듭을 쬔아 당나무 주위를 둘러치고, 바닥에는 보드라운 황토흙을 깔아 사람의 접근을 막고 부정을 방지한다. 제수를 장

만하는 우물에 명석을 덮고, 바닥에는 황토흙을 뿌려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제사는 「축시」(새벽 1~3시사이)에 올리는데 새그릇에 통음식(과일은 깎지않고, 고기는 삶되 다듬지 않고, 떡은 시루채로, 술잔은 대접으로 함)을 진설하고, 헌작과 독축순서로 하며 제사가 마치면 각 세대주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는 산마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일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마을의 재앙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산신을 위로하는 제사이다. 산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와 비슷한 절차로 제를 올린다. 농가에서는 장례식이나 묘사때도 별도로 산신제를 올린다.

용신제는 용왕제라고도 하는데 자식을 얻거나 질병이 잦은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용신(용왕)에게 팔아 절대신의 보호를 받고자 굿을 올리고 빈다. 간단한 음식과 쌀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혀 둔다. 초하루나 보름날 밤에는 촛불을 밝혀두고 절을 하며 빈다. 鎮魂祭는 天壽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 다닌다고 믿고 그 영혼을 위로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제단을 만들어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이 대나무가지나 복숭아가지를 흔들며 귀신을 불러놓고 경을 외우며 북을 친다. 죽은 사람이 미혼일 때는 미혼의 이성을 찾아 영혼결혼을 올려주기도 한다.

安宅은 정월 상순에 집안의 재액을 없애고자 무당을 불러 주문을 읽으며 북이나 징, 팽가리를 두드리며 홍을 돈구어 조상신, 조왕신에게 비는 민간신앙이다. 告祀는 집을 짓거나 役事를 하면 고사를 지낸다. 돼지머리와 떡, 酒果 등을 만들어 제상에 차려놓고 공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절을 하고 헌작한다.

조왕제는 선달 그믐날 가정에서 부엌의 큰 솥뒤에다 불을 밝힌다. 조왕신은 음력 12월 25일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제에게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집에서 일년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그믐날밤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때 조왕신의 길을 밝히기 위해 조왕제를 올린다. 驅病祭는 질병이 걸리는 것은 귀신의 소행으로 보고 이를 무당을 불러 제단에 주반다과를 진설하고 독경이나 굿을 하여 악귀를 쫓는 민간신앙이다. 특히 痘瘡鬼는 가장 무서워하여 무당은 환자의 머리부분에 칼로 찌르는듯 시늉을 하고, 찬물을 끼얹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귀신을 멀리 떠내 보내고자 음식물과 짚신, 노자, 지팡이 등을 삼거리에 가져다 버린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도시화·산업화 되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第4節 朝鮮前期 大邱地域의 文學과 藝術

I. 大邱地域의 文學

조선 건국의 주체세력인 신흥사대부들은 朱子學을 바탕으로 하는 양반관료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자학적 경학과 문학을 교양으로 하는 새로운 문풍을 진작시켰다. 이러한 문풍은 조선왕조가 승유억불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漢文學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文學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詞章은 사대부들의 필수적 교양이 되었다.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정도전을 비롯하여 권근, 김종직, 서거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漢文과 漢詩에 뛰어났다. 조선전기에 한문학계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정도전, 권근, 변계량,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류성원, 이개, 최항, 서거정, 김수온, 강희맹, 강희안, 成任, 성현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이중 많은 사람이 영남출신이었다.

대구지역의 문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팔공산의 유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팔공산은 달성·경산·영천·군위·신령·하양 유학의 연원지였다. 팔공산은 가야산, 금오산과 함께 영남 유학의 발상지로 이름이 있다. 가야산 밑에 陶隱 李崇仁이, 금오산 밑에는 三隱의 제자인 治隱 吉再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팔공산은 영천 출신의 圃隱 鄭夢周의 고향으로 이곳에 유학이 피게 되었다. 포은의 문인으로는 길재, 우홍명, 權遠(遇), 권근, 崔宣, 朴信, 李原, 변계량, 具宗之, 全自知, 尹思齊, 李孟昀, 盧龜山, 河演, 趙庸 등이 있다. 포은의 학통을 이은 변계량, 권근의 학통을 계승한 것은 柳方善으로 그는 팔공산에서 유학과 문학의 연원을 열었다. 泰齋 유방선은 본관이 瑞山이며 瑞寧府院君 柳淑의 증손이다. 그는 우왕14년(1388) 개경에서 태어나 牧隱(외증조)에게 배웠다. 12살 되던 정종1년(1399)에는 영통사의 詩會에서 문명을 떨쳐 만인의 경탄을 받아 신동의 칭을 들었다. 17살 되던 태종4년(1404)에는 권근과 변계량 문하에서 성리학과 문장을 배워 文名을 떨쳤다. 22살때에는 家禍로 각지에 유배되어 금고종신이란 불우한 생을 마쳤다. 그의 문학의 전통은 成侃과 金守溫에 전해지고, 이 양문에서 成侃이 배출되고, 이 문하에서 金安國이, 김안국의 문하에서 許曄, 許筠이 나왔다. 이러한 팔공산의 유가 연원 인물은 대구지역의 문학 발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⁷¹⁾ 李圃欽은 영천출신으로 세종11년(1429) 문과에 급제한 후 集賢殿博士, 司正이 되었고 세종25년(1443)에는 明의 書狀官으로 다녀와 主簿가 되었으며 세종30년(1448)에는 知大丘郡事가 되어 社倉法을 실시하였다. 이 때 大田(이보흠의 호)은 대

71)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八公山》, 1987, pp. 39~40.

구지역의 교육과 학문에 이바지였다.

이 지역에는 고려후기이래 達城徐氏가 크게 번성하였는데 그 대표적 가계는 徐彌性과 徐均衡의 가계이다. 徐彌性의 가계는 여말의 신흥사대부계층으로 添設職을 통하여 진출하였는데, 서미성이 장원급제를 하고, 그가 권근의 사위가 됨으로써 명문의 기반을 잡게 되었다. 그의 아들로는 徐居正과 徐居廣이 있었는데 서거정은 당시의 대표적 문인으로서 세조의 충애를 받아 국가의 主文을 담당하였으나 無子로 영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였다. 그의 후광은 서거광으로 이어져 대구의 명문으로 발전하였다. 서균형의 후예는 徐沈으로 이어졌고 徐沈의 아들인 文翰, 文幹, 文德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후예는 대구지역의 士族으로 번성하였다. 특히 대구로 監營이 옮겨지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달성서씨외에도 大丘裴氏를 들수 있는데 이들의 일부는 고려 후기의 裴廷芝의 후손으로 士族으로서 중앙 관료에서 활약하였고 대구지역에서는 15세기에 郡吏였던 裴泄이 수령을 조종할 정도로 士族으로서 강성하였다. 그외에도 大丘白氏, 大丘李氏, 수성현에는 賓氏, 羅氏, 曹氏 등이 하빈현에는 李氏가 이족으로 그 세가 컸던 것 같다. 賓氏는 元의 制科에 급제한 賓于光외에는 이렇다할 인물이 보이지 않고, 曹氏는 세종조에 급제한 曹允誠과 曹克治의 부자가 보이고, 羅氏는 관찰사를 지낸 羅弘緒가 보이며, 李氏는 현감을 지낸 李孟智가 보인다. 이외에도 대구의 士林派에 속하는 楊熙止와 朴漢柱 등이 이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16세기에는 徐思遠, 全慶昌, 禹拜善, 李叔樸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전기의 대구지역과 관련있는 문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²⁾

1) 徐沈: 생물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본관은 달성, 자는 聖默, 호는 龜溪, 그의 아버지는 政堂文學을 지낸 均衡이며, 어머니는 丞同正을 지낸 李永儒의 딸이다. 그는 정몽주를 따라 학문을 배웠고, 여말 선초에 大丘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세종조에는 정부에서 서씨일문의 근거지였던 달성이 경상도 지역의 요새가 되므로 다른 땅과 바꾸게 하자 이에 협조하여 표상을 받게 되었으나 그 대신에 還上의 耗穀을 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로인하여 인근 주민의 추앙을 받았으며, 국가로부터 南山의 옛 역터와 蓮信池, 新池를 하사받고, 관료로 탁용되었다.

그는 세종 15년(1433)에 僉知中樞院事가 되었고, 典醫少監을 거쳐 그 이듬해에는 전라도처치사가 되었다. 대구의 龜巖書院에 배향되었다.

2) 徐居正: 세종 21년(1420)~성종 19년(1488), 조선초기의 문신이며 학자로서 본관은 달성,

72) 대구지역의 문인은 《八公山》 및 《續八公山》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만을 추출하여 약술한 것이다.

자는 剛中, 호는 四佳亭 또는 亨亨亭, 시호는 文忠, 아버지는 徐彌性(牧使), 어머니는 권근의 딸이다. 일찌기 趙須 柳元善에게 수학하여 그의 학문적 영역은 유학이나 한문학에 머물지 않고, 천문, 지리, 의학, 卜筮, 性命, 풍수지리 등에까지 달통하였으며, 문장에 一家를 이루고 詩文에 능하였다. 세종 20년(1438)에 生員·進士 兩試에 합격하였고, 6년 뒤인 1444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司宰監直長에 제수되었다. 그뒤 집현전박사, 經筵司經이 되었고, 1447년 副修撰으로 知製敎 겸 世子右正字로 승진되었으며, 문종 1년(1451)에 副校理에 올랐다. 그 이듬해에 수양대군을 따라 明의 從事官으로 다녀왔다. 세조 즉위년(1455)에는 世子右弼善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는 집현전의 혁파로 成均司芸로 옮겼다. 그는 조맹부의 「赤壁賦」 글자를 모아 七言節句 16首를 지음에 세조가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한다. 세조 3년(1457)에 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右司諫 겸 知製敎에 제수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廷試에 우등하여 工曹參議 겸 知製敎에 제수되었다가 곧 예조참의로 옮겼다. 이 시기에 세종의 명으로 《五行摠括》을 저술하였다. 그후 이조참의, 예문관제학,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1466년 拔英試에 합격, 예조참판이 되었다. 그가 謝恩使로 중국에 갔을때 通州館에서 安南使臣을 만나 詩才를 겨루어 그들의 탄복을 받았으며 요동인 丘霽는 그의 草稿를 보고 감탄하였다 한다. 그는 登俊試에 3등으로 합격하여 行同知 中樞府事に 승진하였으며 《經國大典》의 편찬에 착수 하였다.

그는 1467년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에 승진되었고 성균관 知事を 겸하여 국가의 文衡을 관장하여 나라의 典冊과 詞命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성종 1년(1470)에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며, 佐理功臣3등에 책봉되어 達城君에 봉해졌다. 성종 7년(1476)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酬唱을 잘하여 奇方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는 1476년에 우찬성에 오르고 《三國史節要》를 편찬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도총관을 겸하고 이듬해에는 대제학을 겸직하였으며, 곧 漢城府判尹에 제수되었다. 이해에 《東文選》 133권을 편찬하였다. 그는 1479년 이조판서가 되어 宋의 제도를 본받아 문과의 館試, 한성시, 향시에서 일곱번 합격한 자를 서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성종 16년(1480)에는 《吳子》를 주석하고, 《曆代年表》를 찬진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東國輿地勝覽》 50권을 찬진하고 병조판서가 되었다. 1483년에는 좌찬성에 제수되었으며 2년 뒤에는 世子貳師를 겸하였고, 《東國通鑑》 57권을 완성하였다, 1486년에는 《筆苑雜記》를 저술하여 史官의 결락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그의 학풍과 사상은 15세기 官學의 분위기를 대변하였으며, 그의 정치사상은 훈구파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의 漢文學에 대한 입장은 《東文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역사의식은 중국적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삼국사절요》,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등을 지어 민족사를 정리하여 귀중한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의 저서로는 《四佳集》, 《東人詩話》, 《太平閑話》 등이 있으며 그가 지은 十詠은 대구지역의 경치를 읊은 유명한 시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琴湖泛舟：금호의 맑고 얇은 곳에 蘭舟 띄우니, 차츰 한가히 가서 白鷗에 가까울사. 한껏 취해 달밝은데 노저어 돌아가니, 風流란 반드시 五湖에 노는 것이 아닐세.

笠巖釣魚：가랑비 조록조록 가을 물가에 내리는데, 낚실줄 드리우고 홀로 앉아 하염없이 생각하네. 잔 고기는 낚싯밥 아래 다소있음을 알겠는데, 金龜를 낚지 못해 멈추지 않네.

龜岫春雲：거북 봉우리가 흐릿하여 큰 자라 봉우리 같구나. 구름이 무심히 나온다지만 또한 뜻이 있더라. 大地의 생물들이 바야흐로 바라고 있는데, 뜻없이 단비를 만든다 하라.

鶴樓明月：한 해 열두번 둥근 달 중에, 추석에 한껏 둥근 달을 기다려 얻네. 또한 긴 바람이 구름 쓸어가버리니, 온 다락에 조그만 妖氣도 불일 곳 없네.

南沼荷花：물에 돌아난 어린 연꽃은 작은 돈작을 겹쳐 놓은듯 한데, 꽃이 피면 끝내는 배(船)보다 크네. 재질이 커서 쓰이기 어렵다 말하지 말라, 고질 병을 보내어 萬姓을 고치기에 알맞으니.

北壁香林：옛벽의 푸른 향나무는 玉簪같이 길고, 긴 바람이 끊임 없이 四時에 향기롭구나. 은근히 또다시 가꾸어 힘을 붙이면, 머물러 맑은 향기를 온 고장에 함께할 수 있으리.

桐寺尋僧：멀리 절에 올라가는 돌층계 길엔, 푸른 등나무에 흰 버선이 또한 검은 지팡이로다. 이렇게 흥겨운데 알아주는 이 없네. 하기가 흥이 靑山에 있지 중에 있진 않거니.

櫓院送客：官道에 해마다 버들 빛이 푸르고, 短亭이 수없이 長亭을 이었네. 陽關曲 다 부르고 서로 헤어지니, 모래밭 가에 두 흰 술병만 누웠구나.

公嶺積雪：公山 천길에 울퉁불퉁 산이 겹쳐 의지했는데, 쌓인 눈이 하늘을 적시어 이슬이 맑구나. 神祠에 신령이 응당 있음을 알겠고, 해마다 三白이 내려 풍년을 기억하네.

砧山晚照：물은 서쪽에서 산밑으로 흐르고, 砧山은 푸르려 맑은 가을에 붙었구나. 저녁바람에 어디에서 방앗소리가 급하고, 斜陽에 일임하여 나그네의 수심을 쫓네.

참고문헌：《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국조방목》,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구읍지》, 《전고대방》, 《한국연명대사전》.

서거정이 찬한 《東文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 중종초에 이르기까지의 詩人, 文士들의 수많은 우수한 작품만을 뽑아 편집한 것으로 正·續 두 편에 나누어서 있다. 정편은 성종 9년(1478) 12월에 서거정, 양성지 등이 명을 받아 찬집한 것으로 총권수는 목록 3권을 합하여 133권으로 되어 있고, 속편은 중종 13년(1518) 7월에 申龍漑 등이 정편이 성립된 후 40여 년간에 저술된 시문을 추가 선발한 것으로 목록 두권을 합하여 23권으로 되어 있다. 《동문선》은 선인들의 시문 작품에 대한 각 문체의 精華를 집대성한 거질로 우리나라 한문학 전통에 의한 가장 대표적

문에 작품이라 하겠다. 이것은 중국의 梁나라의 昭明이 선정한 《文選》을 모방하여 辭, 賦, 古詩에서부터 조칙, 교서, 制誥, 표전, 계장, 檄書, 箴銘, 송찰, 奏議, 文, 書, 記, 序, 傳, 跋, 疏, 잡저, 第題, 축제문, 애사, 행장, 비명, 요지 등 각 문체들을 類에 나누어 찬집한 것이다.

3) 李 榮 : ? ~ 명종 18년(1563),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 자는 顯父, 호는 掛鞭, 중종 9년(151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에 瑞川郡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어 주민의 칭송을 받았다. 다음 해에 定平府使가 되었으며, 명종6년(1551)에는 清簡之人으로 선 발되었고 그후 會寧府使,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명종10년(1555)에 병조참판이 되었고, 이어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護軍으로 죽었다. 그의 청빈성은 조정에서 대구에 있던 처자가 거처할 곳이 없음을 알고 가옥을 지어주고 곡식과 옷을 하사하였을 정도였다.

4) 朴漢柱: 세조 5년(1459)~연산군 10년(1504)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 자는 天支, 호는 迂拙齋, 아버지는 敦仁, 김종직의 문인이다. 성종 14년(1483) 생원시에 합격, 2년뒤에 문과 別試에 합격하고 典牧署 直長에 제수되었으며 그후 한성부 參軍, 사헌부 감찰, 사간원 正言, 성균관 典籍을 거쳤으며 부모를 봉양하고자 창녕현감으로 나갔다. 그후 宗溥寺 주부를 거쳐 연산군 3년(1497)에 시간원 헌납이 되었으며, 연산군의 폭정에 외직을 청하여 평해 및 예천군수를 지냈다. 1498년 戊午士禍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으로 봉당을 만들어 나라를 비방하였다는 죄로 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때 다시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중종 1년(1506)에 伸寃되었고 그후 金淨, 趙光祖등의 상소로 도승지겸 예문관 직제학에 추증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迂拙齋集》이 있으며, 대구의 南岡書院에 배향되었다.

5) 李叔樑: 중종 14년(1519)~선조 25년(1592), 이는 영천출신으로 중종 14년(1519) 안동의 예안에서 태어났다. 자는 大用, 梅巖, 호조참판 李賢輔의 아들이다. 일찌기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문장이 清麗典雅하고 절묘하였다 한다. 중종 38년(154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科業에는 뜻을 두지않고 팔공산 기슭의 研經里에 이거하여 살면서 성리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이에 팔공산 밑에는 유품이 떨치게 되었다. 후일 천거에 의하여 王子師傳에 임명되었으나 그 직임을 맡지 않았으며, 임진왜란때에는 격문을 지어 의병을 일으키는데 힘썼으나 전란중에 죽었다. 대구의 유생들은 이숙량을 주관으로 삼아 명종 18년(1563)에 연경서원을 창건하고 記文은 이숙량이, 跋文은 이황이 지었다. 이서원에는 퇴계, 寒岡, 愚伏을 배향하고 이숙량을 제향하였다. 이서원은 현종 1년(1660)에 사액을 받았다. 팔공산은 이숙량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숙량은 대구지역의 문학발달과 교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6) 全慶昌 : 중종 27년(1532)~선조 18년(1585) 이는 慶山출신으로 자는 季賀, 호는 溪東, 晩悟, 판서인 全伯英의 5대손으로 선조 6년(1573)에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 正言, 持平등을 역임하였다. 퇴계문학을 이어받고, 가야산에 들어가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溪東集》이 있으며 대구의 연경서원에 제향되었다.

7) 鄭師哲 : ?~선조 26년(1593) 東萊출신으로 자는 季明, 호는 林下, 東平君 種의 증손이다. 鄭述의 문인으로 선조 3년(1570)에 司馬試에 합격, 南部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성리학연구에 힘썼다. 徐思遠, 朱惟등과 교유했고, 임진왜란때 의병을 모집하여 관군을 도왔다. 저서로는 《林下集》이 있으며, 대구의 琴湖書院에 제향되었다.

8) 徐思遠 : 명종 5년(1550)~광해군 7년(1615) 달성출신으로 자는 行甫, 호는 彌樂齋 또는 樂齋, 典校 治의 아들로 백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정구의 문인으로 주자학과 이퇴계의 문집을 깊이 연구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였음에도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그후 선조때 學行으로 천거되어 찰방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과 투쟁하면서 팔공산에 들어가 항쟁을 계속하였으며, 쌀과콩 300석을 모아 청도의 五禮山城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선조 28년(1595) 淸安현감으로 가서 학문진흥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후 玉果및 燕岐현감으로 임명되었으나 사임을 하였고, 그후 형조정랑, 호조정랑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하고 仕宦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로는 《樂齋集》이 있으며, 대구의 伊江書院에 제향되었다.

9) 李 輔 : 생몰년대는 알수 없으나 자는 景任, 호는 六休堂, 또는 苔巖, 본관은 仁川으로 寒岡의 문인이다. 愚伏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倡義兵을 모아 군량을 조달하고 鶴峯의 召募官으로 있었다. 후일 체찰사 李德馨의 추천으로 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고 향리에 묻혀 학문연구에 전력하였으며 이숙량과 연경서원의 건립에 주동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대구의 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10) 孫處訥 : 명종 8년(1553)~인조 12년(1634) 이는 성주출신으로 본관은 一直, 자는 幾道, 호는 某堂이다. 鄭述의 문인으로 張顯光 徐思遠등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대구향교의 재건에 힘쓰고 후진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는 鄭仁弘의 이황배척에 대하여 斥邪扶正의 글을 써서 도내 사림의 규합에 힘썼다. 대구의 靑湖書院에 제향되었다.

11) 孫 邁 : 명종 21년(1566)~인조 6년(1628), 이는 조선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季進, 호는 聞灘이다. 金宇顯과 정구의 문인으로 장현광·정경세등과 道義之交였다. 선조 33

년(1600)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606년 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광해군 3년(1611) 李彦迪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둘러싸고 정인홍이 배척하자 손처눌과 함께 斥邪扶正文을 지어 이를 비판하였다. 광해군 7년(1615) 安東教授에 제수되었고 3년후에 藝文館奉敎를 거쳐 인조반정후 예조좌랑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병조좌랑, 丹城현감을 거치면서 치적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때 愚伏의 추천을 받아 의병장이 되었으나 난후에는 향리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장현관, 金尙容등과 교유하며 지냈다. 대구의 鳳巖祠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文灘集》이 있다.

12) 金忠善: 선조 4년(1571)~? 이는 임진왜란때 귀화한 일본인으로 본명은 사야가(沙也加), 대구의 우록동에 거주하였다. 본관은 김해, 자는 善之, 호는 慕夏堂이다. 임진왜란때 가등청정(加藤清正)의 左先鋒將으로 침입하였다가 조선의 문물을 흠모하여 경상좌병사 朴晉에게 귀순하였다. 그뒤 항복한 왜장들과 함께 의령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嘉善大夫를 제수받고 도원수 權慄, 어사 韓浚謙등의 주청으로 金忠善이란 성명을 하사받고 資憲大夫에 올랐다. 그후 여진인의 침입으로 변방이 소란하자 從軍 지원하여 10여년간 防戍하고 광해군 5년(1613)에 正憲大夫에 제수되었다. 인조 2년(1624) 李适의 난때는 그 副將인 徐牙之를 잡아 죽인 공으로 賜牌地를 받았으나 사양하고 이를 수어청의 屯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때에는 廣州의 雙嶺에서 1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과 싸워 대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던져버리고 통곡하면서 “明이 우리를 도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금수와 같은 오랑캐를 어찌 섬길 수 있겠는가. 춘추의 大義가 이제 끊어졌구나” 하고 대구의 남쪽 友鹿里로 들어가 살았다 한다. 牧使 張春點의 딸과 혼인하여 살면서 가훈·향약 등을 만들어 향리 교화에 힘썼다. 그의 저서로는 《慕華堂集》 3권이 있다.

13) 朴壽春: 선조 5년(1572)~효종 3년(1652), 이는 조선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밀양, 자는 景老, 호는 菊潭이다. 이는 가학을 이어받아 小學을 애독하였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때 의병을 모집하여 창녕의 火旺山城에서 곽재우와 함께 싸워 전공을 세웠다. 광해군 10년(1618) 仁穆大妃의 폐위문제에 대하여 춘추대의로서 그 부당성을 상소하였으며,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때는 창의격문을 지어둘러 의병을 일으켰으나 강화의 소식을 듣고 산중에 들어가 崇禎處士라 자처하면서 학문연구에 전력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학문은 정구, 장현광 등과 理氣說을 토론하는 등 성리학에도 상당한 연구를 하였다. 현종 13년(1672)에 通政大夫戶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숙종 20년(1694) 대구의 南岡書院에 제향되었는데 그의 저서로는 《菊潭文集》, 《讀

書指南》,《學文類解》,《東方學文淵源錄》,《疑禮見聞解》 등이 있다.

세종 때 한글의 창제에 따라 국문학도 새로운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중 《釋譜詳節》 권 11(보물 제523호);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1225)과 《月印釋譜》 권 21(보물 제475호;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1125)은 대구에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⁷³⁾ 석보상절은 세종 28년(1446)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수양대군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석가의 일대기를 엮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석가보,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약사경 등에서 가려뽑은 것이다. 이 책은 弘治연간(1488~1506)에 출간된 11권으로 甲寅字를 사용한 정통판의 복각본이다. 이 책은 月《印千江之曲》과 함께 훈민정음 제정후 최초로 만든 활자로 印出한 책으로 음운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석보는 세조 5년(1459)에 《월인천강지곡》 전 3권과 《석보상절》 전 24권을 합편한 책으로 초간본에 해당된다. 이 책의 21권은 분책되어 있으며 권말에 嘉靖 41년(1562) 임술 8월 18일의 刊記가 있으며 卷首에는 兜率來儀像과 雙林涅槃像의 변상도가 판각되어 있다. 이 초·중간본은 불교및 국어학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대구지역의 문학자료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濯纓宗宅文籍을 들 수 있다.⁷⁴⁾ 이 文籍은 유형문화재 제127호(대구직할시 남구 봉덕3동 1329-2)로 金宗直의 문인으로 戊午士禍의 首魁로 처형된 탁영 金駟孫(1464~1498)과 부인의 教旨 및 紫溪書院의 笏記, 屯田畚騰本이다. 김일손은 그 후 中宗反正이후 신원되어 도승지,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교지종류는 도승지, 이조판서, 추증교서, 시호교지, 전후양부인의 貞夫人 추증에 대한 것이다. 笏記는 金克一, 金駟孫, 金大有등 3인을 배향하고 있는 자계사원의 춘추향사용 홀기로 行禮와 祝文은 주자가례에 준하여 정통의 법으로 기재되어 있다. 屯田畚庚子改量騰錄은 자계서원의 전신인 紫溪祠가 1578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서원의 재산목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屯田畚을 개량하여 새로이 만든 등본으로 부록편에는 노비문서가 있다.

II. 書畫 및 建築

조선시대에 건축된 건축물 중 대구지역에 현존하는 건물은 교육기관인 향교나 서당 서원의 외에 전대부터 있어왔던 사찰을 들 수 있다. 대구지역에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고건축물을

73) 《達句伐文化財》 p. 28 및 p. 32.

74) 위의 책, pp. 82~83.

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1. 盛才書堂(유형문화재 제9호)

이 서당은 대구직할시 동구 미대동 169에 소재하며, 仁川蔡氏宗中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 서당이 건립된 유래는 인조때의 蔡明輔(1574~1644)가 이곳에 盛才亭을 짓고 향증명사인 慕堂 손처눌, 止巖 도진수, 雙峰 정극후, 台巖 최동집등과 학문을 강론하면서 만년을 보내었는데 이 정자가 성재서당의 전신으로서 1627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명보는 諱가 先見, 호는 兩傳軒으로 정구와 曹芝山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광해군 9년(1617)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광해군때 모후의 서궁유폐사건이 일어나자 嶺中の 선비들과 함께 상소를 올렸으며, 이괄의 난 때 항병을 모집하여 군량미를 제공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에 인조 4년(1626) 천거되어 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하고 귀향하여 이곳에 성재정을 짓고 학문을 하였다.

그후 정자가 퇴락하자 증손 尙鼎이 1770년경 중건하여 강학의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후손인 鎭國, 榮國이 다시 지붕을 잇고 堂號를 盛才書堂으로 바꾸었다.

이 서당은 파군재에서 동화사로 가는 길의 좌측에 있는 美垆洞 마을에서 북쪽의 三麻山을 향하여 1.5km가량 올라가면 소나무 숲속에 남서향으로 서당과 부속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서당으로 가는 길은 20여계단으로 되었는데 계단이 시작되는 좌측에는 方形—廊의 토담을 쌓고, 그 안에 兩傳軒의 유허비각을 세워놓았다. 3칸대문채의 어간에있는 평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건너 서당이 높은 축대위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있고 서쪽에 厨舍가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서당좌우와 후방에는 돌담이 쌓여있다.

이 서당은 화강암으로 바른층 쌓기로 축대를 쌓고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을 배치하고, 중앙 2칸은 전면이 개방된 대청으로 꾸미고 양측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건물의 4면에는 좁은 퇴마루를 돌출시키고 정면과 측면에는 현합을 돌렸다. 구조는 자연석 초석 위에 앞면만 원주를 세운 민도리집으로 우물 마루를 깔아놓은 대청 상부에는 5檁架에 梯形板台工을 세운 간소한 구조이다. 건물 4모서리에는 活柱를 세워 팔작홀처마지붕의 추녀를 받치게 하였다.

2. 獨巖書堂(문화재자료 제12호)

이 서당은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223의 3에 있으며 崔熊澤씨의 4명이 소유하고 있다. 독암서당은 경주최씨 문중에서 고종 2년(1865)에 건립하여 문중의 자손들은 물론 인근마을의 자

75) 건축은 《八公山》第7章과 《達句伐文化財》에 있는 대구의 주요 건축물을 추출하여 약술하였다.

제들까지 교육을 시켰던 서당이다. 독암이라는 이름을 붙인것은 왕건이 견훤에게 공산싸움에서 패배해 혼자 피신해와 앉아있었다는 독좌암이 있어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 한다. 이 서당은 현재의 위치에서 10여미터 앞쪽에 있었으나 1973년 도로의 개설로 뒤편으로 옮겼다.

서당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전후면에 퇴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홀처마 박공기와 집이다. 대청마루 양측에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3. 屯山洞 慶州崔氏宗家(민속자료 제1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386번지에 소재하여 경주 최씨 漆溪派宗中에서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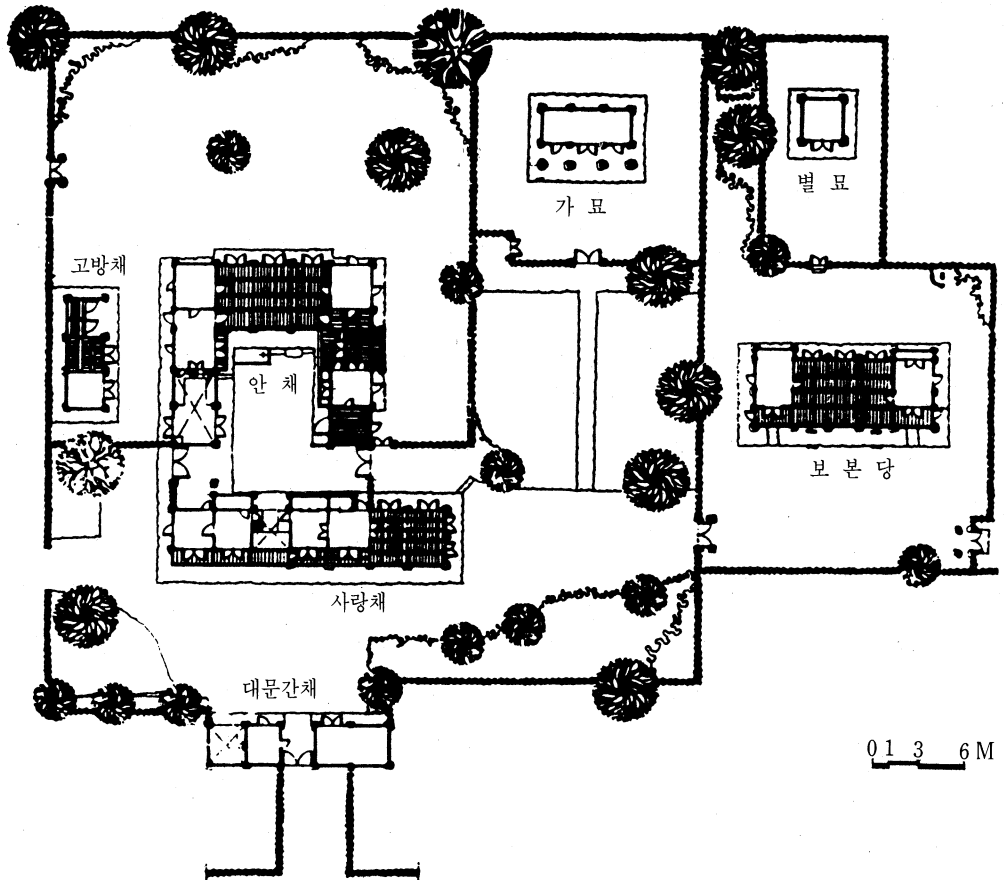
경주최씨, 匡靖公派시조 崔鄴의 후손으로 인조때 문신인 台巖崔東集은 大君師傅를 지내었다.

광해군 8년(1616)에 옷골(漆溪)로 내려와 정착하였는데 현재의 正寢은 그의 손자 慶涵이 숙종 20년(1694)에 건축하였다. 崔興遠을 향사하기 위하여 종택 전방에 건립된 東川書院은 대원군의 輦撤령으로 철거되고 고종 42년(1905)에 사랑채를 증건하였다. 한편 正寢동편에 있는 報本堂과 別廟는 崔東集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조 18년(1742)에 崔興遠이 건축하였다. 최흥원은 정조때 학자로 팔공산 夫仁洞에 은거하면서 呂氏藍田鄕約과 朱子白鹿洞規를 본따서 ‘夫仁洞約’을 만들어 주민의 교화와 상부상조에 힘썼으며, 정조 13년(1789)에 左承旨에 추증되었고, 효행이 지극하였다. 가묘에 遷位로 봉사되었다.

이 건물은 사랑채, 안채, 재실, 가묘, 별묘 등 사대부가의 구성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조선시대의 주택으로 대구시내에서는 보기드문 건물이며, 현재 지방민속자료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의 현존건물의 건축 연대, 규모, 양식, 기타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팔공산》, p. 443)

〈表 3-33〉 둔산동 경주최씨증가건물의 특징

建 物 名	指 定	建 築 年 代	規 模 (前×側)	架 構 (樑)	공 包	처 마	지 붕	備 考
안 채	地方民俗資料第1號	1694年	5×5.5(間)	3	민도리	홀	맛 배	
사 랑 채	〃	1905年	7×2	3	민도리	홀	맛 배	
家 廟	〃	1694年	3×1.5	3	굴도리	홀	맛 배	
報 本 堂	〃	1742年	5×2	5	初翼工	홀	합 각	
別 廟	〃	1742年	1×1	3	翼 工	홀	맛 배	
대 문 채	〃	1927年	5×1	3	민도리	홀	맛 배	
고 방 채	〃	1982年	3×1	3	민도리	홀	맛 배	



〈圖 3-7〉

屯山洞 慶州崔氏宗家 平面圖

4. 梧川書院

이 서원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파동 432번지에 있다. 1563년 유림에서 이황, 정구, 정경세 등 세분을 모시기 위해 연경서원을 세운것이 대구지방 서원의 효시이다. 그후 1744년에 오천서원을 4번째로 세운 것이다. 이 서원은 조선전기 성종때 대사헌을 지낸 大峰楊熙止을 추모하기 위하여 士林이 세운 것이다. 이 서원은 지금의 북쪽 2km지점인 파령골이었으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05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당호를 武陵齋로 고쳤으나 1971년 유림총회결의로 사당을 짓고 당호도 오천서원으로 개칭하였다.

5. 喚星亭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북구 서변동 881번지에 있으며, 임진왜란때 대구지방의 의병장으로 활약한 苔巖 李輔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그러나 그 건립시기와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이 건물의 양식은 누마루 형식으로 된 마루에 전면 3칸, 측면 2칸의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환성정의 편액은 大院君의 친필이고, 花樹亭의 편액은 조선말기의 유명한 尹用求의 글씨이다.

6. 龍潭齋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북구산격1동 878번지에 있으며, 임진왜란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怡齊 徐思進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달성서씨 문중에서 세운 건물로 건립연대는 1650년경으로 추측된다. 현재 용담재, 상량문에 「崇禎紀元後午戌子」라는 연대로 보아 1888년경 중수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건물은 삼량 홀처마 박공지붕이며 측면 4칸, 마루는 우물정자형으로 되어 있다.

7. 獨茂齋(문화재자료 제17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만촌동 183번지에 있으며, 벼슬을 마다하고 오로지 후진양성에만 전념한 夏時贊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 서인순과 유림들이 세운 것이다. 하시찬은 영조 26년(1750) 2월 6일 수성구 만촌동에서 태어나 순조 28년(1828) 세상을 떠났다. 그는 禮學에 밝아 《八禮節要》 2권을 저술하였다. 그는 당대의 석학이던 이경호, 송성담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선비로서의 명망이 높았다 한다. 현재의 위치는 3차 우회선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이전된 곳으로 그 서쪽에 경덕사와 장판각을 새로 지었는데 장판각에는 《팔레절요》와 《悅菴文集》판각이 보관되어 있다. 이 건물양식은 삼량 홀처마 맞배지붕이고 우물마루에 양쪽에 퇴마루가 높게 놓여 있다. 건물양쪽끝에 태극을 그린 풍판이 붙어있고 창방위에 화반이 받치고 있으며, 기둥머리 부분은 봉두고임으로 되어 있다.

8. 慕明齋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만촌동 716번지의 형제봉기슭에 있으며 임진왜란때 援兵을 왔던 杜師忠이 귀화한후 그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두사충의 호는 慕明이며 중국의 杜陵이 고향으로 상류층에 속하였다. 그는 임란시 진지에 적합한 장소를 잡아주던 水陸地劃主事로서 軍陣을 펴는 일급참모였다. 임란이 끝난후 두아들을 데리고 조선에 귀화하였는데 대구의 중

양공원 일대를 하사받았는데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기자 이곳을 내어놓고 계산동 일대에 주거지를 옮겨 이곳이 두씨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그후 고국에 두고온 부인과 형제들이 그리워 最頂山(지금의 大德山) 밑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가 죽은 후 자손들은 형제봉기슭에 묘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묘명제는 1912년 경산의 客舍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묘소앞에 건립하였고, 1966년 중수하였다. 모명재 앞뜰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건물양식은 삼량 겹치마 팔작지붕이고 아름답디 대들보가 건물을 돋보이게 한다.

9. 靑湖書院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황금동 271번지에 있으며, 조선시대의 慕堂孫處訥, 沙月堂柳時潘, 格齋 孫肇瑞, 暘溪鄭好仁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손처눌은 명종 8년(1553)에 태어나 인조 12년(1634)에 세상을 떠날때까지 향리에서 후진양성에 힘썼다. 임진왜란때는 의병장으로서 활동하였으나 난이 평정된 후에는 永慕堂에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淸湖池를 만들어 수리안전답을 만들었다. 조정에서 논공행상을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그가 후진양성에 힘썼다는 것은 《永慕堂通講諸子錄》에 202명의 제자명단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건물은 숙종 20년(1694) 유림에서 황금동에 청호서원을 건립하여 향사하였고, 그후 영조 31년(1755)에 유지번을, 정조 11년(1795)에 정호인과 그의 6대조인 손조서를 추향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68년 소실됨에 따라 위패를 모신 尙仁祠를 중건한 것이다. 그 서쪽에 慕堂先生遺墟碑가 세워져 있는데 비문은 일제때 의병장인 金道和가 지은 것이다.

10. 膽慕齋(문화재자료 제19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황금동 258번지에 있는데 조선초기 南隱徐涉을 추모하기 위하여 1926년 그 후손과 유림들이 세운 건물이다. 서섭은 달성서씨 判書公派의 派祖로서 世宗때 문과에 급제하여 문종을 거쳐 단종에 이르러 資憲大夫 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그는 수양대군의 찬탈행위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아 역사의 그늘에서 묻혀 있었으나 1924년 후손들이 집을 헐다가 천정속에서 그의 행적이 기록된 기록과 유고를 찾아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홀치마 팔작지붕, 우물마루 대청을 이루고 있다.

11. 把溪寺 說禪堂(문화재자료 제7호)

이 건물은 인조 1년(1623) 戒寬法師에 의해 창건되어 두차례(1646, 1725)에 걸친 중건과

1762년 重葺공사후 1922년, 1973년 부분적인 공사가, 1976년에는 대수선하였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7칸으로 ㄱ자형의 건물로 겹치마 팔작지붕 민도리집으로 상부가구는 5檁架이다. 이 건물은 파계사의 대중식당과 강습소로 사용되고 있다.

12. 把溪寺 圓通殿(유형문화재 제7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동구 중대동 7번지에 있으며, 신라시대 애장왕 5년(804)에 心地王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원통전은 임진왜란때 소실된것을 선조 38년(1605)에 戒寬法師가 중건하고, 숙종 21년(1695) 玄應祖師가 다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기와 지붕으로 다포식 공포를 이루고 있다.

13. 桐華寺 大雄殿(유형문화재 제10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있으며, 신라시대 창건이래 8차례의 중창을 거듭하였으며, 대웅전은 여러차례 중창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후기 영조 3년(1727)에서 동왕 8년(1732)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 공包는 内五出目, 外三出目으로 이 건물은 조선후기의 일반적 장식적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정면의 꽃실 문짝과 모서리 기둥, 아름드리 나무의 자연미 넘치는 기둥은 주목된다.

14. 桐華寺 極樂殿(유형문화재 제11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동구 도학동 36번지에 있는 조선시대 숙종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건물로 중앙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이 건물의 특색은 기단이 주목된다.

15. 宣化堂(유형문화재 제1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중앙공원에 있으며 경상도 감영의 政廳으로 쓰이던 관아건축물이다. 안동에 있던 감영을 선조 34년(1601)관찰사 金信元때 옮겨졌으나, 그후 현종 11년(1670)과 영조 6년(1730), 순조 6년(1806) 3차례에 걸쳐 소실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순조 7년(1807)관찰사 겸 부사인 尹光顔이 중건한 것으로 그후 경북도청으로 사용되어오다가 1969년 도청이 현청사(북구 산격동)로 이전한 후에 1970년 중앙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보수한 것이다.

건물규모는 정면 6칸, 측면 4칸의 겹치마 단층팔작지붕으로 주심포양식과 익공식의 절충형 공포를 이룬 二高柱七檁架의 집이다.

16. 澄清閣(유형문화재 제2호)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중구 포정동 21번지(중앙공원)에 있으며 경상감영의 관찰사 처소로 쓰이던 건물이다. 안동에 있던 감영을 대구로 옮기면서 宣化堂, 凝香堂등 여러 채의 건물을 함께지었다. 그후 소실된 것을 선화당을 중건하면서 이 건물도 중건하였고 중앙공원조성때 보수한 것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8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와가로 二高柱 七樑架의 익공식 건축물이다.

III. 民間演藝

대구지방에 현존하는 주요민간연예는 주로 農樂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로서 발전하여 왔기때문에 하늘에 풍년을 축원하고 감사하기 위한 祭天儀式을 행하여 왔다. 농악은 이같은 농경신에 대한 축원의 의식과 가무에서 비롯하여 점차 악기를 더하여 오늘날의 농악대(풍물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남아있는 농악만 해도 비산농악은 ‘천왕매기굿’에 관련되는 축원농악에 가깝고, 고산농악은 모의농사굿의 색채가 짙은 축원농악과 연예농악으로서의 판굿이 복합된 농악이며 옥수농악은 정초 洞祭때 올리는 축원농악이면서도 모의농사굿의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모 의군사굿의 요소가 두드러진 농악이다. 이들 농악은 지신밟기와 아울러 걸립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농악으로 축원굿(의례), 농사굿(모의 농경), 지신밟기(걸립), 판굿(연예) 형식의 농악은 원래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늘날에는 이런 형태가 복합되어 있고 대구시 일원에서 행해지는 농악도 이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현존하는 농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⁷⁶⁾

1. 飛山農樂(무형문화재 제2호)

이 농악은 ‘날피북춤’이라고도 하는데, 현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에서 자생한 농악이다. 이지역 주민들이 洞祭堂인 天王堂(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서 정월 보름날 행하던 ‘天王매기굿’때의 지신풀이에 그 모태를 두고 발전해 온 것이다. 이 농악은 농사굿의 성격보다는 군사굿의 성격이 짙으며 전체의 놀이는 12마당으로 되어 있으나 전성기에는 마당수를 늘려 긴

76) 민간연예는 《大邱의 禮樂》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과 《達句伐文化財》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추출 요약한 것이다.

시간을 늘 수 있었다 한다. 이 농악의 예능 보유자는 청도에서 태어나 16세때 비산동에 정착하여 낙피북춤을 배워 그 전승에 주력하고 있는 金壽培이다. 이날 외북춤의 편성인원은 쇠 2명, 징 6명, 북 4명, 소북 1명, 양반 1명, 포수 1명, 기수 3명, 나팔수 1명 모두 19명이다. 비산농악대는 1953년 조직되었고 1958년 10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영남농악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후 대구지방의 대표적 농악대로 손꼽히고 있으며, 1987년 10월에는 「낙피북춤연구원」을 개원하여 전수에 노력하고 있다.

2. 비산동 천왕매기(무형문화재 제4호)

이 연에는 오랜 옛날부터 비산동 일대의 주민들이 신앙해 오던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 대한 지신풀이로 해마다 정초가되면 마을 주민들이 심신을 깨끗이 하여 제단을 차려 천왕제를 올렸는데 치성이 부족하면 가뭄과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보통의 지신밟기가 가가호호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천왕매기는 마을 굿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왕굿은 대내림, 제관 선출(정초), 질굿, 문굿, 고사독축, 천왕매기, 판굿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대내림, 질굿, 판굿은 농악만의 절차이며, 문굿, 천왕매기는 지신풀이이며, 고사와 독축은 유교식 방식으로 이는 무속, 불교, 유교의 습합으로 된 祭儀舞樂이라 할 수 있다. 이 천왕매기의 편성은 쇠 2, 징 4, 대북 6, 장고 4, 소고 6, 들북구 6, 양반 1, 포수 1, 축관 1, 각시 1, 기수 2명 계 34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전승을 위한 노력은 비산 농악과 같다.

3. 孤山農樂(무형문화재 제1호)

이 농악은 수성구 고산1동 내환마을에서 자생하여 전승되어 온 농악이다. 내환동은 고려 시대부터 ‘谷己’라 불리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의 자연촌이며, 각성 마을이다. 이 농악은 마을의 개척시기부터 전승되어오면서 매년 정월 보름에 洞祭를 지냈는데(上堂, 中堂, 下堂) 이 동제의 왕복길에 농악을 잡으며 동제 끝난 후에도 풍물을 쳤다 한다. 이 농악놀이 과정에서 ‘닭쫓기’놀이는 고산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놀이마당이다. 이 농악은 기본적으로 부락마치(길매구가락), 조름쇠, 굿거리, 살풀이 자락을 친다. 그 편성인원은 쇠2, 징6, 북10, 장고10, 소고14, 포수1, 양반1, 각시2, 농기3, 평각1, 계 50명으로 그 절차는 堂山祭, 지신밟기(성주풀이, 조왕풀이, 용왕풀이, 고방풀이, 방앗간 풀이, 마구간풀이, 마당풀이), 판굿(덩덩궁이(원진), 둘석(진굿), 춤굿(판굿), 닭쫓기, 방석말이(오방굿), 모내기굿, 법고놀이)의 절차를 밟는다.

4. 旭水農樂(무형문화재 제3호)

이 농악은 수성구 옥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어 오는 농악으로 원래 경산군 고산면이었던 것이 1981년 대구직할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의 농악이 되었다. 이 농악은 이 마을 洞祭堂에서 매년 정월 초 3일 관행하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것이다. 옥수농악은 동제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굿’과 이에 뒤따르는 판굿과 보름날의 구걸(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도시화과정에서 중단되었고, 달불놀이도 입산금지로 없어졌으나 지신풀이는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되고 있다. 이 옥성농악은 축원농악과 연희농악의 복합농악이며, 전체의 구성은 진굿에 가까운 농악이다. 이 예능 보유자는 그 마을의 朴元鎬, 李萬邦이다. 옥수동 농악의 편성은 쇠 2(상쇠1, 종쇠1) 징 6, 북 8, 장고 8, 범고 12, 목나팔 1, 양반 1, 포수 1, 색시 1, 농기수 1, 기수 2명, 계 43명이며, 演行과정은 질매굿(질굿), 천왕받이굿, 둥글데미, 마당놀이, 외따기, 덧배기, 오방진, 덕석말이의 절차를 밟는다.

그외에 대구의 演藝로서 女唱歌曲이 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제5호로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에 權側伊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가곡은 판소리, 梵唄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곡 중의 하나로 시조가 대중적인데 비해 가곡은 전문가에 의해 계보를 전승되어 온 正歌이다. 남창 24곡과 여창 15곡을 가곡의 한바탕이라 한다.

嶺制時調(무형문화재 제6호 :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는 경상도 지방을 대표하는 시조이다. 시조의 창법은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로 나누고, 지역마다 서울중심의 京制, 지방의 鄉制로 나누어지는데 충청도지방의 內浦制, 전라도 지방의 完制, 경상도지방의 嶺制로 구분한다. 이 시조의 기능보유자인 李基綾은 조선말 영제시조의 3대 명창인 손덕겸의 맥을 이은 사람이며, 여창 蔡月丹은 단절 소멸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굳건히 전승하여 왔다.

公山農謠(무형문화재 제7호 : 대구직할시 동구 평광동)는 공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 오는 농업노동요로 선소리꾼이 노래를 맥이면 농꾼들이 받아서 뒷소리를 함께 부르는 문답창의 형식이다. 이 기능보유자인 宋文昌은 이곳에서 태어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노동요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농요로는 모찌는 노래(파산동, 신당동, 갈산동, 대곡동, 율하동, 율암동, 관음동의 모찌는 노래), 모심기노래(위와같은 동, 상인동, 범물동, 이천2동, 대명동, 만촌동, 불노동, 봉무동, 검사동), 논매기노래, 보리베기노래, 타작노래, 어사용(들노래 : 나무꾼노래), 방아타령, 벼들노래 등이 유명하다.

살풀이춤 또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살풀이춤은 南道巫樂에서 나온 것으로 액을 쫓다거나

살을 푼다는 의미에서 볼때 무속적 종교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살풀이 춤은 굿판에서 살풀이 가락에 맞추어 오던 것이 조선말기에 광대나 기녀들이 추게 되었다. 그후 예술적인 것으로 다듬어져 기방예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춤의 명칭도 입춤, 散調, 군흥무, 수전춤 등으로 불리어졌으나 살풀이 춤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韓成俊이 1936년 무용 발표회를 할 때 ‘살풀이춤’이라고 불렀다. 이 기능 보유자는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67-1번지에 사는 權明花(女)이다.

대구지역의 연예기구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濯纓거문고(보물제957호: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3동 1329-2)이다. 이 거문고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160cm, 폭 19cm로 탁영 김일손이 타던 유물로 149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부분에 탁영이란 문자가 음각되어 있고, 학의 그림이 하단에 그려져 있고, 그의 사후에 玉岡이란 선비가 탁영의 거문고임을 밝히는 글이 거문고 전면에 음각되어 있다. 이 거문고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鳳尾 등의 부품일부는 개수한 흔적이 보인다.

第4章 倭・胡兩亂과 大邱

第1節 倭亂의 勃發과 大邱地域의 義兵活動

I. 壬亂前後의 國內外 情勢와 戰勢推移

14세기 말에 건국된 조선왕조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는 4대사화와 훈구·사림 세력간의 계속된 정쟁으로 인한 중앙정계의 혼란, 사림 세력들이 득세한 선조즉위 이후 격화된 당쟁 등으로 정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군사적으로도 조선초기에 설치된 국방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군국기무를 장악하는 비변사라는 합의기관을 설치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이(李珥)는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는 점점 해이해지고 문약(文弱)에 빠져 근본적인 국가방책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¹⁾ 그러면 이 시기 明·女眞·倭 등 주변국들의 정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明나라는 16세기 초에 明帝의 私的인 자문기관이었던 內閣大學士가 宰相的인 관직이 되고, 지방에 임시로 파견된 總督·巡撫가 종래 행정·사법·군사의 三權을 장악했던 各省長官의 上位에서 총괄적인 지방장관으로서 상주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皇帝權限의 절대적인 국가 법제의 정비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임 즉 황제와의 私的 관계에 의한 유력한 특정인물 또는 집단이 현실적으로 황제권을 대행하는 사실을 낳게 했다.

隆慶帝(1567~72)와 그 아들 萬曆帝(1572~1620)의 초기 10여년간은 首席大學士 張居正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이같은 權臣들의 專權은 官紀 肅正, 매관·매직의 정비, 전국적인 토지측량에 의한 穩田의 적발 등으로 정치의 정상화를 실현하며 宦官政治는 일시 후퇴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정치는 환관에 의해 다시 문란해졌으며 清議派인 東林黨과 환관과의 대립이 17세기에 이르러 격화되어 갔다.

明帝國의 對外關係를 보면, 오이라트(瓦剌)를 蒙古 서북쪽으로 구축한 韃靼이 16세기 초에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진왜란 항 참조. 이하 本章에서는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1, 1973,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上, 198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등의 兩亂관계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르러 내몽고 일대를 지배하자 그들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한편 東南의 해안일대에서는 무역과 약탈을 감행한 왜구가 일어났다. 明과 日本間의 공식적인 조공무역이 1523년에 단절된 이후, 일본인의 대명무역방식은 약탈적 경향을 띤 왜구가 치열해졌다. 그들은 동시에 명에서 발생한 반국가권력적인 밀무역상, 즉 자립적인 모험적 상인과의 거래로 변화하였다. 이 때문에 明은 1546년의 해금령을 엄중히 실시하여 明人의 해외출항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연해안의 군비를 강화하였으나 무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滿洲에 자리잡은 女眞族은 黑龍江 유역의 野人女眞, 松花江 유역의 海西女眞, 東滿洲 山間部에 자리 잡은 建州女眞이 가장 유력하였다. 그 중에도 朝鮮과 가장 가까운 建州女眞은 明의 軍政下에 들어가면서부터 建州衛·建州左衛·毛憐衛 등을 형성하였다. 이에 조선은 女眞人에 대하여 회유정책과 정벌을 겸하는 이중정책을 적용하며 北方經略을 계속하였다.

한편 일본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극한 상태의 혼란을 수습하여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室町(足利)幕府의 권위가 떨어지고 각지에서 호족들이 할거하며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戰國時代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기에는 織田信長の 주도아래 통일정권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戰國의 혼란수습에 있어서 주역이 된 織田信長은 1582년 반대파를 제거한 후 毛利輝元과의 결전을 위하여 京都에 있는 本能寺에 머물러 있다가 살해당하였다. 그를 계승하여 국내의 통일사업을 완성한 것이 豐臣秀吉이었다. 그는 주야로 3만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大阪城을 쌓고 이 곳을 통일사업추진을 위한 본거지로 삼았고, 1587년 九州征伐을 끝내면서 그 여세를 몰아 국내통일사업을 완수해 나갔다. 그는 정권의 기반인 토지와 농민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582년부터 전국에 걸쳐 檢地를 실시하였다. 1587년에는 〈刀狩令〉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칼·창·활·총 등의 무기를 거두어 들였으며 1591년에는 小田原征伐이 끝난 것을 계기로 이후 백성들이 田土를 버리고 商賈나 임대업에 종사함을 금하고, 侍人·仲間·奉公人이 새로이 백성이나 町人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朝鮮은 이처럼 급격하게 변해가는 東洋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오직 明에 대한 친선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위정자들의 좁은 견해는, 권력싸움과 派黨組織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16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일본에 通信使까지 파견하였으나 그들의 상반된 보고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위정자들은 日本侵略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기본적으로 朝鮮王朝의 일본에 대한 정책은 交隣政策이었다. 이는 주로 왜구를 막기 위한

회유적 평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三浦倭亂(1510) 후 壬申約條로 對馬島主에게 주는 歲賜米와 歲遣船의 수를 반감하고 蛇梁津倭變(1544)을 계기로 丁未條約을 맺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리고 1555년 全羅道 靈岩 達梁浦에 왜선 70척이 침입하여 연해를 약탈한 乙卯倭變이 일어나고 그 후로도 자주 침범이 있자 일본과의 교역을 일체 단절하여 약 30년간 정식 교역이 두절되었다.

이와 같은 朝・日關係 속에서 일어난 壬辰倭亂에 대해서는 그 발생원인으로 1. 豐臣秀吉의 개인적인 심리적 공명심과 영웅심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 2. 日本의 朝鮮이나 明에 대한 무역과 결부된 해외발전에 두는 것. 3. 豐臣秀吉이 일본국내의 여러 封建領主, 특히 신흥세력인 九州의 領主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海外遠征 등이 주장되고 있다.²⁾

日本의 정권을 장악한 豐臣秀吉은 中國大陸을 정복하겠다는 지나친 망상을 품고 먼저 朝鮮과의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는 1587년 국내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九州征伐을 끝마치고 對馬島主 宗義調와 宗義智 父子에게 朝鮮침공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朝鮮사정에 정통한 對馬島主는 이 계획이 무모한 것을 알고 朝鮮이 通信使를 파견토록 교섭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對馬島主는 그의 家臣인 橘康廣을 日本國王使로 宣祖 20年(1587)에 파견하여 日本국내사정을 설명하고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朝鮮은 日本國內 情勢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그 대책에는 의견이 구구하여 귀결을 짓지 못하였고 書契의 書辭가 오만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 답서만을 받고 사신을 보내지 않은채 회답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대마도주 宗義智는 豐臣秀吉의 독촉이 심하여 이 이상 지연되면 出兵이라도 할 분위기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22年 봄에 僧 玄蘇와 家臣 柳川調信 등을 帶同하고 朝鮮에 들어 왔다. 이에 조선의 조정은 통신의 가부를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柳成龍・李德馨・邊協 등 유력한 신하들이 통신의 可를 주장하자 이를 받아 들여 報聘을 겸하여 日本의 實情과 豐臣秀吉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宣祖 23年(1590) 3월에 僉知 黃允吉을 通信使, 司成 金誠一을 副使, 典籍 許葦을 書狀官으로 삼아 宗義智와 함께 日本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당시 大丘府使로 있던 權文海는 金誠一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를 慶山까지 따라가 향연을 베풀어 使行을 위로하였다.

通信使 一行은 宣祖 24年(1591) 3월에야 서울에 들어 왔으며, 西人인 黃允吉은 ‘日本이 많은 兵船을 준비하고 있어 필경 兵禍가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東人인 金誠一은 ‘來寇할 情形을

2) 韓沽勛, 〈壬辰亂原因에 關한 檢討〉《歷史學報》1, 1925.

보지 못하였다'고 보고 하였다.³⁾ 이에 東西兩黨의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苟安과 무사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옴에 조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방어책을 세워 金晬를 慶尙監司, 李洸을 全羅監司, 尹國馨을 忠清監司로 임명하여 武器를 정비하고 城池를 修築하기 시작하였으며 요충지인 慶尙道에는 釜山·東萊·密陽·金海·多大浦·昌原·咸安 등의 諸城을 증축하고 종래에 성벽이 없던 大邱를 비롯하여 淸道·星州·三嘉·永川·慶山·河陽·安東·尙州 등의 邑城을 新築하였다. 大丘의 邑城은 이때 처음으로 축조되었던 것이며, 당시 大丘府使로 있던 尹晁이 부근의 善山·軍威·仁同의 民人을 징발하여 축성하였던 것⁴⁾이지만 이 城은 壬亂때 허물어져 버렸다.

大丘는 古來로 朝·日使節이 往來하는 要路에 위치하여 倭情이 심상치 않을 때에는 慶尙道沿海에 대한 방비도 중요하지만 釜山에서 上京路의 中央路線의 요지인 大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邑城의 축조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은 대비를 세우고 있는 동안 豐臣秀吉은 1591년 日本全國을 평정하고 전국에 걸쳐 軍糧·兵船·軍役의 수를 할당하였으며, 行營本部로 九州의 名古屋에 축성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조선침공의 날짜를 이듬해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宣祖 25년 정월에 일단 수륙 침공군의 군대편성을 정하고 다시 3월에 재편성하였다. 즉 陸兵은 침공군인 1番隊에서 9番隊까지 총 15만 8천 7백명이고, 名古屋를 비롯한 일본국내 잔류병력은 11만 8천 3백여 명이었다. 침공군중 8·9番隊兵力 2만 1천 5백명은 각각 對馬島와 壹岐島에 주둔케 하였으므로 壬辰倭亂初 侵入倭軍의 總數는 약 13만 7천 2백여명이었다. 특히 선봉대로서 최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小西行長을 主將으로 하는 1번대의 1만 8천 7백명, 加藤清正이 主將인 2번대의 2만 2천 8백명과, 黑田長政의 3번대 1만 1천명으로 합계 5만 2천 5백명이었다.⁵⁾ 그리고 九鬼嘉隆·脇坂安治·加藤嘉明·藤堂高虎 등 水將이 별도로 수군을 편성하고 있었다. 秀吉이 宣祖 25년 3월 5일에 최종적으로 편성한 총 병력은 28만 1천 8백 40명으로 엄청난 숫자였다.

선봉대인 1번대에서 4번대까지는 3월 초하루부터 일기에 따라 名古屋를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5번대이하는 各隊將領의 居城을 떠나 名古屋로 집결을 시작하는 期日을 각각 정하였다.

第1번대는 3월상순에 名古屋를 떠나 壹岐島를 거쳐 13일에는 대마도 府中浦에 다다랐으며 그 主將인 小西行長은 사위인 宗義智의 5천명을 여기에서 합친 다음 약 1개월에 걸쳐 作戰

3) 柳成龍의 《懲備錄》에 의하면 金誠一의 주장은 '꼭 倭軍이 침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4) 《大丘邑誌》와 《宣祖實錄》권 45, 閏 11月 甲午條를 검토해 보면 宣祖 23년부터 이듬해까지 大丘邑城이 만 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5) 李炯錫, 《壬辰戰亂史》上, pp. 133~136.

준비를 完了하게 되었다. 3월 24일에 行長 등은 陸路로 豐崎에 향하였고 軍船은 東海岸에 沿하여 海上으로 大浦에 回航하여 4월 14일 1만 8천 7백여명으로서 軍船 7백여척에 分乘하고 午前 8시 大浦港을 떠나 午後 5시경에는 釜山 앞바다에 다다랐다.

이때 도착한 兵力은 小西行長(肥後宇土城主) 7천명, 宗義智(대마도府中城主) 5천명, 松浦 鎮信(平戶島城主) 3천명, 有馬晴信(島原城主) 2천명, 大村喜前(大村城主) 1천명, 五島純玄(福 鴻城主) 7백명이었다.

1번대에 이어 第2번대 主將 加藤清正은 2만 2천 8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3월 24일에 名古屋를 떠나 壹岐島를 거쳐 對馬島에 도착한 다음 第1번대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침략에 성공한 것을 알고 19일에는 釜山浦에 쳐들어 왔는데 그 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加藤清正(肥後熊本 城主) 1만명, 鍋島直茂(肥後佐賀城主) 1만2천명, 相良頼房(肥後人吉城主) 8백명이었다. 또 3번대 主將 黑田長政은 병력 1만1천명을 이끌고 4월 19일에 竹島附近에 상륙하였다.

1番隊는 4월 14일 釜山浦에 상륙하였는데 釜山에서는 僉使 鄭撥이, 東萊에서는 府使 宋象賢이 戰死하였다. 16일에 倭軍은 機張과 左水營을 점령하였고 17일에는 梁山, 18일에는 密陽, 21일에는 大丘城을 점령하게 되었다. 《懲備錄》에는 “처음에(亂初) 慶尙道巡察使 金晬가 일본이 침범했다는 변을 듣고 곧 制勝方略에 따라 列邑에 檄文을 보내 各其所屬軍士를 거느리고 待機케 하는 동시에 聞慶以下の 守令은 各其軍隊를 引率하여 大丘에 集結, 川邊(琴湖江)에서 露宿하면서 南下하고 있는 巡邊使(李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數日이 지나도록 巡邊使는 오지않고 왜적은 점차 가까이 肉迫해 오고 있다는 報道가 전해지자 待機中이던 諸軍이 스스로 驚動하는가 하면 때마침 큰 비가 내려 衣裝이 모두 젖고 糧餉도 다 되니 병사들은 밤중에 모두 潰散하고 守令들도 모두 單騎로써 奔還하고 말았다.”고 하였다.

倭軍의 大丘占領으로 大丘邑城은 모두 破乖되었던 것이며, 大丘府使 尹晁은 管内軍民 2,000餘人을 거느리고 公山城에 退守하였다. 大丘邑城이 陷落할때 대부분의 軍民은 府使의 인솔하에 公山城으로 退守하였고 住民들은 山谷에 숨었으며, 미처 避身하지 못한 民人들 가운데서는 倭賊에 依해 被害된 者도 많았을 것이다.

大丘를 占領한 1번대는 仁同・善山道를 돌파하여 尙州를 치고, 2번대는 彦陽・慶州를 거쳐 永川・新寧・軍威・比安・龍宮・豐津道를 지나 聞慶에서 1번대의 뒤를 따라 忠州에 들어 왔다가 다시 左・右縱隊로 나누어 1번대는 驪州・楊根道를 따라 漢城동쪽으로 나오고 2番隊는 竹山・龍仁을 거쳐 漢江南쪽으로 나왔다. 한편 3番隊는 金海・昌寧道를 따라 左右로 分進하여 그 右縱隊는 茂溪・星州道를 그 左縱隊는 草溪・居昌・知禮道를 北上하여 金山에서 합치고

永同·懷德·淸州道を 따라 漢城으로 돌진하였다. 大丘는 왜군의 北上路가운데 中路의 요지에 해당되었으므로 倭의 대군이 속속 大丘를 거쳐 북상하였고, 邑城은 평지인데다가 또한 견고하지 못하였으므로 府使 尹晔은 왜군을 맞아 싸우지 못하고 賊의 銳鋒을 피해 公山城에 退陣하였으므로 邑城은 賊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들 後續部隊의 통과로써 또는 후방 경비부대의 주둔지 역할을 했다.

倭軍은 4~5월에 걸쳐 第4陳으로 4번대의 毛利吉成과 高橋元種·秋月種長·伊東祐兵·島津忠豐은 4월 중순에 釜山에 上陸하였으나 그 주력부대인 島津義弘의 병력 1만여명은 5월 2일에야 부산에 침입하였으며 그 후미는 6월 29일에 熊川에 침입하여 毛利吉成의 뒤를 따라 靈山·昌寧을 거쳐 玄風에 들어가 駐留하다가 尙州를 지나 서울로 侵入하였다. 5~9번대도 속속 조선에 상륙하였는데, 특히 7번대의 毛利輝元은 4월 19일 釜山에 들어왔으며 5월 10일에는 玄風에, 18일에는 星州에 侵入하였고 6월 12일에는 開寧에 침입하여 이 지방을 지키게 되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4월 17일 새벽에 慶尙左水使 朴泓의 馳報에 접하고 이어 諸邑陷落의 급보가 이어지니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中路를 防備케 하고 成應吉을 左防禦使로 삼아 東路(竹嶺方面)로 내려 보내고 趙徹을 右防禦使로 삼아 西路(秋風嶺方面)를 막게 하고 助防將 劉克良에게 竹嶺을, 助防將 邊璣에게 鳥嶺을 각각 지키게 하고 申砮을 都巡邊使로 삼아 李鎰을 따라 떠나게 하고 左議政 柳成龍을 都體察使로 삼아 諸將을 督察케 하였다. 그러나 李鎰은 24일 尙州에서 小西行長에게 敗走하였으며, 申砮은 忠州 彈琴臺에 背水陳을 치고 一戰을 하였으나 敗하여 江에 投身自決하게 되어 東南 제1의 天險인 鳥嶺이 무너져 王京이 곧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左議政 李陽元을 守城大將, 金命元을 都元帥에 任命하여 首都와 漢江을 수비케 하였다. 그러나 4월 29일 公州의 敗報가 이르니 宣祖는 宗室·諸大臣과 의논한 결과 잠시 平壤까지 亂을 피하고 明에 援兵을 請하여 收復을 꾀하기로 하는 한편 王子를 諸道에 分遣하여 군사를 모으도록 하고 王은 世子 光海君以下 廷臣 李山海·柳成龍 등과 함께 西大門을 나와 開城으로 향하자, 亂民들은 掌隸院과 刑曹에 방화하여 公私奴婢文書를 불사르고 內庫에 난입하여 金銀財物을 약탈하였으며 景福宮 등 宮室과 官府에 방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北上하던 1번대의 小西行長 등은 淸正 등의 第2번대와 함께 5월 2일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날 小西行長은 東大門으로부터, 淸正은 南大門으로 입성하였는데 제1번대가 釜山에 상륙한지 겨우 19일만에 서울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開城에 가있던 宣祖는 5월 7일에 平壤에 도착하였다.

慶尙道 經略을 담당한 毛利輝元은 釜山에서 西北進하여 5월 17일부터 星州에 주둔하였다가 6월중순에 開寧에 移駐하여 慶尙道 治安을 담당하였다. 이때 大丘는 小西行長 등의 제1번대가 점령한 이래 계속 北上하는 日本의 침략군 諸部隊가 속속 통과하였고, 毛利輝元의 제7번대가 주로 大丘의 수비를 담당하면서 이곳에 館舍를 건축하고 秀吉의 親征에 대비, 行營으로 사용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의치 않았다. 7월 初旬 大丘에는 馬國竹田의 城主 齋村左兵衛尉 廣英 및 同國城崎의 城主 明石左近則實이 각각 8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주둔하였으며 8~9월경에는 美濃國郡上의 城主 稻葉侍從貞通이 1천4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가세하였다. 당시 日將 毛利輝元과 羽柴秀勝 兩人이 모두 臥病中이었으므로 秀吉은 醫官 曲直瀬道三을 보내 陣中에서 진찰케 하였으나 秀勝은 결국 진중에서 죽었다. 小早川隆景의 軍士는 茂朱에서 錦山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錦山에서도 철수하여 沃川에서 星州·開寧으로 모두 退屯하기에 이르렀다. 稻葉貞通은 尙州에서 철수하여 大丘에 가서 지키게 되었으니 이것은 日本軍이 全羅道 침략을 斷念하고 勇將의 稱이 있던 小早川隆景을 漢城 북쪽 요지인 開城方面에 옮겨 西北方面을 強化하는 一策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0월에 접어들자 日本은 慶尙道方面에서 主補給路를 左右道에 하나씩 保有하고 있었다. 慶尙左道에는 釜山(8千)-東萊-梁山-密陽(1천5백)-淸道-大丘(1천5백)였으며, 慶尙右道에는 昌原(5천)-金山(4천)-開寧(1만)善山(1천5백)-尙州(4천)-咸昌(1천)-聞慶(2천)으로 도합 4만명 정도의 병력을 분산배치하였던 것이다.

定平에 있던 宣祖는 평양함락의 보고를 듣고는 明에 急使를 보내 內附를 청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明은 自國領內가 戰場化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朝鮮에서 적군을 꺾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遼東·山東 등 沿邊의 兵備를 엄중히 하고 遼東鎮撫에 命하여 朝鮮國境에 병력을 내보냈다.

제1차 援兵으로는 유격 史儒, 參將 戴朝弁이 거느리는 精兵一千이 요동을 떠나 6월 15일에는 압록강을 건너 義州에 주둔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兵力은 明의 국경경비를 위한 것이었으며, 朝鮮의 여러차례에 걸친 援兵要請에는 明의 조정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많았으나 兵部尙書 石星이 강력하게 출병을 주장하여 마침내 조선에 援兵을 보내게 되었다.

明의 遼東副總兵 祖承訓의 軍이 義州에 이르렀을 때 倭軍의 平壤守將 小西行長은 그 南方 中和에 축성을 위해 많은 병력을 그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었으므로 祖承訓은 곧바로 남진하여 平壤에 이르렀다(7월 15일). 그는 風雨가 심한 야음을 틈타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악전고투하다가 오히려 적의 기습을 받아 戴朝弁·史儒 등은 전사하고 承訓은 兵을 거두어 퇴각하니 第1次 救援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기 前에 조선과의 講和를 두 차례나 시도했던 倭는 明의 개입에 즈음하여 明과의 講和를 청하게 되었다.

明에서는 兵部尙書 石星의 건의로 沈惟敬이 和議의 交涉使命을 띠고 8월 29일 평양에 와서 小西行長과 쌍방의 강화조건을 논의하고 50일 기한으로 본국에 돌아가 구체적 조건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한편 平壤西北 斧山院에 木標를 세우고 日本과 조선은 이 경계를 넘지 않기로 하여 일시적으로는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明의 조정에서는 李如松을 東征提督으로 삼아 第2次 援兵을 朝鮮으로 向發케 하였다. 그는 4만3천여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副總兵 楊元을 左協大將, 副總兵 李如百을 中協大將, 副總兵 張世爵을 右協大將으로 삼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 이듬해인 宣祖 26년 正月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조선의 巡邊使 李鎰, 別將 金應瑞가 여기에 합세하여 평양을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正月 8일). 朝・明聯合軍의 공격에 대항하여 小西行長・宗義智・有馬勝信 등이 싸웠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大同江을 건너 敗走하고 말았다.

李如松이 평양을 탈환하고 여세를 몰아 남하하자 開城을 지키던 小早川隆景 등도 黑田長政 등과 같이 서울로 퇴각하여 각각 남대문・동대문에 진을 치고 있었다. 正月 27일 京畿道 高陽 碧蹄館 남쪽 礪石嶺에서 小早川隆景・立花宗茂 등의 倭軍과 접전한 李如松 軍은 대패하여 坡州로 달아나 버렸다.

이처럼 明・倭 兩軍의 전투가 계속되면서 왜군은 결국 威鏡・平安 兩道로부터 퇴각하여 2月末에는 서울로 집결하게 된 반면 南海岸에서는 朝鮮水軍의 활약으로 全羅道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倭軍의 보급로가 끊어져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惡疫이 流行하면서 士氣를 잃고 講和를 간절히 원하였다. 明軍도 礪石嶺에서 크게 패한 뒤 講和交涉을 再開하고자 하였다. 이에 沈惟敬은 宣祖 26년 4월 서울로 들어와 小西行長과 다시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 교섭으로 왜군은 4월 18일부터 서울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忠淸・江原道の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倭軍도 급히 慶尙道 南部로 철수하여 5월 중순에는 釜山附近에 집결하였다. 이와 같은 왜의 철수지역에는 朝・明 兩軍이 들어와 각지에 배치되었다.

大丘地域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기에 주둔해 있던 왜군이 5월 15일에 南下하게 되면서 그날로 明軍의 參將 李寧이 兵馬 1千을 거느리고 大丘에 들어왔다.⁶⁾ 李寧에 이어 明軍의 副總兵 劉綎 및 그의 軍兵 5천이 來屯하였다. 大丘는 朝鮮의 穀倉인 전라도와 통하는 요충이므로 大丘 등지에서 萬軍 1萬의 糧食을 준비하고 朝鮮의 將士를 劉綎의 지휘에 복종케 하였다. 이러한

6) 《宣祖實錄》 권 39, 宣祖 26年 6月 己丑條.

명의 방침에 따라 吏曹判書 李山甫・戶曹判書 李誠中 등을 시켜 慶尙道 및 全羅道の 觀察使와 상의하여 萬名軍士의 1개월분 軍糧을 준비하고 大丘 등지에서 왜군과 對峙하게 하였다.

이러할 때에 倭軍은 6월 29일 晉州城을 포위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는데,⁷⁾ 이 위급상황을 都元帥 金命元으로부터 보고 받은 劉綎은 전혀 움직이려하지 않았다. 물론 李如松이 參將 駱尙志와 遊擊將 宋天斌 등에게 命하여 湖南으로부터 晉州로 나가 응원토록 하고 大丘地域의 劉綎・吳惟忠에게도 赴戰을 명령하였으나 倭의 軍勢가 대적하기 어렵다고 하여 一步도 움직이지 않았다.

晉州를 함락한 왜군은 東은 加藤清正의 西生浦와 西는 小西行長의 熊川을 잇는 조선남해안의 요지 18개소에 城池를 수축하고 있었으나 明과의 講和가 진행되면서 加藤・小西 등의 諸將도 撤兵하고 마지막으로 釜山の 四屯만을 남겼다. 明軍도 宣祖 26년 8월 李如松이 遼東으로 철군하면서 兵 1萬을 남겨 劉綎은 星州・八莒, 吳惟忠은 善山, 祖承訓・李寧 등은 居昌, 駱尙志・王必迪 등은 慶州에 주둔하였을 뿐 교전이 없는 휴전상태가 되었다. 특히 劉綎은 宣祖 27년 8월 遼東으로 가기 전에는 주로 大丘・星州・八莒間에 주둔하면서 왜군의 全羅・忠淸 진출을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宣祖 29년 5월 明은 楊方亨을 正使, 沈惟敬을 副使로하여 일본으로 들어가게 하고 조선도 沈惟敬・小西行長의 권유에 따라 敦寧都正 黃愼을 正使로 大丘府使 朴弘長을 副使로 삼아 明使와 함께 渡日하게 하니 倭將 加藤・小西 등도 선후하여 일본에 돌아갔다. 明使 楊方亨 등은 6월 16일에 釜山을 떠나고 조선의 黃愼 등은 8월 4일 釜山을 떠났는데 이때 前 大丘府使 李祥은 正使軍官에 임명되어 있었고, 渡日하기 전에 正使 黃愼과 沈惟敬은 熊川・釜山の 日本營中에 있었으며 副使 朴弘長은 任地인 大丘府에 있었다.

7월과 8월에 각각 일본에 도착한 朝・明使臣에 대하여 秀吉은 朝鮮使에 대하여 延着을 책망하고 왕자가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引見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明使가 가져온 國書에는 封王만을 許한다는 明帝의 誥命과 金印을 보냈을뿐 倭의 요구조건이었던 割地・納女 등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秀吉은 大怒하여 朝明의 使臣을 내쫓았다. 이로서 4年間에 걸친 和議는 끝내 결렬을 보게 되었으며, 왜의 再侵에 대비하여 다시 明에 來援을 요구하는 한편 民人과 물자를 山城으로 옮기는 등 대책에 부심하게 되었다.

豐臣秀吉은 宣祖 30년(1597년) 正月에 朝鮮에 대한 再侵을 命하여 加藤・小西・宗義智・松浦鎮信・有馬晴臣 등이 1만4천5백여의 병력으로 쳐들어 왔으며(正月 15일), 3월 中旬부터는 黑田・毛利 등이 대거 들어오니 總兵力이 14만 1천5백명이나 되었다. 여기에 水軍이 加勢한

7) 朴性植, 《壬辰倭亂의 研究—壬辰・癸巳年 晉州城 戰鬪를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 136~185.

것은 壬辰年에 처음 침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한편 조선의 급보를 접한 明은 兵部尙書 邢玠를 總督, 僉知都御史 楊鎬를 經理朝鮮軍務, 總兵官 麻貴를 提督으로 삼아 조선을 돕기로 하였다. 鴨綠江을 넘은 楊鎬는 平壤에 머무르고 麻貴가 먼저 京城에 들어와 6월에 諸將을 지역별로 分擔케 하였다. 즉 副總兵 楊元은 南原, 遊擊 茅國器는 星州, 遊擊 陳愚衷은 全州, 副總兵 吳惟忠은 忠州를 각각 基地로 삼게 하였다. 丁酉再亂에 앞서 朝廷에서는 「堅壁清野之策」을 세워 山城固守作戰을 重視하고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慶尙左防禦使 郭再祐로 하여금 靈山에 있는 火旺山城을 비롯하여 大丘의 公山城, 河東의 鼎蓋山城, 安陰의 黃石山城, 三嘉의 岳堅山城을 각각 지키게 하였다. 12월에는 우리 군사가 釜山에 잠입하여 일본 진영에 방화하고 倭軍의 창고·군기·화약·전선을 모두 태우자 宣祖가 스스로 水源·公州로 진주하고 全羅·慶尙道軍으로 倭軍을 총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중지하였다.⁸⁾

倭軍은 임진왜란 때와는 달리 慶尙·忠清·全羅道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전략으로 全州를 점령한 뒤 北進할 작전을 세웠다. 倭軍은 7월말 행동을 개시하여 左軍의 小西行長 등은 南海·泗川에서, 島津義弘 등은 固城·河東에서, 右軍의 黑田長政 등은 光陽·順天에서, 鍋島直茂는 金海·昌原에서 晉州를 경유하여 求禮로 총진격하였다. 이에 慶尙右兵使 金應瑞와 都元帥 權慄은 陝川·金山으로, 求禮縣監 李元春은 南原으로 退守하게 되었다. 한편 加藤清正은 西生浦에서 密陽을 침공하고 草溪·居昌·安義로 침입하여 黃石山城 싸움후 全州로 향하였다.

求禮를 점령한 倭軍은 全兵力을 가지고 南原을 총공격하였다. 南原城에는 全羅兵使 李福男과 光陽縣監 李春原, 助防將 金敬老 군대와 明의 副總兵 楊元 휘하의 3천병력이 守城하고 있었다.

守城軍은 倭軍의 공격을 받아 軍民이 격렬한 항전을 하였으나 병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楊元은 성을 빠져나가고 李福男 등 諸將은 전사하였다. 그후 일본군은 全州에 총집결하고 左軍은 益山에서 扶餘로 침입하고 그 1隊는 錦山·珍山에서 懷德으로 침공하였는데 忠清兵使 李時言의 방어에 부딪히게 되었다.

倭軍은 北進중에 右軍의 鍋島直茂軍은 8월에 高靈에서 尙州牧使 鄭起龍軍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또 右軍의 先鋒將인 加藤清正軍은 嶺南과 湖南사이의 요충지인 安陰 黃石山城에서 縣監 郭越과 咸陽郡守 趙宗道가 지휘하는 우리 군대에게 큰 손실을 받았다. 그러나 山城은 곧 攻略되고 郭越·趙宗道는 여기에서 전사하였다.

왜의 右軍은 公州에서 북진하여 加藤清正軍은 淸州로 침입하고 右軍大將 毛利秀元과 黑田長政 등은 9월에 天安에서 稷山으로 북진하였다. 이때 楊鎬는 副總兵 解生·牛伯英·楊登山 등으로

8) 《宣祖實錄》 권 83, 宣祖 29年 12月 辛巳·己丑, 권 84, 宣祖 30年 1月 壬辰·癸巳.

하여금 南進케 하더니 마침내 9월 5일 黎明에 稷山北方 素沙坪에서 黑田軍과 衝突하여 一大激戰을 벌리게 되었다. 倭軍은 1일 6습에 大敗하고 6일 未明에 死力を 다하여 挽回를 꾀하다가 마침내 潰敗하여 木川·淸州를 거쳐 逃走하였다. 이 싸움을 稷山大捷이라고도 하거니와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군은 더 北進하지 못하고 守勢에 몰려 南下하게 되어 小西行長은 順天, 加藤清正은 蔚山の 島山에 築城하는 등 倭將들은 沿海岸에서 농성하였다.

한편 海戰에서는 倭軍의 총침공이 시작하기 직전인 宣祖 30년 1월에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이 모함에 의하여 하옥되고 元均이 그 후임이 되었다. 그러나 7월에 漆川梁海戰에서 忠淸·全羅·慶尙水軍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元均과 全羅水使 李億祺, 忠淸水使 崔湖 등이 전사하고 단지 戰船 12隻을 남기고 전멸되었다. 이때 三道의 戰船은 134隻, 水軍은 1만3천3백여명이었다.⁹⁾

이순신은 7월에 다시 水軍統制使에 임명되어 조선수군을 총지휘하였으나 휘하에는 단지 12척의 전선밖에 없고 조정에서는 水軍이 孤弱하니 陸戰으로 轉戰하라는 의견까지 있었다. 이순신은 12척의 전선을 수습하고 海南의 於蘭浦를 거쳐 碧波津(珍島)에 결진하였는데 왜수군의 대선단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하였다. 이순신은 곧 右水營(海南郡 門內面) 앞에 移陣하고 鳴梁을 결전장으로 하였다. 이 좁은 水域을 결전장으로 택한 이유는 적은 수의 전선으로 많은 수의 적을 맞아 싸울수 있고 또한 潮流를 이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 수장 藤堂高虎·來島通總·管達長·毛利高政 등 휘하의 戰船 130여척이 15일 鳴梁으로 진입해오자 우리 수군은 총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순신의 독전에 諸將은 총공격을 감행하여 왜선 31척을 撞破하였다. 명량해전이후 일본 수군은 사기가 저하되어 조선수군과의 접전을 피하였다.

왜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寒節이 닥쳐움을 이유로 10월부터 南海岸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여 稷山方面에까지 북상하던 毛利·加藤軍은 尙州를 거쳐 大丘·永川方面으로 혹은 星州를 거쳐 昌寧方面으로 퇴각하였다. 9월 20일에 右軍의 加藤清正은 咸昌縣과 尙州에서 仁同·大丘府로 남하하고 그 一部는 聞慶·比安·軍威를 거쳐 大丘 公山城으로 들어갔으며 右軍의 本隊는 靑山-黃澗에서 星州로 남하하였다. 이때에 都元帥 權慄과 贊劃使 李時發은 西北에서 南下하여 온 精兵數千을 이끌고 朝明璉과 高彥伯을 先鋒으로 하여 日本軍을 比安까지 추격하였으며 慶尙道巡察使 李用淳은 義城의 鄉校北山에서 그들을 막다가 드디어 철수하게 되었다. 10월 3일 加藤은 永川-慶州-蔚山西生浦로 철수하고, 그 一部는 本隊와 같이 大丘府와 密陽을 거쳐 毛利秀元은 梁山에서 撤收하고, 黑田長政은 東萊로 後退하였다. 壬亂이후 줄곧 확보해온 公山城이 이때 왜군에 의해 일시 함락되었던 것이다. 權應銖의 《白雲齋實記》年譜 丁酉 9월條에 ‘公

9) 앞의 책, 권 88, 宣祖 30年 5月 癸卯

(權應銖)이 觀察使 李用淳, 兵使 金應瑞 등과 함께 倭賊을 追擊, 達城下까지 가서 크게 싸워 擊破하였다. 이에 앞서 倭賊이 八助嶺을 넘어 갑자기 公山城에 이름에 觀察使 李用淳이 大懼하여 곧 馳啓하니 上이 公으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말고 赴援케 하였다. 이에 公은 麾下精兵 5百을 거느리고 급히 大丘府에 들어가니 賊이 이미 公山城을 함락시키고 無意에 이른지라 用淳이 公을 보고 기뻐하여 “公이 오니 回復에 걱정이 없다”고 하였고 金應瑞도 때마침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하였다. 드디어 3인이 合兵追賊하니 밝혀 죽는자가 不知其數였고 나머지 賊들도 모두 潰散하였다.’ 이때는 이미 왜군이 퇴각하여 남하하는 길이었으므로 本山城에 오래 주둔하지 않고 곧 물러갔던 것이다. 그후 11월에는 權應銖로 하여금 咸鏡·江原兩路兵을 引率하고 副總兵 解生에게 移屬케 하자 그는 곧 大丘에서 解生과 합류하기 위해 尙州로 갔다. 翌年 3월 24일에는 三嘉附近에서 朝·明軍과 日軍 島津義弘과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明의 副總兵 解生은 大丘府에서 치안을 담당하다가 陝川郡에 와있었으며 右兵使 鄭起龍은 三嘉縣에서 官·義兵을 거느리고 있었다. 8월 18일에 豐臣秀吉이 急死하니 日軍은 차례로 總退却하면서 前後 7年餘에 걸친 大戰亂도 이로서 終結되었다.

II. 義兵活動과 倭賊의 敗退

韓國史에 있어 壬亂中の 義兵과 같이 광범위하게 민중이 抗爭戰에 참가한 적은 드물다. 더우기 이 의병은 開戰初期에 官軍이 潰散되고 朝命의 권위가 떨어진 無政府의 혼란사회에서 민중속에서 倭軍擊退와 勤王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적인 軍集團을 이루어 蜂起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병의 부대는 어떻게 조직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의병장 ○○○, 또는 某의병부대라고 할 때 이 의병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이나 활동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士族들의 참여와 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말하자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연합부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병의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사족 상호간의 유대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사족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반에 대한 문제이다.

在地士族은 15세기 후반이래 점차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러한 추세는 대체로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어느 정도 확립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향소의 정비·향약의 실시·향안의 작성, 그리고 그들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한 族契·洞契의 실시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향안은 각 고을 지배세력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작성은 그 지역의 재지사족이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주·함안·함양·거창·합천·고령·성주 등지의 향안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작성 또는 重修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이전에 이미 향촌지배세력으로서의 재지사족이 결집되었고 이를 통한 그들의 향촌지배가 일정하게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各邑鄕案에 入錄된 인물 즉, 향촌지배세력인 在地土族들은 상호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南冥 曹植을 연원으로 하는 학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상호간의 결집과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향안의 조직이 군현 내부 사족상호간 또는 사족의 하층민에 대한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통혼권과 학문적인 師友淵源관계는 군현의 범위를 벗어나 인근지역 사족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매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기반과 더불어 재지사족이 가지는 경제적 기반은 곧 바로 이들의 의병활동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재지사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백 또는 수천 斗落의 토지와 2~300명에 이르는 奴婢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토지와 노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의 토지 중 일부는 그들 소유의 노비를 통해 직영지로 경작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타인노비 또는 良人농민들에게 소작지로 대여되고 있었다. 따라서 촌락의 양인농민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재지사족층에 일정하게 지배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사족은 또한 그들의 거주촌락을 중심으로 하여 族契·洞契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족계·동계는 사족 상호간의 부조와 하층농민에 대한 재생산기반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재지사족은 이를 통하여 촌락의 토지와 노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의병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촌락의 소유노비와 농민들을 군사로서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이 逋將·散卒들과 함께 의병의 주력이 되었던 것이다.

사족의 부유한 家産은 또한 전란으로 流離하였던 농민과, 수령의 도망과 더불어 흩어졌던 관군을 의병의 隊伍로 끌어 들였고, 격문과 효유를 통한 충의심의 함양과 왜적에 대한 적개심 등이 의병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의병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량미의 확보는 의병장 또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사족들의 개인적인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관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사족들의 향촌지배조직을 통한 募糧으로 충당하였다. 즉 그들은 鄕會를 통해 모량할 뿐만 아니라, 감사·수령 등으로부터 획득된 군량의 확보·병사의 징발·산성의 축조 등 각종 부역 등의 문제도 담당하고 있었다.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을 거론할 때, 혹은 그 배경을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활동에서, 혹은 海戰의 승리에서, 혹은 明나라의 원조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을 각기 떼어 내어 개별적으로 공적을 돌리기 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을 상호 유기적인 연관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란극복의 궁극적 요인은 무엇보다 조선왕조 기존의 양반관료지배체제 내지 士林의 향촌지배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지 않은 데다가 난초에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당시 在朝·在野勢力이 민중을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여 戰·守兩面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고을 단위로 창의·기병한 의병들이 도처에서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 水軍이 해상에서 制海權을 장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明의 원군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壬癸兩년에 걸친 洛東江 유역의 크고 작은 對倭賊 攻防戰에서 경상도 의병들이 성취한 혁혁한 전과도 결코 그들의 공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한 전과의 성취는 당시 경상도가 보유하고 있던 私的·公的인 모든 人的·物的 資源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군현 내지 지역단위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각 의병들은 다른 지방의 의병봉기에 촉매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渙散된 민심을 수습하고 逋亡한 軍과 民을 결집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적은 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의함으로써 다른 지방의 창의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② 남해상에서 아군의 제해권 장악을 위한 水軍의 背後基地를 제공해 주었으며 ③ 낙동강 방어선과 晋州城을 잘 지킴으로써 왜적의 호남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호남이 보유하고 있던 군량을 비롯한 軍需·民需物資의 수송·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것이며 ④ 고을·지역단위로 조직된 크고 작은 의병부대들이 각기 관내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을 기습·야습·유인전을 펴서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한편, 초기의 관군·의병 사이에 야기되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많은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전란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¹⁰⁾ 특히 최근에는 향토사 내지 지방사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특정지역 내지 의병장 중심으로 지역단위·의병부대 단위로 개별연구가 활발하였다. 그 연구들 가운데 영남지방의 경우 3대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는 郭

10) 崔南善, 《壬辰倭亂》, 東明社, 1931, 權泰監, 《壬辰倭亂》, 啓蒙社, 1951, 李炯錫, 《壬辰戰亂史》上, 中, 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韓治勳, 〈壬辰倭亂 原因에 關한 檢討—豐臣秀吉의 戰爭挑發原因에 對하여—〉《歷史學報》1, 1952, 崔永禧, 《壬辰倭亂》,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壬辰倭亂中の 社會狀態》, 韓國研究院, 1975, 中村榮孝, 〈壬辰倭亂의 發端と日本の 假道入明 交渉〉《朝鮮學報》70, 1974, 貫井正之, 〈豐臣秀吉의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朝鮮人民의 動向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 1965, 李泰鎮, 〈壬辰倭亂 克服의 社會的 動力〉《韓國史學》5, 1983 등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

再祐·金沔·鄭仁弘 및 경상좌도의 안동권을 대표한 金垓 등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당시 대구는 倭軍의 주력부대가 통과하는 지점인 동시에 후방보급로로서 倭侵略軍의 最先鋒인 第1番隊가 통과한 이후 계속 重兵을 駐屯시켰기 때문에 의병이 흥기할 수 있는 要素가 매우 희박하였다. 《大丘邑誌》徐思遠傳에 “壬辰年 4월 13일 처음으로 倭의 警報를 듣고 府中이 吹角聚軍하였고 16일에야 釜山이 陷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壬亂 開戰初 小西行長은 釜山에 上陸하여 密陽·淸道를 거쳐 21일에 大丘에 入城하면서 당시 大丘府使 尹晁은 왜군의 銳鋒을 피해 管内 軍民 2千餘人을 引率하고 公山城에 退守하였음을 前述한 바와 같다.

이 公山城은 險阻하여 왜병이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부근의 軍民이 사방에서 雲集하여 피난처로 삼았다. ‘慶尙左道の 公山城은 大丘·淸道 등 賊路要衝地에 있었으며 지세가 극히 험저하므로 前年(宣祖 25年)에 왜적이 山下까지 接近充滿하였다. 이때 피난민이 山頂에 있었으나 끝내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부근인민이 이로 인해 모두 무사하였다.’¹¹⁾고 하여 大丘邑城은 즉시 倭賊이 점거한데다가 평지는 완전히 적의 소굴이 되어버려 大丘軍民의 일부가 겨우 公山城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은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壬辰倭亂의 초기 왜군의 주력부대가 북상한 다음 얼마간의 後方警備部隊를 점령지에 배치하였으나 그것은 전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點과 線의 점령에 불과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의병활동의 무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각처의 의병이 雨後竹筍처럼 봉기할 수 있었다.¹²⁾

大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방에 비하여 倡義가 늦어진 것이다. 大丘地方 최초의 의병장이라 할 수 있는 徐思遠의 경우를 보면 壬辰年 7월 그가 의병장이 되어 招集義兵文을 지어 의병을 모집하여 倡義·討賊하는 한편 米·太3백斛을 募得하여 이것으로 淸道の 5體山城의 軍糧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이때 徐思遠을 중심으로하여 대구출신의 儒林으로 公山城에 피난중인 자 또는 인근군현출신의 士林으로서 그곳에 모인 자가 중심체가 되어 倡義舉兵하였다. 그러니 당시 大丘의 사정은 오직 公山城만이 의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의병은 당연히 여기에서 發端되었다고 본다.¹³⁾ 《大丘邑誌》의 公山城條에 壬亂때 本郷·儒士들이 이곳에 모여 倡義하였는데 그 會盟者는 大丘人으로 徐思遠·鄭師哲·崔誠·孫處訥·蔡先修·李宗文·蔡夢硯·崔認·郭再謙·朴忠後·李軾·柳堯臣·孫處約·崔東輔·徐再謙·朴忠胤·

11) 《宣祖實錄》 권 44, 宣祖 26年 11月 辛亥條 備邊司啓本 참조.

12) 全國의인 義兵蜂起에 대해서는 논술을 略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大丘와 그 부근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국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3) 대구지역만 국한해서 보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후술할 禹拜善 의병진의 활동을 보면 전투지역이 大丘·花園·淸道·月背 등으로 비교적 광범한 것을 엿볼 수 있다.

洪幹·鄭汝康이 있고 尙州人 李峻, 新寧人 權應銖, 密陽人 孫啓陽, 永川人 曹瓊·鄭四震·鄭世雅, 玄風人 郭再祐, 河陽人 黃慶霖·金鏐, 淸道人 朴炯, 善山人 崔晁, 慶州人 權諤·李宜替·權應生·李應壁·金應河·李繼秀·李世浩·崔海南·李訥·金應澤·崔文炳, 寧海人 李涵·白仁鏡, 青松人 趙亨道, 延日人 金天穆·金見龍, 蔚山人 金治, 安東人 權師閔·朴協·權滄·權友直·朴泰回·柳復起·柳得潛, 京畿人 姜克裕·李大臨·申敬一 등으로 매우 많았다.¹⁴⁾ 이들은 出身邑의 의병장 자격으로 참가하였던 것이다.

義兵은 (1) 義兵將이 주동이 되어 의병을 모집한 것, (2) 士人들이 의병을 自성한 뒤 의병장을 推戴한 것, (3) 亂의 말기에 의병이 쇠퇴한 후 국가에서 장려한 奮義復讐軍 등을 들 수 있다. (1)의 형태는 주로 임란초기에 일어났던 郭再祐·柳宗介·洪季男·禹性傳의 의병 등이며 (2)의 경우는 晉州儒生 3百餘人이 通文을 돌려 기병을 꾀한 것과 禮安의 全士子가 奮義起兵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규합하고 통솔자인 의병장을 추대하는 것이다.

大丘의 義兵은 大丘出身을 위시하여 부근 各郡의 兩班儒林이 中心이 된 것인데 실제활동에 대해서는 문헌이 없어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우나 대체로 대구의 북·동부는 서사원을 중심으로, 남·서부는 우배선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지며 藥齋 徐思遠의 招集鄉兵文을 통해 대체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大丘는 왜군의 作戰上·軍事上·交通上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현지 주민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諸條件을 봉쇄했기 때문에 大丘에서의 義兵倡起가 右道에 비해 倡義時期도 늦어졌는가 하면 의병활동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徐思遠·禹拜善·李慶元·蔡先吉·張夢紀·崔成元·裴文範·朴還生·全繼信 등의 활약은 컸다고 할 수 있다. 大丘에서의 의병봉기 배경을 보면, ①宣祖의 「罪己敎書」가 讀書之土로 하여금 충의를 분발케 하였고, ②같은 慶尙道이면서 右道는 郭再祐·金沔·鄭仁弘 등의 의병활동이 너무나 현저하여 이 소식을 듣고 분발한 것이며, ③大丘以北의 安東·禮安 등에서 土族儒林이 起兵討賊하자 더욱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④壬辰年 7~8월에 접어들면서 朝廷에서 파견한 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중앙정부와의 연락이 疎通되고 大丘府使 尹晁은 官軍을 인솔하고 隣接守令 또는 義兵將 權應銖 등과 합세하여 유격전을 벌리고 있었던 것 등이다.

大丘의 의병활동 가운데 최근에 그 구체적 활동상이 기록된 자료가 발견된 禹拜善의 의병진

14) 〈公山城 會盟錄〉에 대해서는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별 의병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사료의 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활동¹⁵⁾을 살펴 봄으로써 大丘의 자체방어에 지역주민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배선은 한미한 가계에다 24세의 白面書生으로 창의하여 의병활동을 하였으니 《宣祖實錄》이나 영남의 사림세계에 크게 알려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亂後의 국가적인 논공행상에서는 박재우·김면·정인홍 등과 함께 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는가 하면, 宣祖는 그를 ‘勇敢善戰’했다¹⁶⁾고 하고 《瑣尾錄》소재 呂應鍾의 《朝鮮記》와¹⁷⁾ 鄭慶雲의 《孤臺日錄》에서 그의 의병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더구나 그의 의병활동자료인 《倡義遺錄》을 통해 그의 의병부대 조직과 전투·전과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禹拜善에 관한 자료는 위의 《창의유록》 외에도 《月谷實記》, 古文書類(敎牒·敎旨·簡札), 《宣祖實錄》, 《邑誌》 등이 있다. 《창의유록》은 임진왜란때 그의 창의, 起兵과 함께 上下級官員 사이에 왕래된 帖·所志·傳令·전황전공보고서, 星州花園義兵軍功冊, 서찰 등 고문서의 형태로 宗家에 유전되고 있던 것이 18세기 화재로 인해 소실될 때 그 일부를 수습하여 19세기 초에 帖裝한 것이다.

우배선의 근거지였던 花園縣은 신라시대 壬亂때까지 인근의 壽昌郡(壽城縣)·星州牧·大丘府의 속현으로 존속된 바 있다. 조선전기에는 줄곧 星州牧의 속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縣內 月村 출신인 우배선은 壬亂을 맞아 창의·기병하면서 花園縣義兵將·伏兵將·假將으로 自稱하거나 초유사·순찰사로부터 그러한 호칭을 假差 받기도 하였다. 화원현의 구획과 縣勢를 《慶尙道地理志》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원현은 동쪽으로 大丘郡境과 12里 264步, 서쪽으로 加利縣境과 13里 5步, 남쪽으로 玄風縣境 引峴과 16리 55步, 북쪽으로 大丘속현 河濱縣境과 7리 6步였다. 둘째; 姓氏條 소재 土姓(徐·葛·石·曹·丁), 來姓(韓·李·白) 가운데 우배선의 의병조직에는 徐·葛·石·李·白氏가 나타나고 曹·丁·韓氏는 없다. 셋째; 화원현은 그 남쪽으로 琵琶山 기슭에 面하면서 동쪽으로 大丘府와 그 속현인 壽城縣域과 접하고 北으로는 琴湖江을 경계로 성주목의 속현인 八莒縣(칠곡)과 大丘府의 속현인 하빈현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洛東江을 사이에 두고 星州牧의 속현인 加利縣域 및 高靈縣域과 접해 있는 背山·臨平野한 지형이다. 넷째; 화원현은 낙동강·금호강을 서쪽 또는 북쪽으로 임하고 있어 옛부터 水陸교통의

15) 李樹健,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그의 《倡義遺錄》을 中心으로—〉《民族文化論叢》1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pp. 51~99; 《月谷 禹拜善 先生의 生涯와 義兵活動》, 1994 참조.

16) 《宣祖實錄》 권 55, 宣祖 27년 9월 己亥條, 「傳曰 古人多收本土人才以爲用 其意有在…但前聞如禹拜善·安信甲者 勇敢善戰 命爲守令…」

17) 吳希文, 《瑣尾錄》 권 3, 朝鮮記에 禹拜善+九歲(24세의 誤記)少書生也 首率義自起 奮身百戰 殺賊最多…

요지로서 우배선이 창의를 할 때는 縣內에 독자적인 縣倉을 갖고 있었으니 이는 의병들의 군량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배선의 世居地는 大丘·玄風·淸道를 包跨하는 琵琶山 기슭에 있는데다가 앞으로는 낙동강과 금호강 연변에 전개된 평야를 面하고 있으며 그는 이곳을 근거지로 月背·租岩·甘勿川·省平 및 嘉昌谷에 걸쳐 倭賊을 치는 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우배선의 가계는 본래 忠淸道 丹陽郡의 土姓으로 고려중기까지 본관의 邑司를 중심으로 戶長을 세습해 오다가 元의 지배시기에 과거를 통해 土族化하면서 上京從仕하였고, 麗末에 이르러서는 문호의 극성기를 맞이했으나 왕조교체로 인해 정치적 실각을 한데다가 개국세력인 정도전 등의 私憾으로 門禍를 입게 되어 인척을 따라 落南하면서 星州를 거쳐 그 속현인 花園縣 月村에 정착하여 마침내 이곳이 그 일문의 세거지가 되었다. 落南 당시에는 麗末 名門의 후예였지만 정치적 실각으로 인해 落南後에는 한미한 家勢를 지탱한 채 星州·大丘·淸道·玄風 등지의 在地土族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면 《倡義遺錄》을 통해 먼저 우배선 의병진의 전투일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禹拜善 義兵陣의 戰鬪日誌

壬辰年 10월 5일 大丘設伏	12월 4일 大丘設伏·夜斫·接戰
11월 4일 大丘夜斫	6일 花園接戰
5일 花園接戰	10일 甘勿川接戰
19일 〃 接戰·大戰	18일 大丘夜斫
28일 大丘夜斫	19일 〃 〃 花園追擊
12월 2일 松林里設伏	
癸巳年 正月 5일 淸道上來賊 設伏·追擊于梧桐院	3월 11일 租岩接戰
14일 花園大接戰·大丘追擊	14일 〃 〃
2월 6일 租岩接戰	20일 花園 〃
10일 花園接戰	4월 14일 大丘賊追擊
11일 租岩追擊	23일 〃 〃
19일 花園接戰	5월 5일 大丘夜斫
20일 大丘賊追擊	11일 〃 〃
28일 〃 夜斫	13일 〃 〃
3월 10일 租岩接戰·月背追擊	18일 〃 〃

壬辰年 10월 5일 大丘設伏을 시작으로 癸巳年 5월 18일까지 모두 30여회 전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투지역은 大丘・花園과 松林里・甘勿川・祖岩・月背 주변으로, 設伏・夜斫・接戰・大接戰・追擊 등의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대구에 포진하고 있는 적이나 대구주변을 왕래하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활동이었던것 같다.

의병군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의 전투참여 현황을 보면, 義兵 구성원은 의병장 禹拜善을 포함하여 모두 89명으로 되어 있다. 전투참여 회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水軍 張夢期가 13일로 가장 많으며 11일・9일・8일・7일이 소수로 존재하고, 단지 1일만 참전한 자도 27名으로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일수가 실제로 참전한

〈表 4-1〉 禹拜善 義兵陣의 身分別 戰鬪참여 회수 [개인순번/전투참여회수]

義兵將	1/7
定虜衛	1/7
正兵	2/3 3/11 4/1 5/2 6/3 7/1 8/7 9/1 10/5 11/1 12/5 13/2 14/1 15/2 16/2 17/3 18/1 19/5 20/8 21/1 22/3 23/5 24/6 25/2 26/10 27/1 28/2 29/2 30/1 31/9 32/2 33/2 34/1 35/2
私奴	1/9 2/1 3/2 4/1 5/1 6/1 7/2 8/4 9/1 10/2
別侍衛	1/4 2/2 3/9 4/8 5/4 6/3 7/3 8/4 9/3 10/4 11/2 12/7
水軍	1/2 2/4 3/1 4/5 5/4 6/2 7/1 8/3 9/1 10/1 11/1 12/1 13/2 14/1 15/1 16/8 17/5 18/3 19/13 20/3 21/1
保人	1/5 2/8 3/1 4/2 5/2
官奴	1/3
記官	1/8 2/4
中(軍)	1/1
○ ○	1/1

전체일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문의 제목 자체가 《星州花園義兵軍功冊》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의병 개인이 전공을 세운 날만을 표기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月日別 전투참가인수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가장 많은 경우는 계사년 정월 14일의 44명이며, 다음은 임진년 12월 10일의 34명이지만 대개는 20名이하이고 단지 1~2명만이 참전한 일수도 14일로 소전투일 30일의 거의 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개인별 전투참여 현황은 개인별 立功日로 보는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신분별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다.

〈表 4-1〉과 〈表 4-2〉에 의하면 義兵將은 1인으로 7일간 전투에 참여하였고, 正兵은 35인으로 최고 11일이 1명이며 최저 1일이 10명이다. 전체 전투참여회수는 120일로서 1인당 평균은 3.4일이다. 다음으로 私奴는 10명으로 최고 9일이 1名이며 4일이 1명, 1~2일이 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투참여회수는 24일로 평균 2.4일이다. 別侍衛는 12명으로 최고 9일 최저 2일이다. 전체 전투참여회수는 53일이며 평균은 4.4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水軍은 21名으로 최고 13일 최저 1일이 9명이다. 평균 3일이다. 保人은 5명으로 총 전투참여일수는 18일로 평균 3.6일이다. 官奴는 1人으로 3일, 記官은 2인으로 각각 8일과 4일

〈表 4-2〉 身分別 人員과 전투참여 회수

신 분	인 원	전투참여회수	평균 전투참여회수
義兵將	1	7	7
定虜衛	1	7	7
正兵	34	120	3.4
私奴	10	24	2.4
別侍衛	12	53	4.4
水軍	21	63	3
保人	5	18	3.6
官奴	1	3	3
記官	2	12	6
中軍	1	1	1
未詳	1	1	1
合 計	89	302	3.4

中人은 1인으로 1일, 신분직역미상은 1인으로 1일이다. 의병총수 89명이 302회에 걸쳐 전투에 참여했으므로 평균 3.4일이 된다.¹⁸⁾ 正兵은 전체평균과 같은 3.4일이며 保인도 3.6일, 水軍 3일, 官奴 3일로 거의 여기에 접근하지만 私奴는 평균 2.4일로 여타 신분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私奴의 전투참여(실제로는 立功)가 그만큼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개인별 군공내용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 〈表 4-3〉과 같다.

18)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병총수도 軍功을 세우지 못한 사람과 戰死者 등이 기록에서 빠졌으므로 이보다 많다고 봐야하며, 또 의병 개인별 전투참여일수도 無功日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사료된다.

〈表 4-3〉

禹拜善 義兵軍의 個人別 軍功內容

身分	姓 名	斬	射 殺	斫 殺	身分	姓 名	斬	射 殺	斫 殺
將	禹 拜 善	9	26	11	正	張 加 未		5	
定	都 彥 守	5	15	10	水	辛 守 仁		2	
正	陳 挨 史	2	3	7	正	李 宮 京		2	
私奴	已 惣		18	3	水	崔 官		6	
別	金 岩 回	2	10		保	朴 宋	4		
正	宋 鶴 年		27	6	別	許 應 星	1	12	3
別	都 德 雄		5		正	陳 光 仁	2	9	
別	許 夢 守	4	10	2	正	宋 俊 福		3	
正	裴 延 祥		3		正	趙 毛 老 山	3	3	1
水	金 鳴 遠		2		正	金 應 乃		2	
私奴	斤 夫		5		水	張 一 千		4	1
保	陳 吾 乙 未	3		4	水	金 末 應 德	1	3	1
水	孫 多 音 沙 里		5		正	許 應 守		13	1
正	金 億 守		4		正	朴 得		10	
水	永 上 同		5		保	白 元 己	1	1	
正	李 彥 春		3		水	趙 彥 心		3	
水	崔 於 叱 介	1	6		水	申 銀 丑		3	
私奴	夢 得			2	正	成 鸞		6	
保	李 得 春	1		1	別	許 眞	1		3
正	李 希 昌		5	1	保	金 希 元		1	1
保	趙 思 忠	1	4	2	正	孫 奧 止		3	1
別	孫 京 老		5	3	正	金 順 天		5	
水	潘 云 世	1	3		水	朴 順 景		3	3
私奴	己 守		3		官奴	忠 守		12	
水	姜 吾 乙 未		2		私奴	文 乙 伊 同		3	
	白 千 守		3		私奴	末 叱 山		4	
私奴	○ ○		2		正	李 哲 梅	3	9	2
水	金 彥 變		5		正	孫 己	2	15	4
私奴	貴 上	1	7		正	孫 奉 守		6	
私奴	元 左		5		水	李 明 戒		8	
正	金 漢 ○		2		正	許 應 夫		4	
水	都 世 元		3		正	宋 台 守		2	
水	崔 今 同	1	7	10	別	葛 德 夫		12	
正	金 彥 景		5	1	記官	石 伯 守		21	1
正	孔 德		4	1	私奴	彥 守		3	1
正	許 道 郎	1	7	2	別	全 應 元		5	
正	許 有 文		4		別	李 雲 中		13	1
正	徐 應 己		20	3	水	張 夢 期	5	33	13
正	許 春 雨		3		水	宋 漢 林		3	

身分	姓 名	斬	射 殺	斫 殺	身分	姓 名	斬	射 殺	斫 殺
正	朴 應 夫		4	1	別	趙 億 守		3	
正	徐 挨 山		3		正	都 夫 仁		2	1
正	都 鵬	1			水	金 彦 夢		5	
水	金 珥 世		14		水	姜 河 水	2		
正	都 守 夫	3	17	2	別	朴 年 武	3	2	2
					記官	石 起 云		14	

89명의 전원이 올린 전공은 斬(殺) 65, 射殺 562, 斫殺 112로 그 수가 엄청나다. 물론 여기에는 우배선 의병진의 사상자가 적히지 않았겠지만 단위 의병부대의 전과로서는 대단한 것이다. 신분직역별로 보면 正兵(35명)이 가장 많은 전공을 세웠고, 다음으로 水軍(21명)이다. 私奴(10명)의 경우 斬殺 2, 射殺 50, 斫殺 6으로 비교적 많은 것 같으나 1인당 평균전공을 보면 여타 신분직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털어 보았을 때 私奴의 전투참여와 立功이 그만큼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전쟁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私奴의 주인(의병에 적극 참여한 인물은 예외)들은 자기 奴를 참전치 못하게 했으며 그 참전도 매우 최소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참전한 私奴도 주인이 보낸 사람들은 용약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이며 외거노비는 그 스스로 주인의 통제권 밖에 있을 경우 신분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 참전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私奴 자신의 기근·질병이나 본인의 전투기피 등으로 壯奴의 전쟁불참 또한 보편화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선무원종공신록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公私奴 등 하층신분이 참전·立功하였던 것이다.

《大丘邑誌》에 기록된 단편적인 내용을 통해 大邱地域 인물들의 爲國忠義 행위를 일별해 보기로 하자.

盧蓋邦; 宣祖代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壬亂에 賊이 城을 함락하자 文廟에 들어가 五聖位板을 안고 不屈死之하였다.

李 輔; 號는 苔巖이며 鄭寒岡에게 師事하고 壬亂에는 徐樂齋를 따라 倡義하였다.

崔 誠; 壬亂때 本邑의 義兵將이 되어 立功하여 二等에 錄勳되었으며 事蹟이 行錄에 기록되어 있다. 武科에 급제하여 縣監이 되었다.

全繼信; 壬亂때 큰 공이 있었으며 日本에 두번 使臣으로 가서 被虜人 200명을 贖還하였다. 벼슬이 資憲·兵使에 이르렀다.

李德元：號는 梅亭이며 壬亂때 徐樂齋를 따라 倡義하여 公山에 들어가 果捷하였으며 賊을 추격하여 茅峯에 이르러 탄환에 맞아 歿하였다.

徐再謙：號는 竹溪이며 壬亂때는 郭忘憂堂과 同盟하였고 丁酉年에는 蔡諸賢과 더불어 規策을 措劃하였다.

柳堯臣：號는 蓮亭이며 壬亂때 徐樂齋로 더불어 倡義起旅하여 거듭 이기고 공을 세워 通政에 올랐다.

李宗文：號는 洛浦이며 壬亂때 徐樂齋를 따라 倡義하였고 公山에 들어가 果捷하였으며 承旨에 贈職되었다.

柳思溫：號는 龜亭이며 壬亂때 功을 세워 軍資監正이 되고 戶參에 贈職되었다.

崔成元：號가 宜齋이며 鄭寒岡에게 從遊하였고 壬亂때에는 倡義하여 東萊에 갔다가 節死하였다.

金 源：號는 望江亭이며 壬亂에는 倡義하였고 宣祖代에 敎官이 되었고 工曹參議의 贈職을 받았다.

朴忠後：朴彭年의 5世孫으로 壬亂때 門蔭으로 縣監이 되었고 동생 忠胤과 倡義하여 都元帥 權傑을 따라 여러번 공을 세웠다. 副總管에 오르고 一等에 錄勳됨.

壬辰倭亂 초기의 의병활동은 향토수호와 勤王精神에서 분발하였고, 관군이 潰散되는 상황에서 서 조정은 의병을 적극 권장하였지만 癸巳年부터는 의병이 점차 亂立하여 실효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明의 援軍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의병의 존재 의의는 점차 상실되어 갔다. 그리고 전쟁의 소강상태에서 질서가 점차 회복되면서부터는 관군이 의병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의병은 朝廷과 수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 의병의 질적저하를 가져온 내적 요인으로 인해 의병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기근과 질병으로 飢民은 渙散하고 軍糧의 결핍으로 逃軍이 속출하고 群盜가 일어나는 실정에서 義兵도 成軍하기에는 힘들었다.

大丘의 의병활동도 既述한 바와 같이 徐思遠·禹拜善 등 士族儒林을 중심으로한 것이었다.

그러나 大丘는 임란벽두부터 日軍主力部隊의 北上要路인 동시에 후방의 주요보급기지로서 후 방경비병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도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그 활동도 公山城內와 大丘 주변의 淸道·花園·月背 등지에서 간헐적인 소규모 유격전으로 적을 교란시키는 정도였다. 특히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의병의 계속유지가 곤란해지자 그 존재가 미약하였고 丁酉再亂때에도 의병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왜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壬亂때 군현 단위의 의병진 조직과 방어체제는 고대 이래 異民族의 침략때마다 그러한 지역 단위의 戰·守체제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契丹·女眞·蒙古 및 倭賊이 차례로 한국을 침략할 때마다 각 고을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인 土姓吏民(고려) 또는 在地土族(조선)이 각기 자기 고장을 자체방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亂初 적의 대군을 맞이할 때는 일시 후퇴하기도 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각 고을 단위의 방어세력들이 前後方에서 봉

기함으로써 적의 병력을 분산·약화시키거나 후방을 교란시켜 결국 外敵으로 하여금 敗退케 했던 것이다.

오랜 전투 경험과 잘 훈련된 병사 및 신식무기로 무장된 왜적의 대규모 침략으로 壬亂初에는 200년간의 承平日久에 젖은 우리 朝野의 무방비와 민심의 소요·邊將 守令의 지휘권 상실과 逋將 散卒의 속출로 일시적인 관군의 敗退를 가져 왔다. 그러나 임진년 5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水軍이 해상에서 制海權을 장악하는 한편, 육지에서는 고을 단위의 의병이 도처에서 봉기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관·의병의 불가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처음에는 兵農一致的 國民皆兵制를 이상으로 추구하면서 모든 良丁은 병역을 지게 되었고, 士族의 子弟와 鄉吏·公私賤도 각기 신분과 직역에 따라 特殊兵衛와 雜色軍에 편입되어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壬亂의 발발로 한때 邊將·守令의 휘하병사나 의병장의 所率병사나에 따라 편의상 관군·의병으로 구분하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모두 병역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데서 처음부터 관군·의병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지배층인 士族도 ‘讀書曰士 在官曰大夫’라 했듯이, 士가 관직을 가짐에 守令이나 邊將이 되었고 大夫도 퇴직하면 野人이 되었다. 가령 의병장의 경우 창 의 당시는 유생의 신분이었으나 곧 초 유사·순찰사로부터 假將·假守에 差定되고 다시 朝廷으로부터 정식 관직에 제수되었으니 어제의 의병장이 이제는 兵使 또는 守令으로서 관군은 물론 산하에 집결된 의병까지 통솔했던 것이며, 亂初 관군의 패퇴시에는 그 부대로부터 이탈함으로써 한때 逋將·散卒이었다가 곧 거주지에서 창의한 의병장 휘하에 집결하였으니 이는 어제의 관군이 오늘에 와서는 의병이 된 셈이다.

列邑의 의병장들이 당초 倡義할 때 동원한 家僮이나 鄉里壯丁은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烏合之卒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각 의병장들은 의병진을 갖추는 과정에서 관군으로부터 이탈된 逋將·散卒들을 규합, 招集하는데서 병력의 확보는 물론 의병부대로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禹拜善의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자신의 주도로 창의했던 郭再祐나 여러 고을의 의병부대를 연합한 金沔·鄭仁弘의 의병진 기타 列邑의 의병진들도 그러한 포장·산줄들을 收合, 招集하는 과정에서 전투력을 갖춘 의병부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군쪽의 병력 못지않게 군량·무기 등 군수물자도 官邊의 것을 적극 收用·활용한 데서 의병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壬亂때 고을 단위의 의병활동이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낙동강 유역의 列邑 의병진이었다. 여기에는 主邑뿐만 아니라 주읍과 개별성을 지닌 屬縣에도 독자적인 의병진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속현은 각기 개별적인 의병장의 통솔아래 독자적인 의병진을 갖고 크고

작은 전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들 속현에는 守令과 留鄉所·향교 같은 것은 없지만 主邑과 구분된 區域과 住民, 邑司와 縣倉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이곳 의병장들은 창의때 私民의 性格의 의병과 함께 관군적 성격의 散卒들을 규합하는 데서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었고 또 私財·私穀의 收用은 물론, 邑司와 縣倉이 보유했던 人的자원과 무기·官穀 및 속현이 보유한 弓人·矢人·冶匠 등을 활용함으로써 의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의병활동도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사료된다.

III. 倭亂의 影響과 大丘府의 位置

7년에 걸친 倭亂으로 말미암아 朝鮮·明·日本은 다같이 큰 영향을 입었다. 특히 전장화되었던 조선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國土는 황폐화되고 百姓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정치·경제·문화·사회·사상 등 諸方面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備邊司의 강화와 訓練都監을 비롯한 군사기구의 개편이 있었다. 즉 文宗 5년의 五衛制度 확립으로 兵農一致의 皆兵制가 실시되다가, 壬亂을 당하여 訓練都監을 설치하였고 그 뒤로 계속해서 御營聽·摠戎聽·禁衛營·守禦聽의 五軍營制度가 마련되었다. 토지제도와 수취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壬亂前에는 토지면적이 170만결이었으나 임란후 光海君 시대에는 불과 3분의 1인 54만결로 줄었으므로 국가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에서는 貢物의 米納化(大同法), 量田收稅의 간편화(隨等異尺法 및 年分法 폐지), 免稅田 확대의 방지책, 兵役의 稅納化(均役法), 饑民을 위한 還穀策, 耗穀의 회수책 등이 제도화되었다.

文化上에 있어서도 국보급의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국사·경복궁 등이 불에 타고 《朝鮮王朝實錄》도 全州史庫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일본군대 내에는 전투병력 이외에 따로 도서·공예·포로·금속·보물·축부 등 6개의 약탈전담 부대를 두었다. 특히 각 분야의 기술자들을 잡아 가서 이들을 통해 일본의 該분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日本儒學은 임란때 약탈해 간 많은 서적과 朝鮮儒學者들에 의하여 그 발달의 소지가 마련되었다. 일본은 임란전까지만 해도 禪僧만이 그 대표였으나 조선의 유학이 전래되면서 차차 학문이 발달하여 朱子學이 德川家康時代에 正學의 위치를 차지하여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이념이

되었다. 일본의 주자학은 退溪 李滉의 학문계통인 主理派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 주자학의 開祖인 藤原惺窩는 倭軍에게 납치되어 일본에 와 있던 조선유학자 姜沆에게 유학을 배워 대성한 사람이다. 일본은 임진·정유왜란으로 文化全般에 걸쳐 급진전을 가져와 江戸時代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와 같은 대세속에서 大丘는 임란 全期間을 통하여 군사작전상·지리적 위치로써 중요시되었다. 壬辰亂 개전초기인 4월 21일에 처음으로 倭軍에 점령된 大丘는 倭의 후속부대가 계속하여 北上하는 루트가 되었다. 처음에 毛利輝元이 대구를 담당하였으며, 7월에는 齋村廣英 및 明石則實이, 8~9월에는 稻葉貞通이 여기에 合流하였다. 癸巳年 5월 15일에는 그들이 大丘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바로 뒤이어 明의 參將 李寧이 兵馬 1千으로 大丘에 來屯하였고 곧 副總兵 劉綎이 5千의 군사로 大丘에 왔다. 朝·明軍이 大丘에 주둔해 있으면서 倭의 全羅·忠清道 進入을 阻止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大丘는 그 지리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으며, 대구에 감영을 설치하는 문제가 계속 論議되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壬亂을 통하여 大丘地域의 전체적인 주요 상황을 요약하기로 하자. (1) 倭軍은 釜山에서 平壤까지 충분한 후방부대를 배치하여 후방경비와 병참선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로 말미암아 洛東江 水運을 이용하기 위한 靈山-昌寧-玄風-茂溪-星州線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특히 의병장 郭再祐를 비롯한 의병의 활발한 전투의 결과였다. 이로서 慶尙右道 一帶는 倭의 중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中路인 密陽-大丘-仁同-善山의 線이 賊의 往來路가 되었다. 大丘를 중심으로한 中路는 加速度로 적의 중요한 후방기지 내지 兵站補給地로 轉化함과 동시에 義兵活動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 (2) 癸巳年 5월 왜군이 총격되하면서 明의 援軍이 대규모로 大丘에 주둔하였고, 왜군격퇴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또한 왜의 전라도 진입을 방어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명의 대군이 주둔하면서 엄청난 양의 군량이 필요하였으며(1萬名の 1개월분 양식 2萬石) 사방에서 굶주린 백성이 雲集하여 기근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는 慶尙左右道の 中路에 위치하면서 洛東江을 끼고 있어서 여기에 중요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다.¹⁹⁾ 朝廷에서는 「堅壁清野之策을 실시하면서 諸道巡察使 權慄에게 三道民丁軍壯을 모두 징발하여 公山城을 수축케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倭軍이 大丘以北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大丘와 함께 達城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되었다. ‘大丘는 慶尙道の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左右兩道를 控制할 수 있으니 이곳에 마땅히 重鎭을 설치할 것이며 또한 達城山城이 邑內 5里內에 있어 형세가 더욱

19) 《宣祖實錄》 권 53, 宣祖 27年 7月 壬辰條.

좋다'고²⁰⁾한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丁酉再亂 初期에는 大丘가 왜군의 北上路로 이용되지 않아 무사하였으나 퇴각시 公山城을 함락시키고 大丘를 거쳐 지나갔는데 당시 大丘에는 軍糧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 이를 두고 왜군과 朝·日軍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3) 慶尙道地域은 壬亂 7年동안 倭의 往來와 주둔이 많아 8道 가운데서 가장 피해가 혹심하였다. 住民들은 왜군들에게 코를 잃은 사람·妻妹가 능욕을 당하는 사람·殺戮 당하는 사람이 엄청났고, 심지어 明軍의 戰功에 祭物이 되기도 하였으며 同族中 악한 무리에게 참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前後 7년에 걸쳐 耕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飢民이 속출하였으며 人相食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실제로 '慶尙道 6鎭管가운데 東萊·大丘 등 6邑은 이미 蕩弊되어 民人은 거의 사망했고 오직 安東 1邑만이 겨우 保全되어 境内에도 住民이 많다'고²¹⁾ 하여 大丘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알 수 있다.

이처럼 大丘地域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기간중 그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결국 慶尙道 監營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후기에는 大丘가 雄府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倭亂後 대일관계의 大略을 살펴보기로 하자. 壬辰倭亂으로 인한 對日敵愾心은 글자 그대로 '不俱戴天之讐' 또는 '必報之讐'로 여겨졌다. 이처럼 적대시하던 倭人과 終戰후 불과 10년만에 그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들어 己酉條約(1609)이 성립되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양국의 이와 같은 사태진전은 宣祖 31年(1598) 침략의 원흉인 豐臣秀吉이 죽고 德川家康이 江戸幕府를 세워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내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시켜 국제적으로 정권을 인정받고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려는 정책의 결과였다.

德川幕府는 對馬島主 宗義智에게 외교권을 주어 조선과 교섭을 추진케 하였다. 德川家康은 당초부터 壬辰倭亂을 찬성치 않았으며 자신은 關東(지금의 東京)에 있어 왜란과 무관하였음을 간곡하게 알려 왔다.

실제로 對馬島는 조선과의 국교단절로 생활필수품이 부족하던차에 막부의 명령을 받고 외교사절을 보내 왔다. 이후 일본은 通交를 허락받기 위해 1599년부터 1607년까지 16회에 걸쳐 끈질긴 사신파견을 해왔다. 이에 국내에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하였는데 姜沆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신의 왕래가 계속되면서 무역형태의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조선은 통교허용의 전제조건으로 ①被擄男女의 刷還, ②國

20) 앞의 책, 권 66, 宣祖 28年 8月 乙巳條.

21) 위의 책, 권 49, 宣祖 27年 3月 辛丑條.

책을 정식으로 먼저 보내 올 것, ③倭亂中 王陵을 발굴한 犯陵賊의 引渡 요구 등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실제로 여기에 응하였는데 宣祖 33년부터 41년까지 총 6,915명 정도만 돌아와 붙잡혀간 전체 숫자가 6~7만명 정도였다고 보았을 때²²⁾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다.

체결된 13개 조목의 내용을 보면,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내용상으로 보아 분류시켜야 될 항목수가 상당히 많이 첨가되어 있다. 이로써 본다면 己酉條約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조약규정으로서 임진왜란전의 조약과 부분적인 규정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己酉條約의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측에서 通信使의 파견을 요구해옴에 따라 양국은 통신사를 왕래하게 하였다. 朝鮮과 日本의 이해관계와 목적은 첫째 ; 일본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를 上國이나 文化圈으로 받들고 우리 使節을 맞이함으로써 德川幕府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다. 둘째 ; 이후 파견된 통신사 일행은 500명 내외나 되며 그들 일행은 학문·기술·기예 등 다방면에 재예가 뛰어나 문화사절의 역할을 한 때문이다. 셋째 ; 통신사는 對馬島主의 선도로 행렬을 정비하여 江戶까지 왕복하였는데 이에 대한 접대는 최상급 국민이었으며 이같은 접대비용의 마련을 위해 幕府에서는 막대한 國費를 소모하였다. 넷째 ; 우리측의 목적은 幕府 장군직의 계승이라든지 慶吊事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일본이 對馬島主를 통하여 자기들의 국내사정을 보고해 오는 동시에 통신사의 파견을 간청해 옴으로 우리의 권위를 보이면서 가끔 통신사를 파견해 주었다. 일본의 문화인들은 조선의 통신사와의 접촉을 통해 漢詩·書畫·揮毫·筆談 등의 기회를 갖고자 했다.

조선후기의 통신사파견을 보면 1회에 300~500명 정도의 대규모로 인원이 파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朝鮮에 입국한 왜인이나 倭船도 매우 많았으나, 기록에 따라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다.²³⁾

第2節 丙子胡亂과 大邱

I. 胡亂의 勃發과 大邱地域의 動向

丁卯胡亂이 일어나기 직전인 16세기 말~17세기 초 東亞細亞의 가장 큰 변화는 滿洲族의

22)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中卷.

23) 國史편찬위원회, 《한국사》12, 1978, pp. 370~379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

興起이다. 滿洲族의 祖上인 女眞族은 金나라를 세워 한때 中國의 北部까지 차지하여 위세를 떨쳤으나 몽고족이 일어나면서 元에 눌리었다. 元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明이 일어났는데, 北方異民族에 대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펴는 사이 만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明은 16세기後半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外患의 시달림을 받는 가운데 조선에서 일어난 壬辰倭亂에 出兵하면서 막대한 戰費를 소모하여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다. 明의 약화는 만주족으로 하여금 급속한 세력팽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뒤에 後金의 太祖가 된 누르하치(奴兒哈赤 1559~1626)는 일찌기 明의 요동지방에서 방위를 맡고 있던 李成梁(李如松의 父, 1526~1615)과 통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다. 그는 建州衛의 여러 部族을 통일하는 한편 明에 복속하여 龍虎將軍이 되었으며 16세기 말~17세기 초에 걸치는 약 20년 동안에 哈達·發揮·烏拉 등 강력한 여러 부족들을 멸망시키면서 1616년 드디어 汗에 즉위하여 後金을 세우고 年號를 天命이라 하였다. 건국직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요동의 農土를 개간하려 하였으나 明이 이를 방해하게 되면서, 1618년 後金은 明에 도전하여 요동으로 진군하여 撫順·清河를 함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明은 1619년 楊鎬를 내세워 10만의 군대로 後金을 치려고 하면서 조선에 援兵을 요청하였다. 조선조정에서는 可否간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출병을 결정하여 姜弘立을 都元帥로, 金景瑞를 副元帥로 삼아 13,000의 兵力을 이끌고 明軍을 돕게 하였다. 그러나 戰勢에 따라 向背를 달리하게 하고 後金에 대해서도 우리의 出兵이 本意가 아님을 알렸다. 이는 光海君의 일관된 明·後金 등거리 외교였던 것이다.

明軍은 1619년 2월 말에 총진군에 나섰으나 누르하치는 그 主力인 杜松의 병력을 사르후(薩爾滸)에서 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불의의 공격을 당한 杜松의 軍은 크게 패하였으며 다음날은 馬林의 군대까지도 대패하고 말았다. 이 사르후전쟁으로 만주지역에 대한 後金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졌던 것이다. 朝鮮軍은 일부 明軍과 함께 戰死하였으나 姜弘立·金景瑞 등은 後金에 투항하였다.

後金은 太祖의 사망(1626)이후 계속해서 遼西地方의 明나라 세력을 무찌르고 山海關을 공격하여 중국본토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後金이 왜 그에 앞서 1627년 朝鮮을 침공하는 丁卯胡亂을 일으키게 되는가? 後金의 太祖 누르하치는 조선에 화친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太宗(홍대지 皇太極)은 그 반대되는 主戰論을 취하고 있었다. 朝鮮에서는 光海君(1608~1623)이 明과 後金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펴서 큰 무리없이 지내왔으나 仁祖反正(1623)으로 실권을 잡은 西人들은 壬亂時 조선을 도와준 明(漢族)에 대하여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名分으로 崇明排金의 분위기를 강화시켜 갔다. 이로 말미암아 後金은 후고지환을 없

애기 위해 중국본토진출에 앞서 조선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朝鮮의 서북방에는 明의 장수 毛文龍이 주둔하고 있어서 후금의 배후가 위태로웠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明과의 교역이 끊어진 後金으로서는 織物 등 각종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선과 교역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며 丁卯胡亂 후 後金이 조선에 대하여 막대한 물품을 요구한 데서도 그 저의를 살필 수 있다.

毛文龍은 明의 遼東 總兵官 李成梁의 부하로 1605년 武科에 及第하였는데 1621년 요동이 함락되었을 때 廣寧巡撫 王化貞에 의하여 練兵遊擊에 임명되었으며, 王化貞의 命으로 遺民을 招撫하여 요동의 失地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同年 7월에는 압록강 하류의 鎮江(九連城)을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1622년에는 조선의 平地 鐵山郡의 椴島에 鎭을 설치하여 鐵山·身彌島 등에 分鎭을 두어 後金에 저항하는 軍民을 수용하여 明의 本土와 연락하며 後金의 측면을 견제하고 있었다.

1627년 1월 後金의 太宗은 從兄 阿敏을 사령관으로 삼고 姜弘立·韓濶(韓明璉의 子) 등을 앞세워 조선에 침입하였다. 같은 달 13일에는 압록강을 건넜으며 다음날 義州를 쳐서 府尹 李堯을 죽이고 龍川을 함락시켰으며 別軍을 보내 毛文龍을 身彌島로 쫓았다. 後金軍은 계속 남하하여 郭山의 凌漢山城을 포위하니 大將 定州牧使 金搢·郭山郡守 朴惟建 등은 포로가 되고 宣川府使 奇協은 金軍에 죽음을 당하였다. 이어서 21일에는 安州城이 함락되고 平安兵使 南以興·牧使 金俊 등은 화약으로 분신하였다. 24일에는 平壤 25일에는 黃州가 함락되었다.

조선의 조정(仁祖)은 1월 17일 後金의 침입사실을 접하고 重臣회의를 열어 兵曹判書 張晩을 都體察使에 임명하였으며, 勤王의 병사를 모으기 위하여 신하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張晩은 平山에서 진을 치고 있었으나 平壤·黃州가 함락되면서 開城으로 후퇴하였다. 화급한 전황에 대하여 조정은 宮城을 退去할 것을 논의하여 領中樞府事 李元翼·左議政 申欽 등은 世子를 모시고 全州로 南下하고 仁祖는 朝臣을 거느리고 大妃·妃와 함께 江華로 피병하였다. 이에 後金軍은 서울에 침입하여 분탕을 자행하였으므로 여러 창고의 저장품이나 식량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後金의 침입에 대항하여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다. 당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鄭鳳壽·麟壽 兄弟와 李立이었다. 정봉수는 縣監으로서 龍骨山城에서 적을 물리쳤으며 李立은 訓練判官을 거쳐 少爲浦의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後金은 조선에 침입하면서 곧바로 和議를 요청하였다. 뒤에 平安監司 尹暄이 後金의 國書를 騰書하여 조정에 보고했는데 이때 조정은 和議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明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後金의 침입을 明에 보고하려고 하였다. 後金의 국서가 정식으로 발송된

것은 그들이 黃州를 점령한 뒤였으며 이 국서에서 後金이 조선에 침입한 이유를 7개항으로 적고 있다. 이에 仁祖는 晉昌君 姜綏을 回答使로 後金의 진영에 보냈다. 姜綏이 가지고 간 國書에는 後金의 침입을 힐난하고, 조선이 화의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明과 오랜동안 관계를 계속하는 事大交隣의 道를 강조하였다. 이에 金은 副將 劉海로 하여금 姜弘立·朴蘭英과 더불어 江華에 이르렀다. 仁祖가 劉海를 접견했을때 그의 태도가 오만하여 화의는 20여일 지연되다가 3월 3일 드디어 합의를 보게 되었다. 화의교섭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朝鮮의 對明關係였다. 後金에서는 조선이 明과 국교를 끊고 明의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朝鮮은 後金과 화의를 하되 明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後金에 보내는 국서에는 어느 나라의 연호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后金·조선은 서로 兄弟之國으로 상호 침범하지 않으며 後金軍은 平山 이남으로 진출하지 않고 곧 철병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後金이 요구한 물자에 대해서는 임시 禮幣를 보내고 歲幣의 액수를 정하였다. 임시의 예폐는 木綿 15,000疋 등 7개 품목으로 돈 20만兩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丁卯年 이후의 歲幣額은 목면 7,000疋을 비롯한 각종 織物을 합하여 24종이었으며 돈으로는 12만兩 이상에 달하였다. 後金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점차 증액을 요구하여 1636년에는 돈으로 18만兩이 넘는 물품이 되었다. 後金軍의 철병은 화의를 맺은 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조의 서울 환도는 화의 후 40일이 되어서 었다. 화의는 이루어졌으나 전쟁과 약탈에 의하여 국력의 피폐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정묘호란은 쌍방간의 화약으로 兄弟之國이 되면서 끝을 맺었으나 이 화의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崇明排金의 관념이 매우 심한 분위기에서, 오랑캐인 後金과 굴욕적인 화약을 맺었고 더욱이 국토유린과 국력의 피폐를 당하면서 兄弟關係를 맺음은 원래부터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后금의 입장에서 당초의 목적이었던 毛文龍 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조선이 형식적으로는 後金과 兄弟의 의를 맺었으나 明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었다. 실제로 모문룡의 군대는 1628년 8월 조선에 온 后금의 사신을 죽이려한 사실이 있었으며 後金의 將軍 劉海가 자살을 가장하여 毛의 진영에 투항하는 등 後金으로서는 매우 귀찮은 존재였다. 이와는 달리 조선에 대한 毛의 軍兵의 작폐는 매우 심하였다. 200여명의 군사가 黃海道 豐川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婦女를 능욕하는가 하면 平安道 義州를 비롯하여 碧潼 등 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또 조선에 대한 그의 식량·물자요구가 심하여 조정에서는 거기에 응하기 위하여 토지에 附加稅까지 징수하여야 했다.

後金은 공식적인 禮幣·歲幣 이외에도 開市에 의한 교역과 수시의 요구로 물자를 얻었다. 胡亂 다음해 2월에 中江에서 開市하고 그해 10월에 咸鏡道 會寧에서 무역을 행하였다. 後金은 1년에

3차례 中江에서 교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로 정하였다. 개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만주상인의 약탈무역이었으며, 中江무역에서 이익을 본 後金은 會寧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朝鮮은 會寧의 개시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드디어 그해 10월에 개시하였다. 이들 개시 이외에 瀋陽에 使臣이 왕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교역이 행해지고 潛商에 의한 密貿易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단속하는 일이 두나라의 분규의 대상이 되었다. 양국간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犯越·刷還 등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후금이 조선에 대하여 강박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1632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後金은 朝鮮에 침입한 다음 해에 內蒙古의 察哈爾(차하르)部를 공격하고 太宗이 이를 親征(1632)하여 後金은 만주와 내몽고의 全域을 차지하여 北京경략의 실현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가 後金으로 하여금 朝鮮에 대하여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太宗은 朝鮮의 秋信使가 가지고간 예물을 받지 않고, 또 後金의 使臣을 接하는 朝鮮의 大小官員의 禮를 明의 사신을 접하는 禮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兄弟之盟에 만족하지 않고 君臣之義를 요구하였다. 그 밖에 세폐로서 金 100兩, 銀 1000兩, 각종 織物 12,000疋 등 막대한 量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세폐를 감액하려고 교섭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²⁴⁾

1635년 後金은 차하르지방을 평정하여 영토를 넓히고 元朝의 傳國의 玉璽를 얻으므로 해서 中國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구실로 이용되었다. 1636년 봄에 龍骨大·馬夫大 등은 몽고의 諸將과 동행하여 조선에 와서 後金의 汗에게 尊號를 올릴 것이니 조선도 臣從하라고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大司諫 鄭蘊은 大義를 밝혀서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며 또 掌令 洪翼漢을 비롯하여 儒生들은 後金의 사신을 배이고 斥和할 것을 주장하여 仁祖도 後金의 국서를 받지 않고 그 사신들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그 사신들은 사태가 험악함을 알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朝鮮의 조정은 8道에 下敎하여 忠義의 兵을 모집하며 義州를 비롯한 西道에 병기를 보냈다. 이해 4월 後金은 國號를 淸으로 고치고 年號를 崇德으로 改元하고 汗은 寬溫仁皇帝라는 尊號를 받았다. 淸 太宗은 국서에 大清皇帝라 하고 朝鮮을 爾國이라고 하였으며 11월에는 朝鮮의 사신에게 王子·大臣과 斥和論者들을 入送하지 않으면 출병하겠다고 위협하였다.

1636년 12월 淸 太宗은 드디어 조선에 침입하였다. 그는 別軍으로 遼河 방면을 지켜 明軍이 海路로 조선을 지원하는 것을 막게 하여, 스스로 禮親王 代善·睿親王 多爾袞(九王)·豫親王 女鐸·貝勒·岳託·豪格 등을 거느리고 滿洲족·몽고족·漢人으로 이루어진 10만의 대군으로 원정의

24) 《淸太宗實錄》권 12, 天聰 6年 11月 壬子, 《仁祖實錄》권 27, 仁祖 10年 11月 辛亥條.

길에 올라 9일에는 압록강을 건넜다. 淸의 침략 동기는 조선이 盟約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問罪한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목적은 朝鮮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복종시켜 후일 淸이 明에 대신하여 중국을 지배할 경우 후환이 없도록 하는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있었다. 淸軍이 압록강을 도강하였을 때 義州府尹 林慶業이 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하고 있었으므로 淸의 先鋒 馬夫大는 이 길을 피하여 서울로 직행하였다. 都元帥 金自點의 馳啓로 적이 침입하여 이미 安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서둘렀다. 14일에는 承旨 韓興一에게 廟社의 神主를 모시고 江華로 향하게 하고 判尹 金慶徵을 檢察使에, 副提學 李敏求를 副使로 정하여 世子嬪 姜氏·元孫·鳳林大君·麟坪大君을 陪護하여 강화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江華留守 張紳은 舟師大將을 겸하여 강화를 방비케 하고 沈器遠을 留都大將으로 정하였다. 仁祖도 江華로 갈려고 南大門을 나서려 했으나 이미 賊兵이 良鐵坪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는 水口門으로 나와 南漢山城에 이르렀는데 世子도 동행하였다. 다음날 새벽 王은 다시 강화로 향하였으나 山路가 험한데다가 얼어 붙어서 도저히 갈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다. 淸軍의 선봉은 이미 16일에 南漢山城에 이르고 청 태종도 이듬해 정월 1일 山城 아래인 炭川에 이르러 청군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조선측에서는 援兵이 와서 城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을 공격해 주기를 바랐으나 都元帥·副元帥의 軍과 8道の 監·兵使의 軍도 대개 도중에서 적과 접전하여 흩어졌으며 그중에서 全羅兵使 金俊龍의 군사가 龍仁에서 敵將을 죽이고 기세를 올렸으나 다시 역습을 당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또 민간에서 義兵도 일어났으나 거의 무력하거나 진군도중 和議가 이루어져 쓸모없이 되었다. 마지막 기대였던 明의 援兵도 끝내 오지 못하였으므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조정 대신들 사이에는 和·戰의 兩論이 대립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점차 화의에 찬성하는 자가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강화가 함락되자 仁祖는 항복을 결심하고 1월 30일에 出城하여 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항복조건은 (1) 淸과 朝鮮은 君臣의 義를 맺으며 (2) 明의 年號를 버리며 國交를 끊고 明에서 받은 誥命冊印을 淸에 바치며 (3) 仁祖의 長子와 다른 一子 및 大臣들의 子弟를 인질로 하며, (4) 淸의 正朔을 받고, 萬壽·千秋·冬至·元旦과 그 밖의 慶弔時에 貢獻을 행하며 使臣을 보내어 奉表하되 이들 儀節은 明과의 舊例와 같이 하고……등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특히 13번째 조항은 歲幣의 내용인 바 黃金 100兩, 白銀 1,000兩, 水牛角弓面 200副, 好大紙 1,000卷, 好小紙 1,500卷, 豹皮 100張, 水獺皮 400張, 鹿皮 100張, 靑黍皮 300張, 茶 1,000包, 胡椒 10斤, 蘇木 200斤, 好腰刀 26把, 順刀 20把, 五爪龍文簾席 4張, 雜彩花席 40張, 白苧布 200匹, 各色綿紬 2,000匹, 各色細木綿 10,000匹, 各色

細麻布 400匹, 麻布 1,400匹, 米 1000包로 너무나 엄청난 物量이었다. 이는 丁卯亂後 朝貢額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丁卯·丙子胡亂中 諸道에서는 의병과 義糧 모집이 상당히 활발하였는데, 敵이 점령한 關西地方은 물론 三南地方도 그러하였다. 都體察使 李元翼과 左議政 申欽의 馳啓에 ‘號召義兵에 三南의 士子들이 혹은 의량을 모집하고 혹은 義兵을 일으키고 私儲를 捐出하여 軍餉을 보충하니 忠義는 가히 본 받을 만하다’²⁵⁾고 한데서 그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丁卯胡亂時 1월말부터 2월에 걸쳐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後金軍의 배후를 교란시켰다.

慶尙道の 경우 민간에서 의병이 꺾기하였는데, 金湜會는 의병을 일으켜 驪州에서 退走하는 慶尙監司 沈演軍과 더불어 烏·竹嶺間에 潛行하였다가 淸兵이 내습한다는 訛傳으로 逃散한 것 같다. 그러나 慶尙道號召使 鄭經世·張顯光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듯하며 특히 鄭經世의 경우 義穀應募人別單을 書啓한 功으로 該當 六曹의 依例에 따라 論賞케 했던 것이다.²⁶⁾ 당시의 募兵·募粟 등에 있어서 가급적 강제성을 띠지 말도록 號召使幕府에서는 各州 縣으로 公文을 보냈다. 그러나 모병·모속 軍器수습 등에 있어서 뚜렷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丙子胡亂 때에 仁祖의 勤王兵號召에 응해 諸道の 監司·兵使가 거느린 軍이 올라갔으나 淸監司 鄭世規의 軍은 險川에서 敗沒하여 尼城縣監 金弘翼, 藍浦縣監 李慶 등이 戰死하고 全羅兵使 金俊龍은 龍仁 光教山에 이르러 한때 勝捷을 올렸으나, 후에 역습을 당하여 水原으로 후퇴하니 全軍이 潰散되었다. 이때 慶尙道 左兵使 許完, 慶尙右兵使 閔楳의 軍도 慶州의 雙嶺에서 潰沒당하여 두 兵使 모두 전사하였다. 경상우병사(閔楳)가 戰死할 때 尙州 營將 尹汝任, 安東營將 宣世綱 등도 함께 戰死하였던 것이다.²⁷⁾

胡亂은 丁卯·丙子の 兩次에 걸쳐 일어났으나 모두 기간이 짧았고 戰亂의 범위도 漢江유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大丘·慶尙地域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戰亂중 본 지역 출신의 人物들이 많은 義烈을 보인것은 각종 자료에서 찾아진다.

두 차례의 胡亂에 활약한 大丘·慶尙道 人物로는 먼저 尙州出身의 晉昌君 姜綱이 있다. 그는 丁卯년 2월 金에의 回答使로 선정되었는데 바로 姜弘立(明이 遼東을 침범한 後金을 토벌할 때 明의 요청으로 보낸 조선원병의 도원수이자 부차에서 패전 전군을 이끌고 後金군에 항복

25) 《仁祖實錄》 권 15, 仁祖 5年 3月 丁亥條.

26) 위의 책, 권 16, 仁祖 5년 5월 壬戌條.

27) 위의 책, 권 34, 仁祖 15年 3月 丙申條.

하였다가 정묘호란시 後金軍의 先導로서 입국하여 江華에서의 화의를 주선한 人物)의 叔父였다. 따라서 조정은 姜綱을 金의 진영에 왕래하게 하면서 강화교섭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같은 尙州出身의 鄭經世는 壬亂때 兵을 모집하고 功을 세워 修撰이 되고 거듭 승진하여 仁祖 4년에는 大司憲이 되었다. 仁祖 5년에 胡亂이 일어나자 급히 환궁하여 號召使로서 兵糧의 모집에 전력을 다하였다. 義城出身의 申達道는 丁卯胡亂時 正言으로 仕宦하면서 ‘戰亂時에는 人心의 安定이 艱요함’을 論하고 戰局을 타개할 方策까지도 제시하였다.²⁸⁾ 慶州出身 金宗一은 持平으로, 巡察使從事官으로 활약하였으며 尙州出身 全湜은 副提學으로서 활약하였으며 또한 義兵을 일으켜 방어에 전력을 기우렸다. 이에 대하여 仁祖는 극구 칭찬해 마지 않았다.²⁹⁾ 같은 尙州出身의 盧峻命은 병자호란때 南漢山城에 扈從했다가 강화후 正言이 되어 金瑬·尹昉을 탄핵하다가 파면되고 俞伯曾을 구출하려다 파직되었다. 安東出身 南礪은 당시 司嚮院 參奉으로 王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고 《亂離日記》를 통해 당시 淸의 조선침입상황을 기록하였다.

壬辰亂때와 마찬가지로 丁卯·丙子胡亂때에도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 동기는 官軍의 敗退로 수습하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보자는데 있었다. 의병은 적의 침투지역 뿐만 아니라 그 후방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적의 침투지역에서는 직접 적과 싸워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자는 것이었으며 후방지역에서는 召募한 의병을 한곳에 집결시켜 官軍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란중의 의병활동은 왜란시에 비해 그 규모나 활동영역·성과의 면에서 매우 격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敵의 速戰으로 국왕이 피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 단시일내에 항복해 버림으로써 의병이 항거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았던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丁卯胡亂때에는 關西地方에서 상당한 의병이 활동하였다. 丙子胡亂때에는 嶺南·湖南地方을 중심으로 한 下三道에서 모병활동이 전개되었으나 仁祖가 城下의 盟으로 實戰에는 거의 참가하지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下三道의 후방지역에서는 모병·모속 등의 의병활동이 의병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여러지역에서 전직관료가 중심이 되어 募義作業이 진행되었으며 敵을 참살하는 등 적의 후방을 교란시켰다. 大丘·慶北地方을 중심으로 舉義活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大丘出身의 都慶俞³⁰⁾는 丁卯胡亂때 世子를 호종하고 亂이 끝난 뒤 義禁府都事 平壤庶尹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도관찰사 沈演의 從事官이 되어 雙嶺싸움에서

28) 앞의 책, 권 15, 仁祖 5年 正月 辛卯條.

29) 《大丘邑誌》, 全湜.

30) 위의 책, 號沽蔭 師事孫慕堂 仁廟朝才行薦官 至平壤庶尹 有表 賞賜諭旨 以丁卯扈從一等勳 贈左承旨.

右營의 火藥庫가 폭발되어 패배하였다. 그 죄로 말미암아 유배가게 되었으며 가는 도중에 죽었다. 뒤에 화약고 폭발이 그에게 처형당한 裨將 朴忠謙의 아들이 분풀이로 한것임이 밝혀져 左承旨에 追贈되었다.

崔東巢는 정묘호란때 왕세자가 全州에서 軍을 巡撫하고 議論하여 晋州로 轉向하고자 하거늘 公이 鄉人으로 더불어 倡義하고 軍兵을 소집하여 장차 八良嶺에서 迎送함에 모든 계획을 주관하였다. 병자호란후 鳳林大君이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갈 때 公을 師傅로 삼아 陪從하게 되었으나 미처 봉림대군을 따라가지 못함에 통곡하고 고향에 돌아와 八公山 龔淵위에 들어가 평생을 나오지 않았다. 朴樹春도 병자호란때 檄書를 사방에 띄워 의병을 일으켰다. 孫遜³¹⁾(號 聞灘)은 張旅軒에 師事하였고 鄭愚伏과 도의의 벗이 되었다. 學行이 세상의 추앙하는 바 되었으며 丁卯胡亂때 창 의하였다. 文科에 급제하여 正郎에 올랐다. 蔡先吉(號 琴灘)은 應麟의 아들로 정묘호란에 의병장이 되었고 佐郎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임진왜란때 倭軍으로 들어와 귀화한 金忠善은 병자호란때 胡兵이 서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달려 廣州 雙嶺陣에 이르러 군사 150명으로 敵과 싸워 수많은 적을 무찔렀다. 그러나 얼마안되어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접하여 칼을 던지고 통곡하였다.³²⁾

大丘이외지역 출신의 활동을 보면, 먼저 義城出身 李民寔은 慶尙左道 의병장이 되어 활약하였으며 곧 全州로 가서 王世子를 만나 兵餉에 贊劃한 바 많았다. 같은 지역의 李民寔은 정묘호란때 임금을 호종하고 1936년 병자호란때에는 嶺南號召使 張顯光의 從事官이 되어 참전하였다. 光海君 10년 平安道 觀察使로 있을 때 明나라의 援兵要請이 있자 元帥 姜弘立의 幕下로 출전하였다. 富車싸움에서 패하여 淸軍의 포로가 되었다. 17개월동안 유배되어 있으면서 항복을 거부하다가 1620년 석방되어 義州에 이르렀을 때 私怨으로 인한 朴燁의 무고를 받아 4년간 關西地方에 은거해 있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서울에 올라와 李适의 亂 및 丁卯胡亂時 임금을 扈從하였다.

李弘祚는 丙子胡亂에 安東人士들이 그를 추대하여 義兵將을 삼으니 鄉兵을 모아 嶺南義兵將 金湜과 함께 서울로 진격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해산했다.

柳元之는 柳成龍의 孫자로 그의 外從 李弘祚가 本府義兵將으로 있는데 일이 草莽함이 많으므로 그가 참가하여 계획수립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戚繼光의 《紀効新書》에 의해 옛 제도를

31) 위의 책, 孫遜 참조.

32) 金忠善은 뒤에 大邱友鹿山中에서 一生을 마쳤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慶尙北道 達城郡 嘉昌面 友鹿洞으로 鹿洞書院이 건립되어 있으며 후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加減하여 그 용도를 편리하게 하였다.

安東出身의 柳元慶은 나라의 위급을 구하기 위해 家僮 100여명을 모집하여 죽기를 각오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金垓·安朔漢·洪成海도 안동출신으로 家財를 기우려 軍糧을 助力하고, 모은 군량을 江都로 운반하고, 義兵을 모집하여 적진을 향했으나 강화가 이루어짐에 되돌아오게 되었다. 榮州出身 朴檜茂는 정묘호란시 義禁府都事로 王을 江華에 扈從하고 斥和를 주장했으며 丙子亂에는 의병을 일으켜 출정하였으나 화의가 성립되어 두문불출로 여생을 보냈다.

한편 慶州地方의 崔震立은 壬辰倭亂때 동생 繼宗과 함께 의병에 從軍하여 功을 세우고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결사대를 이끌고 西生浦의 왜군을 공격하였으며 權慄을 도와 島山싸움에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丙子年에 體察使 金瑬가 別將으로 하였다가 다시 公州營將으로 옮겨지자, 胡亂이 일어나 仁祖가 南漢山城에 포위당함에 忠淸監司 鄭世規가 그의 年老함을 민망히 여겨 落後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鄭世規의 軍보다 먼저 南漢山城 30里인 龍仁險川에 다다라 勇戰하다가 戰死하였다. 그의 문집인 《潛窩先生實紀》권 3〈海東名臣錄〉에 보면 “丙子年 조정에서는 南으로 침로하는 적의 우려가 있어 公으로써 公州營將을 삼았다. 있는 지 두어 달만에 南漢에서 에움을 입었으므로 감사 정세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임금의 조난에 달려가려 할세 公의 나이 늙었음을 민망히 여겨 黃珀으로써 대신하게 하니, 公이 태연히 이르기를 ‘내 늙어서 將帥에는 감당하지 못할지나 능히 가는 데는 감당할지라’ 하고 드디어 눈물을 뿌리고 쫓아가니 곁에 사람들이 그로하여 감동하였다. 龍仁 險川에 이르러 감사는 뒤에 있고 公은 앞에 있는데 철기의 형세가 風雨같아 군중에 사람기색이 없어졌다. 公은 곳곳이 서서 움직이지 않고 쏘는데 헛 나가지 않더니, 화살이 다 되자 쫓은 자들을 돌아 보고 이르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쫓아 죽지말라. 나는 여기서 한치도 떠나지 않고 죽으리니 너희는 그 기억하라’ 일이 정해지자 여러 아들들이 그곳에서 公의 屍體를 얻었는데 화살이 모였기 고슴도치털 같았고 낮은 살았는 듯 하였다. 죽을 때 나이 69歲라.”하여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孔家老는 利川에서 慶尙左道兵馬節度使 許完의 휘하에 들어가 雙嶺싸움에서 적의 포위공격을 당해 戰死하였으며 그의 奴 億夫도 함께 戰死하였다. 또 朴弘斗는 二叔 杰烈과 더불어 義兵을 일으켜 쌍령으로 달려가 전사하였으며 張震龍도 쌍령에서 戰死하였다.

星州의 李天封은 丁卯胡亂 때 星州地方의 의병을 장악하였으며 적이 물러가자 벼슬을 내놓고 두문불출했으며 崔恒慶은 병자호란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命하여 高靈 義兵所에 나가 싸우게 하였으며 강화의 소식을 듣고 感憤하여 詩를 지어 남긴 바 있다.

II. 胡亂의 收拾과 그 影響

丁卯·丙子の 胡亂은 倭亂에 버금갈만큼 조선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다. 胡亂時 後金(淸)軍이 조선에 머문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하였지만, 침입당시 조선인에 대한 殺戮·掠奪 등 갖은 만행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다만 그 전투—실제로 전투다운 전투를 전개하지도 못했음—지역이 漢江流域이었으므로 大丘地域은 직접적인 전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丁卯胡亂은 禮成江부근에서, 丙子胡亂은 麻喜川(龍仁郡 慕賢面) 및 雙嶺(廣州郡 草月面) 등지에서 주로 전투가 있었으며, 여기에 慶尙道 出身의 義兵들이 많이 참전하여 功을 세우며 혹은 戰死하기도 했다. 이것은 慶尙道の 義烈精神을 잘 나타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胡亂後 對淸關係에는 北伐論과 羅禪征伐이라는 두 가지 狀況이 전개된다. 淸이 入關하고 明에 대신하여 中國을 지배하게 되면서 朝鮮과 淸과의 관계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淸이 中原에 진출한 후 경제적·군사적으로 前처럼 朝鮮을 강압할 필요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淸의 태도가 곧 완화되지는 않았으며 조선의 입장에서조차 淸에 대한 적개심은 여전히 전하였다.

仁祖를 이어 즉위한 孝宗(1649~1659)은 청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仁祖의 次嫡으로서 前後 8년에 걸쳐 瀋陽에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기 때문이었다. 孝宗이 즉위하면서 北伐策을 강구한 것은 이에 연유하는 바 크다. 북벌책에 적극 찬동한 宋時烈은 주자학의 입장에서 南宋의 朱子가 만주족인 金에 대해서 反感을 가졌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효종을 보필하고자 했다. 이에 孝宗은 賓師의 예로써 송시열을 대하였고 反淸復明의 뜻을 같이하여 貂皮의 가죽옷을 그에게 下賜하기도 했다.

孝宗은 北伐을 위해 먼저 御營軍을 增置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孝宗은 이를 강행하였다. 또 孝宗은 城池를 수축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면서, 이는 왜구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붙였던 것이다.

孝宗의 이와 같은 준비도 淸의 출병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북벌이 어렵게 되었다. 즉 淸은 羅禪(러시아) 征伐에 조선의 군대를 요구했던 것이다. 滿洲는 본래 淸의 발상지로 특별히 중시되는 지역이었는데, 15세기 후반 이래 러시아가 세력을 키워 시베리아·黑龍江 유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청은 이를 물리치려 했으나 오히려 敗하게 되자 조선에 援兵을 요구하게 되었다.

1次 援兵은 孝宗 5년(1654) 3월 26일 두만강을 건너 寧古塔으로 향하여 4월 28·29일에 러시아軍과 접전하여 그들을 敗退케 하였으며, 2次 援兵은 孝宗 9년(1658) 5월 두만강을 건넜고

6월에 黑龍江 합류점에 이르렀다. 여기서 러시아의 스테파노프 船隊와 만나 격전하였으며 전과를 올렸다. 두 차례에 걸친 羅禪征伐은 효종의 북벌계획 준비와 연결된 사건으로서 러시아軍과 역사상 처음으로 교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朝淸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定界問題였다. 定界碑는 淸側이 거의 일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양국간의 정치적 문제로 남았으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懸案問題라 할 수 있다.

또 朝淸間 朝貢問題는 양국의 唯一한 公的 關係였다. 入關後 양국의 조공관계는 외면상 우호적인 관계였으며, 청의 정치적·경제적 욕구도 시대의 추이에 따라 완화되어 갔다.

조선은 청과의 使臣往來에서 그들의 學術思想도 들여오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明이 조선에 원병을 보내면서 慕華思想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청이 中國을 지배하게 되면서도 초기에는 이들은 夷狄視하였지만 그들이 經世致用의 學 및 考證學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英·正朝代의 전반적 학풍은 淸의 영향 또는 자극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조선의 實學은 淸代學術의 단순한 모방이거나 再生이 아니었으며 나름의 독특한 연구분야와 내용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 대청관계하에서 大邱地域도 국가적 차원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조선후기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